

KINU 연구총서 12-05

#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 임순희 · 조정아 · 송정호



KINU 연구총서 12-05

#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 교 덕 · 임 순 희 · 조 정 아 · 송 정 호

##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인 쇄 2012년 12월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도서출판 오름 (02-585-9122, 3)

ISBN 978-89-8479-663-8 93340

가 격 ₩13,000

©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요약 .....	xi
<b>I. 서론 .....</b>	<b>1</b>
1. 연구목적 .....	3
2. 연구방법과 연구보고서의 구성 .....	6
<b>II. 권력엘리트 이론과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적용 .....</b>	<b>13</b>
1. 권력엘리트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5
2. 개혁·개방 시기 사회주의체제의 권력엘리트 변화 .....	27
3. 북한의 권력엘리트 분석 모델 .....	59
<b>III.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본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b>	<b>81</b>
1.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	83
2. 중앙위 위원·후보위원의 네트워크 .....	98
3. 주요 기관별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	128
4. 상위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 .....	151

##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IV. 상호접촉으로 본 엘리트 네트워크 .....	179
1. 김정일시대 엘리트 네트워크 .....	184
2. 김정은시대(2012.1~2012.7) 엘리트 네트워크 .....	221
3. 엘리트 네트워크의 변화와 지속성 .....	234
V. 신진 권력엘리트 .....	251
1. 김정일정권의 권력엘리트 .....	253
2. 김정은정권의 권력엘리트 .....	261
3. 세대교체와 신진 권력엘리트의 주류 .....	273
4. 신세대의 경향과 지향 .....	283
VI. 결론 .....	287
참고문헌 .....	299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11

# 표 목차

<표 II-1>	중국 개혁파와 보수파의 정책 논쟁 .....	38
<표 II-2>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의 형성과정 .....	52
<표 II-3>	베트남 개혁·개방 초기의 당 정치국 위원 구성 ·	55
<표 III-1>	성별 분포도 .....	84
<표 III-2>	연령대별 분포도 .....	85
<표 III-3>	출신지역별 분포도 .....	87
<표 III-4>	출신학교별 분포도 .....	88
<표 III-5>	중앙위 위원·후보위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	93
<표 III-6>	정치국 상무위원 .....	130
<표 III-7>	정치국 위원 .....	131
<표 III-8>	정치국 후보위원 .....	134
<표 III-9>	당 비서 .....	136
<표 III-10>	당 전문부서 부장 .....	138
<표 III-11>	최고인민회의 주요 인물 .....	142
<표 III-12>	내각 총리 및 부총리 .....	143
<표 III-13>	중심성: 직연 .....	165



##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표 III-14> 중심성: 연고(지연·학연·직연) .....	171
<표 III-15> 주요 인물 경력 .....	175
<표 IV-1> 1시기 현지도도를 통한 상호접촉 횟수 .....	185
<표 IV-2> 1시기 인물별 중심성 .....	194
<표 IV-3> 2시기 현지도도를 통한 상호접촉 횟수 .....	198
<표 IV-4> 2시기 인물별 중심성 .....	207
<표 IV-5> 3시기 현지도도를 통한 상호접촉 횟수 .....	209
<표 IV-6> 3시기 인물별 중심성 .....	220
<표 IV-7> 4시기 현지도도를 통한 상호접촉 횟수 .....	223
<표 IV-8> 4시기 인물별 중심성 .....	232
<표 IV-9> 시기별 네트워크 밀도 및 집중도 .....	241
<표 IV-10> 주요 인물 시기별 위세중심성 .....	244
<표 IV-11> 시기별 위세중심성 상위 인물 평균 연령 .....	248
<표 IV-12> 소속별 위세중심성 상위 10위 인물의 평균 위세중심성 .....	249
<표 V-1> 제3차 당 대표자회 전후 당의 고위직 변화 .....	259

# 표 목차

<표 V-2>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	260
<표 V-3>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262
<표 V-4>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263
<표 V-5>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265
<표 V-6>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265
<표 V-7>	당 중앙위원회 부장	266
<표 V-8>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267
<표 V-9>	국방위원회 구성원 변화	268
<표 V-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원 변화	270
<표 V-11>	내각 구성원 변화	271
<표 V-12>	전·현직 고위간부의 2세 현황	278

# 그림 목차

KINU 연구총서 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그림 Ⅲ-1> 출신지역 .....	154
<그림 Ⅲ-2> 출신학교 .....	155
<그림 Ⅲ-2-1> 출신학교-당 .....	156
<그림 Ⅲ-2-2> 출신학교-군 .....	156
<그림 Ⅲ-2-3> 출신학교-국가기구 .....	158
<그림 Ⅲ-3> 직장경력 .....	159
<그림 Ⅲ-3-1> 직장경력-국가기구 .....	160
<그림 Ⅲ-3-2> 직장경력-당 .....	160
<그림 Ⅲ-3-3> 직장경력-군 .....	162
<그림 Ⅲ-4> 3개 연고 .....	167
<그림 Ⅲ-4-1> 3개 연고-당 .....	168
<그림 Ⅲ-4-2> 3개 연고-국가기구 .....	169
<그림 Ⅲ-4-3> 3개 연고-군 .....	170
<그림 Ⅳ-1> 1시기 주요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188
<그림 Ⅳ-2> 1시기 당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189
<그림 Ⅳ-3> 1시기 군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190
<그림 Ⅳ-4> 1시기 국가기구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191
<그림 Ⅳ-5> 2시기 주요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200

# 그림 목차

<그림 IV-6> 2시기 당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201
<그림 IV-7> 2시기 군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202
<그림 IV-8> 2시기 국가기구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205
<그림 IV-9> 3시기 주요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212
<그림 IV-10> 3시기 당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214
<그림 IV-11> 3시기 군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216
<그림 IV-12> 3시기 국가기구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218
<그림 IV-13> 4시기 주요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225
<그림 IV-14> 4시기 당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227
<그림 IV-15> 4시기 군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228
<그림 IV-16> 4시기 국가기구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230
<그림 IV-17> 1시기(2003.9~2008.8) 전체 현지도 수행자 네트워크 구성도 .....	236
<그림 IV-18> 2시기(2008.9~2010.9) 전체 현지도 수행자 네트워크 구성도 .....	237
<그림 IV-19> 3시기(2010.10~2011.12) 전체 현지도 수행자 네트워크 구성도 .....	238
<그림 IV-20> 4시기(2012.2~2012.7) 전체 현지도 수행자 네트워크 구성도 .....	239

## 요 약

I. 김정은체제가 빠른 시일 내에 탄탄하게 구축되고 앞으로 안정성있게 유지되느냐는 그를 둘러싼 상층 권력엘리트들이 얼마나 단합하여 지원하는가에 달려있다. 권력엘리트들의 단합 또는 분열은 김정은체제의 착근 또는 안착 여부, 그 안정성에 있어서 핵심 변수이다. 김정은체제의 안정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서 북한 권력엘리트의 갈등을 분석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는 정책경향모델, 관료정치모델, 파벌주의-권력모델, 후원자-추정자 관계모델 등이 있다. 이 모두는 개혁·개방과정에서 정책과 노선을 둘러싼 권력엘리트 상호 간 분화와 이합집산의 동기와 그 결과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이 모델들을 염두에 두고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특징과 구조, 상호네트워크 등을 분석한다.

II. 2010년 9월 28일에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선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를 보면 남성이 절대 다수이며, 연령대로는 70대, 출신지역으로는 평안도, 출신학교로는 김일성종합대학이 가장 많다. 인구사회학적 분포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권력엘리트의 고령화와 권력의 지속성, 절대 다수 남성 중심의 권력구도 등으로 집약된다.

또한 세대연고, 지역연고, 학교연고, 혈통연고, 직업·장연고, 측근연고 등을 통해 본 중앙위 위원·후보위원의 네트워크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항일빨치산 1세를 비롯한 혁명 1세대의 퇴조와 3·4세대의 부상, 특정지역 출신의 상대적 우위, 권력엘리트의 분야별 전문성, 권력의 응집성 등이다. 노동당과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각 기관별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로는 정치국의 노령화, 출신지역(평안도·함경도) 및 출

신학교(김일성종합대학·만경대혁명학원)의 편중, 항일빨치산 2세를 비롯한 혁명 2세대·3세대의 약진, 주요 직책의 겸직과 권력의 중첩성 등이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제3차·제4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국가기구·군 등의 권력기관에서 요직을 맡아 했거나, 또는 맡아 하고 있는 인물 52명을 대상으로 상위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절대 다수가 남성(50명)이며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연령대는 70대가 가장 많고 총 52명 가운데 70대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써 상위 권력엘리트의 고령화를 나타낸다. 출신지역으로는 평안도와 함경도가 가장 많으며 출신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이 가장 많다.

그리고 연고 및 권력(주요 직책)의 중첩성, 권력의 지속성 등을 보면, 특히 60대의 권력엘리트들 가운데 권력의 집중성이 높은 인물은 장성택, 김경희, 그리고 최룡해이다. 장성택, 김경희, 최룡해 등 세 인물은 연고(지연·학연·직연) 및 권력(주요 직책)의 중첩성·지속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백두혈통’, ‘항일빨치산 혈통’ 등의 연고로 권력의 집중성이 더 높아진 인물들이라 하겠다.

Ⅲ. 최고인민회의의 11기 기간인 2003년 9월부터 김정일 건강 악화 시기인 2008년 8월까지를 1시기, 김정일 와병기간인 2008년 9월부터 김정은이 대중 앞에 공식 등장하기 이전의 과도기를 2시기,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개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기까지를 3시기, 김정일 사후부터 2012년 7월까지를 4시기로 구분하여 현지도도 수행을 통해 형성되는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네트워크의 구성 및 응집력 측면에서 보면, 1기와 2기에는 엘리트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을 특징으로 한 김정일 직할통치가

이루어진 반면, 3기와 4기에는 김정은과 일정 정도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다수의 엘리트집단이 존재하는 현재의 권력지도가 완성되었다. 네트워크 밀도는 3시기와 4시기에 증가된 반면, 네트워크 집중도는 2시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시기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김정은시대 들어 더욱 감소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쓰러졌다가 활동을 재개한 이후부터 김정은의 현지도 수행이 공개되기 전까지의 위기 상황에서는 엘리트들이 김정일 1인을 중심으로 강하게 응집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후계자가 대중적으로 공개되고 본격적인 권력이양이 이루어진 시기에는 김정은 이외에 장성택을 비롯하여 최룡해, 김경희, 박도춘, 김영춘 등과 같이 네트워크의 또 다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 부각되었고, 이들과 여타 엘리트들 간의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집중도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 것이다.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의 변화 추이를 종합하면, 김정은시대에 엘리트 간의 응집력이 보다 커졌으며, 그 구심점에는 최고지도자 1인뿐만이 아니라 장성택, 최룡해와 같은 특정 엘리트들의 연합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높은 위세중심성을 기록한 엘리트들의 시기별 변화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엘리트들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것이다. 4시기에 현지지도를 수행한 주요 엘리트 30명의 평균 연령은 실제로는 70세 미만으로, 김정일시대와 비교해볼 때 5세 이상 낮아진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특히 군부를 중심으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 군, 국가기관 소속별 엘리트의 위세중심성 정도도 시기별로 달라졌는데, 전반적으로는 모든 시기에 당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군이나 국가기관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특히 2시기와 3시기에 당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김정일의 건강 이상이 가시화된 직후인 2시기와 김정은체제 구축을 위한 과도기인 3시기에 당 소속 인물들의 역할이 다른 시기에 비해 중요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4시기에는 당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 대비 군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각 시기 중 가장 높게 나타나, 김정은체제 초기에 군 관련 현지도 활성화를 통한 군 계통의 장악이 중요한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IV. 김정은정권이 공식 출범한 뒤 새롭게 떠오르는 신진 권력엘리트들은 별로 없다. 물론 장성택, 최룡해, 김원홍, 리명수, 현영철, 조연준 등 권력무대에서 더욱 존재감을 과시하는 인물이 있는 반면, 리영호, 우동측 등 무대에서 사라진 인물들이 있는 등 인물에 따라 부침은 있으나 김정은정권에서의 새로운 권력엘리트 지형으로 지적할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구축해놓은 권력엘리트 구성을 당분간 무너뜨릴 수 없는 김정은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과거계승성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인사를 하기에는 권력승계 기간이 아직 짧은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정은정권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세대교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세대교체로 새로 임명되고 부상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2세들이고 또 한 부류는 보안계통 인사들이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개된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새로 선임된 당 비서·부장 중에는 전직 고위간부 아들이나 사위 등이 많다. 급부상한 최룡해가 대표적이다. 북한에서 전·현직 고위간부의 자녀들을 대물림하여 권력엘리트로 편입하고 특혜를 주는 현상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다. 새롭게 부상하는 또 하나의 부류는 40~50대의 핵심 보안기관 간부들이다.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보



안계통의 기관을 권력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그를 둘러싼 보안기관의 간부들이 김정은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제어:** 북한 권력엘리트, 북한 권력엘리트 특성, 북한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사회연결망분석, 인구사회학적 변수

## Abstract

# North Korea's Power Elite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Lee, Kyoduk et al.*

A rapid and solid establishment of the Kim Jong Un regime and its long-term stability depend on how strong and united support from the top power elite around him is. Unity or division in the power elite is a key factor determining the regime's establishment and stability.

Focusing on such a point,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and the network of the power elite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and identifies its characteristics. Chapter II introduces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power elite and examines correlations of regime shifts and policy changes in China, the Soviet Union, and Vietnam with changes within the power elite. In Chapter III, around 200 full and alternate members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are classified by demographical factors such as gender, age, regional connection, blood ties, school connection, and major experience. Then, their characteristics are discussed. Chapter IV analyzes the power elite's network not by demographical factors but by the extent of mutual communication within the power elite. The indicator of such mutual communication is the top power elite's attendance at Kim Jong Un's on-spot guidance. Finally, Chapter V looks into the features of power elite changes in the Kim Jong Un regime, a newly emerging elite group, and the values generally upheld by North Korea's young generation from which the new elite group is formed.

**Key Words:** The Power Elite, New Elite Group, Power Elite Change

# I. 서론

김정일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 1. 연구목적

2011년 말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통치해온 절대권력자 김정일이 만 7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김정일이 통치하는 동안 북한의 정책결정구조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책결정이 김정일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과부하(overload)에 걸려있었다는 점이다. 과부하 현상은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수령체제의 특징에서 오는 것이자 직할통치를 선호하는 그의 스타일에 원인이 있었다. 1990년대 들어 김정일의 통치영역이 당을 벗어나 군·정으로 확대되면서 당을 통한 수직적 정책지도 방식은 김정일이 모든 분야를 직접 장악하는 수평적 직할통치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sup>1</sup>

사망 소식을 전한 북한의 관영매체는 그가 몸을 돌보지 않고 국사에 전념하다 순직했다고 한다.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2008년 8월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지만 자신에게 정책결정이 집중되도록 하고 현장 확인을 위주로 한 국정운영 스타일을 고수한 것이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망하기 약 3년 전 그는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해놓았는데,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다행스런 것이었다. 로동신문은 그의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 “후계자의 유일한 령도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 사소한 우여곡절이나 편향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양했다.<sup>2</sup> 김정은의 생

<sup>1</sup>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pp. 413~414.

<sup>2</sup>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로동신문』, 2011년 12월 22일.

I
II
III
IV
V
VI

일로 추정되는 2012년 1월 8일, 북한의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기록영화 “백두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어”를 방영했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은 “일찌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나날로부터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받들어” 왔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시절부터 ‘인민군대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도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십대 초반부터 아버지를 보좌해온 ‘준비된 후계자’임을 선전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 관영언론들이 김정은을 ‘준비된 후계자’로 선전하지만 준비되기에는 경험도 기간도 나이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김정은은 앞으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김정은체제가 어떤 권력구조로 귀결될지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북한체제는 수령이 당-국가체제를 지배하는 수령제 국가이고 수령의 혈통계승에 대해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당연시한다. 따라서 현재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김정은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라고 찬양하며<sup>3</sup> 일인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걸맞게 김정은은 2011년 말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이후 2012년에 들어 당의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취임함으로써 예상보다 빠르게 당, 정, 군의 최고 지위에 모두 올랐다.

문제는 이것이 명실상부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 내용과는 다른 외피에 불과한 것인지이다. 김정은이 국정의 모든 분야를 확고히 장악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인지배체제인지, 아니면 외

---

<sup>3</sup>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승리를 위하여 역세계 전진하자,” 『로동신문』, 2012년 4월 23일.

관상 집단지도체제는 아니지만 김정은이 어리고 현실정치 경험이 부족하며 당내 권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유력한 정치인들이 뒤를 돌봐주면서 일정한 분야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을 지닌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현재의 김정은체제가 후자의 형태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지만 어쨌든 관건은 권력엘리트들의 움직임이다. 김정은이 최고 권력자로서의 입지를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탄탄하게 구축하느냐는 권력엘리트들이 얼마나 단합하여 지원하는가에 달려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후견인들을 비롯한 권력엘리트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얻거나 그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할 수 없다. 권력엘리트들의 단합 또는 분열, 그 동향이 김정은체제의 착근 또는 안착 여부, 그 안정성에 있어서 핵심 변수인 것이다.<sup>4</sup>

김정은정권이 공식 출범한 뒤 미키마우스와 록키가 등장하는 모란봉악단 공연,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의 대동, 경제개선과 관련된 ‘6.28 방침’ 시달 등이 전해지자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개방 또는 정책변화를 조심스레 전망하는 의견도 나오고, 7월 갑작스럽게 발표된 리영호 군 총참모장 해임에 대해서는 북한 권력엘리트 내부의 권력투쟁설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북한의 정책변화이든 내부의 권력투쟁이든, 체제의 안정성이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권력엘리트가 있다.

---

4. 정치체제에서 엘리트의 단합과 분열이 체제의 안정성과 여타 특성에 치명적이라는 연구결과는 많다. 그 예로서는 R. D. Putnam,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Elite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6); G. L. Field and J. Higley, *Elitism* (London: Routledge, 1980); E. Etzioni-Halevy, *The Elite Connection: Problems and Potential in Western Democracy* (Boston: Basil Blackwell, 1993) 참조.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데서 출발한다. 하나는 김정은정권이 정책변화, 특히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려면 엘리트 내부에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있느냐이고 또 하나는 엘리트 내부의 권력투쟁 또는 갈등을 설명하는 여러 모델들이 각기 상정하는 엘리트 특성이나 엘리트 간 상호관계가 북한에 과연 존재하느냐이다. 북한 권력엘리트의 갈등을 분석하는 모델로는 제Ⅱ장에서 상세히 다루지만 정책경향모델, 관료정치모델, 파벌주의-권력모델, 후원자-추정자관계모델 등이 있다. 이 모델들은 개혁·개방과정에서 정책과 노선을 둘러싼 권력엘리트 상호간 분화와 이합집산의 동기와 그 결과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두 가지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특징과 구조, 상호네트워크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혁·개방으로의 정책변화에 필요한 엘리트 조건과 여러 갈등모델들이 전제하는 권력엘리트 구조를 설명하고 그것이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구조와 상호 네트워크에 과연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어떤 측면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과 연구보고서의 구성

북한뿐 아니라 어느 국가든 그 국가의 정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어떻게 권력이 행사되느냐인데 이는 통치이념, 권력구조, 정치엘리트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치이념은 권력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권력구조는 권력행사의 장이며, 정치엘리트는 권력행사의 주체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



한 것은 정치엘리트이다. 통치이념이나 권력구조는 모두 정치엘리트들의 활동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엘리트도 일찍부터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그 연구의 대부분은 북한의 최고권력자와 엘리트의 관계, 또는 엘리트들의 공통점이나 특징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의 엘리트가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출신이라거나 김일성·김정일과 어떤 점에서 관련을 가지고 있다든가, 엘리트들의 특징이 고도의 중첩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들이었다.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엘리트의 개별 속성(attributes)을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 학력, 출신지역, 사회경력 등 엘리트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집중하기 마련이고, 이는 권력엘리트 접근방법(power elite approach)의 전형이다.

권력엘리트 접근방법의 본질은 개척자인 모스카(Gaetano Mosca), 미헬스(Robert Michels), 파레토(Vilfredo Pareto) 이래, 어느 사회나 많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들이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사회 내 권력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여 중요한 조직에서의 힘있는 개인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권력엘리트를 밀즈(C. Wright Mills)의 정의<sup>5</sup>에 따라 주요 조직의 고위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위법(positional approach)에 기반해 있고<sup>6</sup> 실제적(actual) 권력보다는 공식적(formal) 권력에 집중한다.

<sup>5</sup>-C. Wright Mills, *The Power Eli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sup>6</sup>-지위법에 대해서는 U. Hoffman-Lange, "Surveying National Elite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 Moyser and M. Wagstaffe (eds.), *Research Methods for Elite Studies*, Contemporary Social Research 14 (London: Allen & Unwin, 1987) 참조.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접근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정치세계가 매우 투명한 정치체제라 하더라도 그 체제에서 권력엘리트가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란 없다. 그래서 권력엘리트에 대한 정의는 다소의 주관적인 판단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채택한 북한 권력엘리트에 대한 정의는 꽤 협소한 것으로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한정했다.

본 연구가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면 그것은 엘리트 상호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점이다. 권력엘리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 이외에 엘리트와 엘리트 간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갈등모델이 초점을 맞추는 핵심문제이기도 하고, 특정 개인에 초점을 맞춰 그가 가진 지위에 따른 권력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권력행사의 본질과 권력의 크기가 관계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sup>7</sup> 따라서 본 연구는 중요한 조직의 핵심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권력엘리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또 하나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비록 개인의 자질과 리더십, 다른 엘리트의 특질들이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주지만 개인 및 조직의 네트워크가 통상 정치권력이 행사되고 연계성을 갖게되는 핵심 메카니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북한 엘리트집단의 특성이 폐쇄성과 응집력이라면 그런 특성을 유지하는 데는 상호작용이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 네트워크는 응집성을 제고하고 강화하는 메카니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가 추가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

<sup>7</sup> E. O. Laumann and D. Knoke, *Organizational State: Social Choice in National Policy Domain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7), p. 7.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이다. 이는 엘리트들의 신분, 직위, 연고와 같은 속성뿐 아니라 상호 접촉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상호 간의 영향력을 측정하여 행위자의 권력값을 계량화하는 것이다. 개별 속성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상호 연결되어 표출하는 관계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학력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경우, 학력분포의 단순한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학교출신 엘리트들이 공고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런 관계망이 있다면 어떤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런 관계망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조명될 때 엘리트들의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권력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권력엘리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소개하고 소련, 중국, 베트남에서 체제전환이나 정책변화를 시도했을 때 그것이 권력엘리트의 변동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나 이는 예비작업일 뿐이다. 이 장의 궁극적 목적은 엘리트이론에 대한 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 권력엘리트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모델을 제시하고 그 각각의 모델이 유용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엘리트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다.

제Ⅲ장 이하에서는 제Ⅱ장의 여러 모델이 전제하는 엘리트구조가 실제 김정은체제에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를 조사한다. 우선 제Ⅲ장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권력엘리트 구조와 상호네트워크에 대하여 분석한다. 200여 명이 가까운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과 후보위원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I
II
III
IV
V
VI

친·인척관계, 출신학교, 주요 경력 등의 속성을 중심으로 권력엘리트를 집단화(grouping)하고 그 특징을 설명한다. 아울러 여기에서는 속성에 따른 기관별 동질성 정도를 규명함과 동시에 당·군·정 등 권력기관의 주요 직책 겸직 현상과 개인별 재직기간의 장단을 검토하여 권력의 중첩성과 지속성을 판정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북한 권력엘리트에 대한 비교적 정확하고 잘 정리된 인물정보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내에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동일한 인물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sup>8</sup>를 주로 활용했다.

제Ⅲ장이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본 권력엘리트 네트워크를 주로 분석하는 것이라면 제Ⅳ장은 권력엘리트 네트워크를 엘리트 상호간 접촉으로 분석한다. 상호 접촉의 측정지표로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도도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접촉을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이 측정지표를 사용하여 김정일정권과 김정은정권에서의 권력엘리트들의 권력 위계와 상호관계의 차이를 탐색한다. 김정일정권과 김정은정권에서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구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세부적으로 당, 군, 정의 권력엘리트 네트워크는 어떤 규모의, 어떤 모습인가? 전체 네트워크의 응집력(밀도)과 집중도는 어떠한가?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폭넓은 관계망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집단과의 고리 역할을 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김정은정권에서 네트워크에 새로 등장하거나 사라진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이 이 장에서 다루어진다.

---

<sup>8</sup> 통일부,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서울: 통일부, 2012).

마지막 제V장에서는 김정일정권 말기의 세대교체 추이, 김정은 정권에서의 첫 주요인사조치라고 할 수 있는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권력재편 특징, 새롭게 부상하는 신진엘리트의 면모, 신진엘리트와 세대를 같이하는 신세대의 전반적 성향과 지향을 설명한다.

I

II

III

IV

V

VI



## Ⅱ. 권력엘리트 이론과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적용





# 1. 권력엘리트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가. 권력엘리트 개념

인류의 민주주의 발전경험을 요약해 보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구조와 정치형태를 떠나 정치의 영역에서 소수의 엘리트(elite)와 다수의 대중이 나누어지고, 이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 가장 보편적인 현상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엘리트는 정치권력이나 사회적 부 그리고 명성을 대중보다 더 많이 소유·행사하고 있는 소수의 계층을 일컫는다. 엘리트라는 말은 17세기에 매우 탁월한 상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다가, 그 후 군의 정예부대나 귀족의 상위층과 같은 우수한 사회집단을 지칭하게 되었다.<sup>9</sup> 그러다 이 용어는 모스카(G. Mosca), 파레토(V. Pareto), 미첼스(R. Michels)와 같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사회학자들에 의해 소수의 사람들이 정치적 결정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현상을 분석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엘리트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sup>10</sup> 고전적

<sup>9</sup> T. B. Bottomore, *Elites and Society* (Ham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64), p. 7, 吳明鎬, 『現代政治學理論』 (서울: 博英社, 1990), p. 314에서 재인용.

<sup>10</sup> 라스웰(H. D. Lasswell)은 “정치엘리트란 정치체(body politic)의 권력보유자이며…정상에 있는 관리계급”으로, 밀즈(C. Wright Mills)는 “권력엘리트(power elite)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다알(R. Dahl)은 “지배엘리트(ruling elite)는 다수자보다는 그 수가 적으며 민주적 지배의 유물은 아닌 통제집단이며 중요한 쟁점(issues)의 결정에 있어서

엘리트론자들인 모스카와 파레토는 각각 지배계급(ruling class)과 통치엘리트(governing elite)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정치적 지배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위치를 점유한 인사들이나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을 엘리트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였다. 즉 엘리트는 그 자체만으로 정의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엘리트와 반대되는 개념인 ‘대중’과 함께 파악되었다.

북한에서는 엘리트를 자본주의사회 지배계급의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엘리트는 “반동적 부르주아 사회 학설에서 <<선발된 자>>”로, 그리고 엘리트론은 “<<엘리트>>에 의한 인민대중의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 통치배들의 반동적인 사회학리론”<sup>11</sup>으로 정의되고 있다.

북한에서 엘리트 층원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간부’ 개념은 여러 학자들의 엘리트 개념과 유사하다.<sup>12</sup> 북한에서 간부란 좁은 의미로는 “당과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의 일정한 책임적 지위에서 사업하는 핵심일군, 당의 골간력량이며 당정책을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로,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정한 기준

---

다른 누구보다도 우월한 지위에 있는 소수자”로 정의하였다. 또한 보토모어(T. B. Bottomore)는 모스카의 용법에 따라 정치권력 또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리더십 획득의 투쟁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집단을 모두 정치계급(political class)으로 부르며 그 중의 소수자로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정치엘리트’로 구별한다. A. Zuckerman, “The Concept ‘Political Elite,’” *Lessons form Mosca and Pareto, The Journal of Politics*, Vol 39, No. 2 (May 1977), pp. 325~326.

<sup>11</sup>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757.

<sup>12</sup> 서석민, “김정일 시대의 핵심엘리트 연구: 층원과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p. 25~26.

자격을 가지고 일정한 조직체나 기관, 집단 등에서 일하는 일군”으로 정의된다.<sup>13</sup> 전자는 당 간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정치엘리트를 나타내며, 후자는 일반 사무원과 인테리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관료’와 비슷한 개념이다.

간부(cadre)라는 개념은 러시아혁명에서 등장하였다. 레닌의 ‘민주집중제’ 조직원리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이 발전하지 않은 후진국의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위조직으로서 당과 노동자계급의 상호보완적 작용을 주목한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방식을 확립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당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확보한다는 것이다.<sup>14</sup> 이러한 간부 개념은 실제적으로는 ‘관료’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서 태자당(太子黨), 상하이방(上海幫), 칭화방(淸華幫), 공청단파(共靑團派) 등과 같은 파벌(faction)보다는 그 범위가 넓다.<sup>15</sup>

간부의 개념은 소련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계급을 대표하는 전위정당으로 모든 정치권력을 독점하며(一黨專政), 레닌주의 규정에 따라 인민의 대표기구·정부와 같은 당외조직이나 사회세력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도(黨的領導)한다.<sup>16</sup> 이와 같은 공산당을 움직이는 인적 구성은 바로 간부이며, 공산당

13.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229.

14. 서석민, “김정일 시대의 핵심엘리트 연구: 총원과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p. 26.

15. 周長煥·朴正鎬, “체제전환기, 중·러 정치 엘리트 비교 연구: 특성과 형성 배경을 중심으로,” 『中蘇研究』, 제34권 제1호 (2010년 봄), p. 113.

16. 謝慶奎, 『當代中國政府』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996), pp. 68~76, 최지영, “중국 간부제도 개혁과 정치안정,” 『국방연구』, 제55권 제2호 (2012년 6월), p. 132에서 재인용.

간부가 곧 중국의 정치엘리트, 통치엘리트가 된다. 이러한 간부는 당이 국가를 건설하는 당-국가체제의 특성상 시기별로 다층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수립 이후에는 대체로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공직을 담당하는 이들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국가수립 이후 중국에서 간부는 일반간부와 영도(지도)간부 그리고 업무의 성격과 직능에 따른 간부로 세분화해 볼 수 있다.<sup>17</sup> ‘영도(지도)간부’는 중국공산당 당위원회 계통(中共黨委系統), 국가기관, 민주당파, 인민단체기관 및 국유기업, 사업단위에서 지도적·관리적 직무를 맡은 인물들이다. 그 중 각급 당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정부(국무원), 정치협상회의, 기율검사위원회에서 영도적 지위를 가진 ‘당·정 영도간부’가 통상적으로 중국의 통치엘리트, 핵심 정치엘리트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 내에서 정치국 위원, 서기처 위원,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국가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부총리)와 국무원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부위원장), 최고법원 원장, 최고 검찰장,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부주석)을 ‘당과 국가의 영도인(黨和國家領導人)’이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또한 중국의 간부는 특성에 따라 혁명간부(revolutionary), 기술간부(technocracy), 일반간부(generalist cadre) 등으로 나눌 수 있

---

17. 최지영, “중국 간부제도 개혁과 정치안정,” pp. 129~131. 중국에서 개혁·개방 시기 전후 간부의 규모와 등급, 선발과 관리 등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서울: 폴리테이아, 2009), pp. 246~249; 최지영, “중국 간부제도 개혁과 정치안정,” pp. 127~152 참조.

18. 吳翰飛, 『中國公開選拔領導幹部制度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pp. 3~4, 최지영, “중국 간부제도 개혁과 정치안정,” p. 131에서 재인용.

다. 혁명간부 개념은 개혁·개방 이전 시기, 기술간부는 개혁·개방 이후 시기 정치엘리트들의 특성을 개괄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정치엘리트 유형과 관련하여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올리가르키(Oligarch), 실로비키(Siloviki)가 있다. 노멘클라투라는 파벌보다 훨씬 큰 개념으로서 1990년대 이전 소비에트체제의 특권계층을 의미하는 용어임과 동시에, 소련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계급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는 옐친(Boris Yeltsin) 패밀리, 푸틴(Vladimir Putin) 사단과 같이 한 분파를 형성하고 있는 보다 협의적인 엘리트세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sup>19</sup>

북한에서 정치엘리트, 특히 소수의 권력엘리트는 북한의 핵심간부와 유사한 개념이다. 북한에서 핵심간부는 “조직과 집단 안에서 핵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간부”이며, “간부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간부”로 정의되고 있다.<sup>20</sup> 즉 핵심간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단위에 명령하여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계층을 의미한다. ‘영도핵심’과 ‘지도핵심’으로 구분하고 있는 핵심간부는 북한체제에서 핵심세력이 된다. 대체로 영도핵심은 당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당 비서국 비서, 최고인민회의 의장, 총리, 부총리를 포함한 내각의 상 등이고, 지도핵심에는 당 비서국 부장 및 당 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 내각의 부상, 도당비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중앙재판소장, 중앙검찰소장, 주요 대중단체장 등이 있다.<sup>21</sup>

19. 周長煥·朴正鎬, “체제전환기, 중·러 정치 엘리트 비교 연구: 특성과 형성 배경을 중심으로,” pp. 113~121.

20.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1』, p. 1056.

21.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2), p. 81;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52.

I
II
III
IV
V
VI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북한은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당이 모든 분야에 침투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권력엘리트란 노동당을 조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정치엘리트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노동당의 계서적 구조를 감안할 때, ‘영도핵심’과 ‘지도핵심’을 구성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당의 핵심 기관인 당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들을 권력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권력엘리트 이론

엘리트는 한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결정하는 변수, 즉 독립변수임과 동시에 변화의 산물, 즉 종속변수로서 취급되어 왔다.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많은 연구들이 정치엘리트와 정치사회체제의 유형을 서로 대응시키려는 노력을 진행시켰다. 특히 체제 전환(transformation)과정에 있는 국가들에서 정치엘리트 집단이 담당하는 역할이 주목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유럽 근대 역사에서 각기 상이한 전환의 경로를 나타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나 탈사회주의(post-socialism)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제한된 민주화’ 역시 엘리트 유형의 전환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이처럼 엘리트 유형과 전환과정은 특정 국가의 성격과 정치체제의 본질을 규명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sup>22</sup>

이른바 고전적 엘리트론자들의 이론적 관심과 분석적 전제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주로 마르크스 계급이론이나 계

---

22. 周長煥·朴正鎬, “체제전환기, 중·러 정치 엘리트 비교 연구: 특성과 형성 배경을 중심으로,” pp. 110~111.

급투쟁이론에 대한 비판, 도전 또는 대체이론으로서 출발한 것이었다. 탐구의 초점은 누가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느냐 하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것에서부터 특정 국가 내에서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나아가서는 특정 정책결정에서 그 결정의 원인과 배경, 등장인물, 결정과정과 절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sup>23</sup>

우선 모스카,<sup>24</sup> 파레토,<sup>25</sup> 미첼스<sup>26</sup> 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론은 어느 조직체나 어떠한 사회에서도 집단이 구성되면 거기에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체제, 즉 과두지배체제가 필연적으로 대두한다는 소위 ‘과두지배 철칙론’의 특징을 지닌다. 이들 고전적 엘리트론자들은 조직화된 소수, 즉 엘리트가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을 서로 달리 하지만 엘리트에 의한 과두지배가 인간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철칙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엘리트의 통합성을 전제로 하는 고전적 엘리트론은 근대적 엘리트론자들에게 상당부분 전승된다. 하지만 근대적 이론은 통합 엘리트론과 다원적 엘리트론이라는 두 갈래의 흐름으로 나뉜다. 통합 엘리트론은 엘리트의 내부적 단합과 동질성을 전제로 그 통합성(unity)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학자로는 밀즈(C. Wright Mills),<sup>27</sup> 헌터(F. Hunter),<sup>28</sup> 돔호프(W. Domhoff)<sup>29</sup> 등

23- 梁性喆, 『北韓政治研究』(서울: 博英社, 1995), p. 96.

24- Gaetano Mosca, *The Ruling Clas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39).

25- Vilfredo Pareto, *The Mind and Society III* (London: Jonathan Cape, 1935).

26- Robert Michels,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New York: Collier Books, 1962).

이 있다. 이에 비해 다원적 엘리트론은 하나의 통합된 엘리트가 아니라 다수의 엘리트들이 공직과 공공정책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견제한다는 이론적 관점이다. 민주적 엘리티즘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다알(R. Dahl)<sup>30</sup>이나 켈러(S. Keller)<sup>31</sup> 등에 의해 대표되며 엘리트의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복수 엘리트들의 상호견제와 경쟁이 민주주의적 이상과도 조화될 수 있다고 보는 데 특징이 있다. 이러한 근대적 엘리트론은 ‘통합’이든 ‘다원’이든 주로 미국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배경하에서 발생된 이론적 관점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전적 엘리트론은 산업사회의 추이와 더불어 엘리트 구성이 보다 다원화된 형태를 띠게 되면서 그 이론적 전제도 다원적 엘리트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 수정을 보이게 되었다. 물론 고전적 엘리트론의 맥락을 이어받아 하나의 통합된 단일 엘리트집단의 존재를 강조하는 입장도 있으나, 이러한 엘리트의 단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권력을 나누어 갖는 다양한 기술적 엘리트의 공존과 상호 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도 생기게 되었다. 기존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술관료, 즉 테크노크라트들로 엘리트집단이 전환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

27- C. Wright Mills, *The Power Elite*, C. W. 밀스, 陳德奎 譯, 『파워 엘리트』 (서울: 한길사, 1979).

28- Floyd Hunter, *Community Power Structure: A Study of Decision Makers* (Chapel Hill: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53).

29- William Domhoff, *Who Really Ruler?: New Haven and Community Power Reexamined* (New Brunswick, N. J.: Transaction Books, 1978).

30- Robert A. Dahl, *Who Governs?: Democracy and Power in an American City*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1).

31- Suzanne Keller, *Beyond the Ruling Class: Strategic Elites in Modern Society* (New Brunswick, N. J.: Transaction Pub., 1991).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혁·개방으로의 노선 전환을 엘리트의 전환과 관련지어 설명하기 위해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정책갈등을 전제로 한 분석 모델에 주목할 수 있다.<sup>32</sup> 권위주의체제나 전체주의체제의 정치현상과 과정을 설명하는 경우 그 체제가 정책결정과정상의 경쟁 차단, 의견제시 통로의 봉쇄 그리고 조직화된 반대세력이나 정치적 다원주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책결정구조와 과정, 엘리트구조 등과 같은 변수로서 ‘엘리트 내부의 갈등’을 분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들은 정치엘리트 개인의 정치심리적 특성이나 정치노선상 차이,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적 배경상의 차이를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집단이나 파벌 간 갈등이나 경쟁이라는 측면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sup>33</sup>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개방정책 결정과 추진을 설명하는 모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34</sup> 하나는 ‘일인지배 모델’ 혹은 ‘전체주의적 모델’인데, 이는 과거 1인 중심의 지배모델 또는 전체주의적 정책결정모델에 기초한 분석으로써 강력한 정치 권력을 지닌 개인이 정책결정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구조와 과정을 장악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이는 사회주의국가에서 개혁·개

<sup>32</sup> 여기서는 주로 다음과 같이 중국의 엘리트 갈등분석을 조망한 연구를 인용한다. 琴喜淵, “中國 엘리트의 갈등분석과 後援者-追從者關係,” 『中蘇研究』, 통권 56호 (1992/3 겨울), pp. 123~156.

<sup>33</sup> 위의 글, pp. 132~133.

<sup>34</sup> Zwick은 정책결정모델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체주의적 모델(authoritarian model)’이며 또 하나는 ‘갈등모델(conflict model)’이 그것이다. Peter Zwick, *Soviet Foreign Relation: Process and Polic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90), pp. 172~174. 琴喜淵, “中國 엘리트의 갈등분석과 後援者-追從者關係,” p. 124에서 재인용.

방정책 결정과 추진이 절대권력자 1인의 작품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모델은 최종정책이나 결정을 한 개인의 강력하고 배타적인 정치 권한의 산물로 봄으로써, 정치권력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개인 혹은 집단 간 대립의 존재와 중요성을 부인한다.<sup>35</sup>

다른 하나는 ‘갈등모델’인데, 이는 개혁·개방정책과 노선의 전환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정책결정과 정치권력의 장악을 개인 또는 정치적 집단이나 제도화된 조직 간 대립의 산물로 보는 견해이다. 중국의 경우,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내부에서 정부나 군의 다른 여러 명의 원로들과 함께 정책결정과정에서 관한 권한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를 마오쩌둥(毛澤東)과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이다. 갈등모델은 일인지배모델 혹은 전체주의적 모델이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전략을 요구하는 개혁·개방정책의 전개과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주목을 받는다.<sup>36</sup>

엘리트들 간의 대립을 설명하는 갈등모델은 여러 모델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들 세분화된 모델들은 최고통치자 개인의 특성이나, 특정 정책에의 선호도,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강조하기보다는 개혁·개방정책에서의 의견대립 또는 권력투쟁 등의 요인으로 지배엘리트의 구조적 특성과 엘리트 간 상호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정책경향모델(policy tendency model)은 결정된 정책을 정책선호(policy preferences)에 관한 다양한 정책집단 간 경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정책 그룹이나 집단의 수 또는 문제의 성

---

<sup>35</sup>- 琴喜淵, “中國 엘리트의 갈등분석과 後援者-追從者關係,” p. 124.

<sup>36</sup>- 위의 글, pp. 124~125.

격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모델로 나뉘지만, 보통 2자와 3자 간의 대립 모델이 있다. 2자 간 노선 대립은 보수 대 개혁 또는 ‘정치’ 지향적인 홍(紅)과 ‘기술’ 지향적인 전(專) 등과 같이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두 개의 정책집단 간 대립을 통해 설명하려는 모델이고, 3자 간의 대립은 단순한 두 그룹 간 대립과 투쟁 분석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하며 두 개의 그룹 중 하나가 상대방 세력을 견제하거나 봉쇄하기 위해 연합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한다.<sup>37</sup>

두 번째는 정치체제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관료정치모델(bureaucratic politics model)인데, 이는 엘리트 간 갈등을 정부 혹은 당 내의 다양한 조직이나 기구들이 이익이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경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정책이나 최종 결정은 제도적 조직체들 간 경쟁의 결과일 뿐 아니라 협상과 타협의 산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이 당·정·군 내부의 상이한 ‘관료적 에토스’를 지닌 제도적 경쟁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제도적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비제도적 측면, 즉 비공식적인 개인 간의 관계나 개개인의 정책 및 이데올로기상의 차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지배엘리트의 구조적 특성이 법적·제도적 측면보다도 비공식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상대적으로 경시할 수 있다. 서구와 같이 다원화된 정치제도에서처럼 ‘직책이 정치권력의 범위와 소재를 결정’하는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인 권력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sup>38</sup>

<sup>37</sup>- 위의 글, pp. 133~136.

<sup>38</sup>- 위의 글, pp. 136~138.

세 번째는 파벌주의-권력모델(factionalism-power model)인데, 이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제도화된 관료적 이익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관료정치모델의 대안으로서 등장하였다. 이 모델은 권력구조나 파벌 간의 권력투쟁이 엘리트 간의 갈등을 설명하는 요소라고 주장한다. 파벌은 파벌이라는 전체의 이익이 구성원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조직과 유사하나, 공식적으로 구성된 위계질서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구성된 집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이슈나 태도를 대변하는 정책경향모델과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제도적 차원이 아닌 비공식적 요소를 통해 정치 엘리트 간의 갈등을 설명하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정책경향모델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그룹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을 분석단위로 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 모델은 파벌 간의 갈등이 다른 갈등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왜 파벌주의가 엘리트 내부 갈등의 주된 형태로 등장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sup>39</sup>

네 번째로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모델을 비판하며 제시되는 후원자-추종자관계모델(patron-client model)을 들 수 있다. 후원자-추종자관계는 불평등한 힘과 지위를 가진 행위자들 간에 나타나는 수직적 관계로 호혜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적인 교환관계를 말하는데, 이는 지연과 학연, 직업상의 관련성, 혁명동료, 동일한 후원자를 가진 추종자들의 충성 등과 같은 공통점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후원자-추종자관계모델은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양자 간

---

<sup>39</sup> 위의 글, pp. 138~141.

의 인간관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편애와 충성의 교환관계’로 지배엘리트 간 갈등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이 모델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지배엘리트들의 정치적 충원은 공식적 요소들보다 비공식적 요소들, 즉 수직적인 상하관계나 수평적인 동료관계라는 개인적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추종자에 대한 후원자의 지원 철회가 전보·은퇴·해직·강등·해임 및 암살 등과 같은 정치적 관계의 단절, 지배엘리트들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후원자는 추종자에게 정치적 보호, 승진, 기용 등의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추종자로부터 직업상의 전문지식 제공, 충성, 후원자의 정책에 대한 지지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추종자가 후원자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르지 않거나 불충한 태도를 보이거나 권위에 도전할 경우 후원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계가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40</sup>

## 2. 개혁·개방 시기 사회주의체제의 권력엘리트 변화

### 가. 중국

중국에서 개혁·개방이란 1978년 12월 덩샤오핑의 지도체제하에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1期 3中全會)에서 제안되고 이후 추진된 중국 국내 체제의 개혁 및 대외개방 정책을 말한다. 중국적 사회주의는 대약진(大躍進)운동(1958~1960)의 대실패와 문화대혁명(1966~1976)의 대혼란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가 1976년 9월 마오쩌둥의 사망과 같은 해 10월 4인방(四人幫)의 숙청

<sup>40</sup> 위의 글, pp. 141~156.

을 계기로 사상해방, 체제개혁, 문화개방을 강조하는 노선 전환을 하게 되었다.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은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의 노선갈등과 권력투쟁을 촉발시키고 개혁·개방을 둘러싼 이질적인 정치세력을 형성케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대약진운동<sup>41</sup>은 사회주의 혁명 후 근대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 농업과 공업의 대증산을 목표로 한 야심찬 정책이었다. 이는 1957년 11월 소련의 흐루시초프(N. Khrushchev)가 공업 및 농업 생산으로 15년 이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선언한 데 자극받아, 마오쩌둥이 제2차 5개년계획을 세우면서 당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영국을 15년 이내에 추월할 것이라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었다. 즉 이는 옌안(延安) 공산주의의 전통에 입각해 농민 대중의 무한한 혁명적 잠재력에 기초해 자력갱생에 의한 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추진하려고 한 마오쩌둥의 대실험이었다.<sup>42</sup> 이 같은 마오쩌둥식의 총노선에 대해서 류사오치(劉少奇)·덩샤오핑(鄧小平)·천윈(陳雲)·펑더화이(彭德懷) 등 실무파 엘리트들은 반대하면서 도시 중심 공업화의 지속을 원했다. 마오쩌둥은 이미 건국 초기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성공에 힘입어 제1차 5개년계획(1953~1957)을 추진하면서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지향하는 ‘과도기 총노선’을 선언했는데, 과도기 총노선을 선언하면서 선(先)공업화와 후(後)사회주의개조론을 비판하고, 공업화와 사회주의 개조의 동시 추진을 선언한바 있었다. 이에 비해 실무파 엘리트

---

41- 사회주의 총노선과 대약진, 그리고 인민공사운동을 3면홍기운동(三面紅旗運動)이라고 한다. 과도기 총노선은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기까지 과도기 기간 동안 국가의 공업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2-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pp. 260~261.

들은 소련의 경험에 비추어 중국도 농업집단화 이전에 공업화를 선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3</sup>

그러나 대약진운동은 인민에게 과도한 할당량을 부과하고 또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관리들의 무리한 증산 지시로 생산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1959년 장시성(江西省) 루산(廬山) 회의에서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을 비판하다가 숙청당한 당시 국방부장 펑더화이가 지적<sup>44</sup>한 바와 같이 급격한 농촌조직의 개편과 과도한 공유화의 확대 그리고 지방간부들의 ‘좌익 모험주의와 뿌띠부르주아 열광성’에서 파생되는 평등주의와 이른바 ‘공산풍(共產風)’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생산의욕은 급격히 위축되고 농촌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다. 게다가 1959년과 1960년에 연이은 자연재해는 중국의 농촌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안겨줌으로써 대약진운동은 그야말로 재난으로 끝나고 말았다.<sup>45</sup> 마오쩌둥의 발전전략 실패가 당과 국가 그리고 인민대중에게 준 손실과 희생은 엄청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농촌경제의 와해로 말미암아 심각한 식량난이 초래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영양실조와 기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또한 경제적인 효율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경제정책의 추진과 운영은 중국 경제 전반에 일대 혼란을 초래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사회적 불안을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에

43. 김정계, 『중국의 권력투쟁사(1949~1978)』 (서울: 평민사, 2002), pp. 105~106.

44. 펑더화이의 의견서가 제출되는 상황은 산케이신문 특별취재반, 임홍빈 옮김, 『모택동비록(上)』 (서울: 문학과사상사, 2001) 3부 참조. 펑더화이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彭德懷國防部長の毛澤東主席あての意見書,” 『中國大躍進政策の展開: 資料と解説(下卷)』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74), pp. 358~360 참조.

45.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p. 263.

심각한 타격을 안겨 주었다. 이와 동시에 대약진운동의 실패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오쩌둥의 권위와 지도력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지도부 내부에서 노선 갈등과 권력투쟁을 촉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급진적 노선의 실패에 따라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대중을 동원한 철강·곡물 증산운동인 대약진이나 대규모 집단화인 인민공사 등의 급진적인 공산화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텃밭과 같은 자유지(自留地) 부활과 부업을 인정하는 등 노동의욕을 높이는 시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정 작업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농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포산도호(包產到戶, 농가생산청부제)<sup>46</sup>에 대한 것도 있었다. 경제 조정은 1959년 4월 제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마오쩌둥의 국가주석직을 승계한 류사오치와 당 총서기인 덩샤오핑 등 실무파 엘리트들이 추진하고 류사오치의 심복인 당 정치국원 겸 베이징 시장인 평진(彭眞) 등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sup>47</sup> 중국공산당은 1961년 1월 제8기 당 중앙위원회 9차 회의에서 대약진운동으로 초래된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조정, 공고, 충실, 제고’의 ‘8자방침’을 채택하고, 1962년 1월에는 ‘7천인(七千人)대회’로 알려진 대규모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대약진, 인민공산화 등 당의 활동(공작)을 ‘3할은 천재(天災), 7할은 인화(人禍)’라고 총괄하였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자아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약진운동의 실패

---

46. 덩샤오핑은 이에 대한 의견으로서 1962년 7월 초 공산주의청년단 총회에서 혁명 10원수 중 1명인 동향 출신 유백승(劉伯承)이 즐겨 쓰던 쓰촨(四川)성 속담을 고쳐 ‘흑묘백묘’론을 내놓는다.

47. 산케이신문 특별취재반, 『모택동비록(上)』, pp. 301~302.



가 기본노선의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지방 당 간부들의 착오와 천재 지변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소련의 돌연한 지원중단과 같은 요인들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계급은 존재하고 계급투쟁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본주의의 부활과 수정주의의 침투로 당과 국가의 지도부에까지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주자파가 등장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sup>48</sup> 결국 마오쩌둥의 이 같은 인식은 제2혁명, 프롤레타리아계급 문화대혁명을 발동하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1963년 ‘공산주의 교육운동’을 개시했다. 이 운동으로 몇 년 후 마오쩌둥의 주된 지지세력, 즉 홍위병이 나타나게 되었다.

문화대혁명은 1966년 5월 마오쩌둥의 제창(五一六通知)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전인 1965년 11월, 4인방 중 한 명인 급진적 문예비평가 야오원위안(姚文元)은 『문화보(文匯報)』에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노선을 간접 비판한 북경 부시장이자 명대 역사 전문가였던 우한(吳晗)을 격렬하게 비난함으로써 문화대혁명의 포문을 열었다. 마오쩌둥은 부르주아계급의 자본주의 요소가 공산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젊은이들로 하여금 사상과 행동을 규합해 ‘혁명 후의 계급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중국 전역에서 벌어진 홍위병의 움직임으로 구체화되었다. 문화대혁명의 발동 결과, 마오쩌둥 자신이 시도한 대약진운동으로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에게 넘어간 당에 대한 권력과 영향력이 만회되었다. 1969년 마오쩌둥은 공식적으로 문화대혁명이 끝

48-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pp. 265~267.

났다고 선언하였으나, 1976년 마오쩌둥의 죽음과 4인방의 체포 때까지 십년동란(十年動亂)은 사실상 지속되었다. 중국공산당은 1981년에 문화대혁명을 마오쩌둥의 과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린 바오(林彪)와 4인방을 주요 책임자로 지목하였다.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권력엘리트 집단은 분열하였다. 마오쩌둥 사망 직전 권력엘리트 집단은 크게 마오쩌둥을 추종하는 세력과 그에 적대적인 실무집단으로 양분되어 있는 가운데, 마오쩌둥을 추종하되 중립을 유지하는 군부 원로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세력은 화귀평(華國鋒)을 중심으로 한 신진 당권파로 마오쩌둥 추종세력(凡是派)이었다.<sup>49</sup> 이들은 마오쩌둥에 의해 발탁된 문화대혁명 수혜세력이면서도 4인방과는 경쟁관계였다. 둘째 세력은 덩샤오핑 중심의 당·정·군 실무그룹으로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다. 이들 그룹은 대부분 류사오치의 후광을 받았거나 저우언라이(周恩來)의 비호와 덩샤오핑 밑에서 국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던 실무관료들로 문화대혁명 피해자였거나, 아니면 문화대혁명에 가담했으나 린바오 및 장칭(江青)과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셋째 세력은 국방부장 예젠잉(葉劍英)을 중심으로 뭉쳐진 군부의 지도자 그룹(중도우파)이었다. 이들은 문화대혁명 때 겨우 명맥을 유지했거나 피해를 본 인물들이었다. 이들 세 세력들은 합심하여 마오쩌둥 사망 1개월 후에 4인방을 체포하였다.<sup>50</sup>

세 세력은 모두 문화대혁명으로 파괴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

49. 마오쩌둥은 사망 전 “자네가 맡으면 마음이 놓이네(你辦事, 我放心)”라고 말해 화귀평을 후계자로 지목하였다.

50. 김정계, 『중국의 권력투쟁사 2: 개혁개방 이후부터 후진타오 정권까지』 (서울: 평민사, 2009), pp. 13~15.

모든 부문의 재건을 위해 사회주의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그 이념적 바탕과 정책추진의 방법상에 있어서는 의견이 대립되는 상태였다. 정책면에 있어서도 화궈핑은 무리한 신약진정책을 추구하였고, 덩샤오핑은 ‘실사구시(實事求是)<sup>51</sup>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정책을 현대화의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오쩌둥의 유혼정치를 정통성으로 생각하고 있던 화궈핑으로서 신약진정책은 이념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문화대혁명 때 권좌에 오른 세력들은 전자에, 대약진정책 실패 후 조정기(1960~1965) 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무를 맡았던 그룹이 후자의 편에 섰다. 4인방 체포 후, 1년이 못되어 ‘반(反)4인방’의 정치연합은 화궈핑을 옹호하는 범시옹화파(凡是擁華派)와 덩샤오핑을 옹호하는 실무옹덩파(實務擁鄧派)로 분열하였다. 예젠잉의 중재로 덩샤오핑이 화궈핑의 권력승계를 받아들이는 대신, 화궈핑은 덩샤오핑의 모든 직위에 대한 복권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볼 때 4인방의 공백에 덩샤오핑과와 예젠잉과 인물이 대거 발탁된 반면, 화궈핑파는 현상을 유지하였다. 제11차 당대회(1977.8)에서 「당헌(黨憲)」을 개정하여 ‘집단지도체제’를 강화하였다. 겉으로는 집단지도체제로 포장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당 주석인 화궈핑의 독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sup>52</sup>

덩샤오핑은 1977년 7월, 복권되자마자 바로 세력 확장에 전력을

<sup>51</sup> 실사구시의 원뜻은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사실에 근거를 찾아서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漢書』). 중국의 현실정치에 있어서 마오쩌둥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의 현실에 변용하는 그의 ‘실천론’에, 그리고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실천론을 원용하여 마오쩌둥의 유산을 청산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명분으로 ‘실사구시’를 내세웠다.

<sup>52</sup> 김정계, 『중국의 권력투쟁사 2: 개혁개방 이후부터 후진타오 정권까지』, pp. 15~18.

투구하였다. 가장 먼저 지지자들을 요직에 안배하는 작업부터 착수하였다. 특히 복권되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직을 되찾은 덩샤오핑은 군부 내 세력확보를 위해 자신의 측근들을 군 요직에 배치하였다. 1977~1980년 기간 중 성 당위원회 제1서기가 대다수 교체되었고, 기타 성급 지도자의 대부분도 물갈이되었다. 지방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이후 범시파의 지방세력은 일시에 무너져 더 이상 화귀핑의 지도적 지위가 지탱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덩샤오핑은 인사교체를 통해 문화대혁명 피해간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적대세력을 과감히 척결하였다. 다른 한편 덩샤오핑은 후야오방(胡耀邦)의 주도로 화귀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강화하였다.<sup>53</sup> 1978년 5월 『光明日報』에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평론을 발표, 마오쩌둥의 결정과 지시가 모두 옳았다고 한 화귀핑의 ‘양개범시(兩個凡是)’ 방침을 공격하였다. 마오쩌둥의 결정과 지시라 할지라도 실천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은 중국인민의 사상해방을 고무시키는 메시지였다. 덩샤오핑은 실천론과 실사구시론이라는 명제를 내걸고 마오쩌둥 사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군부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sup>54</sup>

그리하여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사에 있어서 ‘돌아갈 수 없는’ 노선의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하였다. 중국의 모순을 생산관계의 ‘불평등’이 아닌 ‘생산력의 저발전’에서 찾았고, 국가발전의 목표를 ‘계급투쟁’에서 ‘현대화건설’로 옮겨 놓은 것이었다. 요컨대 3중전회 노선은 사상해방과 체제개혁 그

53- 위의 책, pp. 19~20.

54-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pp. 300~301.

리고 문호개방으로 요약된다.<sup>55</sup> 정치적 안정의 기초 위에 경제법칙에 따른 경제운용을 천명함으로써 이른바 중국특색 있는 사회주의, 즉 1개 중심(경제건설), 2개 기본점(개혁·개방, 4개 기본원칙)의 틀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당면한 가장 긴급한 과제는 경제회복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농민과 노동자의 생산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물질적 자극’ 방법과 과학적이고 합리적 관리 방법을 과감히 도입해 나갔다. 덩샤오핑은 대약진정책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조정정책의 기초 위에 대내 개혁(농촌개혁과 선부론 전략)과 미국·소련 등과의 대외관계 개선, 개혁·개방을 끌고 갈 간부층의 양성이라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였다.<sup>56</sup>

결국 당 11기 3중전회에서 화궈핑의 양개범시 노선은 덩샤오핑의 정치노선과 사상노선에 의해 와해되었다. 덩샤오핑은 중앙정치국위원과 중앙위원을 증원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그의 지지자들을 당의 핵심부에 끌어들이므로써 화궈핑 세력을 제압하는 한편, 당의 조직원칙(집단지도체제)을 강조하고 화궈핑은 그 집단지도자층의 한 사람일 뿐임을 선언함으로써 화궈핑의 위세를 꺾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3중전회를 계기로 지도사상이나 인적 구성으로 볼 때 덩샤오핑 세력 우세로 판도가 전환되었다. 그리고 당 11기 5중전회(1980)에서 6중전회(1981)에 이르는 기간 동안 덩샤오핑은 강렬한 공세를 취하여 이데올로기, 제도개혁, 인사교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화궈핑의 반격역량을 약화시켰다. 이데올로기면에서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이 친히 결정한 류사오치 사건을 바로잡고, 류사

<sup>55</sup>- 위의 책, pp. 301~302.

<sup>56</sup>- 김정계, 『중국의 권력투쟁사 2: 개혁개방 이후부터 후진타오 정권까지』, p. 41.

I
II
III
IV
V
VI

오치의 명예를 회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 비판이나 문화대혁명의 부정에 소극적이었던 군부의 입장을 바꾸어 마오쩌둥 평가를 ‘전반적인 부정’으로부터 ‘부분적인 부정’으로 조정하였다. 즉 마오쩌둥 개인과 문화대혁명은 부정되었지만, 마오쩌둥 사상은 「당헌」상 ‘4항 기본원칙 견지’에 포함되어 통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인사면에서는 화귀평파를 퇴출시키고 자파 인사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기반을 구축하였다.<sup>57</sup>

덩샤오핑은 군부세력과의 타협 및 공생을 통해 화귀평 일파를 고립시켰다. 덩샤오핑의 군 인맥 및 경험을 심분 활용하여 군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군에 대한 지배권을 다지는 데 전력하였다. 군대 경험이 없는 화귀평은 군부 내 확실히 신뢰할 만한 자파 인맥이 거의 전무하였다. 문화대혁명 때 숙청된 군 간부들을 복직시키는 한편, 4인방에 협조했거나 자신의 정책에 반대했던 군 간부들을 숙청하였다. 1978~1980년 사이에 11대 대군구 사령관 중 선양군구를 제외한 10명의 사령관과 11개 군구의 전 정치위원을 교체하였다. 28개 성급 군구 가운데 22개 군구의 지도자들도 자파 세력으로 보충하였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정책노선이 군의 현대화를 지지하는 간부층의 호응을 받았다. 덩샤오핑은 군의 직업화와 전문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군의 신뢰를 획득하였다. 1980년 자신이 맡고 있던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직을 직업군인인 쿤밍(昆明)군구 사령관에게 물려주는 한편, 다수의 원로 군 간부들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화귀평은 당 11기 6중전회를 통해 당 중앙 주석직과 중앙군

---

57- 위의 책, pp. 29~34.

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임하였다. 이 회의에서 당은 마오쩌둥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신중국 건립 32년간의 경험적 교훈을 종결하였다. 당 중앙 주석직을 후야오방이 승계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덩샤오핑이 담당하였다.<sup>58</sup>

이에 따라 4개 현대화의 실현을 국가발전목표로 삼고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덩샤오핑은 경제발전전략의 원형을 1950년대 말 대약진정책 실패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조정정책에서 찾고 과감한 개혁 방법을 도입하였다. 인구의 절대 다수인 농촌의 개혁(농가청부생산제)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정치적 안정, 연해지역 우선 발전을 위한 선부론(先富論)의 전략을 구사하였다. 대외적으로 중·소관계 개선, 4개 현대화 실현을 위한 대서방 개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개혁·개방을 이끌고 갈 간부4화(혁명화, 연소화, 지식화, 전문화)정책을 추진하였다. 1982년 제12차 당대회를 통해 화귀평파의 종언을 고하고 덩샤오핑-후야오방체제의 공고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중국의 정치세력들은 개혁·개방의 속도와 범위 그리고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진영을 이루게 된다. 덩샤오핑이 주장하는 개혁·개방에 동의하면서도 4개 기본원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천윈, 리펑(李鵬) 등을 중심으로 한 계획경제체제에 익숙한 세력들도 있었고,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정치체제 개혁에 있어서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후야오방과 자오쯔양(趙紫陽)과 이를 지지하는 고급 지식인들과 같은 급진개혁파도 있었다. 또한 정치안정 없이는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기조하에 정치체제 개혁의 서행을

58. 위의 책, pp. 35~36.

● 표 II-1 중국 개혁파와 보수파의 정책 논쟁

시기	주도세력	핵심 이슈	결과
1980	보수파	경기과열과 과잉투자	농촌경제를 제외한 경제통제 강화
1984	개혁파	농촌경제개혁 성공	경제체제개혁 결정
1986	보수파	인후이 학생시위	후야오방 총서기 퇴진
1987	개혁파	자오쯔양 총서기 등장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개혁심화
1988	보수파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치리정돈의 경제통제
1989	보수파	천안문사건	자오쯔양 등 개혁파 숙청
1992	개혁파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사회주의 시장경제론과 개혁·방 확대

출처: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p. 308.

주장하는 장쩌민(江澤民)과 같은 온건개혁파도 있었다. 장쩌민 집권 출범 이후에는 원로세력들의 쇠퇴와 함께 중국 정치는 보수와 개혁, 급진개혁과 온건개혁과 같은 정치노선 중심의 계파보다는 온건개혁 세력 내에 ‘상하이방,’ ‘칭화방,’ ‘공청단,’ ‘태자당’ 등과 같은 비공식적 연고집단으로 나뉘어 정책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동부 개방지역에서 성장한 상하이방과 태자당은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선호한 반면, 주로 내륙 비발전지역에서 경력을 쌓은 공청단 출신들은 균형적 발전을 강조하였다.<sup>59</sup>

## 나. 소련

고르바초프(M. Gorbachev) 집권 이전의 소련 권력엘리트의 변화는 주로 정치세력의 인맥 형성과 당 서기장의 정치적 기반 조성

<sup>59</sup> 위의 책, p. 6.



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에는 권력엘리트의 변화가 정치권력을 둘러싼 인적 갈등관계 외에 현실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노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관계를 포함하였다.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권력엘리트들의 근원적인 교체과정은 현실적인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통치엘리트들의 의사와 소련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었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유발한 구조적 요인들을 몇 개의 증후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련에서는 1970년대 중엽을 고비로 경제에 적신호가 커지면서 사회의 정체와 부패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전반까지 6%대 안팎을 보이던 공업성장률은 1970년대 후반에는 3.4%로 떨어졌고, 농업의 경우에는 더욱 심해 1970년대 전반부터 정체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의 정체와는 반대로, 국민들의 소비수요는 급증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의 절대적인 안정은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크게 부풀렸다. 하지만 타성에 찌든 관료들은 위기를 실감하지 못했고, 폐쇄적인 관료체제는 위기를 은폐함과 동시에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들은 자신의 일자리와 특권을 유지하는 데 몰두하는 부패한 관료주의를 만연시켰다.<sup>60</sup>

소련체제가 완전히 수렁 속에 빠진 가운데, 1982년 11월 브레즈네프(L. Brezhnev)가 76세의 나이로 사망하여 68세의 전 국가보안위원회(KGB) 의장 안드로포프(Y. V. Andropov)가 취임하였으나, 개혁의 청사진도 펼쳐 보이지 못한 채 1년 3개월 만에 병으로 쓰러졌고, 후임이었던 74세의 체르넨코(K. U. Chernenko)도 현상유지

<sup>60</sup>- 이무열, 『러시아역사 다이제스트 100』 (서울: 도서출판 가람기획, 2011), pp. 438~440.

에만 급급하다가 1년 후에 죽었다. 1985년 3월 체제위기가 절정에 달한 상황에서 소련 권력엘리트들은 개혁파의 리더인 54세의 젊은 고르바초프를 당 서기장으로 선택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취임연설에서 ‘개방·정보공개·언론자유’를 의미하는 글라스노스트(Glasnost)를 강조한 후, 개혁의 청사진을 펼쳐나갔고, 같은 해 4월에는 고질적인 정체를 깨뜨릴 ‘사회경제 발전의 가속화’를 강조했으며, 연말에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만나는 등 미·소관계의 개선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가속화 전략이 1986년 2월 제27차 당대회에서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납은’ 사고로 인해 실행되지 못하자, 고르바초프는 같은 해 4월, “사회생활 모든 부분에서 페레스트로이카(총체적 개혁·재편)가 필요하다”면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제창했고, 이는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직후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의 공식 노선으로 승인됐다.<sup>61</sup>

고르바초프가 1985년 3월 당 서기장으로 취임한 이후 1991년 12월 체제가 와해될 때까지 소련 정치는 ① 체제 내 개혁이 시도되던 1988년 6~7월의 제19차 공산당 특별 전당대회 전까지, ② 소련경제에 시장 요소를 도입하려는 급진적 개혁이 시도되던 1990년대 중반까지, 그리고 ③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위기와 맞물려 정치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수 쿠데타를 거쳐 소련체제가 해체되는 시기까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sup>62</sup> 이 시기 동안 핵심 권력 엘리트로는 소련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당 정치국과 정책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서기국의 구성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 각

61. 위의 책.

62. 이러한 시기 구분은 정한구, “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과 북한의 장래,” 『세종정책연구』, 제5권 2호 (세종연구소, 2009), pp. 52~56 참조.

료회의의 간부회의의 구성원과 최고인민회의의 간부회의의 상급 구성원들을 추가할 수 있다. 좀 더 확대하면 정부와 당의 주요 부서와 소련 안의 중요한 지역의 대표들을 포함하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할 수 있다.

첫 번째 기간 동안 이루어진 당 정치국과 서기국의 인사개편은 고르바초프체제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1987년 10월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정치국의 경우에는 정위원 총 13명 중 8명, 후보위원 6명 중 4명이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등용되었다. 서기국의 경우에는 총 12명 중 9명의 신입 서기가 같은 기간에 선출되어 정치국보다 폭넓은 개편을 보여주었다. 서기국의 경우 잔존 인물은 고르바초프와 돌기흐(Dolgikh) 그리고 제2서기로 부상한 리가초프(Y. Ligachev) 3명밖에 되지 않았다.<sup>63</sup>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새로 구성된 정치국과 서기국의 특징은 우선 구성원의 연령이 낮아졌다는 점이었다. 1978년 당시의 구성과 비교하여 정치국 정위원은 약 68세에서 약 64세로, 정치국 후보위원은 약 65세에서 약 62세로, 중앙위원회 서기는 약 66세에서 약 60세로 젊어졌다. 또 다른 특징은 정치국 내에 서기국원들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었다. 1978년 초의 정치국은 14명 중 6명이 서기들이었으나 1987년 10월 정치국은 13명 중 6명이 서기직을 겸하고 있었다. 정치국 내의 정책결정방법이 민주집중제에 근거한 형태라고 볼 때 서기국을 책임지고 있는 고르바초프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sup>64</sup>

63- 安秉萬, “고르바초프體制와 權力엘리트,” 『슬라브연구』, Vol. 4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988), p. 66.

64- 위의 글, pp. 66~67. 당 서기국은 당 정치국에서 의결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

따라서 고르바초프 등장과 함께 이루어진 인사개편은 단순한 개편이 아니라 세대교체의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짧은 기간 내의 대폭적인 인사교체는 새로운 엘리트들과 고르바초프와의 관계로 볼 때 동질적인 정책 성향을 강하게 견지함으로써 개혁조치의 실천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엘리트들이 모두 대학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 출신이라는 점과 전문적인 실무경험을 풍부히 지니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당시 소련 사회의 한계와 모순을 타파하려는 고르바초프의 구상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악화일로의 경제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엘리트들로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혁을 추구해 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부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는 초기 몇 년 동안 계속 반대세력과 부딪쳐야 했다. 반대세력에는 브레즈네프 시대의 부패를 종속시키는 데에만 개혁의 관심을 한정시켰던 리가초프 같은 ‘청교도들’로부터, 소련의 행정 및 경제 생활에서 오직 더욱 과학적인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절차만을 추구했던 리시코프(N. I. Ryzhkov) 같은 ‘테크노크라트들’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머뭇거리는 태도에 점차 환멸감을 느끼게 된 옐친(B. Yeltsin) 같은 급진파 등이 있었다.<sup>65</sup>

두 번째의 시기는 소련경제에 시장요소를 도입하려는 고르바초프의 급진적 개혁에 대해 보수세력의 저항이 커지고, 이를 배경으로 보수-개혁세력 간의 대립이 점차 첨예화되었던 시기였다. 페레

---

감독하는 기관으로 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가 직접 관장하는 기구였다. 따라서 당 서기국 구성과 고르바초프의 의지는 한층 더 밀착된 성격을 갖게 되었고 직접적으로는 서기국 내의 많은 인사개편을 낳게 하였다.

<sup>65</sup> 니콜라스 V. 라자놉스키·마크 D. 스타인버그, 조호연 옮김, 『러시아의 역사(하)』 (서울: 까치글방, 2011), p. 895.

스트로이카가 궤도에 오르면서 개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열띤 논쟁이 시작됐고, 권력엘리트들은 크게 세 파, 즉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도파, 리가초프로 대변되는 정통보수파, 그리고 옐친 등의 급진개혁파로 나누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이 되어 페레스트로이카에 착수할 당시만 해도 세 파는 모두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슬로건, “더 많은 공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사회주의”에 이들은 모두 공감했다. 세 파 지도자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사실 같은 개혁파라는 공통점으로 맺어진 것이었다. 리가초프는 젊은 고르바초프의 집권을 도왔고, 옐친은 개혁 착수 후 리가초프의 천거로 고르바초프가 지도부에 발탁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1987년 10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옐친이 개혁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하면서 보·혁논쟁의 막이 올랐다. 옐친은 특히 리가초프를 지목하면서 그가 페레스트로이카에 소극적이며 당 서기국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시 옐친은 힘이 미약했기 때문에 같은 해 11월 모스크바시당 제1서기에서 해임되었고, 다음 해 초에는 정치국 후보위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정통보수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페레스트로이카의 과도한 진전에 우려를 갖기 시작했다. 1988년 3월, 스탈린의 공적과 사회주의의 전통을 옹호하고 개혁의 과도한 진전을 공격하는 안드레예바(N. Andrejeva)의 논문(“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이 발표되면서 정통보수파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고르바초프는 『프라우다(Pravda)』 편집부에 반박 논문을 게재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벌어진 논쟁에서 개혁주도파가 승리하고 정통보수파는 후퇴했다.<sup>66</sup>

당시 시장경제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권력엘리트들이었다. 정치

권력의 독점 및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기초한 사회주의체제에서 권력엘리트들은 국가재산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처럼 관리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배계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시장의 원리에 따라 기능하도록 할 경우 권력엘리트들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권력의 상실마저 감수해야 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경제를 담당하는 당·정 관료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에서 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방당 서기장의 경우에도 지방경제의 운용에 관한 권한의 박탈은 특권 유지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지도부에서 하부 간부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 신봉자도 적지 않았다. 이들 권력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타산한 데에 따라 개혁반대세력으로 대두하게 되었다.<sup>67</sup>

이에 따라 고르바초프는 반대세력에 맞서 일단의 정치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경제제도의 개혁만으로는 대중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확대시켜 나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정치개혁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하였다. 1988년 6월 제19차 특별 전당대회에서 종래의 소비에트를 폐지하고 국가 최고기관으로 인민대의원대회와 최고회의를 신설하는 새로운 국정체제가 결정됐다. 당과 국가의 분리, 노멘클라투라의 폐기와 대표자의 자유 선출, 주요 직책의 임기제도가 채택됨으로써 정치개혁이 본궤도에 올랐다.<sup>68</sup>

광범위한 정치개혁을 결의한 제19차 특별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보·혁 논쟁의 2단계가 시작되었다. 개혁파·보수파·급진개혁파의 구도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은 이 무렵이었고, 개혁파와 보수파

66. 이무열, 『러시아역사 다이제스트 100』, pp. 447~449.

67. 정한구, “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과 북한의 장래,” p. 53.

68. 이무열, 『러시아역사 다이제스트 100』, p. 446.

는 여러 면에서 의견을 달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70여 년에 이르는 사회주의 건설의 공과, 자본주의 체제의 미래, 시장요소의 도입 폭과 속도,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외교, 민족분리운동, 페레스트로이카에서의 당의 주도성, 페레스트로이카 부진의 원인 등 모든 면에서 평가와 견해를 달리하며 충돌했다.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의 지속을 강조하면서 당내 보수파의 입지는 약화되어 1988년 9월에는 정치국 인사에서 보수파인 그로미코(A. Gromyko)가 은퇴하고 리가초프가 이데올로기 담당에서 물러나 농업 담당으로 좌천됐다. 반면 1989년 3월의 인민대의원 선거에서 옐친 등 급진개혁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압승을 거두고 정계에 복귀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가운데, 인민대중은 개혁주도파와 보수파에 등을 돌리고 급진개혁파를 정치적 대안의 하나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같은 해 7월에는 광부들의 대규모 정치성 파업이 일어나 개혁주도파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급진파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켰다. 연말에는 동유럽에서 극적인 사태 전개가 이루어져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루마니아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났다.<sup>69</sup>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더하여 이념적 혼란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당 개혁을 통해 개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제28차 당 대회를 1990년 7월에 앞당겨 열었다. 보수파는 그 직전인 6월에 소련공산당 내에 없던 「러시아공산당」을 만들어 내부결속을 다졌고, 급진파는 주권선언까지 한 러시아공화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고르바초프는 당 개혁을 유보하고 서기장직을 유지한 채

<sup>69</sup>- 위의 책, pp. 449~450.

I
II
III
IV
V
VI

중간파와 연합하여 리가초프를 제거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 결과 리가초프를 비롯한 몇몇 지도자가 당 지도부에서 밀려났고, 옐친 등의 급진파 지도자들은 개혁의 부진에 불만을 품고 탈당했다. 그로 인해 고르바초프와 개혁주도파의 당내 입지가 크게 강화됐고, 고르바초프는 당 권력의 많은 부분을 정부로 이양시켜 당을 약화시켰다. 제2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보·혁 대립은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러시아공화국을 장악한 급진파 지도자들은 공산당을 이탈하여 당외 투쟁을 개시했고, 보수파는 ‘소유즈파’와 러시아공산당을 중심으로 뭉쳐 당내에서 개혁파를 압박했다. 고르바초프는 당 안팎의 반대파와 분리독립으로 방향을 굳힌 공화국들로부터 세찬 공격을 받으며, 급진파와 보수파 사이를 오가는 위태로운 타협을 시도했다. 이후 보·혁 대립은 사실상 이념투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정통보수파와 개혁주도파는 똑같이 경제와 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재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으나, 정통보수파는 더 이상의 개혁진행, 특히 시장요소의 급속한 도입이 사회주의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생각했고, 개혁주도파는 개혁을 계속 진전시키고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반해 급진개혁파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의 길로 전환해야 러시아가 회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70</sup>

이러한 가운데 1990년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전환점이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같은 해 3월 인민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제 도입, 공산당 권력독점 포기과 다당제 도입, 사적 소유권 인정’을 골자로 하는 급진적인 개헌안을 통과시켰고, 새로운 헌법하에서 막강한 권한을

---

<sup>70</sup> 위의 책, pp. 450~451.



갖는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취임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부는 당과 완전히 분리됐고, 공화국·주·시 단 위에서도 자유선거가 행해져 새로운 의회와 새로운 정부가 생겨났다. 옐친이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사실상의 대통령이 됐고, 급진파가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의 시정을 장악했다.<sup>71</sup>

세 번째의 시기인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위기와 맞물려 정치불안정이 심화된 가운데 1991년 8월 보수쿠데타가 발발하여 소련 붕괴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1990년 초반 급진적인 정치개혁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의 권위는 급속히 약화되어갔고, 연방을 구성하던 공화국으로 권력누수는 가속화되어갔다. 이러한 누수 현상은 각급 정부기관에도 파급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권력의 난립 현상이 현저해졌고, 공산당은 권위와 힘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었다.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고르바초프는 집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개혁에서 후퇴하여 개혁·보수세력 사이에서 협상을 시도했다. 그는 1990년 가을부터 보수파 인사를 영입하는 등 보수로 선회하기 시작했으나, 이어 1991년 4월에는 옐친을 비롯하여 공화국들의 지도자와 협상을 갖고 새로운 연방조약에 합의하는 등 다시 개혁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였다. 고르바초프가 개혁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자 보수세력은 그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가운데 쿠데타를 시도했다. 쿠데타의 8인 비상사태위원회에는 야나예프(G. Yanayev) 부통령, 파블로프(V. Pavlov) 총리, 바클라노프(O. Baklanov)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크류츠크프(V. Kryuchkov) 국가보안위원회(KGB)의 장, 야조프(D. Yazov) 국방부장, 푸고(B. Pugo) 내무장관, 스타로두

---

<sup>71</sup>- 위의 책, p. 454.

부체프(V. Starodudtsev) 농민연맹위원장, 티지야코프(A. Tizyakov) 국가기업협의회 의장 등 체제유지를 적극 옹호하던 온건보수파가 총결집돼 있었다. 당시 쿠데타는 많은 성공 요인들을 갖추고 있었으나 군부와 비밀경찰이 분열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 공산당이 사실상 불법화되었고, 이어 같은 해 말 소련 자체가 해체되었다.

## 다. 베트남

‘쇄신’이나 ‘혁신’으로 번역되는 베트남의 개혁정책, 즉 도이머이(Doi Moi)<sup>72</sup> 정책은 1986년 12월 제6차 베트남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은 이 회의를 계기로 도이머이를 외치며 ‘빈곤을 공유하는 사회주의’에서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사회주의’로의 발상 전환을 시도하며 개혁정책을 공고화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개혁의 움직임은 1975년 남북베트남이 통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인들은 통일 이후 경제 침체가 계속되자 1970년대 말부터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통일 이후 수행된 제2차 5개년계획(1976~1980)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3~14%라는 목표치와는 거리가 먼 연평균 0.4% 증가에 머물러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였다.<sup>73</sup> 더욱이

---

<sup>72</sup> 1986년 제6차 베트남공산당대회 때부터 광범위한 개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도이머이’는 ‘바꾼다(도이)’와 ‘새롭다(머이)’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응우옌쑤언오아인(Nguyen Xuan Oanh) 박사가 1982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용어는 사실 그 이전부터 사용되어왔다. 이 용어의 등장에 대해서는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pp. 15~16 참조.

<sup>73</sup> 위의 책, p. 43.

1970년대 말 캄보디아 침공과 1979년 초 중국과의 전쟁, 자본주의 권 국가들의 금수조치 및 국제금융기구들의 금융통제 등은 베트남 경제를 더욱 악화일로에 처하게 하였다.

따라서 베트남 지도자들은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전의 사회주의적 관리체제를 변화시키고 체제 자체를 전환시키는 개혁 정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9년 9월에 개최된 제4기 당 중앙위원회 6차 회의에서 일부 지도자들은 비사회주의 경제부문의 활용, 경제관리의 지방분권화, 시장관계의 일정한 도입, 가격 및 임금의 조정, 국내 자원, 특히 지방 자원의 잠재력 개발 및 소비재 증산을 위한 생산자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 부여 등을 요구하였고, 일련의 경제자유화정책, 소위 ‘신경제정책’이 채택되었다. 이 회의는 기존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를 고려하는 다부문경제(multi-sector economy)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의 출발점이었다.<sup>74</sup>

따라서 제4기 당 중앙위원회 6차 회의를 계기로 개혁지향적 성향의 인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정치국 위원 중 보수파를 이루는 총비서 레주언(Le Duan)과 국가평의회 주석 쓰엉찐(Truong Chinh), 부수상 팜흥(Pham Hung), 당 중앙위원회 산하 조직위원회 위원장 레득토(Le Duc Tho), 당 중앙위원회 산하 과학·교육·선전·훈련위원회 위원장 또호우(To Huu) 등이 사회주의체제의 정통성을 강조하거나 보수적 시각을 내세운 데 반해, 수상 팜반동(Pham Van Dong), 부수상 겸 남북농업개조중앙위원회 위원장 보찌꽁

<sup>74</sup>- Dao Xuan Sam, “New Steps in the Change to the Market Economy (1979~2007),” Dao Xuan Sam and Vu Quoc Tuan (eds.), *Renovation in Vietnam: Recollection and Contemplation* (Hanoi: Knowledge Publishing House, 2008), pp. 32~33;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pp. 52~53.

(Vo Chi Cong), 부수상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레타인응이(Le Thanh Nghi),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보반끼엣 이후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는 마이찌토(Mai Chi Tho) 등은 개혁적 성향을 나타낸 인물이었다(<표 II-3> 참조).<sup>75</sup>

개혁파들의 요구에 따른 ‘신경제정책’은 특히 농업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1981~1985년간 농업생산량의 연평균 성장률은 4.9%로써 1976~1980년간의 1.9%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신경제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급자족을 이루지 못했고 북부베트남에서는 약 300만 명의 농민이 식량부족을 겪었다. 또한 노동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국가가 기업으로부터의 매입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국가재정적자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정부통제의 완화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 계층 간 소득격차의 심화와 매적매석 및 부패 등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침체 상태가 나타났다.<sup>76</sup>

이에 베트남공산당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신경제정책에 의해 자유화 방향으로 유도된 경제를 재(再)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심부에는 1981년 7월 국가평의회 주석에 오른 쯔영찐이 있었다. 그는 당시 급속한 개혁의 추진을 반대하는 보수파의 수장 역할을 하였다. 재통제정책은 농민이나 노동자 초과수입의 한도액 설정, 시장활동의 억제와 서비스부문에 대한 세율 증가, 남부지역의 농업집단화 강화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

---

75.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p. 53.

76. 권숙도,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1976~1990년대,” 『대한정치학회보』 17집 1호 (대한정치학회, 2009), p. 103;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pp. 54~55.

었다. 이러한 재통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물가인상 억제, 재정적자 감소,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으나, 베트남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또다시 경기침체를 가져오는 결과를 빚었다.<sup>77</sup>

신경제정책과 재통제정책이 실시되는 기간 동안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당내 논쟁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특히 제5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남부베트남에서의 사회주의화와 농민들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두고 심각한 이견이 표출되었다.<sup>78</sup> 그 결과, 1982년 3월에 개최된 제5차 당대회에서는 보수적인 인사 경향이 나타났다. 기존 정치국 위원 중 6명이 퇴임하고 4명이 새롭게 선임되었는데, 전임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레타인응이는 경제 침체에 책임을 지고 해임되었다. 응우옌반린(Nguyen Van Linh)이 정치국 위원으로부터 해임된 것이나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응우옌람(Nguyen Lam)이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것은 보수파의 견제 때문이었다. 제4차 당대회와 비교해 볼 때, 보수적 인사들은 건재했던 반면, 개혁지향적 인사 중 핵심 인사들이 퇴임하였다(<표 II-3> 참조).<sup>79</sup>

77. 권숙도,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pp. 103~104.

78. 당은 제4기 당 중앙위원회 10차 회의(1981.10.9~1981.11.3)를 장기간 개최하고 제5차 당대회 이전까지 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나 소집함으로써 당내 논쟁이 치열함을 나타냈다. 1981~1982년 지방당 전당대회에서 야기된 과열논쟁은 당초 1981년 말에 개최하려던 제5차 당대회의 개최 시기를 4개월이나 연기시켰다. 이는 지방당 당위원회의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해줌으로써 지방 당기구의 기능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가져왔다. Edmund McWilliams, “Vietnam in 1982: Onward into the Quagmire,” *Asian Survey*, Vol. 23, No. 1 (1983), p. 64; 김중욱, “베트남 경제 발전의 정치동학(1976~1997),” 『동남아시아연구』, 제13권 2호 (한국동남아학회, 2003), p. 265.

79.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p. 56.

하지만 베트남공산당은 제한적인 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보다 적극적인 개혁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트남 지도자들은 제6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였다. 이들은 필수적인 과도기 단계를 건너 뛴 사회주의로의 이행사업과 과도한 목표 설정 및 비사회주의적 요소에 대한 급격한 제거 시도, 경제현실에 부적합한 중공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자원 배치 등의 과오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sup>80</sup> 이에 따라 시장경제적 요소를 상당부분 도입하는 조치가

● 표 11-2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의 형성과정

시기	주요 계기	내용
1979. 9	제4기 당 중앙위원회 3차 회의	신경제정책
1981. 1	공산당 비서국 제100호 지시	농업에서 '농산물계약제' 도입
1981. 1	정부 결정 제25호	기업에서 '3계획제' 도입
1982. 12	제5기 당 중앙위원회 3차 회의	사업상업 규제(개혁 역전)
1985. 6	제5기 당 중앙위원회 8차 회의 제25호 결의	가격·임금·통화개혁에 대한 결의 정부보조금제 폐지 목표
1986. 12	제6차 공산당대회	'도이머이' 정책 채택
1988. 1	-	신(新)외국인투자법 시행
1988. 8	공산당 정치국 제10호 결의	농가계약제 채택
1989. 3	제6기 당 중앙위원회 6차 회의	시장가격으로 단일화

출처: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p. 20.

<sup>80</sup>- Communist Party of Vietnam, *6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Documents*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7), pp. 18~21;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pp. 62~63.

취해졌다. 1989년에는 전력·교통·연료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가격통제를 철폐하여 시장가격을 공인하고 배급제를 폐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가격 보조금 철폐, 계급별 차등화에 따른 소득구조의 해소, 국영기업부문의 실질임금 인상과 노동생산성 증대, 이중가격제 폐지, 원자재 가격의 현실화, 10:1 교환율에 따른 통화개혁 단행, 관료주의적 집중화의 해소 등이 실시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시장화 요소의 도입을 의미하였다.<sup>81</sup>

경제부문의 개혁정책은 권력엘리트들의 구성과 성격 변화를 동시에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 제6차 당대회는 개혁파가 재등장하는 획기적인 대회였다. 개혁파의 재부상을 알리는 신호탄은 1985년 6월 제5기 당 중앙위원회 8차 회의에서 응우옌반린이 정치국 위원으로 복귀한 것이었다. 남부베트남의 사회주의화 및 경제개혁을 주도했던 그는 이후 제6차 당대회에서 당 서기장으로 선출되었다.<sup>82</sup> 같은 해 7월에는 보수파인 또흐우를 보찌퐁(Vo Chi Cong)으로 교체하는 등 경제 관련 장관 8명에 대한 인사조치가 단행되었다. 새로 등용된 상업부 장관인 호앙민탕(Houng Minh Thang)은 경제자유화의 선봉장이었고, 대외무역부 장관인 도안주이타인(Doan Duy Thanh)은 생산물계약제(product contract system)<sup>83</sup>를 국가정책 결정 이전에 도입했던 하이퐁(Hai Phong)시 당위원

<sup>81</sup> 권속도,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p. 104.

<sup>82</sup> 이윤범, “베트남의 정치·경제체제 변화: 도이머이 정책과 공산당 역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 41~46.

<sup>83</sup> 생산물계약제는 베트남에서 1970년대 말 농민들이 지방간부들과 짜고 실시된 탈법적인 제도였다. 이는 단기간 농민에게 토지를 배분하고 의무 수매량을 계약하여 계약량 이상의 생산물에 대하여 농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1980년대 초반 신경제정책에 반영되었다.

회 비서 출신이었다.<sup>84</sup>

제6기 정치국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제5기에 비해 개혁지향적 인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이는 197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온 개혁을 둘러싼 논쟁을 마감하고, 전면적 개혁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특히 제6차 당대회 이전 1960년부터 당 서기장을 지낸 보수파의 거두 레주언이 사망하였다. 레주언 사망 이후 최고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던 쯔엥찐이 개혁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6차 당대회 이전 보수파의 대표적인 레득토가 쯔엥찐과 팜반동에게 서한을 보내 3인의 동시 퇴진을 제안함으로써 당원로들이 퇴장하고 새로운 인사들의 등용문이 확대되었다(<표 II-3> 참조).<sup>85</sup>

개혁파가 재등장하는 6차 당대회를 계기로 베트남공산당 내의 인적 구성이 크게 변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변화의 핵심은 권력엘리트들의 교체였다. 특히 응우옌반린의 당 서기장 선출로 남부 출신 당 간부들의 등용이 두드러졌다. 1982년 제5차 당대회와 비교하여, 과거 중앙당 출신위원이 42%, 지방당 출신위원이 30%, 군 출신위원이 13%를 차지했으나, 제6차 당대회의 경우에는 중앙당 출신위원과 군 출신위원 비중이 낮아진 반면에, 지방당 출신위원은 19%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도부 내의 인적 구성의 변화는 국가경제부문의 불안요인을 불식시키고 고도 경제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방 출신의 당 간부가

---

<sup>84</sup>- Bui Tin, *Following Ho Chi Minh: The Memories of a North Vietnamese Colonel*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pp. 137~140,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p. 60에서 재인용.

<sup>85</sup>- Nayan Chanda, "Changing the Guard," *FEER*, Vol. 13 (November 1986), pp. 10~11,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p. 62에서 재인용.



● 표 11-3 베트남 개혁·개방 초기의 당 정치국 위원 구성

	개혁 지향	보수 지향	불명확
제 4 기	팜반동(Pham Van Dong) 보쩌꽁(Wo Chi Cong) 레타인응이 (Le Thanh Nghi) 응우옌반린 (Nguyen Van Linh) 보반끼엣(Vo Van Kiet)	레주언(Le Duan) 쯔엥찐(Troung Chinh) 팜흥(Pham Hung) 레득토(Le Duc Tho) 또호우(To Huu) 도므어이(Do Muoi)	보응우옌잡 (Vo Nguyen Giap) 응우옌주인찐 (Nguyen Duy Trinh) 쩨꾸옥호안 (Tran Quoc Hoan) 반띠엔중(Van Tien Dung) 레반드링(Le Van Luong) 쭈후이먼(Chu Huy Man)
제 5 기	팜반동(Pham Van Dong) 보쩌꽁(Vo Chi Cong) 보반끼엣(Vo Van Kiet) 응우옌커타익 (Nguyen Co Thach)	레주언(Le Duan) 쯔엥찐(Troung Chinh) 팜흥(Pham Hung) 레득토(Le Duc Tho) 또호우(To Huu) 도므어이(Do Muoi) 레득아인(Le Duc Anh)	반띠엔중(Van Tien Dung) 쭈후이먼(Chu Huy Man) 응우옌득뎀 (Nguyen Duc Tam) 동씨응우옌 (Dong Si Nguyen)
제 6 기	응우옌반린 (Nguyen Van Linh) 보쩌꽁(Wo Chi Cong) 보반끼엣(Vo Van Kiet) 응우옌커타익 (Nguyen Co Thach) 쩨수언바익 (Tran Xuan Bach) 마이찌토(Mai Chi Tho)	팜흥(Pham Hung) 도므어이(Do Muoi) 레득아인(Le Duc Anh) 응우옌타인빈 (Nguyen Thanh Binh) 도안쿠에(Doan Khue) 다오주이퉁 (Dao Duy Tung)	응우옌득뎀 (Nguyen Duc Tam) 동씨응우옌 (Dong Si Nguyen)

출처: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pp. 54, 56, 64.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 대거 등용되면서 베트남은 적극적인 경제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sup>86</sup>

이 같은 베트남공산당의 개혁적 변화에 힘입어 인민회의에서도

<sup>86</sup>- 김종욱, “베트남 경제 발전의 정치동학(1976~1997),” p. 269.

I  
II  
III  
IV  
V  
VI

개혁이 구체화되었다. 이는 이전까지 당의 하부기관으로 대중여론을 형성하고 당의 정강과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도구적 지위에서 벗어나 당이 담당하지 못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1987년 4월 제8기 인민회의 선거 결과, 496석의 의원 정수에 입후보자 수가 826명에 달하고 최초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선거 결과, 지식인 출신이 123명, 농민 출신이 105명, 당원이 100명, 노동자 출신이 91명, 군인이 49명, 정치지도자 및 종교지도자가 9명, 수공업 출신이 19명, 여성이 88명, 소수민족 출신이 70명 당선되었다.<sup>87</sup> 이어 개최된 제8기 인민회의 제9차 회의에서 13명의 당 정치국원과 9명의 서기국원을 선출하였는데, 과거 혁명전사 출신들을 대거 탈락시키고 새로운 젊은 지도자들을 충원하여 정치국원 평균 연령이 제6차 당대회의 72세보다 적은 65세를 기록했다.<sup>88</sup>

개혁적인 권력엘리트의 등장과 함께 체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당 기구 개혁과 성격 변화도 이루어졌다. 당 기구 개혁의 초점은 첫째, 당 관료들의 업무를 경제적 분야와 전문관리 분야에 집중시키고, 둘째, 경제·행정 등 전문 분야의 당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셋째, 당 기구 내의 각 전문기구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89</sup> 베트남은 당 기구 개혁 및 당 관료의 전문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1987년부터 대대적인 규모의 당

87. 이한우, “베트남의 선거제도와 국회 구성의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제16권 1호 (한국동남아학회, 2006), p. 84.

88. Douglas Pike, “Vietnam in 1991: The Turning Point,” *Asian Survey*, Vol. 32, No. 1 (1992), p. 79; 김종욱, “베트남 경제 발전의 정치동학(1976~1997),” p. 270.

89. 박종철, “베트남의 체제개혁: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5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p. 38.

정화운동을 전개했다. 베트남공산당 창당 57주년 기념일인 1987년 2월 3일 당정화운동의 방침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그 목표는 “당 조직의 전투적 역량과 국가기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사회관계를 정화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이 정화 조치에 의해 35명의 당원 중 1명이 징계조치를 받았으며, 140명 중 1명이 당에서 축출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1980년대 이후 전체적으로 약 20만 명이 당에서 축출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편으로는 젊은 층의 당원 확충이 두드러졌다. 1987년 충원된 당원은 60%가 30세 이하이며, 그 중에서 40%가 여성으로 집계되었다.<sup>90</sup>

하지만 경제발전을 이끌 권력엘리트들의 정치적 리더십의 발전은 1989년 동구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중국 천안문사태를 계기로 다소 둔화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는 개혁에 박차를 가하길 원하는 일반대중과 당내 개혁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만한 어떤 것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0년 3월 제6기 당 중앙위원회 8차 회의에서 경제개혁의 속도와 정치 다원화 노력을 촉구하는 진보주의 정치국원인 쩌수언바익(Tran Xuan Bach)의 해임과 당 중앙위원회로부터의 축출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2년 6월 제7기 당 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사상의 쇄신, 당 조직의 개혁, 당 간부의 재교육, 리더십 형태의 변화를 통한 당 조직의 효율화, 당내 민주주의의 확대, 국가 및 사회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당의 쇄신과 정돈을 결의하였다.<sup>91</sup> 이것은 도이머이 과정상의 사회적 혼란과 도

<sup>90</sup>- Douglas Pike, “Vietnam,” *1988 Yearbook on International Communist Affair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8), pp. 226~227; 박종철, “베트남의 체제 개혁: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 pp. 39~40.

택적 해이를 단속하려는 것으로서 보수지도층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이전까지 성취한 경제개혁의 성과와 경제발전의 기본노선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1991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당과 정부 조직에서 개혁파 권력엘리트들의 입지가 더욱 공고화되었다. 제7차 당대회에서는 도므어이(Do Muoi) 신임 서기장과 보수파를 대변하는 레득아인(Le Duc Anh) 국가주석, 개혁파를 대표하는 보반끼엣(Vo Van Kiet) 수상이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다. 이 회의에서 146명의 중앙위원회 위원이 선출되었는데, 이 중 30%가 신임 위원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많은 기술관료 출신들이 포함되었다. 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도이머이 정책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하에 많은 기술관료들과 지식인층이 기용되었다. 이들의 기용으로 경제개혁의 확대, 정부 내 경제개혁을 위한 제도의 신설, 보수 이데올로기의 약화 등이 이루어졌다.<sup>92</sup> 당 기구 인적 구성의 이러한 개혁적 성향은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 베트남의 체제 전환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제7차 당대회에서는 보수적 성향의 지도부가 등장하였지만 공산당 일당지배에 의한 정치적 안정과 적극적인 경제개혁을 고수하였다. 1994년 1월에 개최된 당회의 기간 중 당 정치국 위원이 13명에서 17명으로 확대 개편되었는데 보수-개혁세력이 균형있게 기용되었고, 당 중앙위원회도 부패혐의를 받은 위원이 교체되는 등 확대 개편되었다. 그리고 1996년 6월에 개최된 제8차 공산당대회에서는 다시 도므어이 서기장, 레득아

---

91. 이한우, “‘도이 머이’ 정책 이후 베트남 정치제도와 지도부의 변화,” 『베트남연구』, 제1호 (한국베트남학회, 2000), p. 155.

92. 김종욱, “베트남 경제 발전의 정치동학(1976~1997),” pp. 270~271.

인 주석, 보반끼엣 수상이 재선출되었다. 1997년 12월에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레카피에우(Le Kha Phieu)가 당 서기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98년 9월 수상에 판반카이(Phan Van Khai), 주석에 트란덕루옹(Tran Duc Luong)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이념적 보수성과 경제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추진을 유지함으로써 전임 지도자들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였다.<sup>93</sup>

### 3. 북한의 권력엘리트 분석 모델

#### 가. 타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 초기 나타났던 정책 변화와 관련한 권력엘리트부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소련·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으로의 노선 전환은 경제문제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과거에 대한 비판적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개혁·개방의 이후 향배는 달랐지만 개혁·개방 자체는 일정한 정책갈등 및 노선투쟁에서 개혁파 권력엘리트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개혁·개방에 대한 권력엘리트들의 폭넓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목표와 수단, 속도와 범위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개혁파 권력엘리트들이 분화했다는 점이다. 넷째, 개혁·개방과정에서 권력엘리트들이 분화하면서 공산당 조직의 존속 여부가 체제 유지 및 붕괴의 갈림길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sup>93</sup> 김성주,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정치체제와 정책,” 『사회과학』, 37권 2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p. 152.

I
II
III
IV
V
VI

우선 중국과 소련 그리고 베트남 모두에서 개혁은 과거에 대한 비판적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소련의 경우 고르바초프는 흐루시초프가 그랬던 것처럼 스탈린주의에 의한 사회주의 왜곡을 비판하고 레닌주의로의 복귀를 강조함으로써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를 정당화하려고 했다. 중국의 개혁세력들도 마오쩌둥시대에 대한 비판적 반성으로부터 개혁과 개방정책을 위한 ‘역사적인 노선 전환’을 정당화하려고 했다.<sup>94</sup> 베트남 역시 통일 이후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조 시책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하였다. 요컨대 세 국가 모두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개혁 노선 채택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폭넓게 이루어져 있었다. 물론 이러한 노선 변화는 자본주의적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중국·소련·베트남 모두에서 사회주의체제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로 정당화되었다. 실제로는 개혁·개방과정이 탈사회주의화를 확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혁명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체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표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식적 이념과 현실 사이의 부조화 속에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개혁과 통제를 둘러싼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논쟁과 갈등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소련에서 스탈린시대는 전면적인 부정과 극복의 대상이었지만, 중국에서 마오쩌둥시대는 일방적으로 정리될 수는 없었다. 중국혁명과 건국과정에서 마오쩌둥시대가 남긴 유산의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95</sup> 이 점은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그

94-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p. 251.

95- 위의 책, p. 251.

들의 통치시대를 부정하면 그들의 공적도 부정하는 것이 되어 노동당 주도의 개혁·개방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본격적인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다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김정은의 평가는 마오쩌둥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전면 부정’이 아니라 ‘부분적 비판’과 기본적 수용의 형태를 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의 미래는 밝지 못한 측면이 있다. 수령의 정책과 기조를 계승해야만 하는 김정은으로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획기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주체’의 극단적 자기중심성, 폐쇄성, 기반의 협소성은 이를 제약하기 때문이다.<sup>96</sup> 이러한 점은 김정은체제의 정책 및 노선 변화를 둘러싼 권력엘리트 간의 치열한 논쟁과 갈등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둘째,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개방 추구는 소련과 같이 급진적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체제붕괴로 이어졌든, 중국·베트남과 같이 체제이행의 과정을 거쳐 체제전환으로 이어졌든 그것이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변화가 모색되었다는 점에서 권력엘리트 집단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사회주의국가, 특히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노선의 채택 이전에 정책 및 노선의 전환을 둘러싼 권력엘리트 간의 심각한 권력투쟁이 전개되었고, 여기에서 개혁파가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이 가능했다. 소련의 경우에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고 대중의 불만이 증폭되면서 지배엘리트들의 위기의식이 심화되어 개혁파의 리더인 젊은 고르바초프

I
II
III
IV
V
VI

<sup>96</sup>- 서동만저작집간행위원회 엮음, 『북조선 연구』 (서울: 창비, 2010), p. 80.

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하였고, 고르바초프는 집권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권력엘리트들을 근원적으로 교체하면서 역사적인 전환과정을 밀고나갔다. 중국의 경우에는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중국 인민들이 겪었던 고통과 극좌파의 난동이 마오쩌둥의 권력승계 유지(遺志)에도 불구하고 덩샤오핑 등 개혁파의 권력 장악을 가능하게 하였고, 개혁파의 득세는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이루어가는 개혁·개방 노선의 성공을 가져왔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강대국으로부터의 독립과 남북베트남의 통일로 인한 자신감 그리고 소련과 중국의 개혁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보수파의 거두들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동반 퇴진함으로써 개혁정치가 가속화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사회주의국가에서 나타난 본격적인 개혁·개방 노선 채택 이전의 정책갈등과 노선투쟁은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등장 이후 2000년대 중반 물러났던 개혁파 경제관료들이 다시 등장하여 내각에 등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2002년 남북관계 및 대외환경 개선에 힘입어 건국 이래 가장 역동적인 개혁정책으로써 7.1 조치를 내놓았다. 이후 북한당국은 종합시장을 허용(2003.3)하고 「공장·기업소 운영개선안」(김정일의 1.21 방침)의 시행과 함께 가족영농제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포전담당제 시범 실시(2004.3), 기업소 부업농제 실시(2004.1) 등을 단행했다. 하지만 7.1 조치 이후 일련의 개혁조치를 확대하려던 박봉주 내각의 시도는 균경제·당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권력엘리트 집단의 반발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sup>97</sup> 이러한 점은 사회주의국가에

---

<sup>97</sup> 권영경,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실태: 현황과 쟁점,”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평가와 전망』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서울경제신문 공동주최 학



서 개혁·개방 초기 시장경제의 도입·확산으로 인한 경제의 이중구조 속에 진퇴를 반복하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에서 시행되거나 도입이 고려된 조치들은 중국에서는 이미 대약진 실패 이후 조정정책에서 다루졌거나 1970년대 말 이후 본격적인 개혁정책이 전개될 때 시행된 것들이 많다. 베트남에서도 1979년 제4기 당 중앙위원회 6차 회의 이후 논의되고 시행됐던 조치들이 이후 재(再)통제 시기를 거쳐 더욱 확대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도 2009년 화폐개혁 실패와 시행착오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개혁·개방 노선의 확대가 시도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에서 나타났던 개혁·개방과정과 같은 경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중국·소련·베트남에서는 개혁·개방과정이 진행되면서 개혁의 목표와 수단, 속도와 범위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권력엘리트들이 분화하였다. 이들 국가들에서 권력엘리트들이 개혁·개방 노선 선택에 대해 폭넓게 합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 스스로조차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개방과정이 진행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엘리트들은 개혁파, 중도파, 보수파 등으로 분화하였다.<sup>98</sup> 소련에서

---

술회의, 2012.8.28), pp. 15~16. 이에 대해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역학관계가 개입되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과 박형중 외, 『북한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참조.

<sup>98</sup> 소련의 경우, 고르바초프와 셰바르드나제(E. Shevardnadze), 야코블레프(A. Yakovlev) 등과 같은 개혁파들은 개혁정책을 시작했을 때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고 있었는지 스스로조차 알지 못했다. 이는 고르바초프 자신의 저서인 1987년의 『페레스트로이카』 (고명식 譯, 서울: 시사영어사, 1988)에 잘 나타나 있다. 고르바초프의 행동이 역사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가 소련에서 레닌과 공산당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점,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사유화와 정치적 다원주의를 배격했던 점, 사회 및 민족문제에 대한 소련식 해

는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개혁주도파의 중심인 고르바초프와 정통 보수파를 대변하는 리가초프 그리고 급진개혁파의 ‘독불장군’ 옐친 등은 모두 개혁파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기존 권력엘리트들의 고령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바탕으로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짧은 기간에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여 페레스트로이카가 본 궤도에 오르기 이전까지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급진개혁파가 1987년 당 중앙위원회를 계기로 개혁과 재편을 넘어 자본주의적 시장요소의 대폭 도입을 주장하면서 개혁파는 분열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년도 채 못 되어 제28차 당대회가 개최될 즈음에는 보·혁 대립이 사회주의의 진로와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두고 사실상의 이념투쟁으로 변질되어 극단적인 권력투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사망 이후 덩샤오핑 등 개혁파가 중국인민들의 폭넓은 욕구를 바탕으로 군부 중심의 중도파와 연합하여 화궈평 중심의 범시파를 몰락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개혁·개방정책을 위한 간부4화(혁명화·연소화·지식화·전문화)정책 실시와 그에 따른 군 원로간부 퇴진 그리고 보수파의 반격과 후야오방 총서기의 실각, 후임 자오쯔양이 개혁 가속화 정책과 보수파의 재반격에 따른 6.4 톈안문(天安門)사태, 장쩌민 총서기의 발탁과 개혁정책 후퇴에 대한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등이 전개되는 과정

---

결책을 찬양했던 집 등은 그의 개인적 경력과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잘 발달된 이데올로기적 신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중국 역시 수많은 선언과 구호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실험되고 도입된 제도들과 정책 내용, 추진 시기 및 절차에 대해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청사진이 마련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중국 또한 개혁 추진과정에서 정책적 선택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갈등, 권력투쟁 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

은 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장기적 방향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혁·개방 노선의 모호성과 불투명성은 필연적으로 권력엘리트의 대립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만 중국에서는 권력엘리트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소련과는 달리, ‘급진적’ 정치개혁을 배제한 채 주로 경제영역에서의 개혁추진, 집단지도체제의 경험과 정책적 유연성을 가져온 개혁파와 보수파의 균형유지, 개혁파가 장악한 공산당에 대한 중국인민의 지지, 개혁·개방의 목표와 수단의 상충을 조정하는 공산당의 역할 등으로 인해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정치적 안정이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가능케 하였다.

2012년 4월 김정은체제의 공식 출범 이후 ‘북한식’ 개혁·개방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과정에서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의 전격 해임이 발표(2012.7.16)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7.1 조치를 확대한 새로운 경제관리방식, 즉 소위 ‘6.28 방침(“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데 대하여”)’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당·군 경제사업의 내각으로의 이관이 이루어지고 이에 군부가 반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의 진위 여부를 떠나 향후 북한에서는 개혁 노선 추진과정에서 개혁의 목표와 수단, 속도와 범위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권력엘리트 간 정치동학이 작동할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 개혁·개방 초기 권력엘리트 집단 스스로조차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화를 거듭했던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개혁·개방의 지속적 추진의 절대 불가결한 조건은 정치적 안정이며, 사회주의체제 전환과정에서 공산당의 유지 여부가 권력

엘리트 변환의 조건이 되었다. 소련에서는 개혁·개방의 목표와 수단, 범위와 속도를 두고 권력엘리트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다가 공산당으로부터 의회로의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고 정치적 다원주의에 근거한 선거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수파가 궤멸하였다. 반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당시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개혁파가 지도부를 장악하고, 공산당의 영도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지지하에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지속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당-국가체제와 사회주의 공유 개념은 유지하면서 기존 계획통제체제의 급격한 이완을 방지하고 공산당의 역할을 서서히 축소시켜 나갔다. 이들 국가에서는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공산당 지배가 정치적·이념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체제 전환과정을 모색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이미 공산당 내 정치적 대립과 갈등, 권력투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 선택에 상대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데 비해, 북한의 경우에는 정책과 노선을 둘러싼 정치투쟁 경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통해 의사결정권한이 분권화되면 개혁 목표와 수단의 상충, 범위와 속도의 불일치성이 나타날텐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력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초기 나타났던 권력엘리트 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면 몇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권력엘리트 집단의 폭넓은 세대교체, 테크노크라트와 전문관료의 등용 확대, 권력엘리트 집단의 문민화 경향, 권력엘리트 집단 내부의 파벌정치 확대, 권력엘리트 내부의 지방주의, 지역주의 강화이다.<sup>99</sup>

이를 좀 더 설명하면 첫째, 중국과 소련 그리고 베트남의 개혁·

개방 초기 모두가 안고 있었던 문제 중 하나는 권력엘리트 집단의 노령화 문제였다. 이러한 권력엘리트들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당 정치국과 서기국을 중심으로 폭넓은 인물교체를 단행하였고, 중국에서는 권력엘리트들의 은퇴와 퇴직을 제도화하기 위해 당과 국가의 법규를 개정하여 핵심 권력엘리트들의 대대적인 인사개편과 세대교체를 준비하였다. 특히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시대에는 60%가 넘는 당 중앙위원 교체율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베트남 역시 제6차 당대회 이후 젊고 새로운 기술간부들이 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세대교체를 폭넓게 이루어냈다.

둘째,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 초기 권력엘리트들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기술간부, 테크노크라트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등용된 핵심 권력엘리트들 중 다수는 대학을 졸업한 테크노크라트들이거나 당·정 간부를 역임한 전문관료 출신이었다. 덩샤오핑시대에 등용된 당 중앙위원과 정치국원들은 마오쩌둥시대에 비해 괄목할만한 교육 수준을 가진 전문관료였다. 기술간부들은 1982년 당 중앙위원의 2%인 4명이었던 것이 1987년에 26%인 34명, 그 뒤 10년 후인 1997년에는 51%인 98명으로 증가하였고, 당 중앙위원들 중 당·정 간부 출신 비율은 1969년 제9기 중앙위원의 27.6%에 비해 1982년 12기에 66.7%, 1987년 13기에 77.5%로 대폭 증가하였다.<sup>99</sup> 베트남에서도 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도이머이 정책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

99. 특히 이러한 특징은 중국 개혁·개방 초기에 잘 나타난다. 서진영, 『21세기 중국 정치』, pp. 218~232.

100. 위의 책, p. 225.

했다는 분석하에 1991년 7차 당대회 이후 많은 기술관료들과 고급 지식인층이 기용되었다.

셋째, 권력엘리트 집단에서 기술관료와 고급 지식인 그리고 당·정 간부들의 비중이 커진 데 반해, 군 출신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어 권력엘리트 집단의 문민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국내정치에서 군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았던 중국에서 두드러졌다.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의 대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군이 동원되었고, 개혁파들이 4인방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다시 군부의 지원을 받게 되어 군 출신이 과다 대표되었다. 베트남에서는 1982년 제5차 당 대회 당시 군 출신위원 비율이 13%를 차지했으나,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군 출신비율이 더욱 떨어졌다.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 시기 국내정치의 정상화 및 제도화 여부, 공산당의 군에 대한 통제 유지 여부 등에 따라 문민화 경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정치의 정상화 및 제도화가 진행되고, 군의 전문화가 확대되면서 군의 영향력은 축소·조정되었다.

넷째, 중국·소련·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정치에서 그리고 권력엘리트 집단 내부에서 파벌정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파벌은 그 존재가 인정되지도 않았고, 파벌주의는 ‘일탈 행위’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지연·학연 그리고 기타 공통적인 조직 경험을 매개로 형성된 사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권력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개혁 노선의 채택을 둘러싸고 광범위하게 이해관계를 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결과이다. 북한과 같은 특수한 정치체제에서도 앞서 살펴본 ‘보호와 충성의 상호교환’을 바탕으로 한 후원자-

추종자관계는 보편적 현상일 것이다.

다섯째, 권력엘리트 내부의 정치동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권력엘리트의 지역적 구성과 지역주의도 관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권력엘리트들의 지역적 분포가 불균등한 데에는 공산혁명의 지도자를 배출하거나 불균등 발전전략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 즉 주목받는 지역의 과다 대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지방정치 배경을 가진 특정 인사의 중앙 정계에서의 부침과 지역의 상징성에 따라 시기별로 특정 지역이 과다 대표된 사례가 있고, 베트남에서도 도이머이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남부베트남 출신들의 중앙 정계 진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북한에서도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지방당 출신들의 등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나. 권력엘리트 분석 모델

엘리트이론은 유럽 사회주의 정당과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다윈주의와 마르크스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이러한 이론들이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의 발전과정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들의 권력엘리트이론은 오히려 당-국가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소수의 정치엘리트들이 등장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더 적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sup>101</sup>

우선 고전적 엘리트론의 적실성을 살펴보면, 북한 내에서도 모스카가 주장하는 핵심 권력엘리트들에 의한 지배는 불가피하고, 권위(authority)의 흐름과 충원(recruitment)의 근거를 기준으로

<sup>101</sup>- 위의 책, p. 206.

불 때 군주제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파레토의 이론을 적용하면 북한 내에서도 ‘여우’와 ‘사자’형의 엘리트 순환이 권력배분, 체제의 생산성, 가치와 믿음, 자원배분의 평등성, 사회적 유동 등의 다섯 가지 기본 변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김정은 등장 이후 최근의 권력엘리트 변화를 중국이나 소련, 베트남에서와 같이 혁명간부의 기술간부로의 전환, 그리고 기술간부의 일반간부로의 전환과 같은 경향을 원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미첼스의 이론에 따라 북한 내에서도 과두제의 지속 방법으로 핵심간부가 등용되고 권력을 장악·유지 및 강화할 수 있는 재정·선전 등의 수단의 보유 여부가 체제 유지의 관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수에 의한 과두제의 보수주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관료제 경향으로 인해 민주주의문제는 필연적으로 대두할 수밖에 없음을 분석할 수 있다.<sup>102</sup>

근대적 엘리트론을 적용하여 지배엘리트들이 통합된 단위로서 이해와 행동에 통일을 기하게 하는 통합성(unity)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및 심리적 친근감(사회적 근원, 교육, 경력, 생활양식 등), 권력엘리트들이 차지하는 제도적 영역에서의 이해의 일치(권력수단을 통제하는 자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자), 핵심 권력엘리트들의 역할 상호교환 등이 북한체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또한 개혁·개방 노선의 채택이 다양한 정책대안의 경쟁을 전제로 할 때 전문화된 복수엘리트들의 경합과 상호견제를 내용으로 하는 다원적 엘리트론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사회주

---

<sup>102</sup>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국유화되는 사회적 부(social wealth)의 관리는 행정가들에게 그 이전 자본가들 못지않게 영향력을 안겨 주기 때문에 지위의 계승문제는 민주주의문제를 담게 된다.



의국가의 개혁·개방 시기에 나타나는 테크노크라트 혹은 기술간부의 등장과 그들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증대가 산업사회의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할 때,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이해 상충 및 비합리성을 내재한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제거하는 문제가 북한에서도 개혁·개방 추진과정에서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에서 북한의 권력엘리트 및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부각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조직화된 소수의 지배와 과두지배의 철칙 그리고 개혁·개방의 대안을 둘러싼 복수엘리트들의 존재 등에 따라 체제를 지배하는 소수의 권력엘리트들의 등장과 변화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북한체제를 지배하는 정치엘리트, 특히 소수의 권력엘리트들은 당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계층이다. 물론 북한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다른 종류의 엘리트들이 존재하지만, 정치엘리트들은 노동당원들을 주축으로 노동당을 조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권력엘리트 집단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노동당의 조직적 침투와 지배체제가 전일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은 북한의 정치엘리트를 구성하는 핵심 조직이고, 그 중 북한 사회를 기능별·분야별로 대표하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권력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권력엘리트 변화에 따른 정책갈등 분석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정은 중심의 일인지배 모델 혹은 전체주의적 모델이다. 김정은체제의 공식 출범 이후 세계가 김정은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은 연이어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103</sup>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파격적인 모습을 개혁·개방 노선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전조라고 평가

I
II
III
IV
V
VI

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개혁·개방 노선으로의 전환과 같은 결정은 김정은 일인이 정책과정과 정치구조를 장악한 결과로써 나타난 것인가? 이것이 김정은의 배타적인 정치 권한의 산물이라면 향후 개혁·개방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에서 개인 혹은 집단 간의 대립이나 갈등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모델하에서는 개혁·개방이 본격화될 때 전개될 다양한 정책대안과 전략에 대한 전망을 김정은의 개인적 특성이나 정책 선호도, 이데올로기적 배경 등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될 때 다양한 정책대안과 전략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실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대체로 김정은의 권력과 권한이 김정일시대와 비교하여 강력하게 배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내 주요 의사결정 방식이 수직적이기보다 후견·지지세력과 상호 의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김정은체제의 권력구조는 ‘제한적’ 일인지배체제와 통치연합(‘수령없는 수령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령시스템의 최정점에 김정은이 위치해 있으면서, 친족 후견세력인 김경희와 장성택을 중심으로 당·정·군과 공안·인사·군사·경제 등의 부문별·분야별 후견·지지세력의 지원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sup>104</sup>

---

<sup>103</sup>. 장거리 로켓 발사 시 외국 언론 초청과 실패 사실의 신속 보도(4.13), 김일성 탄생 100돌을 맞아 김정은 제1비서의 첫 공개연설(4.15), 행정의 부정적인 측면과 치부 공개(5.9), 파격적인 모란봉악단 시범공연(7.6)과 녹화 방영(7.11), 리영호 군 총참모장 전격 해임 발표(7.16), 리설주의 등장과 자유분방한 모습 공개(7.25) 등.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의 권력이 양기에 이루어졌던 권력구조의 일반적 형태와 권력승계과정이다. 과거 사회주의체제에서 최고지도자의 사망이나 유고가 곧바로 권력승계의 계기가 되었고, 이는 곧 권력의 분산을 수반하게 되었다. 그리고 권력의 공백이나 승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체로 과도기적으로 ‘과두제적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과두제는 대체로 단기간만 지속되었는데,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적 일인지배체제(limited personal rule)’로 이행했다가, 승계위기를 극복하면 새로운 일인지배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인지배체제로 전환되었을 때 이데올로기 체계와 정책방향 수정이 가능하였다.

현재 북한에서 나타나는 권력구조는 핵심 권력엘리트들에 의해 김정은이 떠받들어지는 과두제적 집단지도체제 혹은 제한적 일인지배체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나타났던 권력구조의 일반적 형태에 더해 수령시스템과 그 정치문화가 작용하고 있다. 수령시스템과 그 정치문화에서 비롯되는 김정은의 권력과 권위 그리고 그에 따른 결정적인 역

---

104. 김갑식, “김정은 체제의 특징과 향후 전망,” 『6.15정신계승과 평화통일, 그리고 남북관계 전망』 (6.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 기념 특별학술회의, 2012.6.15); 박형중, “김정은 통치연합의 출범과 특징,”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18, 2012.4.23); 이기동,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유일지배체제’ 균열 가능성 검토: 권력엘리트 간의 수평적 균열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2012.4.23); 이기동, “리영호 해임과 북한의 권력구조,” (극동연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12-2, 2012.8.16); 이상숙,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와 경제개혁·개방정책 추진 가능성,” (외교통상부 주요국제문제분석 2012-17, 2012.7.23); 장용훈,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분석,” (KNSI 제40-1호, 2012.8.29); 한기범,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와 개혁·개방 전망,” (극동연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12-2, 2012.8.16); 현성일, “리영호 해임 이후 김정은 권력구조,” (극동연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12-2, 2012.8.16.).

할은 다른 권력엘리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중심의 일인지배모델 혹은 전체주의적 모델을 적용할 경우, 권력구조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엘리트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 부재라는 상황적 측면과 그 역으로서 북한 정치체제가 갖는 독특한 특성이 정책결정과정에 투영되는 규정적 측면이 갖는 한계를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인지배모델 혹은 전체주의적 모델에 반대되는 접근방법은 개인 또는 엘리트집단이나 제도화된 조직 간 대립의 산물로서 정책이나 노선의 변화를 바라본다. 우선 정책경향모델의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모델의 설명틀에 의하면 2002년 '7.1 조치'를 뛰어넘는 2012년 '6.28 방침'과 같은 조치는 적어도 두 그룹 이상, 즉 장성택을 위주로 한 개혁파와 리영호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 간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다. 즉 두 집단 간의 대립은 북한이 처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專)'의 그룹과 선군노선 같은 이데올로기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홍(紅)'의 그룹 간 경쟁의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델과 같이 정책노선 상의 경쟁과 대립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볼 경우 보수파를 모두 개혁조치에 반대하는 그룹으로 분류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2010년 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개혁의 필요성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과거 사회주의국가의 사례처럼 개혁의 목표·수단과 범위·속도 등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입장을 갈라놓을 수도 있다. 또한 하나의 세력이 상대방 세력을 견제하거나 봉쇄하기 위해 관료 그룹 같은 제3자의 존재와 연합세력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설정도 가능하다. 과거 중국에서의 덩샤

오핑처럼 김정은이 두 개의 상이한 그룹 사이에서 정책 및 노선이나 개혁의 범위·속도를 조정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김정은이 장성택 그룹과 리영호 그룹 간 대립과 갈등에서 장성택 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분석은 이와 같은 분석의 사례일 것이다.

두 번째로 관료정치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모델의 설명틀에 의하면 북한의 권력엘리트 간 갈등을 노동당 내의 기능별·분야별 조직이나 기구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경쟁으로 설명한다. 김정은 등장 이후 과대성장한 군부의 막대한 경제적 기득권을 내각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군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리영호의 해임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이와 같은 사례일 것이다. 또 최룡해의 총정치국장 기용을 통한 군에 대한 통제를 김정일시대의 당·군관계와 다르게 분석하는 것은 당·군 일체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관료적 에토스를 지닌 제도적 경쟁을 상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제도적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어 비공식적인 개인 간의 관계나 개개인의 정책 및 이데올로기상의 차이를 경시할 수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는 수령시스템과 그에 따른 정치문화라는 요인의 규정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은과 개인 그리고 개개인들 간의 역학관계나 상호의존관계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실제적인 권력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의 핵심 정책결정자들의 영향력과 역할의 범위가 당·정·군의 공식적인 지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정·군에서 잔뼈가 굵은 영향

력 있는 원로들은 확고하지 않더라도 관료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일정한 권력기반을 구축했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장악한 정치권력의 절대성과 당 내에서의 권력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파벌주의-권력모델의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모델은 북한의 특수한 정치구조하에서 기능별·분야별 조직이나 기구들이 제도화된 이익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트 간 갈등을 파벌 간의 권력투쟁으로 설명한다는 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이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적인 연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장성택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여러 연구들은 장성택과 비공식적인 사적 관계로 결속되어 있는 인물들이 당·정·군의 핵심 요직에 등용·포진해 있고, 그 동안 최룡해 등을 비롯한 핵심 권력엘리트들이 장성택과 부침을 같이 해왔다면서 일정한 파벌을 상정한다. 이러한 모델은 ‘6.28 방침’과 같은 조치를 경제적 효율성 등의 ‘이슈’를 두고 경쟁한다고 보는 정책경향모델과는 달리, 정치적 집단 간의 조직화된 경쟁의 산물로 본다. 이러한 시각은 북한 내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이 권위·이익·영향력·안전을 위해 경쟁하고, 반대 세력의 형성·강화를 방지·제거하며, 같은 세력 내 구성원들의 결속·충성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한다. 북한처럼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을 생활규범화하고 있는 곳에서도 반규범적인 사적 연줄망이 개인적 지위와 위상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치체계의 공유를 통해 협력하는 비공식적인 파벌들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비공식적인 요소를 통해 권력엘리트들 간의 갈등을 설명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는다. 우선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항상 투쟁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권력엘리트 전체가 단순히 정치권력의 극대화만을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설명들은 파벌 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한 공존, 파벌 간의 갈등과 다른 갈등 간의 상호작용, 주된 갈등 형태로서 파벌주의가 표출되는 상황 등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철저히 차단·근절해온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연줄망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증적인 분석이나 논증이 불가능하고 소문 등에 의한 추론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근본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로 후원자-추종자관계모델의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05</sup> 이 모델의 설명틀에 의하면, 후원자-추종자관계는 특수한 정치문화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양자 간의 인간관계에서 ‘보호와 충성의 상호교환’ 관계는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확대된 시장을 주기적으로 단속해 가는 과정에서 규제와 인허가를 관장하며 지대추구행위를 일삼는 중간간부들과 특혜를 기대하는 일반주민들 간의 관계를 이러한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엘리트 층원구조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고려할 때 지배엘리트 내에서 추종자들이 후원자그룹을 이루는 원로들이나 핵심간부들과 개인적 친분이거나 사적인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는 것

<sup>105</sup> 추종자-후원자관계를 북한연구에 응용하거나 적용한 학자들은 많지 않다.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등이 선도적인 작업이다.

은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정치는 한편으로는 최고 권력엘리트로부터 하부 말단 간부들에 이르기까지 연줄망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소련과 같은 ‘노멘클라투라’ 같은 제도<sup>106</sup>는 노동당에게 인사권 장악과 집중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인사에서 개인의 추천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능하고, 노동당은 후원자와 추종자 간 권력과 자원을 교환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북한에서 복원되고 있는 노동당의 정상화와 당을 통한 지배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권력엘리트들의 충원이 선거나 시험 등이 아닌 임명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권력엘리트들의 은퇴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당의 정상화는 정실주의, 파벌주의 등에 기초한 후원자-추종자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이 모델은 파벌주의-권력모델과 마찬가지로, 북한정치에서 실질적인 조직의 기능수행과, 개인의 권력기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결합에 기초한 연줄망, 즉 후원자-추종자관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이다. 공식적인 기구의 핵심 권력엘리트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권위나 영향력 또는 후원에 기초한 초법률적인 수직적인 상하관계와 수평적인 동료관계의 연줄망을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의 권력엘리트 충원이 임명으로 이루어지고 권력엘리트들이 보유한 직

---

<sup>106</sup> 박형중의 권력엘리트의 범주 구분이나 최근 이기동의 ‘훈척세력’ 등 엘리트의 분류는 ‘노멘클라투라’와 같은 엘리트 충원구조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이기동,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유일지배체계’ 균열 가능성 검토: 권력엘리트 간의 수평적 균열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기동, “리영호 해임과 북한의 권력구조.”



책이 사망 할 때까지 유지되는 종신제를 특징으로 하는 점에서 후원자-추종자관계는 필연적이지만, 정실주의와 부패로 인해 정치의 비능률과 침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개별 후원자-추종자관계의 실증적인 자료나 증거 제시는 불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권력엘리트 변화에 따른 정책갈등 분석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가 가장 나은 모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적용 사례<sup>107</sup>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모델들이 동일한 현상에 대해 상이한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설명력과 분석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모델이나 관점에 얽매이지 말고 특정한 정치현상이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만족스러운 이론과 주장들을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정치권력의 이동과 정책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측면과 개인이나 집단 간의 정책, 권력 및 이데올로기 상의 경쟁이라는 미시적 측면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I

II

III

IV

V

VI

107. 琴喜淵, “中國 엘리트의 갈등분석과 後援者-追從者關係,” p. 141.



### Ⅲ.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본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 1.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본 북한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는 지난 2010년 9월 28일에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이하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선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이하 당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을 분석대상으로 한다.<sup>108</sup>

당 중앙위는 노동당을 비롯하여 국가기구(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내각), 군대, 그리고 근로단체, 정당 및 사회단체 등에 소속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체제를 주도해 나가는 권력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위원 124명과 후보위원 105명이 선출되었다.<sup>109</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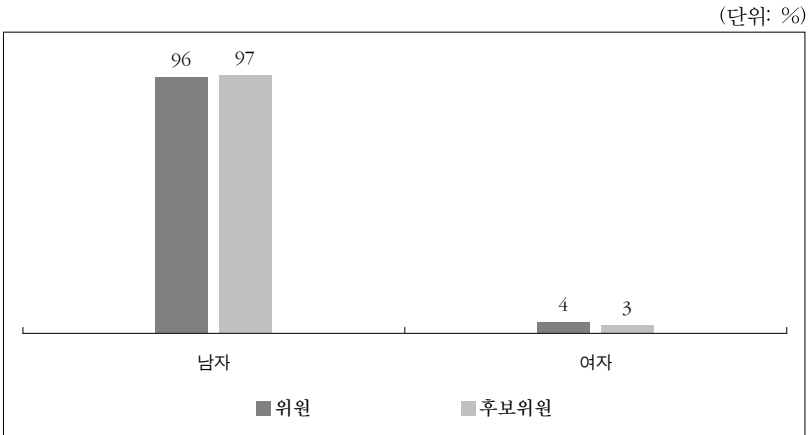
<sup>108.</sup> 이 연구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의 신상 관련 정보 부족과 수집된 정보의 신뢰도에서 비롯된다. 특히 후보위원들에게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 권력엘리트 200명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한 관련 선행연구결과물이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기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어질 후속연구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 가운데 상위 권력엘리트들에 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신뢰도도 낮지 않은 편인바, 이 연구결과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북한 권력엘리트 동향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up>109.</sup> 제3차 당 대표자회 이후 사망, 실각, 또는 해임 등으로 일부 권력엘리트들의 변동이 있었으나 당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에서는 일단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의 신상 관련 내용들은 주로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에 의거하였으며 이외에 관련 문헌들을 참조하였다. 특히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한 문헌은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2010 북한기관별 주요 인물정보』(서울: 통일연구원, 2010)이다.

## 가. 성별

북한체제를 주도해 나가는 핵심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124명의 당 중앙위 위원들은 절대 다수인 119명(96%)이 남성이다. 여성위원은 80대의 김정숙(83)과 김락희(80), 60대의 김경희(67)와 한광복(67), 그리고 나이가 알려지지 않은 김정임 등 5명(4%)에 불과하다. 후보위원 역시 총 인원 105명 가운데 남성이 102명(97%)으로 절대 다수이며 여성 후보위원은 90대의 황순희(94), 70대의 김영숙(71), 그리고 50대의 로성실(53) 등 3명(3%)이다(<표 III-1> 참조).

● 표 III-1 성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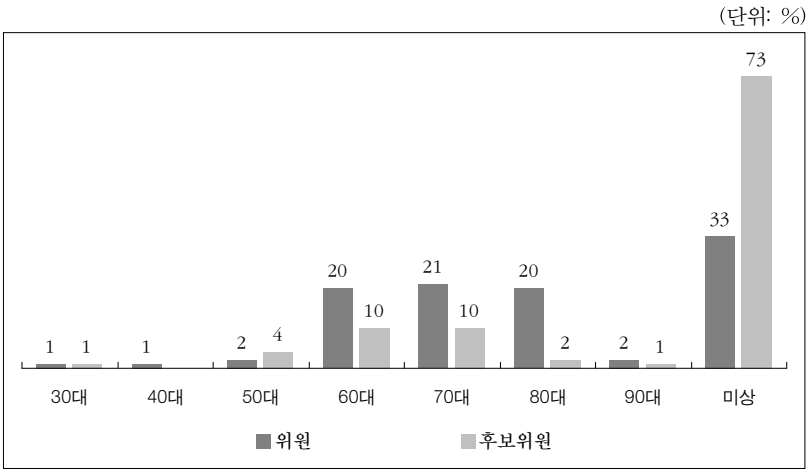


## 나. 연령대별

당 중앙위 위원 124명의 연령대<sup>110</sup>는 70대가 26명(21%)으로 가

<sup>110</sup>-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의 연령은 2012년 현재의 나이로 한다.

● 표 III-2 연령대별 분포도



장 많으며 60대와 80대가 각 25명(20%), 50대 3명(2%), 90대 2명(2%), 30대와 40대가 각 1명(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총 인원의 63%(78명)가 60대 이상이다. 위원들 가운데 41명(33%)은 출생연도가 파악되지 않았다. 후보위원 105명의 연령대는 60대와 70대가 각 10명(10%)으로 가장 많으며, 50대 4명(4%), 80대 2명(2%), 30대와 90대가 각 1명(1%)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후보위원들 가운데 77명(73%)은 출생연도가 알려지지 않았다(<표 III-2> 참조).

최고령자는 90대의 위원 김철만(95)과 리을설(92), 그리고 후보위원 황순희(94)이며 세 사람 모두 항일빨치산 출신 1세대들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40대 위원으로는 박광철(47)만 파악되었고 후보위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30대 위원 역시 당 제1비서 김정은 1명만 파악되며<sup>111</sup> 후보위원으로는 로광철(33)이 있다. 최연소 위원은 김

<sup>111</sup> 최근 유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김정은이 1984년생이라고 밝힌바 있다.

I  
II  
III  
IV  
V  
VI

정은 제1비서이며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의 최고실력자이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27일 군 대장 칭호를 받았으며 다음 날 열린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위 위원 및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신설)에 선출되었고, 김정일 사망(2011.12.17) 직후 군 최고사령관(2011.12.30)이 되었다. 또한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4.1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4.13)를 통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으로 추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군 원수 칭호(2012.7.18)도 받음으로써 당·국가기구·군의 최고수위에 올랐다.

#### 다. 출신지역별

중앙위 위원들의 출신지역은 평안도 14명(11%)과 함경도 14명(11%)이 가장 많고, 평양 6명(5%), 자강도와 양강도가 각 4명(3%), 강원도 3명(2%), 황해도와 중국이 각 2명(2%), 남포·소련·남한이 각 1명(1%) 등의 순이며, 출신지역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72명(58%)에 달한다. 후보위원들의 출신지역은 평안도 3명(3%), 함경도 1명(1%), 평양 1명(1%), 중국 1명(1%) 등 총 6명(6%)만 알려져 있을 뿐 나머지 99명(94%)은 출신지역이 파악되지 않았다(<표 III-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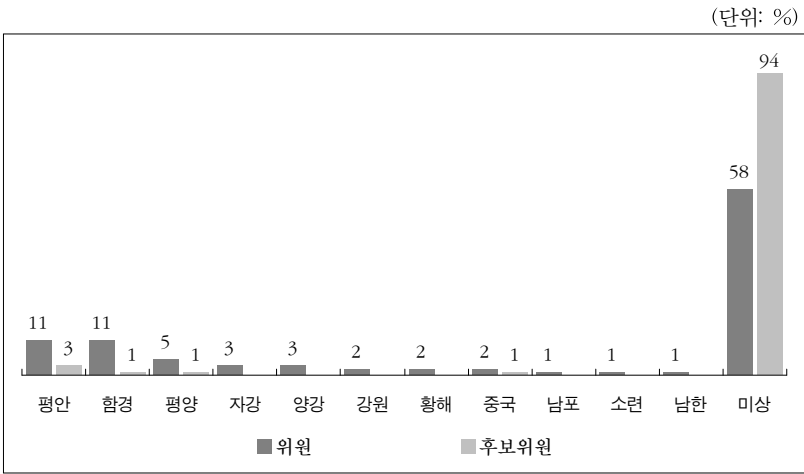
강석주(평원)·김락희·김양건·김정각·김창섭·리용무·우동측(평원) 등의 위원과 후보위원 강관주·김영숙은 평안남도 출신이며, 김영일·려춘석·리태남·박명철 등의 위원과 후보위원 김계관은 평안

---

통일부 발간물에서도 김정은의 출생년도와 관련하여, 1월 8일생이며 “연도미상, '82.'83.'84년생 설이 있음”이라고 정리되어 있다. 통일부, 『북한 주요인사 인물 정보』, p. 207.



● 표 III-3 출신지역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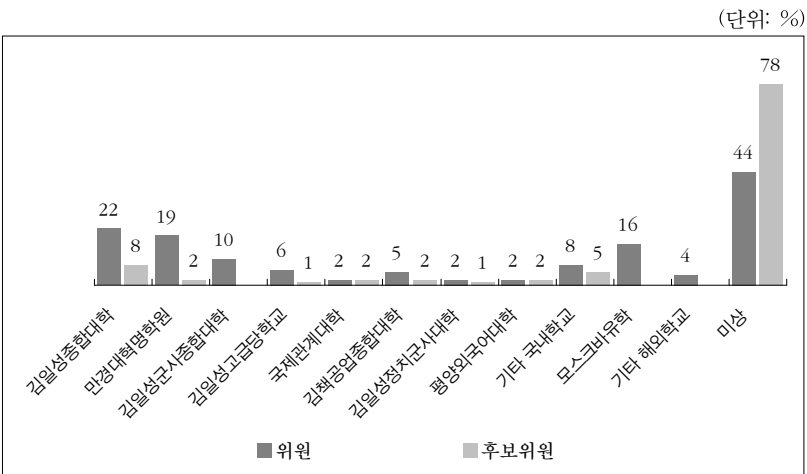
북도 출신이다. 그리고 김병률·김정숙도 평안도 출신이다. 함경남도 출신의 위원으로는 김기남·양형섭·전진수·주규창·채희정 등이 있으며 후보위원으로는 지재룡이 있다. 김국태·리을설·박재경·장성택·조명록·최영립·태종수 등의 위원은 함경북도 출신이며 김원홍·박종근도 함경도 출신의 위원들이다. 평양 출신으로는 강능수·김경희·김영남·김정은·문경덕·오금철 등의 위원과 후보위원 김병훈이 있다. 자강도 출신으로는 김평해(전천)·박도춘·전병호(전천)·차승수 등의 위원들이 있다. 김기룡·김영철·김영춘·전하철 등의 위원은 양강도 출신이다. 강원도 출신으로는 리영호·전희정·주상성 등의 위원이 있다. 위원 변영립·최룡해는 황해남도 출신이다. 출신지역이 중국인 위원으로는 김철만(만주)·오극렬(길림)이 있으며 후보위원 황순희도 중국 출신이다. 그리고 남포 출신으로 최태복이 있으며 소련 출신으로 김정일이 있고 남한 출신으로 홍석형(서울)이 있다.

I  
II  
III  
IV  
V  
VI

## 라. 출신학교별

중앙위 위원들의 출신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 27명(22%), 만경대혁명학원 23명(19%), 김일성군사종합대학 12명(10%), 김일성고급당학교 7명(6%), 국제관계대학 3명(2%), 김책공업종합대학 6명(5%), 김일성정치군사대학 2명(2%), 평양외국어대학 3명(2%), 기타 국내학교 10명(8%), 모스크바 유학 20명(16%), 기타 해외학교 5명(4%)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해외유학(모스크바유학·기타 해외학교)의 경우, 조명록은 만주비행학교와 소련공군아카데미를 다녔기 때문에 해외유학을 한 총 인원은 24명이다. 중앙위 위원 124명 가운데 70명을 뺀 나머지 54명(44%)은 출신학교가 파악되지 않았다. 후보위원들의 출신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이 8명(8%)으로 가장 많으며, 만경대혁명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국제관계대학 등 4개 대학이 각 2명(2%), 김일성고급당학교와 김일성정

표 III-4 출신학교별 분포도



치군사대학이 각 1명(1%), 그리고 기타 국내학교 출신 인물들이 5명(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출신학교가 파악된 후보위원 23명 모두 해외유학을 하지 않았다. 후보위원은 총 105명 가운데 23명을 뺀 나머지 82명(78%)이 출신학교가 알려지지 않았다(<표 III-4> 참조).

“민족간부양성기지이며 과학교육의 최고 전당”<sup>112</sup>이라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위원으로는 김정일·강능수·김경희·김국태·김기남·김병률·김양건·김영남·리영수·문경덕·변영립·양형섭·오극렬·오일정·우동춘·장성택·전병호·채희정·최영림·최룡해·최태복·현철해 등이 있으며, 후보위원으로는 강관주·김동이·리철·지재룡·태형철 등이 있다. “혁명가 유자녀교육기관”으로 “당의 핵심골간양성기지”<sup>113</sup>라고 하는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위원으로는 김정일(사망)·김국태·김기남·김병률·김영철·김영춘·김평해·오극렬·오금철·리병철·리영호·장성택·전병호·최영림·최룡해·최태복·태중수·현철해·홍석형·조명록(사망) 등이 있으며, 후보위원으로는 오철산·정명학이 있다.

당 중앙위 직속 교육기관으로 “당일군들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당의 당간부양성의 최고전당”이라고 하는 김일성고급당학교<sup>114</sup> 출신으로는 김국태·김창섭·박도춘·리용무·장성택·박정순(사망)·조명록(사망) 등의 위원이 있으며 후보위원으로는 강관주 1명만 파악되었다. 역시 “당의 외교일꾼을 양성하는 당의 상설적인 간부양성

<sup>112</sup>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6』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p. 748.

<sup>113</sup> 위의 책, p. 636.

<sup>114</sup> 1946년 6월 북조선공산당 중앙당학교의 이름으로 창립하여, 1972년 4월 15일 김일성고급당학교로 개칭하였으며, 전문 당 간부 양성기관으로 중앙당의 모든 간부와 지방 및 하부 당 고위간부들의 양성과 재교육을 담당하는 당 중앙위 직속 교육기관이다. 위의 책, p. 735.

I
II
III
IV
V
VI

기관<sup>115</sup>인 국제관계대학<sup>116</sup> 출신으로는 강석주·김영일·박의춘 등 3명의 위원과 김계관·리철 등 2명의 후보위원이 알려져 있다. “대외사업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부문에 필요한 외국어전문가를 키워내는 대학”<sup>117</sup>인 평양외국어대학에 연고가 있는 인물로는 강석주·전희정·김영일 등 3명의 위원과 리용호·김계관 등 2명의 후보위원이 파악되었다.

“중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기술인재(기술간부)를 키워내는 공업기술종합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sup>118</sup> 출신으로는 김태봉·오수룡·주규창·김인식·최희정·한광복 등 6명의 위원과 강민철·김용광 등 2명의 후보위원이 파악되었다. 희천공업대학 역시 기술인재(기술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자강도 희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이 대학은 “전자, 자동화 및 기계공업부문의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기술대학”<sup>119</sup>이며 이 대학 출신으로는 자강도 출신일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위 위원 곽범기 1명만 파악되었다. 1959년 9월 창립한 평양기계대학도 “기계공업부문의 기술인재를 종합적으로 키워내는 기술대학”으로, “기계공업부문의 민족기술간부 양성”<sup>120</sup>이 목적인 이 대학 출신으로는 중앙위 위원 리태남 1명

<sup>115</sup> 위의 책, p. 490.

<sup>116</sup> 인민경제대학은 경제 및 행정부문의 대표적 간부양성기관으로 중앙과 지방의 각급 행정 및 경제기관과 공장, 기업소들의 경제 및 행정일꾼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외교 및 무역부문 일꾼 양성은 국제관계대학이 담당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인민경제대학에 흡수, 통합되었다고 한다.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 217.

<sup>117</sup> 1949년 11월 창립 초기에는 로어대학이었으며 1952년 외국어대학으로 개편되었다.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6』, p. 441.

<sup>118</sup> 1948년 9월 평양공업대학으로 창설, 1951년 1월부터 김책공업대학으로 호칭. 위의 책, p. 721.

<sup>119</sup> 전신은 평양체신대학(1959년 9월 창립)이며, 1965년 4월 희천체신대학으로 개칭하고 1969년 7월 희천공업대학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위의 책, p. 136.

만 알려져 있다. 평안남도 덕천시에 있는 덕천공업대학도 기술인재 양성 교육기관이다. 이 대학은 특히 “자동차공업부문의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공장대학”<sup>121</sup>이며, 이 대학 출신으로는 덕천 출신일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위원 박봉주 1명만 파악되었다. 전문경제관료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인민경제대학이 있다. 이 대학은 “국가경제관리간부들을 양성 및 재교육하는 당의 간부양성기관”으로 1946년 7월 창설된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가 전신이다.<sup>122</sup> 인민경제대학은 국가경제관리간부 양성이 기본 사명으로 되어 있다.<sup>123</sup> 이 대학 출신의 인물로는 김락희 위원과 김영숙 후보위원만이 알려져 있다.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 가운데 군부 엘리트 대부분이 수확한 군사간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출신 위원으로는 김명국·김영철·김영춘·김정각·김정은·오일정·리영호·리용무·주상성 등이 있으며, 후보위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군의 정치일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sup>124</sup> 김일성정치군사대학 출신으로는 중앙위 위원 김원홍과 박재경, 그리고 후보위원 오철산이 있다. 군종 및 병종에 따르는 중·하위급 군사간부 양성기관<sup>125</sup>인 김책공군대

120- 위의 책, p. 425.

121- 1960년 9월 창립하였으며, 덕천시와 주변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관리일꾼들을 받아들여 자동차공업의 기술인재, 관리일꾼으로 키우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위의 책, p. 184.

122- 인민경제대학에는 국가경제관리의 후비간부들을 양성하는 기본반과 현직간부들을 재교육하는 재직반, 한달강습반이 있으며 국가경제관리이론간부들을 준비시키는 연구원 등이 있다. 위의 책, p. 688.

123- 김정일,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창립45돐을 맞는 인민경제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7월 1일),”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373.

124-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 217.

I
II
III
IV
V
VI

학(위원, 오금철)과 강건군관학교(후보위원, 김격식) 출신도 각 1명씩 파악되었다. 사범대학 출신으로는 위원 김평해(OO사범대학)·김용진(김형직사범대학), 후보위원 김병훈(평양사범대학) 등이 있다. 또한 위원들 가운데 평양체대(박명철)와 해주혁명학원(김영일), 그리고 제2중앙정치학교(리용무) 출신의 인물들이 각 1명씩 파악되었으며, 후보위원 홍광순은 평양연극영화대학에서 수학했다. 해외유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중앙위 위원들은 주로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들에서 수학했다. 김경희·김국태·김병호·김영남·양형섭·장성택·전병호·채희정·최영림·홍석형 등이 모스크바대학 출신이며, 김기남은 모스크바 국제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들 가운데 해외유학을 한 군부의 주요 인물들 대부분은 소련 프룬제군사아카데미에서 수학했다. 김명국·김영춘·김철만·오극렬·리을설·전진수 등이 그러하다. 이 외에 오금철·조명록(소련공군아카데미)·한동근(레닌군사정치아카데미) 등도 구소련에 유학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김병률(체코프라하공대)·최태복(동독라이프치히공대)·현철해(루마니아공대)·태종수(동유럽) 등은 동유럽에서 유학했으며 조명록은 만주비행학교에서도 유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유학을 한 것으로 파악된 24명<sup>126</sup> 모두가 60대 이상이며, 이들 가운데 절대 다수인 21명이 70대 이상인바, 2명이 90대, 13명이 80대, 6명이 70대이다. 60대 연령은 3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령대 분포는 구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1980년대 중반 이래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이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

125. 위의 책, p. 217.

126. 24명 가운데 김병호의 나이가 파악되지 않으나 그가 1954년에 외무성 참사관을 지낸 경력이 있는바, 80대 이상으로 간주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표 III-5 중앙위 위원·후보위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위원	남성(96%) • 70대(21%) • 평안도(11%) • 김일성종합대학(22%)
후보위원	남성(97%) • 60·70대(각10%) • 평안도(3%) • 김일성종합대학(8%)

\* 위원: 연령 미상(33%), 출신지역 미상(58%), 출신학교 미상(44%)

\* 후보위원: 연령 미상(73%), 출신지역 미상(94%), 출신학교 미상(78%)

의 동구권 전역으로 확산, 본격화됨에 따라 사회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자처한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이들 지역으로 ‘전도유망한 혁명세대’들을 유학시킬 명분도 의의도 모두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후보위원들 가운데는 해외유학을 한 인물들이 파악되지 않았다.

마. 소결: 특징

(1) 권력엘리트 자료의 불투명성

인구사회학적 변수별 분포 양상에서 나타나듯이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의 신상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중앙위 위원·후보위원들에 관한 정보가 양적으로 부족하며 질적으로도 정보의 정확성 내지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는 기본적으로 북한당국의 이들에 관한 정보 공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데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북한 권력엘리트 자료의 불투명성을 말해준다. 구체적인 예로 124명의 위원들 가운데 41명(33%)의 출생년도를 알 수 없으며, 출신지역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72명(58%)이고, 출신학교가 파악되지 않는 인물들이 54명(44%)이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후보위원들의 신상과 관련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후보위원들 가운데 77명(73%)이 출생년도가 파악되지 않으며, 99명

I
II
III
IV
V
VI

(94%)은 출신지역을 알 수가 없다. 또한 후보위원들 가운데 23명(22%)을 제외한 82명(78%)의 출신학교가 파악되지 않는다. 중앙위 위원 124명 가운데 35명(28%)과 후보위원 105명 가운데 75명(71%)은 이름만 알려져 있을 뿐 출생년도, 출신지역, 출신학교, 친·인척관계 등 다른 신상 관련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투명성은 군부 인물들에게서 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이름만 알려진 중앙위 위원 35명 가운데 20명이 군 관련 인물들이며 상위 권력 엘리트로 간주되는 김경옥(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군사담당), 리병삼(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윤정린(당 중앙군사위원·호위사령관), 정명도(해군사령관), 최부일(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리영호가 모든 직책에서 해임(2012. 7.15)된 직후 차수로 진급(7.17)한 현영철 등이 이에 속한다.

## (2) 권력엘리트의 고령화와 권력의 지속성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선출된 중앙위 위원들 가운데 63%(78명)가 60대 이상이며, 이들 가운데 70대 26명(21%), 80대 25명(20%), 90대 2명(2%) 등 총 인원의 43%(53명)가 70세 이상의 고령이다. 또한 총 인원의 74%(78명)가 출생년도 파악이 되지 않아 의미가 없을 수는 있으나 후보위원들 역시 60세 이상이 총 인원의 22%(23명)를 차지하며 12%(13명)가 70세 이상의 고령이다.

특히 90대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김철만(95), 리을설(92), 황순희(94) 등이 현재까지 당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음은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한 혁명원로에 대한 당적·국가적 예우 차원의 배려라 하겠으며, 이는 곧 김정일 위원장의 “원로간부들에 대한 우대정책”에 따른 것



이라 하겠다. 김정일 위원장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원로들을 ‘혁명선배’로 존경하고 본보기로 내세우면서 이들이 자신의 후계체제에 반기를 들지 않는 한 공식서열 상위에 ‘모시고’ 원로에 합당한 최상의 대우를 하였으며 다른 간부들에게도 원로들에 대한 예우를 지킬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sup>127</sup> 고령의 권력엘리트들이 북한정권 수립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며 건재하고 있음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에서도 비롯된다.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한 김철만, 리을설, 리용무, 황순희 등 혁명 1세대들은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일의 3대 권력세습에 대해 이른바 ‘백두혈통’ 및 ‘빨치산혈통’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체제 안정을 꾀하는 데 있어 활용가치가 높은 인물들이나, 이들을 상징적인 존재로서 권좌에 앉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 다른 해석도 있다. 주지하듯이 북한에서는 지도부에 대해 정년제가 없으며, 실각, 해임, 또는 사망으로 지도부가 교체된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엘리트에게 있어 스스로가 원해서 직책을 마다하는 것은 최고지도자의 배려와 은덕을 외면하는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오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권력엘리트들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어도 주어지는 직책을 사양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와 같은 고령의 권력엘리트들이 북한체제의 권력구도에 서 건재를 과시하고 있음은 이들 권력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김철만(95, 대장)은 1970년 11월 이래 현재까지 당 중앙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 중앙군사위 위원(1980.10~

<sup>127</sup>-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 185.

2010.9)과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1990.5~2010.9)에 장기간 재임했고, 최고인민회의의 제3기(1962.10)부터 제12기(2009.4) 현재까지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sup>128</sup> 13년(1990.5~2003.9) 동안 국방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였다. 또한 김철만은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부총참모장, 제1부총참모장 등을 거쳐 군수동원총국장과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는바, 이로써 김철만은 당·국가기구·군의 요직을 중첩적으로 맡아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해 온 것이다. 리을설(92, 차수) 역시 김철만과 같은 기간에 국방위원회 위원직을 역임했으며 당 중앙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제3기부터 제12기 현재까지, 제6기를 제외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리을설도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집단군 사령관 등을 거쳐 평양방어사령부 사령관, 호위사령부 사령관 등의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당·국가기구·군의 요직을 중첩적으로 맡아오면서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해 왔다.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용무(88, 차수), 총정치국 부국장 박재경(80, 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오극렬(82, 대장) 등도 당·국가기구·군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오면서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인물들이다.

80대 최고령자인 김국태(89)도 당 선전선동부장, 교육부장, 간부부장, 비서국 간부담당 비서 등을 역임하고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정치국원, 검열위원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의 제4기(1967.11)부터 제12기 현재까지, 제6기를 제외하고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주로 당과 국가기구의 직책을 맡아 권력을 유지해오고 있다.<sup>129</sup> 이와 같이 주로 당과 국가기구(국방위원회·내각·최

<sup>128</sup>. 제7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sup>129</sup>. 김국태는 군 중장(1963.8) 칭호를 받고 총정치국 부국장(1963.8~1968.1)으로 재

고인민회의)에서 직책을 맡아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해 오고 있는 80대 인물들로는 내각 부총리 강능수(83), 당 선전선동부장 김기남(84), 최고재판소장 김병률(8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8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변영립(8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양형섭(88), 내각 정치국장 전병호(87), 당 기계공업부장 주규창(85), 당 문서정리실장 채희정(89), 내각 총리 최영립(83), 당 비서국 교육담당 비서 최태복(83) 등이 있다.

### (3) 절대 다수 남성 중심의 권력구도

성별 분포에 있어 북한의 실세들로 구성된 총 229명의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 가운데 여성은 3.5%(8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태는 북한체제의 권력구도가 절대 다수의 남성 권력엘리트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해준다.<sup>130</sup> 이러한 권력구도에서 여성들은 주도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권한 행사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당 중앙위 여성위원 및 후보위원 8명의 대부분은 경력에 있어 팔목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편이며 이들 가운데 3명은 80세 이상의 고령인바, 황순희(94), 김정숙(83), 김락희(80)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연령상 중·장기적으로 볼 때, 60대의 한광복과 50대의 로성실은 비교적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다. 중앙위 위원 한광복(67)은 당 기계

임한 바도 있다.

<sup>130</sup> 제4차 당 대표자회 이후 개편된 노동당과 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상임위·내각의 주요 구성원 106인을 대상으로 한 관련 조사결과에서도 남성이 94.3%로 압도적이다. 통일부 정세분석국, 『김정은 체제의 당·정 주요인물 분석·평가』 (서울: 통일부, 2012.7.16).

공업부 부부장, 내각 금속기계공업성 부상 및 기계공업성 부상 등을 거쳐 현재 내각 부총리(2010.6) 겸 전자공업상으로 재임하고 있다. 후보위원 로성실(53)은 여맹 평양시 위원장, 여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을 거쳐 여맹 중앙위 위원장(2008.3)이 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직을 맡고 있다.

주지하듯이 여성위원 김경희(67)는 대내·외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김일성 주석의 장녀이며,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이고, 또한 당 제1비서 김정은의 고모이기도 한 김경희는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당직을 유지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9월에 인민군 대장 칭호와 함께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당 대표자회(이하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당 중앙위 비서로 선출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현재 김정은 후계체제는 절대 다수의 남성 권력엘리트들이 아닌 여성위원 김경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김경희 한 사람의 권한 내지 실행력은 장성택을 비롯한 남성 실세들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 북한체제의 권력구도는 절대 다수의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 2. 중앙위 위원·후보위원의 네트워크

### 가. 세대 연고(세대연)

북한의 세대구분과 관련하여 통상 ‘30년=한 세대’라는 기준으로 세대가 나뉘기보다는 ‘사회주의 대중운동’의 변화에 따라 나누는 것이 북한의 세대 변화를 잘 반영한다는 견해<sup>131</sup>가 비교적 설득력

을 갖는다. 이에 따르면 ‘사회주의 대중운동’의 변화에 따른 북한의 세대 구분에서 혁명 1세대는 항일빨치산 세대이다. 혁명 2세대는 1950~1960년대 전후 복구와 천리마운동을 주도하며 성장한 세대이다. 이들은 1세대들이 설립한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세대로 1970년대에 김정일 중심으로 후계체제 수립을 주도하였다. 또한 이들은 1970~1980년대에 당 중앙위에 진출하면서 지배엘리트층으로 부상했고, 현재까지 북한 지배 엘리트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 혁명 3세대는 1970~1980년대에 김정일 위원장이 주도한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해 성장한 세대이다. 이들은 1970~1980년대에 경제가 비교적 좋은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습득한 엘리트층이다. 혁명 4세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뒷받침하는 세대로 ‘고난의 행군 세대,’ ‘피눈물의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의 공식 문헌을 통해 보면 혁명의 1세대는 “항일혁명투사들”이며 2세대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 곧 6.25 한국전쟁 참전 “로병”들과 전후복구과정에서 “위훈을 세운 인민들”이고, 혁명의 3세대, 4세대는 일컬어 “새 세대”이다.<sup>132</sup> 보다 구체적으로는 김일성주석과 함께 항일혁명운동을 벌인 1920년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혁명 1세대이고, “조국

<sup>131</sup> 정창현,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당, 국가기구, 군대』 (서울: 한울, 2011), pp. 572~574.

<sup>132</sup> “머리글-혁명의 1세대, 2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새 세대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 것은 작가들의 영예로운 임무,” 『조선문학 7』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p. 5.

I
II
III
IV
V
VI

해방전쟁”에 참전한 “로병”들은 혁명 2세대이며, 1세대와 2세대의 “위훈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세대”가 “혁명의 3세대, 4세대 청년들”이다.<sup>133</sup> 이와 같은 세대 구분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포괄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으며, 특히 3세대와 4세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강하게 배어있다. 북한의 공식 문헌<sup>134</sup>에 따르면 혁명의 1세대와 2세대는 “조국과 혁명에 있어 개척의 사명을 안고 나온 세대”이며 3세대와 4세대는 “계승의 중임을 떠맡고 나온 세대”이다. 혁명의 3세와 4세는 혁명의 1세와 2세의 역사를 이어받을 “계승의 세대”라는 것이며, 이들을 일컬어 “김정일선군혁명세대”라고 한다. 혁명의 1세, 2세들이 김일성이 키운 “수령님의 세대”라면 3세, 4세는 김정일의 “품속에서 선군혁명의 주력으로 자란 김정일장군님의 세대”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조선혁명에 있어서는 혁명의 개척자, 계승자가 혁명의 최고대표자일 뿐 아니라 혁명세대의 최고대표자”인바, 김일성(수령)은 혁명의 1세와 2세, 곧 개척의 세대 최고대표자이며, 김정일은 계승의 세대인 3세, 4세들의 최고대표자라고 한다. 이와 같이 ‘개척’과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세대를 구분하고 김정일을 계승 세대의 최고 대표자로 내세우고 있음은 북한당국이 이른바 ‘백두혈통’·‘항일빨치산 혈통’ 제3세로의 권력세습을 염두에 두고 김정일 위원장의 혁명 3세대와 4세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과시하는 한편, 긴 안목으로는 세습후계체제의 주요 지지기반으로서 이들이 수행할 역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

133. 『로동청년』, 1993년 2월 28일. 이인정, “1980년대 이후 북한 ‘새세대’의 가치 변화 연구-‘청년전위’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 147에서 재인용.

134. “정론, 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 『로동신문』, 2006년 10월 15일.

고 있다.

현재 북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혁명의 3세대, 4세대는 학생 청소년과 근로 청년들을 총칭하며, 고등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 청소년들을 따로 가리킬 때는 혁명의 4세대라고도 부른다.<sup>135</sup> 이 글에서는 위의 내용들을 참작하여 다음의 네 가지로 세대를 구분하여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선출된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을 중심으로 북한 권력엘리트의 세대연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혁명 1세대: 항일빨치산 1세를 비롯한 혁명 원로

항일빨치산 출신 1세들을 비롯한 혁명 1세대들은 대부분 80대 후반에서 90대 초·중반의 고령자들이다.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 가운데 항일빨치산 출신 혁명 1세대는 5명이 파악되었다. 김일성 주석과 함께 항일빨치산 활동을 했던 1세는 김철만(95), 리을설(92), 리용무(88), 조명록(2010.11.6, 83세 사망) 등 4명이 위원이며 후보위원으로는 유일하게 황순희(94) 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조명록이 2010년 말 사망함에 따라 현재 김철만, 리을설, 리용무, 황순희 등 4명만이 위원 및 후보위원으로 있으며, 사실상 이들이 남아있는 빨치산 1세들의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철만, 리을설, 황순희 등 3명은 현재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과 당 중앙위 위원직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리용무는 군 총정치국 국장 등 군부 요직과 정무원 국가검열위원장, 교통위원장 등을 거쳐 국방위 부위원장(1998.9)에 선임된 이래 현재까지 직책을 유지하

<sup>135</sup> 이인정, “1980년대 이후 북한 ‘새세대’의 가치 변화 연구-‘청년전위’ 분석을 중심으로,” p. 147.

고 있다. 또한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으로도 선임되었다.

항일빨치산 출신 혁명 1세대들은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 및 공고화 과정에서 기여한바가 크며, 김정일 위원장은 이러한 혁명 1세대들에 대한 배려와 예우가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한 담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담화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을 “혁명의 제일선배로 존대”할 것을 강조하고, “혁명선배를 존대한다는 것은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혁명가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며 계승발전시켜 나간다는것을 의미”<sup>136</sup>한다고 밝혔다.

## (2) 혁명 2세대: 항일빨치산 2세를 비롯한 혁명가 유자녀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 가운데 항일빨치산 출신 2세를 비롯한 혁명가 유자녀 출신의 혁명 2세대는 위원으로 김정일(사망)·김국태(89)·김병률(87)·전병호(87)·김기남(84)·최영림(83)·최태복(83)<sup>137</sup>·오극렬(82)·현철해(79)·홍석형(77)·김영춘(77)·태중수(77)·김평해(72)·리영호(71)·김영철(67)·오일정(69)·오금철(66)·장성택(67)·최룡해(63)·리병철(미상) 등이 있으며, 후보위원으로는 오철산(72)·태형철(60)·정명학(미상)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혁명가 유자

---

<sup>136</sup>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1995년 12월 25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111.

<sup>137</sup> 최태복은 만경대혁명학원과 관계없는 인물인데도 유자녀로 기술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 89.



녀 교육기관'인 만경대혁명학원<sup>138</sup> 출신은 김정일·김국태·김기남·김병률·김영철·김영춘·김평해·오극렬·오금철·리병철·리영호·장성택·전병호·최영림·최룡해·최태복·태종수·현철해 등이다. 항일빨치산 출신 2세로 파악된 인물들은 김일성 주석의 아들인 국방위원장 김정일(사망), 전 내각 부수상 김책의 아들 김국태, 전 인민무력부장 최현의 아들 최룡해, 전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의 아들 오일정, 전 호위총국장 오백룡의 아들인 오금철·오철산, 항일빨치산 1세 태병렬의 아들 태형철, 김일성주석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했다는 리봉수의 아들 리영호, 빨치산 대원 오중흡의 조카인 오극렬 등이 있다. 김정일의 세습후계체제 구축 및 강화에 기여한 항일빨치산 출신의 2세들은 김정은의 권력세습과 후계체제 구축 및 공고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혁명 3세대: 항일빨치산 3세를 비롯한 젊은 엘리트층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 가운데 항일빨치산 출신 3세는 당 제

<sup>138</sup>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년 10월 김일성이 만경대에 설립한 학교로 '혁명가 유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김일성은 자신과 함께 빨치산 투쟁에 참가하였다가 전사했거나 항일운동과정에서 희생된 '혁명열사'들의 유가족들과 유자녀들을 찾아와 이곳에서 교육시켰으며, 유자녀들은 평균 연령이 10대 중·후반이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시기 이들 대부분을 정부호위총국(현재의 호위사령부) 군관(장교)으로 입대시켜 데리고 있다가 1951년경 소련과 헝가리, 체코, 동독,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에 유학을 보냈으며, 1950년대 후반에 귀국한 유자녀들은 주로 당, 정, 군의 초급간부로 충원되었고 정치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신진 엘리트로 급부상하여, 이후 북한체제 강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p. 88~89; 항일빨치산 세력은 특수시설로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설립하고, 항일유격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교육하여 '혁명의 계승자'로서 당의 핵심, 인민군의 근간으로 양성하였는바, 이는 '항일빨치산 혈통' 재생산의 뿌리였으며 이른바 '혁명전통 교양'의 출발점이었다. 정창현,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p. 575.

I
II
III
IV
V
VI

1비서 김정은(30) 한 사람뿐이다. 그러나 지난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항일빨치산 출신 3세의 일부가 당 중앙위에 진출했을 개연성이 낮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국가기구·군의 요직에 있는 항일빨치산 2세들의 자녀들 가운데 40~50대의 적지 않은 일부가 위원 및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지 않기 때문이다.

당 중앙위 진출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김정은 제1비서와 관련하여 거명되는 혁명 3세대로는 김정철(당 제1비서 김정은 형), 김여정(26, 당 제1비서 김정은 동생), 오세현(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아들), 김철(총정치국조직부국장 김원홍 아들), 강태성(내각 부총리 강석주 아들), 김철웅(전 김정일서기실부부장 김충일 아들), 김창혁(국가안전보위부정치국장 김창섭 아들), 김성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손자), 최준(총정치국장 최룡해 아들), 장용철(당 행정부장 장성택 조카)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김정일 위원장의 딸 김여정이다. 김여정은 김정은 제1비서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후반부터 수년간 스위스 베른 공립 초등학교에서 공부했으며,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체제의 안정을 위해 당과 군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책을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sup>139</sup> 또한 최근에는 당 제1과장으로 김정은은 관련 행사를 주관하는 일을 맡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40</sup>

위에 열거한 인물들의 대부분은 김정은 제1비서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봉화조’와 관련되어 있다. 봉화조는 2000년대 초반에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을 포함한 북한 최고위 권력자들의 2세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구성원들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등 명문

---

139. 『매일경제』, 2012년 2월 23일.

140. 『SBS뉴스』, 2012년 8월 6일.

대 출신이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연령대로 국가안전보위부 등 권력기관에 근무하거나, 또는 외화벌이 사업 등에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조직의 실질적 리더는 오세현이며, 김철도 주도 인물이고, 강태성, 김철웅, 김창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41</sup>

최근에는 김정철과 김여정이 각각 ‘청년엘리트클럽’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북한 권력실세의 3세들이 사교클럽을 조직, 운영하면서 사실상 김정일 일가를 떠받들고 있는 새로운 권력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김정은 제1비서는 청년엘리트클럽을 앞으로의 북한을 이끌고 나갈 후대들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sup>142</sup> 이들 사교클럽은 김정철이 이끌고 있는 ‘룡남산클럽’과 김여정과 김성현이 조종하고 있는 ‘창광클럽’이다.<sup>143</sup> 룡남산클럽은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으로 구성된 국내파 모임으로 장용철(말레이시아 주재 대사)이 김정철을 중심으로 조직한 사교클럽이며, 장성택의 딸 장금성(2006 사망)이 생전에 최룡해의 아들 최준과 함께 클럽을 확장시켰다고 한다. 또한 이 클럽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 중앙위나 정권기관 등에 진출한 인물들이 모여 있는 ‘금별클럽’과 김일성종합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은별클럽’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창광클럽은 외교가 자녀들이 중심을 이루는 해외파 모임으로 김정은 제1비서도 한 때 참여했던 클럽으로 알려져 있다.

한 관련 첩보에 따르면 항일빨치산 출신의 3세들로 구성된 싱크

141.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 (서울: 늘봄, 2010), pp. 150~151.

142. 『데일리안』, 2012년 8월 9일.

143. 위의 글.

탱크에서 경제개혁안을 비롯해 대남·대미전략 등 광범위한 정책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sup>144</sup>

#### (4) 혁명 4세대: 항일빨치산 4세를 비롯한 ‘고난의 행군 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로 불리기도 하는 혁명 4세대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대학을 졸업한 세대이며 항일빨치산의 손자, 전·현직 정치국원의 아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나,<sup>145</sup>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선출된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인물은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 124명 가운데 35명(28%)과 후보위원 105명 가운데 75명(71%)이 이름만 알려져 있을 뿐 출생년도, 출신지역, 출신학교, 친·인척관계 등 다른 신상 정보가 없어 이들에 대해 파악이 되지 않는바, 정보공개가 되면 이들 가운데 항일빨치산 4세를 비롯한 혁명 4세대가 적지 않을 것이며 특히 후보위원이 그러할 것으로 추정된다.

### 나. 지역 연고(지연)

출신지역 분포 비율에서 상대적으로 평안도 출신 위원(14명/11%) 및 후보위원들(3명/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이 지역 출신들이 가장 많은 지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평안도 출신들 가운데 강석주와 우동측은 같은 평원군 출신이라는 연고도 있으며 자강도 출신의 김평해와 전병호 역시 같은 전천군 출신이라는 연고가 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경계의식으로

---

<sup>144</sup>. 『데일리안』, 2012년 8월 12일.

<sup>145</sup>. 정창현,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pp. 572~574.

1970년대 이후에 권력에 진입한 신진엘리트들 가운데 함경도 출신 비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고 하나,<sup>146</sup>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선출된 위원 및 후보위원들 가운데 함경도 출신 위원(14명/11%) 및 후보위원(1명/1%)은 평안도 출신의 인물들 다음으로 많다. 출신지역이 파악된 인물들 가운데 연고가 가장 적은 인물은 남포 출신의 최태복과 남한(서울) 출신의 홍석형, 그리고 구소련 출신의 김정일 위원장이다. 중국 출신의 인물들과 황해남도 출신의 위원 변영립·최룡해도 연고가 없는 편이다. 한 관련 문헌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대표적인 유엔군 점령지역이었던 황해도 출신들은 인사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황해도 출신들에 대해 “출신성분과 경력을 따져 문제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특히 황해남도 지역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의 입학정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할당되며,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졸업 후 사회배치, 특히 당 기관 같은 권력기관의 진입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sup>147</sup>

#### 다. 학교 연고(학연)

북한권력의 핵심세력이라고 하는 당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의 학연이 가장 많은 곳은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이다. 이러한 실태의 근원 내지 배경은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의 설립 목적 및 의의에서도 잘 찾아진다. 1946년 10월 설립된 김일성종합대학은 “민족간부양성기지이며 과학교육의 최고 전당”

<sup>146</sup>.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 182.

<sup>147</sup>. 위의 책, p. 182.

으로 “당의 혁명위업을 위해 헌신투쟁할 수 있는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낼 사명”<sup>148</sup>을 띠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혁명가 유자녀’들을 “부모들의 뒤를 이어 싸워나가는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우리 당의 핵심, 인민군대의 골간으로 키우는 혁명가유자녀교육기관”<sup>149</sup>으로 1947년 10월 설립되었다. “당의 핵심골간양성기지”라고 하는 만경대혁명학원의 설립 목적 역시 혁명가 유자녀들을 “민족간부 후비로 양성”하는 것이며,<sup>150</sup> 만경대혁명학원은 “수령님의 손길아래에서 태어나고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수령님의 학원이며 당의 학원”이다.<sup>151</sup>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중대한 의의를 지닌 만경대혁명학원을 졸업한 혁명가 유자녀들은 모두 당 및 국가기관과 인민군대의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하고 있다.<sup>152</sup> 요약하자면 이와 같은 설립 목적 및 의의에 따라 이른바 ‘민족간부양성기지’인 김일성종합대학과 ‘당의 핵심골간양성기지’인 만경대혁명학원은 설립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사회·체제를 주도해 가는 많은 엘리트들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당·국가기구·군을 아울러 실력을 행사하는 주요 권력엘리트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바, 이로써 당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의 학원이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148.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6』, p. 748.

149. 위의 책, p. 636.

150. 위의 책, p. 636.

151. 김정일, “만경대혁명학원은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갈 핵심골간양성기지이다(만경대혁명학원창립 50돐에 즈음하여 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 86(1997)년 1월 12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379.

152.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 참된 당일군을 키워내자(창립45돐을 맞는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6월 1일),”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316.

출신학교가 파악된 70명의 위원과 18명의 후보위원 가운데 출신 학교가 2곳 이상인 인물들은 김정일을 비롯해 31명의 위원과 4명의 후보위원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위원 14명<sup>153</sup>은 출신학교가 3곳 이상이다. 또한 이들 14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만경대혁명학원 동문이며 구소련, 또는 동유럽 국가에 유학한 인물들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의 위원 및 후보위원으로 파악된 인물은 모두 25명이며 이들 가운데 23명이 위원이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6명을 뺀 나머지 17명은 모두 해외유학을 하였는바, 이는 혁명가 유자녀들을 위해 설립했다고 하는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에 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 위원장은 “만경대혁명학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창립된 혁명가 유자녀들의 은혜로운 삶의 터전이며 배움의 전당”<sup>154</sup>이라고 밝힌바 있다.

학연이 가장 많은 인물은 각기 4곳의 학교에 연고가 있는 위원 김국태와 장성택이다. 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김일성고급

153. 김국태·장성택(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김일성고급당학교·모스크바대학), 김기남(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모스크바국제대학), 김병률(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체코프라하공대), 김영일(평양외국어대학·국제관계대학·해주혁명학원), 김영춘(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군사종합대학·소련프른제군사아카데미), 리용무(김일성고급당학교·김일성군사종합대학·제2중앙정치학교), 오극렬(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소련프른제군사아카데미), 오금철(만경대혁명학원·김책공군대학·소련공군아카데미), 전병호·최영림(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모스크바대학), 조명록(만경대혁명학원·중앙당학교(김일성고급당학교전신)·만주비행학교·소련공군아카데미), 최태복(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동독라이프치히공대), 현철해(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루마니아공대).

154. 김정일, “만경대혁명학원은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갈 핵심골간양성기지이다(만경대혁명학원창립 50돐에 즈음하여 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주제 86(1997)년 1월 12일),” pp. 378~379.

I
II
III
IV
V
VI

당학교·모스크바대학 동문인 이들은 각기 위원(43명) 및 후보위원(10명) 53명과 학연이 있다. 특히 김정은 제1비서의 후견인이며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와 함께 으뜸가는 실세로 알려져 있는 장성택(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김일성고급당학교·모스크바대학)과 2곳 이상의 학교 동문은 13명<sup>155</sup>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당·국가기구·군의 주요 직책을 역임, 또는 재임하고 있다. 김경희의 출신학교 2곳(김일성종합대학·모스크바대학) 모두 학교 동문인 인물은 7명<sup>156</sup>이며 이들 또한 당·국가기구·군의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다른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과 학연이 없는 인물들도 있다. 광범기(희천공업대학), 김용진(김형직사범대학), 리태남(평양기계대학), 박명철(평양체육대학), 김격식(강건군관학교), 김병훈(평양사범대학), 박봉주(덕천공업대학), 홍광순(평양연극영화대학) 등이 그들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출신학교 2곳(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과 모두 동문인 인물들은 김국태·김기남·김병률·오극렬·장성택·전병호·최룡해·최영림·최태복·현철해 등 10명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및 후보위원, 당 비서국 비서 및 부장 등 주요 당직에 선임되었다. 세습후계자 김정은과 대학(김일성군사종합대학) 동문인 인물로는 위원으로 김명국·김영철·김영춘·김정각·오일정·리영호·리용무·주상성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리영호는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155. 김국태(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김일성고급당학교·모스크바대학), 김경희·김영남·양형섭·채희정(김일성종합대학·모스크바대학), 김기남·김병률·최룡해·최태복·현철해(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 전병호·최영림(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모스크바대학), 홍석형(만경대혁명학원·모스크바대학).

156. 김국태, 김영남, 전병호, 양형섭, 장성택, 채희정, 최영림 등 7명.



세습후계자 김정은의 막강한 후견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으나 지난 7월 15일 모든 직책에서 해임됨으로써 향후 거취가 불분명해진 인물이다.

## 라. 혈통 연고(혈연)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고 세습 후계자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정통성 부여 및 강화를 위해 이른바 ‘백두 혈통’ 계승을 역설한다. 이는 곧 김정은 제1비서에게 있어 혈연은 그의 세습체제 유지, 강화를 위해 절대 불가결한 배경 내지 조건임을 말해 주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의 혈연은 ‘김일성가계’를 통해 확인된다.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선출된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 가운데 김일성가계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는 7명(3%)이 파악되었다. 김정일(김일성 장남), 김정은(김일성 손자·김정일 3남), 김경희(김일성 장녀·김정은 고모), 장성택(김일성 사위·김정은 고모부), 김정숙(김일성 사촌여동생), 양형섭(김일성 사촌여동생 김신숙 남편), 리용무(김일성 사촌여동생 김정순 남편) 등이다.<sup>157</sup> 이들 모두 중앙위 위원이다. 후보위원들 가운데는 김일성가계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파악되지 않았다.

김정은 제1비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연고는 이미 알려진대로 고모인 김경희와 그의 남편인 고모부 장성택이다. 주지하듯이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한 데에는 매제이자 당 행정부장인 장성택의 역할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성택은 김정일

<sup>157</sup> 이들 로열패밀리 계열은 수는 적으나 능력에 관계없이 가장 편안하지만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박형중,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와 통치노선,” 『김정은 정권의 권력·통치구조와 정책』 (서울: 경향신문사, 2012.1.3).

의 건강 이상 이후 김경희(당시 당경공업부장)와 함께 대리통치를 맡았으며, 이 때 장성택은 유사 시 최고지도자의 유고에 대비한 후계체제 구축 움직임을 주도했다는 것이다.<sup>158</sup> 김정일 위원장의 동생이며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 또한 조카 김정은의 세습후계체제 구축 및 공고화 과정에서 후견그룹을 선도하는 막강한 실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59</sup> 김정일 위원장의 비서 역할을 한 기술서기 출신 김옥(47)도 김정은 제1비서와 간접적인 연고가 있는 인물이라 하겠다. 김옥은 2004년 5월,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가 사망한 이후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측근을 통해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관측도 있었다.<sup>160</sup> 김옥은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sup>161</sup> 김옥의 아버지는 당 재정경리부 부부장 김효이고, 동생 김균은 2010년에 45세의 나이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에서 총장 직무를 대리하는 1부총장으로

158.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 p. 113.

159. 북한에서 고위급으로 일하다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 중앙당, 인민무력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악하여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은 김경희라고 한다. OOO(북한이탈주민), 2012년 7월 12일 면접;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첩보 수준이기는 하나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전에 작성됐다고 하는 유언(유훈)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김경희를 유언(유훈) 집행인으로 정했다고도 한다. 『노컷뉴스』, 2012년 4월 13일.

160. 장성택이 2004년 숙청당해 2년간 중앙정치 무대에 복귀하지 못한 데는 김옥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바, 김옥은 사실상 2인자인 장성택 복귀를 막는 동시에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도록 개입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2011년 12월 20일; 지난 7월 김정은 제1비서의 초청으로 평양을 다녀온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에 따르면, 김정은 제1비서가 주최한 환영연회에 김 제1비서 부부, 여동생 김여정,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리철 전 스위스 대사 등과 함께 김옥이 참석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2012년 8월 23일; 후지모토 겐지는 김 제1비서가 어릴때부터 김옥과 친하게 지냈고 생모 고영희 사망 후 김옥은 김정일 관저에 마음대로 드나들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2012년 8월 25일.

161.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 p. 249.

임명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김정은의 부인으로 알려진 리설주도 주요 혈연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리설주와 관련해서는 그의 파격적인 행보가 언론매체를 통해 부각되고 있으며 신상과 관련해서는 첩보 수준의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김정은 제1비서 외에 다른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의 혈연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딸의 혈연관계에 있는 인물들이다. 청년동맹 중앙위 제1비서를 지낸 리용철(위원)은 전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부부장 리화선의 아들이며,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위원)는 전 인민무력부장 최현의 아들이다. 당 검열위원장 김국태(위원)는 전 내각 수상 김책의 아들이며, 김국태의 딸 김문경은 국제부 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문경은 김정일의 동생 김경희와의 친분으로 1990년대 초 당 국제부 과장을 거쳐 서기실에 발탁된바 있다. 당 중앙위 군사부장 오일정(위원)은 전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의 아들이며, 김일성종합대학 당 책임비서 김태히는 전 제2경제위원장 김철만(위원)의 아들이다. 당 중앙위 계획재정부장을 지낸 홍석형(위원)은 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사회과학원 부원장을 역임한 홍기문의 아들이며, 전 부수상 홍명희의 손자이다. 또한 외무성 당 비서 허철은 전 대남담당 비서 허담과 대외문화연락위원장 김정숙(위원)의 아들이다. 당 중앙위 후보위원 서동명은 전 군 총정치국장 서철의 아들이며 같은 후보위원 태형철은 항일빨치산 출신 1세 태병렬의 아들이다. 내각의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리광근은 김정일의 전 주치의 리영구의 아들이며, 오금철(위원, 전 공군사령관)과 오철산(후보위원, 해군사령부 정치위원)은 호위총국장과 당군사부장을 역임한 오백룡의 아들들이다.

외무성 부상(2010.9)으로 재임하고 있는 리용호(후보위원)는 김

정일 서기실장(1982~1992)과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역임한 리명제의 아들이다. 백룡천(후보위원)은 전 외무상 백남순의 아들이며 현재 중앙은행 총재로 재임중이다. 또한 외무성 부국장 직책을 맡고 있는 최선희는 내각 총리 최영림의 딸로 알려져 있다.

권력실세의 조카로 내각의 요직에 있는 인물들도 2명 파악되었다. 무역상 리용남과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 장용철이 그들이다. 리용남은 인민보안부장 리명수의 조카이며 당 중앙위 위원이고, 장용철은 당 행정부장 장성택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형제관계로는 김영남, 현철해, 장성택, 강석주 등이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은 전 인민무력부 부부장(대장) 김두남의 형이며,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후방총국장인 현철해는 전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현철규의 동생이다. 또한 군 차수이며 당 중앙위 위원이었던 장성우는 당 행정부장 장성택의 형으로 알려져 있다. 내각 부총리 강석주는 전 당 역사연구소장 강석승의 동생이다.

장인과 사위의 연고가 있는 인물들도 있다.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태종수와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은 전 부수상 정일룡의 사위들이며, 이로써 이들은 동서라는 연고도 있다. 당 중앙위 비서국 비서와 국제부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김영일은 전 국가검열위원장 전문섭의 사위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내각의 리성호 상업상은 인민무력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당 부장인 김영춘의 사위이며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서호원은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의 사위이다.

#### 마. 직업·장 연고(직연)

한 고위급 탈북인사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학연, 직연 등이 작용하며 특히 직연이 중요한바, 이는 일하는 과정에서 충실성을 검증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62</sup> 이를 테면 장성택, 리영호 등과 같이 오랫동안 검증된 인물만이 핵심 권력에 등용될 수 있으며 장성택과 가깝다는 인물들도 원래 연출(연고)이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북한 권력엘리트의 직연 사례는 관련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강관주(당 중앙위 후보위원)는 김정일 위원장과 김일성종합대학 동문이기도 하지만 1970년대 초에 만수대예술단 섭외부 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정일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sup>163</sup> 김국태는 김정일이 대학 졸업 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 있을 때 함께 근무하면서 연고를 갖게 된 인물이다. 또한 김기남은 196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이 선전선동부에서 문화예술 및 출판보도부문을 담당하고 있을 때 업무과정에서 김정일과 친분을 맺은 인물이라고 한다.<sup>164</sup>

북한 권력엘리트의 직연과 관련해서는 문경덕과 장성택, 최룡해와 장성택 등, 이들 두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문경덕은 장성택이 1980년대 후반에 당 청소년사업부장과 당 청년·3대혁명소조부장을 하며 청년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고 있었던 때에 사로청의 간부로서 최룡해와 함께 장성택의 측근으로 두각을 나타냈다.<sup>165</sup> 최룡해 역시 장성택이 당 청소년사업부장을 할 때 사로청 위원장을 맡아 일하면서 장성택과의 연고를 다졌다. 또한 이들은 직연으로 인해 권력의 부침(浮沈)도 함께 하였다. 2004년에 장성택이 ‘분과 행위’로 숙청되었을 때 문경덕도 공직에서 배제되었으나,

162. OOO(북한이탈주민), 2012년 3월 16일 면접.

163.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 238.

164. 위의 책, p. 226.

165. 히라이 히사시, 백계문·이용빈 옮김,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김정은체제』 (서울: 한울, 2012), pp. 76~77.

2006년 초 장성택이 복권하여 당 근로단체 및 수도권건설부 제1부부장을 거쳐 2007년 말, 당 행정부장의 자리에 오르면서 문경덕도 2009년에 당 행정부 부부장에 임명되었다. 최룡해 역시 문경덕과 같은 시기에 장성택의 측근들과 함께 밀려났다가 장성택이 복권된 2006년 4월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로 기용되었으며, 이런 연고로 장성택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사로청 중앙위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경력이 있는 최룡해, 문경덕, 리영수, 지재룡 등을 일컬어 ‘장성택 사로청 4인방’이라고도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미사일 3인방’<sup>166</sup>이 있다. 박도춘(당 군수비서), 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 백세봉(제2경제위원장) 등 세 사람이 무기개발 및 생산과 관련해 직연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일컬어 ‘미사일 3인방,’ 또는 ‘핵 3인방’이라고 하는 것이다. 당 경공업부장 박봉주와 그의 측근인 내각 사무국장 김영호의 직연도 잘 알려져 있다. 김영호가 내각 사무국 부국장(2001~2005.2)과 국장(2005.3~2007.6)을 맡아 일하는 동안 박봉주가 내각 총리(2003.9~2007.4)로 재임하면서 서로 연고를 갖게 된 것이다. 당 경공업부와 경제정책검열부에서 오랜 기간 함께 재직한 박봉주와 김경희의 직연도 주목받는 사례이다.

당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의 직연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일부를 제외한 이들 대부분의 주요 직장경력 및 재임기간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직연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들을 전문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경제전문가로는 곽범기·김경희·김락희·김인식·로두철·리용남·리태남·오수룡·최영림·태종수·한광복 등의 위

---

<sup>166</sup>. 『중앙일보』, 2012년 4월 17일.

원과 후보위원 김영숙·김희영·박봉주·백룡천 등이 있다. 군사전문가로는 김명국·김영철·김영춘·김원홍·김정각·김창섭·김철만·리명수·리병삼·리병철·리영호·리용무·리을설·박도춘·박재경·백세봉·오극렬·오금철·오일정·우동측·윤정린·전병호·정명도·주규창·주상성·최경성·최부일·최상려·현영철·현철해 등의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김격식·오철산 등이 있다. 전문외교통으로는 강석주·김영일·박의춘 등의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김계관·리용호·리철·지재룡 등이 있다.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는 위원 강능수와 후보위원 권혁봉·김병훈·안동춘·홍광순 등이 있으며, 교육전문가로는 김용진·변영립·성자립·양형섭·최태복·최희정 등의 위원과 후보위원 최기룡이 있다. 대남전문가로는 당 비서국 대남비서이며 통일전선부장인 김양건이 대표적 인물이며, 선전선동전문가로는 역시 당 비서국 선전비서이며 선전선동부장인 김기남이 대표적 인물이라 하겠다.

## 바. 측근 연고(측연)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세대연, 지연, 학연, 혈연, 직연 등을 주요 관점으로 하여 고찰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당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의 네트워크 고찰은 이른바 ‘측근(자)’이라는 신분으로 맺어진 관계, 곧 ‘측근연고(측연)’가 또 하나의 관점으로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북한의 권력구도에서 측근이라는 연고는 호감 여부를 떠나 서로를 동질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측근자)로 하여금 강한 응집력을 갖게 하는 동인(動因)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있어 정치적 신임의 표시는 곧 ‘측근 발탁’이었으며 측근으로 발탁된 인물들에게 있어서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I  
II  
III  
IV  
V  
VI

하는 비공식연회(측근연회)<sup>167</sup> 참석은 측근으로서의 신분 내지 지위를 확인하는 주요 행사였다고 한다.<sup>168</sup> 과거 ‘후계자 김정일’의 측근 발탁은 후계자 내정 이전부터의 친분, 친·인척관계, 동창관계, 사제관계, 직장 상사 및 동료관계, 기타 업무상 혹은 개인적 친분 등이 주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측근으로 발탁된 사람들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 함께 권력의 핵심에 등용되었다.<sup>169</sup>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당·국가기구·군에서 고위직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김일성 주석의 사촌매제들인 양형섭과 리용무, 김정일 위원장의 동생 김경희와 남편 장성택, 김정일의 대학졸업(1964) 후 직연으로 측근이 된 김국태와 김기남, 그리고 당·국가기구·군의 요직을 수행하면서 김정일과 친분을 맺은 오극렬 등이다. 또한 후계자 내정 이후 유일지도체제 확립과정에서 김정일의 인정을 받아 권부에 진입하고 측근으로 발탁된 인물들 가운데 강석주, 김영춘, 리명수, 리철, 리용철, 박재경, 장성택, 전병호, 주규창, 최룡해, 홍

167. 측근연회는 단순한 피로연이나 단합대회, 친목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결정 기구의 역할을 하는 밀실정치의 성격을 띠었다.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별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p. 97,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 221에서 재인용. 김정일은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측근들과 술판을 자주 벌이고 위력을 과시”하였는바, “김정일이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 ‘오늘부터 너는 중앙당 위원회 위원이자’라고 선언해 버리면 그대로 되는 것이며, ‘아무개는 철직이다’라고 선포하면 그대로 집행되었다”고 한다.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p. 184.

168. 김정일 위원장은 연회 등의 비공식 모임을 통해 측근 권력엘리트들을 결집하였는바, 이들로 하여금 연회 등에 초대받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고 자신이 최고지도자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극대화 하도록 유도하였다. 전현준,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8-03 (서울: 통일연구원, 2008.4).

169.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 223. 김정일의 측근 명단은, 현성일, 위의 책, pp. 223~243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인범 등도 현재 당·국가기구·군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1990년대 초 김정일이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에 추대된 이후에는 조명록, 김명국, 현철해, 박재경, 리명수, 김영춘 등의 군부 핵심인물들로 새로운 측근집단이 형성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격식, 김원홍, 김정각, 최부일, 주상성 등이 측근대열에 합류하였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신설된 김정일 서기실은 김정일의 ‘최측근’으로 간주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비공식연회 등 측근행사를 직접 조직한다는 점에서 ‘일반측근’들과는 차원이 다른 특권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170</sup> 김정일 서기실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인물은 리철(전 스위스 주재 대사)이다. 리철은 30년 이상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외교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스위스 제네바 대표부 공사(1980.6)로 임명된 같은 해에 당 조직지도부 서기실 책임비서로 발탁되어 이후 “김정일이 가장 신임하는 해외 금고지기<sup>171</sup>(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관리)”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리철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데에는 그가 김용순(전 대남비서·통일전선부장, 2003.10.26 사망)과 국제관계대학 동창이고 허담 외교부장 밑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의례국장으로 있었으며, 1970년대 중반 조직지도부 재외 당 생활지도과장이었던 장성택과도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 등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sup>172</sup> 이를 테면 리철의 학연과 직연이 연결고리가 되어

<sup>170</sup> 김정일 서기실은 각 분야에서 김정일에게 집중되는 보고문건과 자료들을 접수, 분류하여 김정일에게 보고하며 결재된 문건을 하달하는 등 문서처리 기능과 김정일의 일정, 경호, 의전, 측근행사의 조직, 김정일의 사생활과 편의보장, 비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서기실은 서기실장과 여러 명의 부부장, 과장, 지도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장과 부부장들은 모두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공식직함을 가지고 있다. 위의 책, p. 228.

<sup>171</sup> 위의 책, p. 230.

I
II
III
IV
V
VI

김정일과의 측연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써 리철은 3중의 중첩적인 연고를 갖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 가운데 제3차·4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국가기구·군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했거나, 또는 재임하고 있는 인물들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김경희(당 비서), 장성택(당 행정부장·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당 선전선동부장), 김양건(당 통일선선부장), 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 김영춘(당 부장·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당 국제부장), 김국태(당 검열위원장), 로배권(전 황해남도 당 책임비서), 강석주(내각 부총리), 리명수(인민보안부장), 리용무(국방위 부위원장), 전병호(내각 정치국장), 오극렬(국방위 부위원장), 현철해(인민무력부 제1 부부장·후방총국장), 리철(전 스위스 주재 대사), 최룡해(총정치국장), 김명국(총참모부 작전국장), 박재경(총정치국 부국장), 그리고 리용철(전 청년동맹중앙위 1비서) 등이다. 관련 자료<sup>173</sup>에서는 김일성 주석 때부터 그의 측근으로 활동한 데 이어 김정일체제에서도 측근 실세로 활약해 온 인물들로 김영남, 최영림, 김국태, 양형섭, 리용무, 태종수, 김정숙 등을 지목하고, 이들이 김정은체제에서도 안정감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장성택이 당 행정부장,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 국방위 부위원장 등 4개 요직을 맡게 되면서 이른바 ‘장성택 계열’이 북한 권력엘리트 내에서 최대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인물들이 지

---

172. 위의 책, p. 230.

173. 장용훈, “북한을 움직이는 핵심인물은?,” 『민족화해』, 통권55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2012 03-04), p. 19.

목된바 있다.<sup>174</sup> 리명수, 지재룡, 문경덕, 강석주, 오극렬, 최룡해, 김양건, 김영일, 태종수, 김평해, 박도춘, 우동측, 김경옥, 오일정, 리영수, 박명철 등이 그들이다. ‘계열’의 의미 내지 실제 여부는 차치하고 이들이 지목된 것은 이들이 장성택과 측근으로의 연고가 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하며, 이들 대부분이 현재 장성택이 주도하는 당·국가기구·군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장성택의 측근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주요부서의 제1부부장들은 장성택의 인물이라는 단정적인 견해도 있다.<sup>175</sup>

## 사. 소결: 특징

### (1) 항일빨치산 1세를 비롯한 혁명 1세대의 퇴조와 3·4세대의 부상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 가운데 항일빨치산 출신 1세들은 4명뿐이며 리용무(88)를 제외하고 이들은 모두 90대 이상의 고령이다. 또한 이들은 당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의 명예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혁명 1세대의 잔류는 마야흐로 김정은시대에 있어서는 혁명 1세대의 위상이 크게 약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상 1980년 10월의 제6차 당대회 때는 당 중앙위 정치국원 구성에 있어 주로 항일빨치산 출신 1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2세대 일부가 포함되는 정도였으나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김국태,

<sup>174</sup> 한 관련 글에서는 “새롭게 부상하는 사람들로 장성택 부위원장 계열의 사람들”을 지목하였는바, 최룡해,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지재룡 등이 그들이다. 위의 글, p. 19.

<sup>175</sup> 정승욱, 『김정일 그후』 (서울: 지상사, 2011), p. 82.

김영춘, 전병호, 김기남, 최태복 등 항일빨치산 출신 2세를 비롯한 혁명가 유자녀 등, 혁명 2세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곧 혁명 1세대의 위상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이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김정은 후계 체제의 안착 및 강화를 위해 상징성을 한껏 발하는 것밖에는 달리 할 일이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혁명 1세대의 퇴조에 반해 김정은 제1비서를 비롯한 혁명 3세대와 4세대는 점차 부상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이들이 얼마나 중앙정치에 진출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당 중앙위, 내각, 최고인민회의 등에 진입한 50대 이하 3·4세대의 비율이 낮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에서 서술하였는바, 김정은 제1비서의 형 김정철과 동생 김여정을 비롯하여 오극렬(오세현), 김원홍(김철), 강석주(강태성), 김창섭(김창혁), 최룡해(최준) 등의 아들들, 김영남(김성현)의 손자, 장성택(장용철)의 조카 등이 김정은 제1비서와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음은 혁명 3·4세대의 부상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북한은 혁명의 3세대, 4세대를 “선군혁명의 주력,” “선군혁명세대,” “혁명의 새 세대들,” “장군님의 아들딸 세대,” “강성대국의 주인공 세대”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은 “혁명의 대를 잇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역설한다. “혁명의 3세, 4세는 1세, 2세대들이 개척한 혁명위업과 그들이 이룩한 업적과 전통을 5세, 6세, 그 다음세대들도 변함없이 계승해나갈수 있는 든든한 담보와 궤도를 마련해놓는 인전대와 같은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76</sup> 또한

---

176. “정론: 혁명의 3세, 4세,” 『로동신문』, 2006년 2월 28일.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혁명의 3·4세대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세기를 이어온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강성 대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혁명의 계승자’이며 세습후계체제 지지기반으로서의 혁명 3세대와 4세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큰 기대가 배어있다.

## (2) 특정지역 출신의 상대적 우위

중앙위 위원은 절반 이상(58%)이 출신지역을 알 수가 없고, 후보위원은 총 인원의 94%가 출신지역이 파악되지 않아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파악된 수치만으로 볼 때,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의 출신지역은 평안도, 함경도, 평양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이는 관련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제4차 당 대표자회 이후 개편된 노동당과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내각 등의 주요 구성원 106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조사결과<sup>177</sup>에 따르면 이들의 출신지역은 평안남도(18.6%)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평양(16.3%)·함경북도(16.3%), 함경남도(14.6%)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로써 총 65.8%를 차지하는 평안남도, 평양, 함경북도, 함경남도 등 네 지역 출신들이 북한 권력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선출된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의 출신지역도 평안남도 9명, 평양 7명, 함경북도 6명, 함경남도 6명 등으로 나타난다. 요약하건대, 주지하듯이 김양건·강석주·김정각(평안남도), 김경희·김영남·김정은·문경덕(평양), 김국태·박재경·장성택·최영림·태종수(함경북도), 김기남·주규창·지재룡(함경

177. 통일부 정세분석국, 『김정은 체제의 당·정 주요인물 분석·평가』.

남도) 등은 김정일정권에서는 물론 김정은 세습후계체제에서도 당·국가기구·군에 걸쳐 주요 직책을 역임했거나, 또는 재임하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때, 이로써 평안남도, 평양, 함경북도, 함경남도 등 네 지역의 출신들이 중앙위원회 구성원들 가운데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sup>178</sup> 이는 곧 북한 권력구조에서 이들이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3) 분야별 전문성

북한 권력엘리트들은 한 분야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많은 실무적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전문화되며, 이는 북한의 ‘간부정책’에 있어 주요 특징이다. 북한에서 간부 충원 및 등용에 있어 가장 우선시·중요시 하는 것은 전문성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순환보직제가 없고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배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에 맞는 평생직장을 갖게 된다.<sup>179</sup>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당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희천공업대학 출신의 광범기(74)는 희천기계공장 분공장 지배인(1983.2), 정무원 기계공업부 제1부부장, 기계공업부장, 내각 부총리 등을 거쳐 현재 당 중앙위 비서국 비서와 계획재정부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인민경제대학 출신의 김락

---

<sup>178</sup> 북한의 지역별 인구분포에 있어 평안남·북도에 인구집중도가 높는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도 할 수 있으나, 동부지역인 함경남·북도 출신의 인물들도 적지 않은바, ‘특정지역 출신의 상대적 우위’라고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역별 인구분포를 보면 평양시 및 평안남·북도에 전체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여 서부지역에 인구집중도가 가장 높으며…”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22 참조.

<sup>179</sup>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p. 191~192.

희(80)도 군 협동조합 관리위원장(1953.8) 및 경영위원장, 도·시 농촌경리위원장 등을 거쳐 황해남도 당 책임비서와 내각 부총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가수의방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후보위원 박봉주(73)는 덕천공업대학 출신으로 식료공장 지배인(1962.9), 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 당 경공업부 부부장, 경제정책검열부 부부장 등을 거쳐 화학공업상과 내각 총리를 역임하고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을 거쳐 당 경공업부장으로 선임되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인 주규창(85)은 당 기계공업부 부부장(1983.8),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을 거쳐 기계공업부 부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역시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인 내각 부총리 한광복(67)도 당 기계공업부 부부장(1990.4), 내각 금속기계공업 부상, 전자공업상 등을 역임하였다.

북한 권력엘리트의 전문성은 외교분야에서도 잘 나타난다. 외교전문가인 강석주(내각 부총리)와 김영일(당 비서·국제부장), 후보위원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 등은 ‘당의 외교일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국제관계대학과 ‘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평양외국어대학 출신이며, 박의춘(외무상)과 후보위원 리철(전 스위스 주재 대사)은 국제관계대학 출신이고, 전희정(전 이집트 주재 대사)과 후보위원 리용호(외무성 부상)는 평양외국어대학 출신이다. 이들 가운데 강석주는 정무원 외교부 제1부부장(1986.6), 내각 외무성 제1부상 등으로 20년 이상을 재임하면서 대미 핵외교만 전담하였으며, 김계관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 북·미고위급회담 차석대표 및 대표를 비롯하여 핵의혹시설·미사일·테러 관련 북·미회담 대표로 활동했고, 1990년대 후반에는 4자회담 대표, 2000년대 들어서는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2004~2008) 등으로 재임한바

I
II
III
IV
V
VI

있다. 박의춘은 오랜 기간의 외국 주재 대사 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 인물이다. 박의춘은 1973년 카메룬 주재 임시 대리대사를 시작으로 알제리, 시리아, 레바논,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대사로 재임했으며 특히 러시아 주재 대사(1998.4~2006.9)를 하는 동안에는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등의 대사를 겸임하기도 하였다. 또한 리철 역시 1980년 6월 이래 30여 년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 대표부 공사, 대표, 상임대표, 그리고 스위스 주재 대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한 전문 외교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평양체육대학 출신인 위원 박명철(72)은 1976년 3월 이래 30년 이상을 국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제1부위원장, 위원장,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내각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체육상과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평양연극영화대학 출신인 후보위원 홍광순(나이 미상)은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 연출가(1999~2005) 및 총장(2009~2010)을 역임했으며 국가영화위원회 위원장(2010.8)으로 재임하고 있다.

#### (4) 권력의 응집성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을 통해 보면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은 폐쇄성이 강한 편이다. 이들은 이른바 연고, 또는 ‘최고지도자’의 신임 등을 연결고리 내지 매개로 하여 응집하려는 경향이 있다.

살아있는 동안 김정일 위원장이 지키고자 했던 ‘간부정책’의 중요 원칙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파벌형성 차단’이었다고 한다.<sup>180</sup> 간부들 사이에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로 파벌을 형성하지 못하



도록 막겠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에도 구현되어 있는바, 제9원칙 7항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충성심을 기본척도로 하여 간부를 평가하고 또 선발배치하여야 하며, 친척·친구·동향인·동창생·사제관계와 같은 정실이나 안면관계로써 간부문제를 처리하거나 개별적 간부가 제멋대로 간부를 조동 시키거나 등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함이 없이 강력히 투쟁함으로써 간부사업에서 제정된 질서와 당적 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은 연고, 또는 지도자의 신임 등에 따라 한데 뭉치는 응집성이 있으며, 특히 지도자의 신임이 응집의 주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도자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라는 연고로 만난 이들은 ‘선택받은’ 내지 ‘불리움 받은’ 수혜자라는 의식을 공유하며 측근의 대열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 굳이 한데 뭉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사실상 과거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이었던 인물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김정은체제에 들어서도 당을 비롯한 국가기구와 군에서 요직을 역임, 또는 재임하고 있음은 이들의 응집성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도자의 신임에 따른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응집’은 이들이 순수하게 뜻을 같이 하여 한데 뭉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를 테면 이들은 자신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유일한 계기가 되어 응집하기보다는 지도자의 측근으로서 ‘불리움’을 받는 수혜자 신분, 그리고 공식서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하여 행사할 수 있는 실권자라는 것을 연고로 하여 한데 뭉치는 경향이 더 할 것으

180. 위의 책, p. 180.

로 판단된다.

이른바 ‘항일빨치산 혈통’이라는 연고도 권력엘리트 응집의 주요 계기라고 하겠다. 항일빨치산 출신 세대의 응집력은 김일성을 최고수위에 추대하고 이후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 확보 및 후계체제 안착에도 기여한 항일빨치산 출신 1세대와 2세대들에게서 잘 엿볼 수 있다. 특히 1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행군’을 함께 한 동지애와 혁명적 의리가 응집의 주요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2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1세대 빨치산의 혈통이라는 자긍심이 응집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항일빨치산 혈통은 세대를 이어가며 재생산되고 있다. 북한체제의 최고수위를 예로 들면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 위원장으로,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에서 김정은 제1비서로 항일빨치산 혈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권력세습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항일빨치산 출신의 권력엘리트들 역시 대를 이어 자신들의 혈통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체제가 뿌리부터 변모하지 않는 한, 지도자의 신임과 항일빨치산 혈통을 주요 계기로 하는 북한 권력엘리트의 응집성은 앞으로도 북한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의 주요 특징들 가운데 하나로 지적될 것이다.

### 3. 주요 기관별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이 절에서는 노동당과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각 기관별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분석, 고찰하기로 한다. 분석대상은 당에 있어서는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 및 후보위원, 비서국 비서, 전문부서 부장,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 위원이다. 국가기구에서는 국방위원회 위원 및 산하기구

부장,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상임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서기장, 그리고 내각의 총리 및 부총리이다.<sup>181</sup> 분석대상의 나이와 직책은 2012년 4월 현재로 하며 직책은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권력기구조도(2012.4 기준)』에 의거한다.

## 가. 노동당

### (1) 정치국

#### (가) 상무위원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에서 선임된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일, 김영남, 리영호, 최영림, 조명록 등 5명이었으나 이후 조명록(2010.11.6)과 김정일(2011.12.17)이 사망하였으며, 이로써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를 통해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등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2012년 7월 15일 리영호가 해임됨으로써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당 제1비서·국방위 1위원장·당 중앙군사위원장·군총사령관, 원수),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국가비상방역위원장), 최룡해(총정치국장·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국방위원, 차수) 등 4명이다(<표 III-6> 참조).

<sup>181</sup> 군대를 별도로 다루지 않는 것은 군 관련 주요 인물들이 거의 모두 당과 국가기구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표 III-6 정치국 상무위원

이름	출생 년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친·인척관계	세대
김정은	1983 (30)	평양	스위스베른국제 학교·김일성군사 종합대학	김일성 손자·김정일 아들·김경희 조카· 장성택 처조카	항일빨치산 3세
김영남	1928 (85)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
최영림	1930 (83)	함경 북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최룡해	1950 (63)	황해 남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전 인민무력부장 최현 아들	항일빨치산 2세

· 평양(2), 함경북도(1), 황해남도(1) · 김일성종합대학(3), 만경대혁명학원(2), 김일성군사종합대학(1), 모스크바대학(2), 스위스베른국제학교(1) · 김일성가계 관련인물(1) · 항일빨치산 출신 2세(1)·3세(1), 혁명가 유자녀(1)

(나) 위원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강석주, 김경희, 김국태, 김기남, 김영춘, 변영립, 양형섭, 리용무, 전병호, 주상성, 최태복, 홍석형 등 12명이 정치국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주상성과 홍석형이 탈락되고 신임 6명이 충원되어 총 16명의 위원으로 정치국이 재구성되었다. 김경희(당 비서, 대장), 김영춘(당 부장·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 부위원장, 차수), 김국태(당 중앙위 검열위원장), 김기남(당 선전비서·당 선전선동부장), 최태복(당 과학교육비서·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도시·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중앙선거지도위원장), 리용무(국방위 부위원장, 차수), 강석주(내각 부총리), 전병호(내각 정치국장·당 책임비서),

변영립(도.시.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중앙선거지도위원회 서기장),  
 현철해(신임, 당 중앙군사위원·인민무력부 제1부부장·후방총국장,  
 차수), 김정각(신임, 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원·인민무력부장, 차수),  
 장성택(신임, 당 행정부장·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 부위원장, 대장),  
 박도춘(신임, 당 군수비서·국방위원, 대장), 김원홍(신임, 당 중앙군  
 사위원·국방위원·국가안전보위부장, 대장), 리명수(신임, 당 중앙군  
 사위원·국방위원·인민보안부장) 등이 그들이다(<표 III-7> 참조).

표 III-7 정치국 위원

이름	출생 년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친·인척관계	세대
김경희 (여)	1946 (67)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김일성 딸, 김정일 동생, 김정은 고모, 장성택 부인	항일빨치산 2세(김일성 주석 딸)
김영춘	1936 (77)	양강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군사종합 대학·소련프룬제 군사아카데미	-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김국태	1924 (89)	함경 북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고급당학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항일빨치산 2세 (김책 아들)
김기남	1929 (84)	함경 남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국제대학	-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최태복	1930 (83)	남포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동독라이프치히공대	-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양형섭	1925 (88)	함경 남도	중국칭다오중학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김일성 사촌매제	-

I  
II  
III  
IV  
V  
VI

이름	출생 년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친·인척관계	세대
리용무	1925 (88)	평안 남도	제2중앙정치학교· 김일성군사종합 대학·김일성고급 당학교	김일성 사촌매제	항일빨치산 1세
강석주	1939 (74)	평안 남도	평양외국어대학· 국제관계대학	-	-
전병호	1926 (87)	자강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변영립	1929 (84)	황해 남도	김일성종합대학	-	-
현철해	1934 (79)	미상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루마니아공대	-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김정각	1941 (72)	평안 남도	김일성군사종합 대학	-	-
장성택	1946 (67)	함경 북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고급당학교· 모스크바대학	김정일 매제·김경희 남편·김정은 고모부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박도춘	1944 (69)	자강도	김일성고급당학교	-	-
김원홍	1945 (68)	함경도	김일성정치군사 대학	-	-
리명수	1937 (76)	미상	미상	-	-

· 80대(7), 70대(5), 60대(4), 평균나이 78세 · 여성(1) · 평안남도(3), 함경남도(2), 함경북도(2), 함경도(1), 자강도(2), 양강도(1), 평양(1), 황해남도(1), 남포(1), 미상(2) · 김일성종합대학(9), 만경대혁명학원(7), 김일성고급당학교(4), 김일성군사종합대학(3), 제2중앙정치학교(1), 평양외국어대학(1), 국제관계대학(1), 김일성정치군사대학(1), 해외학교로는 모스크바대학(5), 모스크바 국제대학(1), 소련프룬제군사아카데미(1), 동독라이프치히공대(1), 루마니아공대(1), 중국칭다오중학교(1) · 김일성가계 관련 인물(4) · 항일빨치산 출신 1세(1)·2세(2), 혁명가 유자녀(6)

(다) 후보위원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양건, 김영일, 김정각, 김창섭, 문경덕, 박정순, 우동측, 최룡해, 김평해, 리태남, 박도춘, 김락희, 태종수, 장성택, 주규창 등 15명이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이후 박정순(2011.1.22)이 사망하였으며,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최룡해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고, 장성택, 김정각, 박도춘 등 3명이 정치국 위원이 되고, 5명이 보선되는 등 변동이 있었다.

제4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정치국 후보위원은 김양건(당 대남비서·통일전선부장), 김영일(당 국제비서·당 국제부장·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 태종수(당 총무부장·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김평해(당 간부비서·당 간부부장·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 문경덕(당 지방비서·평양시 당 책임비서), 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원, 상장), 김창섭(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상장), 김락희(국가수의방역위원장), 리태남(전 내각 부총리),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당 중앙군사위원, 대장) 등 10명이 유임되고 오극렬(국방위 부위원장, 대장), 광범기(당 경제비서·당 계획재정부장), 리병삼(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상장), 로두철(내각 부총리·국가계획위원장), 조연준(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5명이 보선되어 총 15명으로 재구성되었다(<표 III-8> 참조).

I

II

III

IV

V

VI

● 표 III-8 정치국 후보위원

이름	출생 년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친·인척관계	세대
오극렬	1931 (82)	중국 (길림)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소련프론트군사 아카데미	빨치산대원 오중흡 조카·대외문화 연락위 부위원장 서호원 장인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김양건	1942 (71)	평안 남도	김일성종합대학	-	-
김영일	1947 (66)	평안 북도	국제관계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해주혁명학원	전 국가검열위원장 전문섭 사위	-
태종수	1936 (77)	함경 북도	만경대혁명학원· 동유럽유학	전 부수상 정일룡 사위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김평해	1941 (72)	자강도	만경대혁명학원· 사범대학	-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문경덕	1957 (56)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	-
주규창	1928 (85)	함경 남도	김책공업종합대학	-	-
곽범기	1939 (74)	미상	희천공업대학	-	-
김창섭	1946 (67)	평안 남도	김일성고급당학교	-	-
리병삼	미상	미상	미상	-	-
로두철	1944 (69)	미상	미상	-	-
조연준	1937 (76)	함경 남도	김일성종합대학	-	-
김락희 (여)	1933 (80)	평안 남도	인민경제대학	-	-



이름	출생 년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친·인척관계	세대
리태남	1938 (75)	평안 북도	평양기계대학	-	-
우동측	1942 (71)	평안 남도	김일성종합대학	-	-

\* 70대(7), 80대(3), 60대(3), 50대(1), 미상(1), 평균 나이 73세(나이미상 1명 제외)  
 \* 여성(1) \* 평안남도(4), 평안북도(2), 함경남도(2), 함경북도(1), 자강도(1), 평양(1),  
 중국(1), 미상(3) \* 김일성종합대학(5), 만경대혁명학원(3), 국제관계대학(1), 평양  
 외국어대학(1), 사범대학(1), 김일성고급당학교(1), 김책공업종합대학(1), 희천공업  
 대학(1), 평양기계대학(1), 인민경제대학(1), 해주혁명학원(1), 소련프론트군사아카  
 데미(1), 동유럽 유학(1) \* 혁명가 유자녀(3)

## (2) 비서국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총비서로 재추대되었으며 김기남과 최태복은 유임되고 최룡해, 문경덕, 박도춘,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태종수, 홍석형 등이 승진 기용되어 총 10명의 비서로 당 중앙위 비서국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지난 4월에 열린 제4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서 김정일 총비서는 ‘영원한 당 총비서’로 추대되고, 김정은이 제1비서로 추대되었다.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김경희와 광범기가 당 비서로 보선되었고 최룡해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 기용되었으며 태종수가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로 선임되었고 홍석형은 해임(2011.6)되었다. 이로써 2012년 4월 현재 당 비서국은 김경희(경제), 박도춘(군수), 김기남(선전), 최태복(과학교육), 김양건(대남), 김영일(국제), 김평해(간부), 문경덕(지방), 광범기(경제)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II-9> 참조).

I  
II  
III  
IV  
V  
VI

표 III-9 당 비서

이름	출생 년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친·인척관계	세대
김경희	1946 (67)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김일성 딸, 김정일 동생, 김정은 고모, 장성택 부인	항일빨치산 2세(김일성 딸)
박도춘	1944 (69)	자강도	김일성고급당학교	-	-
김기남	1929 (84)	함경 남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국제대학	-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최태복	1930 (83)	남포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동독라이프치히공대	-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김양건	1942 (71)	평안 남도	김일성종합대학	-	-
김영일	1947 (66)	평안 북도	국제관계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해주혁명학원	전 국가검열위원장 전문섭 사위	-
김평해	1941 (72)	자강도	만경대혁명학원· 사범대학	-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문경덕	1957 (56)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	-
곽범기	1939 (74)	미상	희천공업대학	-	-

· 50대(1), 60대(3), 70대(3), 80대(2), 평균 나이 71세 · 평안남도(1), 평양(2), 자강도(2), 함경남도(1), 평안북도(1), 남포(1), 미상(1) · 김일성종합대학(5), 만경대혁명학원(3), 모스크바대학(1), 모스크바국제대학(1), 김일성고급당학교(1), 동독라이프치히공대(1), 국제관계대학(1), 평양외국어대학(1), 해주혁명학원(1), 사범대학(1), 희천공업대학(1) · 김일성가계 관련 인물(1) · 항일빨치산 출신 2세(1), 혁명가 유자녀(3)

### (3) 전문부서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김기남(선전선동부장), 장성택(행정부장), 김영일(국제부장), 홍석형(계획재정부장), 김경희(경공업부장), 최희정(과학교육부장), 김양건(통일전선부장), 김정임(당 역사연구소장), 채희정(문서정리실장), 태종수(총무부장), 김평해(간부부장), 리영수(근로단체부장), 오일정(민방위부장), 주규창(기계공업부장) 등이 각 전문부서 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조직지도부장은 공석이었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박정순(2011.1.22 사망)이 선임되었다. 그러나 제4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경희가 당 비서국 비서로, 태종수가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로 선임되고, 오일정이 다른 부서 부장으로 수평이동하고, 박봉주, 김영춘, 곽범기 등 3명이 새로 기용되는 등 변동이 있었으며, 이로써 당 비서국 산하 전문부서의 각 부장은 김평해(간부부장), 박봉주(경공업부장), 곽범기(계획재정부장), 최희정(과학교육부장), 김영일(국제부장), 오일정(군사부장), 리영수(근로단체부장), 주규창(기계공업부장), 김정임(당 역사연구소장), 채희정(문서정리실장), 김기남(선전선동부장), 김양건(통일전선부장), 장성택(행정부장), 태종수(총무부장), 김영춘(OO부장) 등 15명이 선임되었다. 제3차 당 대표자회와 마찬가지로 조직지도부 부장은 공석이며, 이 외에 신소실, 재정경리부, 38호실, 39호실 등도 공석이다(<표 III-10> 참조).

I

II

III

IV

V

VI

● 표 III-10 당 전문부서 부장

이름	출생 년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친·인척관계	세대
김평해	1941 (72)	자강도	만경대혁명학원· 사범대학	-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곽범기	1939 (74)	미상	희천공업대학	-	-
최희정	1946 (67)	미상	김책공업종합대학	-	-
김영일	1947 (66)	평안 북도	국제관계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해주혁명학원	전 국가검열위원장 전문섭 사위	-
오일정	1944 (69)	미상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전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아들	항일빨치산 2세(오진우 아들)
리영수	1946 (67)	미상	김일성종합대학	-	-
주규창	1928 (85)	함경 남도	김책공업종합대학	-	-
김정임 (여)	미상	미상	미상	-	-
채희정	1924 (89)	함경 남도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
김기남	1929 (84)	함경 남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국제대학	-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김양건	1942 (71)	평안 남도	김일성종합대학	-	-
장성택	1946 (67)	함경 북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고급당학교· 모스크바대학	김정일 매제· 김경희 남편· 김정은 고모부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이름	출생 년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친·인척관계	세대
태종수	1936 (77)	함경 북도	만경대혁명학원· 동유럽유학	전 부수상 정일룡 사위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김영춘	1936 (77)	양강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군사종합 대학·소련프룬제 군사아카데미	-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박봉주	1940 (73)	미상	덕천공업대학	-	-

· 70대(6), 60대(5), 80대(3), 미상(1), 평균 나이 74세(나이미상 1명 제외) · 함경남도(3), 함경북도(2), 평안남도(1), 자강도(1), 양강도(1), 평안북도(1), 미상(6) · 김일성종합대학(6), 만경대혁명학원(5), 김책공업종합대학(2), 김일성군사종합대학(2), 덕천공업대학(1), 사범대학(1), 희천공업대학(1), 국제관계대학(1), 평양외국어대학(1), 해주혁명학원(1), 모스크바대학(2), 모스크바국제대학(1), 소련프룬제군사아카데미(1), 동유럽유학(1) · 김일성가계 관련 인물(1) · 항일빨치산 출신 2세(1), 혁명가 유자녀(5)

#### (4)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구성된 당 중앙군사위 위원은 총 19명이다. 위원장에는 김정일이 추대되었고, 신설된 부위원장으로는 김정은과 리영호, 그리고 장성택, 김영춘, 김정각, 주규창, 우동측, 김명국, 김경옥, 김원홍, 정명도,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상려, 최경성, 최룡해 등 16명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 사후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으로 추대되고, 부위원장으로 리영호(정치국 상무위원·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차수: 2012.7.15 해임)가 유임되었으며 최룡해가 새로 기용되었다. 위원으로는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현철해(신임), 김원홍(당 정치국원·국방위원·국가안전보위부장), 리

I  
II  
III  
IV  
V  
VI

명수(신임, 당 정치국원·국방위원·인민보안부장), 주규창, 김명국(총참모부 작전국장, 대장), 김경옥(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대장), 정명도(해군사령관, 대장), 리병철(공군사령관, 대장), 최부일(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대장), 김영철(경찰총국장, 대장), 윤정린(호위사령관, 대장), 최경성(당 중앙군사위원, 상장), 김락겸(신임, 전략로켓군사령관, 중장), 우동측, 최상려(당 중앙군사위원, 상장) 등 18명이 선임되었다. 또한 지난 7월 17일 차수 칭호를 받은 현영철이 진급 직후, 7월 15일 해임된 리영호의 후임으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발탁되었다.

현영철을 포함하여 당 중앙군사위 위원 21명(위원장 1·부위원장 2·위원 18)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sup>182</sup> 연령대는 70대(6), 60대(4), 80대(1), 30대(1)의 순이며 미상이 9명이다. 출신지역은 양강도(2), 평안남도(2), 평양(1), 황해남도(1), 함경북도(1), 함경도(1), 함경남도(1) 등이며 미상이 12명이다. 출신학교는 만경대혁명학원(6), 김일성군사종합대학(5), 김일성종합대학(4), 김책공업종합대학(1), 김일성고급당학교(1), 김일성정치군사대학(1), 소련프룬제군사아카데미(2), 모스크바대학(1), 스위스베른국제학교(1), 루마니아공대(1) 등이며 미상이 9명이다. 또한 김일성가계 관련 인물이 2명 있으며, 항일빨치산 출신 2세(1)·3세(1)가 있고, 혁명가 유자녀 5명이 있다.

---

<sup>182</sup> 당 정치국, 비서국, 전문부서 등과 중복되는 인물들(10명)이 많고, 중복되지 않는 인물들(김명국·김경옥·정명도·리병철·최부일·김영철·윤정린·최경성·김락겸·최상려·현영철)의 대부분은 출생년도·출신지역·출신학교가 미상이 많아 표를 만들지 않는다.

## 나. 국가기구

### (1)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회의(2011.4.8)에서 선출된 국방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이다. 위원장으로는 김정일이 재추대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영춘, 리용무, 오극렬 등 3명이 선출되었으며, 박도춘, 백세봉, 장성택, 리명수, 우동측, 주규창, 김정각 등 7명이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이후 지난 4월 1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영원한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며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제1위원장에 추대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영춘, 리용무, 장성택, 오극렬 등 4명이 선출되었으며, 최룡해, 김정각, 박도춘, 김원홍, 리명수, 주규창, 백세봉(75, 제2경제위원장, 상장) 등 7명이 위원으로 선출되었다.<sup>183</sup>

국방위원들의 연령대는 60대(4), 70대(4), 80대(3), 30대(1) 등의 순이며 최연소 위원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다. 출신지역은 평안남도가 2명이고 평양, 양강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자강도, 함경도, 함경남도, 중국 등이 각 1명씩이며 미상이 2명이다. 출신학교로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4), 김일성종합대학·김일성고급당학교(3), 김일성정치군사대학·제2중앙당학교·김책공업종합대학(1) 등과 해외학교로 소련프룬제군사아카데미(2), 모스크바대학·스위스베른국제학교(1) 등이 있으며 2명이 미상이다. 김일성가계 관련 인물은 3명이 있으며 항일빨치산 출신 1세(1)·2세(2)·3세(1)와 혁명가 유자녀(3)가 있다.

<sup>183</sup>- 한 명을 제외하고 당과 중복되는 인물들이어서 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 <산하기구>

국방위원회 산하기구로는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이 있다.

2012년 4월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 인민보안부장 리명수 등이 선임되었다. 이들의 연령대는 70대(2), 60대(1) 등이며, 출신지역은 평안남도, 함경도 등이 각 1명씩이고, 나머지 1명(리명수)은 미상이다. 출신학교로는 김일성정치군사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등이 각 1명씩이며, 리명수의 출신학교는 미상이다.

### (2) 최고인민회의

2012년 4월 현재,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최태복, 상임위 위원장 김영남, 부위원장 양형섭과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중앙위원장·민족화해협의회회장), 서기장 태형철 등으로 요직이 구성되어 있다 (<표 III-11> 참조).

● 표 III-11 최고인민회의 주요 인물

이름	출생 년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친·인척관계	세대
최태복	1930 (83)	평안 남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동독라이프치히공대	-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김영남	1928 (85)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
양형섭	1925 (88)	함경 남도	중국칭다오중학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김일성 사촌매제	-



이름	출생 년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친·인척관계	세대
김영대	1937 (76)	미상	김일성종합대학	-	-
태형철	1953 (60)	미상	김일성종합대학	항일빨치산 1세 태병렬 아들	항일빨치산 2세

• 연령대는 80대(3), 70대(1), 60대(1) • 출신지역은 평안남도(1), 평양(1), 함경남도(1), 미상(2) • 출신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5), 만경대혁명학원(1), 모스크바대학(2), 동독라이프치히공대(1), 중국칭다오중학교(1) • 김일성가계 관련 인물(1) • 항일빨치산 출신 2세대(1), 혁명가 유자녀(1)

### (3) 내각

20102년 4월 현재 내각은 총리 최영림을 비롯하여 로두철(당 정치국후보위원·국가계획위원장), 강능수, 조병주, 한광복(전자공업상), 강석주, 리무영(화학공업상), 김용진, 리승호, 리철만, 김인식(수도건설위원장) 등 10명의 부총리들로 구성되어 있다(<표 III-12> 참조).

● 표 III-12 내각 총리 및 부총리

이름	출생 년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친·인척 관계	세대
최영림	1930 (83)	함경 북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혁명 2세대 (혁명가 유자녀)
로두철	1944 (69)	미상	미상	-	-
강능수	1930 (83)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	-
조병주	1942 (71)	미상	룡성기계대학	-	-

I  
II  
III  
IV  
V  
VI

이름	출생 년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친·인척 관계	세대
한광복	1946 (67)	미상	김책공업종합대학	-	-
강석주	1939 (74)	평안 남도	평양외국어대학· 국제관계대학	-	-
리무영	1948 (65)	미상	미상	-	-
김용진	1953 (60)	미상	김형직사범대학	-	-
리승호	1948 (65)	미상	미상	-	-
리철만	미상	미상	미상	-	-
김인식	1948 (65)	미상	김책공업종합대학	-	-

· 연령대는 60대(6), 70대(2), 80대(2), 미상(1) · 출신지역은 함경북도(1), 평양(1), 평안남도(1), 미상(8) · 출신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2), 김책공업종합대학(2), 만경대혁명학원·룡성기계대학·평양외국어대학·국제관계대학·김형직사범대학·모스크바대학(1), 미상(4) · 혁명가 유자녀(1)

## 다. 소결: 특징

### (1) 정치국의 노령화와 기능 복원

당 중앙위 정치국은 혁명 원로들의 집합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정치국에서 최고위직인 상무위원 4명 가운데 2명이 80대 중반의 고령이며, 정치국원 16명 가운데 절반 이상(12)이 70대 이상이다. 또한 후보위원 15명 가운데 역시 절반 이상(10)이 70대 이상이며, 이로써 상무위원 4명과 나이 미상인 후보위원 1명을 제외한 정치국원 및 후보위원의 평균 나이는 76세이다. 특히 정치국 위원들의 절반가량이 80대(7)이며 이들 가운데 4명이 90에 가까운 나

이인바, 이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치국 위원이 혁명원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의 명예직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실제 김경희와 장성택을 비롯하여 당과 국가기구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60대 4명과, 외교전문가인 내각 총리 강석주를 비롯해 공안 관련 기구의 수장들인 김정각, 리명수 등 70대가 정치국원에 포함되어 있음은 김정은 후계체제에서는 당 정치국이 당 운영에 있어 본연의 기능 내지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시사한다.<sup>184</sup> 또한 주규창(김책공업종합대학), 곽범기(희천공업대학), 리태남(평양기계대학) 등 3명이 기계공업 분야의 기술간부를 키우는 대학 출신이며, 김락희(인민경제대학)는 전문경제관료를 양성하는 대학 출신이고, 김영일(평양외국어대학)은 외국어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출신이다. 이는 정치국 후보위원들의 전문성이 낮지 않음을 뜻하는바, 이러한 전문성과 함께 이들 모두 관련 분야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이 탄탄하다고 할 때, 앞으로 정치국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30대의 김정은과 60대 초반의 최룡해가 자리하고 있음도 의의가 적지 않다. 바야흐로 김정은시대가 개막되면서 70~80대의 혁명원로들과 30~60대의 혁명후대가 공존하며 나름대로 의미있는 ‘정치국의 노령화와 본연의 기능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2) 출신지역 및 출신학교 편중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및 후보위원의 출신지역은 평안도(9)와

<sup>184</sup> 당 규약에 “당 중앙위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제25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함경도(9)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평안남도(7)가 가장 많으며, 3명이 정치국원이고 나머지 4명이 후보위원이다.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선출된 위원 및 후보위원들 가운데 평안남도 출신으로 확인된 위원 강석주, 김락희, 김양건, 김정각, 김창섭, 리용무, 우동측 등 7명이 모두 정치국원 및 후보위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 비서국도 비서 9명 가운데 1명이 평안남도 출신이며, 전문부서 부장 15명 가운데 5명이 함경남도(3)와 함경북도(2) 출신이다. 군부 엘리트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당 중앙군사위 위원들(21)은 출신지역이 미상인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 가운데 2명이 평안남도 출신이다. 이와 같은 지역 편중은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지만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내각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제1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포함한 국방위원들(12)은 출신지역이 미상인 2명을 제외한 10명 가운데 2명이 평안남도 출신이며, 나머지 8명은 각 다른 지역 출신들이다. 산하기구에서도 요직을 맡고 있는 4명 가운데 1명이 평안남도 출신이며, 출신지역이 미상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출신지역이 모두 다르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5명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1명이 평안남도 출신이며 2명이 출신지역 미상이고 나머지 2명은 평양과 함경남도 출신이다. 내각 총리를 비롯한 부총리 10명 가운데 출신지역이 파악된 인물은 3명이며 이들 가운데 1명이 평안남도 출신이다.

한편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 및 후보위원들의 출신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17)과 만경대혁명학원(12)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정치국 상무위원 및 정치국원과 후보위원들의 연령대 및 혁명세대로 미루어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국 상무위원 2명이 80대 중반의 고령이며, 정치국원(12/16) 및

후보위원(10/15)의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이다. 또한 총 3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및 정치국원과 후보위원들 가운데 항일빨치산 출신 2세대(3)와 혁명가 유자녀(10) 등 혁명 2세대가 13명이다. 요컨대, 이들에게 있어서 북한정권 창립 이전 설립된 “민족간부양성기지”인 김일성종합대학과 “혁명가유자녀교육기관”인 만경대혁명학원은 당시 최적의 교육기관이었을 것이며 당의 정책적 고려도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낮지 않은바, 70대 이상 고령의 권력엘리트들이 많은 정치국 요인들의 출신학교가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출신학교 편중 현상은 해외유학에서도 나타난다. 정치국 상무위원(3) 및 정치국원(9)과 후보위원(2)들 가운데 14명이 해외유학을 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8명이 모스크바대학에서 유학하였다.

당 비서국 비서 9명의 출신학교도 김일성종합대학(5)과 만경대혁명학원(3)이 가장 많으며, 당 전문부서 부장 15명의 출신학교도 김일성종합대학(6)과 만경대혁명학원(5)이 가장 많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 중앙군사위원 21명 가운데도 만경대혁명학원(6)과 김일성종합대학(4) 출신이 많은 편이며 출신학교 미상이 9명이다.

국방위원(12)의 경우에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고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은 3명이다. 산하기구의 수장 4명들 가운데도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이 각기 1명씩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5명 모두가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이며 1명이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이다.

### (3) 항일빨치산 2세를 비롯한 혁명 2세대, 3세대의 약진

제3차, 제4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위 정치국, 비서국, 전문

I
II
III
IV
V
VI

부서,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에 항일빨치산 출신 2세와 혁명가 유자녀를 비롯한 혁명 2세대들이 핵심간부로 부상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으로는 항일빨치산 출신 2세와 3세가 각기 1명씩이고 혁명가 유자녀가 1명이다. 정치국원으로는 항일빨치산 출신 1세가 1명이고 2세가 2명이며, 혁명가 유자녀가 6명이다.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는 혁명가 유자녀만 3명이다. 당 비서국 비서로는 항일빨치산 출신 2세가 1명이고 혁명가 유자녀가 3명이다. 전문부서 부장으로는 항일빨치산 출신 2세가 1명이고 혁명가 유자녀가 5명이다. 당 중앙군사위 위원들 가운데 항일빨치산 출신으로는 2세와 3세가 각기 1명씩, 그리고 혁명가 유자녀가 5명 파악되었다. 국방위원들 가운데는 항일빨치산 출신 2세 2명, 혁명가 유자녀 3명 등이 파악되었으며 산하기구 수장들 가운데도 항일빨치산 출신 2세가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요인들 가운데도 항일빨치산 출신 2세 1명과 혁명가 유자녀 1명이 파악되었다.

이들 가운데 특기할 만한 인물로는 김정은(30), 최룡해(63), 김경희(67), 장성택(67), 김평해(72), 오일정(69), 김영철(67), 태형철(60) 등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핵심간부들이다. 주지하듯이 이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항일빨치산 출신 3세 김정은이다. 이른바 ‘백두혈통’의 3세이기도 한 세습후계자 김정은은 나이 30세에 당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 1위원장, 군 최고사령관 등의 직책에 추대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 사후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북한 권력의 최고수위에 오른 것이다. 위에 열거한 인물들 외에도 50대의 문경덕(56, 당 비서·평양시 당 책임비서), 박태덕(58,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등의 위원과 리용호(57, 외무성 부상), 백룡천(51, 중앙은행 총재), 황병서(64, 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 등의 후보위원이 최근 혁명 2·3세의 약진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와 같이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혁명 2세대와 3세대의 급부상은 혁명원로들과의 마찰 내지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겠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징후로 평가할 수도 있다.

#### (4) 주요 직책의 겸직과 권력의 중첩성

북한의 당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은 모두가 당, 국가기구, 군대, 그리고 근로단체와 정당 및 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직책 내지 직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테면 군 출신 인물들은 주로 국가기구(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와 군대에서 겸직하고 있으며, 민간인 신분의 인물들은 주로 당과 국가기구(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내각)에서 겸직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직함은 거의 예외가 없으며, 군 경력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인물이 장군 칭호를 받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이러한 실태는 당 중앙위가 이러한 기구 및 단체에 소속되어 여러 분야에서 북한체제를 주도해 나가는 권력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직책 내지 직위의 겸직 현상은 위에서 살펴본 바, 북한의 권력기관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인물들에게서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당, 국가기구(국방위·최고인민회의·내각), 군대 등 3개 권력기관에 걸쳐 2개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인물들을 실례로 들면,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는 당·국가기구·군에서 최고위직을 겸직하고 있는 김정은(당 제1비서·당 중앙군사위원장·국방위 1위원장·군총사령관)과 최룡해(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국방위원·총정치

국장)가 있다. 당 정치국원으로는 김영춘(당 부장·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 부위원장), 최태복(당 과학교육비서·최고인민회의 의장), 현철해(당 중앙군사위원·인민무력부 제1부부장·후방총국장), 김정각(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원·인민무력부장), 장성택(당 행정부장·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당 군수비서·국방위원), 김원홍(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원·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원·인민보안부장) 등이 있다.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는 김영일(당 국제비서·당 국제부장·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 김평해(당 간부비서·당 간부부장·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 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원),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당 중앙군사위원) 등이 있다.

이 외에 김기남(당 선전비서·당 선전선동부장), 전병호(내각 정치국장·당 책임비서), 김양건(당 대남비서·통일전선부장), 태종수(당 총무부장·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문경덕(당 지방비서·평양시 당 책임비서), 광범기(당 경제비서·당 계획재정부장), 로두철(내각 부총리·국가계획위원장) 등은 같은 기관에서 2개의 직책을 맡고 있다.

주요 직책의 겸직은 곧 권력의 중첩성을 뜻한다. 또한 권력의 중첩은 권력엘리트가 행사하는 영향력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서의 의의가 있다. 이를 테면 한 권력엘리트가 주요 직책을 얼마나 중첩적으로 맡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권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 직책을 갖는 데에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가 작용한다면, 직책만이 아니라 직책 임명권자, 또는 권부 실세와의 연고를 중첩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에게 권력이 한층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리영호를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신설)으로 발탁한 사례를 보면, 당시 리영호는 평양방어사령관을 거쳐 군 총참모장으로 재임중이었는데, 주요 직책의 중첩성은 낮은 편이었으나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은, 장성택 등 실세들과 연고의 중첩성은 높았다. 김정일 위원장과는 같은 나이(발탁 당시 69세)에 학연(만경대혁명학원동문)과 세대연(항일빨치산 출신 2세)이 있었다. 또한 당시 리영호는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인 장성택의 측근이었다고 할 때, 리영호가 중책을 떠맡게 된 데에는 측연도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리영호는 장성택(만경대혁명학원)과 김정은(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도 학연이 있으며, 특히 김정은과는 직연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정은이 2007년 4월부터 평양방어사령부 산하부대 지휘관으로 임명되어 일할 당시 리영호가 평양방어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고의 중첩성이 높은 인물에게 권력이 집중된 또 다른 사례는 장성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룡해이다. 장성택(67)과 최룡해(63)는 같은 60대이며 학연(김일성종합대학·만경대혁명학원)과 세대연(혁명이 유자녀 혁명 2세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위에서 서술했듯이 최룡해는 1980년대 말에 장성택이 당 청소년사업부장을 할 때 사로청 중앙위원장을 맡아 일하면서 장성택과의 직연을 다졌으며 이러한 직연으로 한 때 권력의 부침도 함께 함으로써 이후 최측근이 되었는데, 이로써 장성택과 측연까지 갖게 되었다.

#### 4. 상위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

상위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 분석대상은 제3차·제4차 당 대표자 회를 통해 당·국가기구·군 등의 권력기관에서 요직을 맡아 했거나,

I
II
III
IV
V
VI

또는 맡아 하고 있는 인물 52명<sup>185</sup>이다. 이들 가운데 리철, 리태남, 김철만, 주상성, 리영호<sup>186</sup>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47명은 2012년 4월 현재 주요 직책에 있다.

## 가. 상위 권력엘리트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상위 권력엘리트로 지목되는 인물은 절대 다수가 남성(50명/96%)이며 여성은 2명(4%)에 불과하다. 이들의 연령대는 70대가 16명(3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80대 14명(27%), 60대 11명(21%), 30대·50대·90대 각기 1명(2%) 등의 순이다. 그리고 출생년도 미상이 8명(15%)이다. 총 52명 가운데 70대 이상이 60%(3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써 상위 권력엘리트의 고령화를 나타낸다. 출신지역으로는 평안도(평남 7/평북 2)와 함경도(함북 5/함남 3/함경도 1)가 각기 9명(17%)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평양 4명(8%), 자강도 3명(6%), 양강도·강원도·황해남도·중국이 각기 2명(4%), 남포 1명(2%) 등의 순이다. 출신지역 미상은 18명(35%)이다. 출신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이 19명(37%)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만경대혁명학원 15명(29%), 김일성군사종합대학 9명(17%), 김일성고급당학교 5명(10%), 국제관계대학 3명(6%), 김일성정치군사대학·평양외국어대학 각기 2명(4%), 희천공업대학·인민경제

<sup>185</sup> 강석주·김경옥·김경희·김국태·김기남·김양건·김영일·김정은·김평해·리영수·문경덕·박도춘·박봉주·백세봉·장성택·전병호·주규창·최룡해·최태복·태중수(당), 광범기·김락희·김영남·로두철·리철·리태남·변영립·양형섭·최영림(국가기구), 김명국·김영철·김영춘·김원홍·김정각·김창섭·김철만·리명수·리병삼·리병철·리영호·리용무·박재경·오극렬·오일정·우동측·윤정린·정명도·주상성·최경성·최부일·최상려·현철해(군).

<sup>186</sup> 리영호는 그가 당·국가기구·군의 요직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던 당시의 위상과, 또한 개인성이 낮지 않은 복권 등을 고려하여 상위엘리트에 포함시켰다.

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사범대학·제2중앙정치학교·평양기계대학·덕천공업대학·해주혁명학원이 각기 1명(2%), 소련 프룬제군사아카데미 4명(8%), 모스크바대학 7명(13%), 모스크바국제대학·동유럽유학·동독라이프치히공대·루마니아공대·스위스베른국제학교·중국칭다오중학교가 각기 1명(2%) 등의 순이다. 출신학교 미상은 8명(15%)이다. 상위 권력엘리트 52명 가운데 특히 출생년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모두 파악되지 않는 인물들인 김경옥, 리병삼, 윤정린, 정명도, 최경성, 최부일, 최상려 등 7명은 모두가 군 관련 인물들이다.

## 나. 주요 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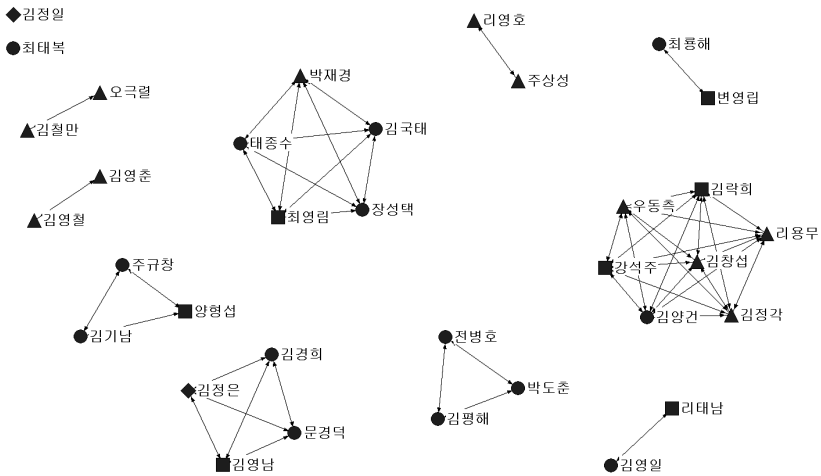
### (1) 지연

상위 권력엘리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연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평안남도 출신인 김양건·강석주·김락희·우동측·리용무·김정각·김창섭 등 7명이며, 강석주와 우동측은 평안남도 평원 출신이라는 연고도 있다.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sup>187</sup>

다음으로는 함경북도 출신인 장성택·김국태·최영림·박재경·태종수 등 5명이 많은 지연을 가지고 있다. 평양은 김정은·김경희·김영남·문경덕 등 4명이 서로 지역적인 연고가 있으며, 김정은과 김경희는 혈연관계이기도 하다. 전병호·박도춘·김평해 등 3명은 자강도에 연고가 있으며, 김평해와 전병호는 자강도 전천군 출신이

<sup>187</sup> 사회연결망분석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제IV장을 참조.

### 그림 III-1 출신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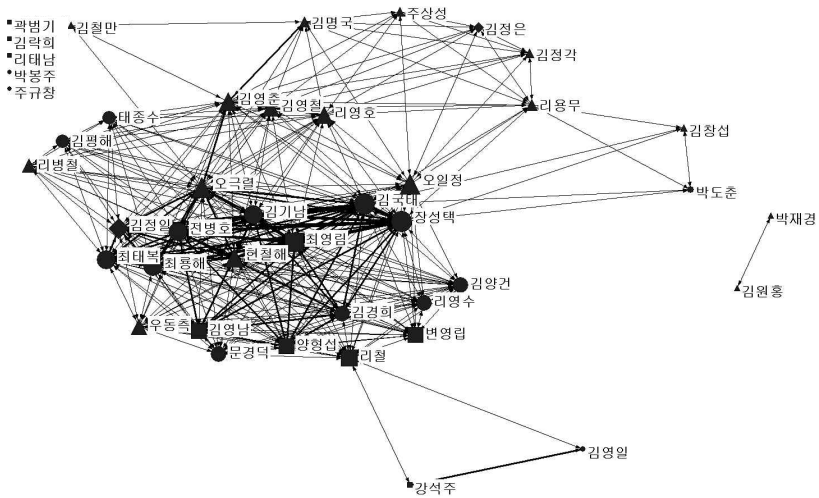
\* ● 당, ▲ 군, ■ 국가기구

라는 연고도 있다. 함경남도는 김기남·주규창·양형섭 등 3명이 서로 지연이 있으며, 군 출신인 김영춘과 김영철은 양강도에 연고가 있다. 역시 군 출신인 리영호와 주상성은 강원도 출신이며, 오극렬과 김철만은 중국 출신이라는 연고가 있다. 최룡해와 변영립은 황해남도에 연고가 있는 인물들이며, 리태남과 김영일은 평안북도 출신이다. 남포 출신인 최태복은 지연이 없다(<그림 III-1> 참조).

### (2) 학연

상위 권력엘리트 52명의 학력 네트워크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III-2>에서 가장 큰 노드(node)는 김국태와 장성택이다. 이들은 출신학교가 미상인 8명을 제외한 나머지 44명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학연이 많은 인물들이다(<그림 III-2> 참조).

그림 III-2 출신학교



- \* ● 당, ▲ 군, ■ 국가기구
- \* 노드 크기는 해당 인물의 연결중심성 반영
- \* 선의 굵기는 선으로 연결된 두 인물의 연결 강도(출신학교 공유 개수)를 의미

김국태·장성택(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김일성고급당 학교·모스크바대학)은 각각 28명의 동일 인물들과 45개 학교에 걸쳐 연고가 겹쳐 있는바, 그림의 연결망 상에서 이들은 28개의 크고 작은 다른 노드들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한 선이 가장 굵은 노드는 4개 대학 동문인 김국태와 장성택이며, 다음으로는 3개 대학 연고를 공유하고 있는 김기남, 전병호, 최영림 등 3명과 연결된 선이다(<그림 III-2-1> 참조).

I
II
III
IV
V
VI

그림 Ⅲ-2-1 출신학교-당

- 김영일
- ◆ 김정은
- 박봉주
- 주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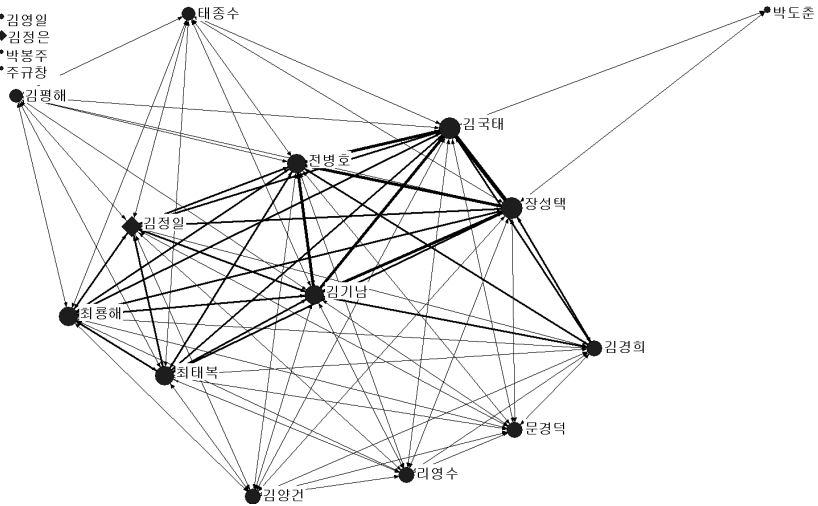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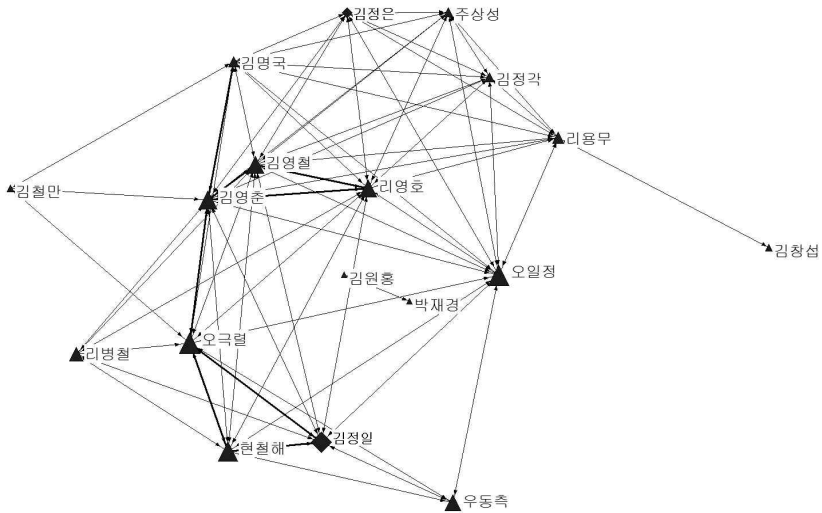


그림 Ⅲ-2-2 출신학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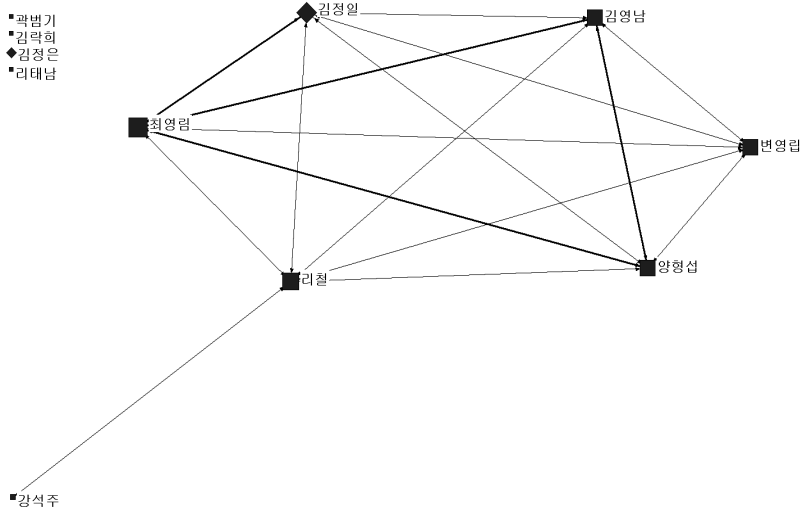


김국태·장성택 다음으로 학연이 많은 인물은 오극렬(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소련프룬제군사아카데미)이다. 오극렬은 27명의 인물들과 37개 학교에 연고를 가지고 있으며, 군부 인사인 오극렬의 학연은 역시 군부 권력엘리트들과 많이 겹쳐있다. 김영춘·김명국·김영철·현철해·리영호·김철만·리병철·오일정·우동측 등이 그러하다(<그림 III-2-2> 참조).

김국태, 장성택, 오극렬 등 3명 외에도 학연이 많은 인물로는 <그림 III-2>의 연결망 상에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오일정(27명/27개), 김기남·전병호·최영림(25명/41개), 김정일·최룡해·최태복·현철해(25명/34개) 등이다. 이들보다 학연이 적은 김영철·리영호(21명/23개), 리철(21명/21개), 김경희·김영남·양형섭(19명/26개), 김양건·리영수·문경덕·변영림·우동측(19명/19개), 김영춘(18명/26개) 등은 노드의 크기가 작지는 않으나 가운데가 아닌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김평해·리병철·태종수(15명/15개), 리용무(12명/12개), 김명국(10명/11개), 김정각·김정은·주상성(8명/8개) 등은 작은 노드에 보다 더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보다 학연이 더 적은 김창섭·박도춘(4명/4개), 김철만(3명/3개), 강석주(2명/2개), 김영일(2명/3개), 김원홍·박재경(1명/1개) 등은 노드 크기도 아주 작고 가장 먼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III-2>에서 연결망 밖에 있는 광범기(희천공업대학), 김락희(인민경제대학), 리태남(평양기계대학), 박봉주(덕천공업대학), 주규창(김책공업종합대학) 등 5명은 상위 권력엘리트 52명 가운데 학연이 없는 인물들이다. 또한 이들 가운데 광범기, 김락희, 리태남 등 3명은 주로 국가기구에서 일을 한 인물들이다. 주로 국가기구에서 요직을 맡아 해온 인물들의 학연은 <그림 III-2-3>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다른 인물들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연

I
II
III
IV
V
VI

### 그림 III-2-3 출신학교-국가기구



고로 선이 연결되어 있으나 평양외국어대학과 국제관계대학 출신인 강석주는 국제관계대학 동문인 리철과 가는 선이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김영남, 최영림, 양형섭 등 3명은 김일성종합대학과 모스크바대학 연고로 굵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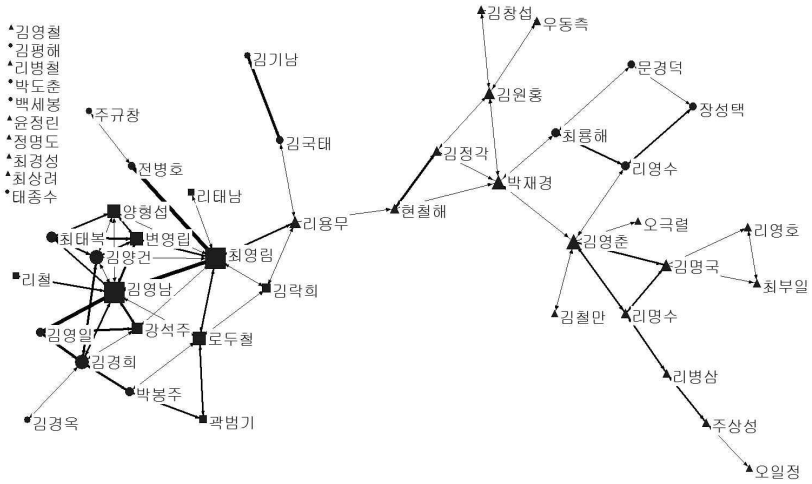
### (3) 직연

상위 권력엘리트들의 직연은 이들이 당과 국가기구(국방위원회·내각·최고인민회의), 그리고 군대에서 서로 관련있는 분야, 또는 부서에서 상·하관계 내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직책을 맡아 했거나, 또는 맡아 하면서 재직기간을 함께 한 직장경력 중복 횟수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상위 권력엘리트 52명의 상호 간 직장경력 중복 횟수를 나타낸



그림 III-3 직장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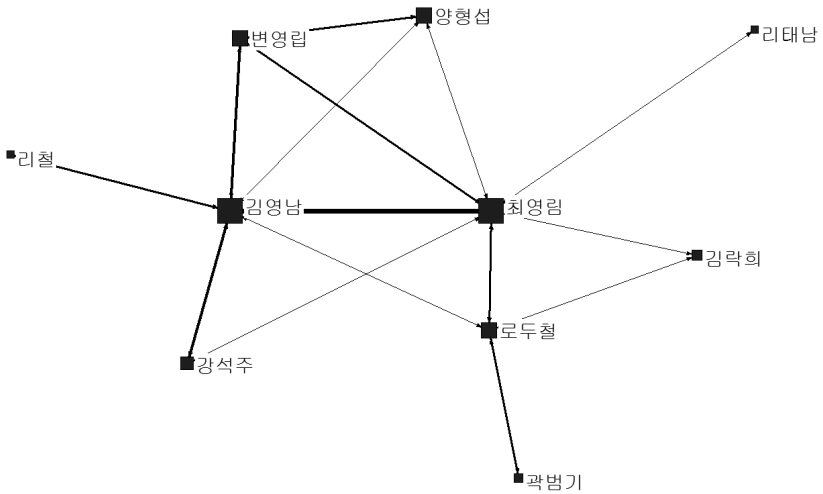
- \* ● 당, ▲ 군, ■ 국가기구
- \*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 반영
- \* 연결선 굵기는 경력중복 횟수 반영

<그림 III-3>에서 가장 큰 노드는 김영남과 최영림이다(<그림 III-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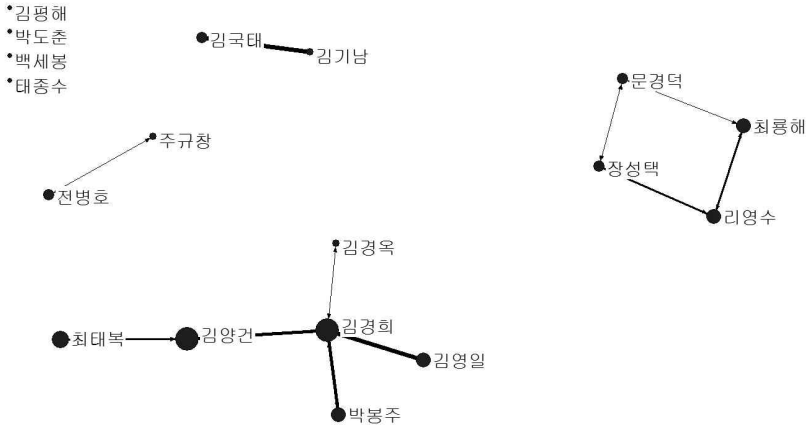
이들은 각기 10명의 다른 인물들과 직장경력이 중복되어 있으며 김영남은 25회, 최영림은 21회이다. 김영남은 당보다는 국가기구에서 다른 인물들과의 직장경력 중복이 많은 편이다. 로두철·김양건·변영립·양형섭·최영림·최태복(1회), 리철·최태복(2회), 강석주·변영립(3회), 김영일(4회), 최영림(5회) 등과의 경력중복이 그러하다. 당 경력중복으로는 김경희(2회)·김영일(1회) 등이 있는 정도이다. 최영림 역시 국가기구에서 직장경력 중복이 많다. 강석주·김락희·리태남·김양건·양형섭(1회), 로두철·리용무·변영립(2회), 전병호·김영남(5회) 등이 그러하다(<그림 III-3-1> 참조).

I
II
III
IV
V
VI

●그림 III-3-1 직장경력-국가기구



●그림 III-3-2 직장경력-당



김경희(14회), 김양건(10회), 김영춘(8회) 등은 6명의 다른 인물들과 직장경력 중복이 있다. 주로 당 경력이 있는 김경희는 강석주·김경옥(1회), 김영남(2회), 김양건·박봉주(3회), 김영일(4회) 등과 직장경력이 겹쳐 있다. <그림 III-3-2>에서 김경희의 노드가 가장 크고 다른 주요 당직자들과의 연결선이 굵게 나타나 있음은 이와 같은 김경희의 당내 위상을 잘 말해 주고 있다(<그림 III-3-2> 참조).

김양건은 최태복(2회)·김경희(3회)와 당 경력이 겹치며, 김영남·양형섭·최영림(1회)·변영립(2회) 등과도 겹친다. 군부실세인 김영춘은 오극렬·김철만·리영수·박재경(1회), 리명수·김명국(2회) 등과 연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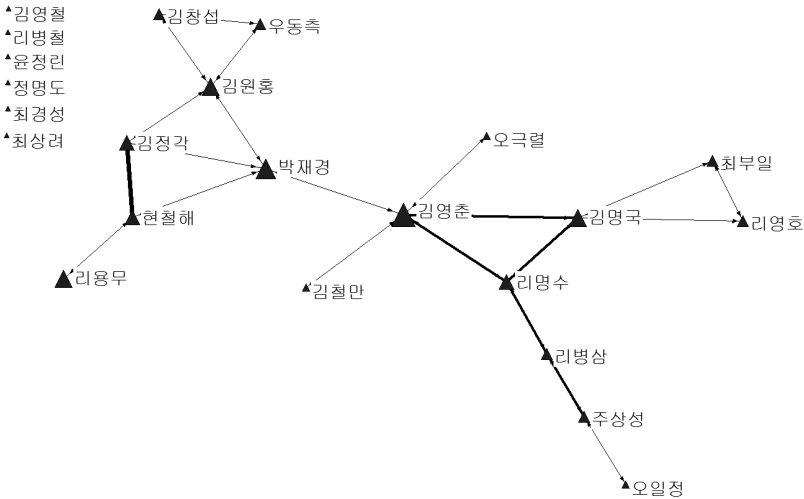
5명의 다른 인물들과 직장경력이 중복된 인물로는 로두철(7회), 박재경(5회), 변영립(12회), 양형섭(7회) 등이 있다. 로두철은 김락희·김영남·박봉주(1회), 곽범기·최영림(2회) 등과, 박재경은 김원홍·김정각·현철해·최룡해·김영춘(1회) 등과 연고가 있다(<그림 III-3-3> 참조).

변영립은 김양건·양형섭·최영림(2회), 김영남·최태복(3회) 등과, 양형섭은 김양건·김영남·최영림(1회), 변영립·최태복(2회) 등과 직장경력이 중복된다.

4명의 다른 인물들과 직장경력 중복이 있는 인물로는 강석주(8회), 김명국(6회), 김원홍(4회), 리용무(5회), 최태복(9회) 등이 있다. 강석주는 김경희(1회)와 함께 일했던 당 경력 외에는 주로 내각에서 김영남·김영일(3회), 최영림(1회) 등과, 김명국은 리영호·최부일(1회), 김영춘·리명수(2회) 등과, 김원홍은 김정각·박재경·김창섭·우동측(1회) 등과 겹친다(<그림 III-3-3> 참조). 리용무는 김락희·김국태·현철해(1회), 최영림(2회) 등과, 최태복은 김양건(2회), 김영남·

I
II
III
IV
V
VI

### 그림 III-3-3 직장경력-군



양형섭(2회), 변영립(3회) 등과 연고가 있다.

다른 인물 3명과 직장경력이 중복되는 인물로는 김락희(3회), 김영일(12회), 김정각(5회), 리명수(5회), 리영수(5회), 박봉주(6회), 최룡해(4회), 현철해(5회) 등이 있다. 김락희는 로두철·리용무·최영림(1회) 등과, 김영일은 강석주(3회), 김경희(4회), 김영남(5회) 등과, 김정각은 김원홍·박재경(1회), 현철해(3회) 등과, 리명수는 리병삼(1회), 김명국·김영춘(2회) 등과, 리영수는 김영춘(1회), 장성택·최룡해(2회) 등과, 박봉주는 로두철(1회), 곽범기(2회), 김경희(3회) 등과 재직기간이 겹친다. 최룡해는 문경덕·박재경(1회), 리영수(2회) 등과 겹친다(<그림 III-3-1> 참조). 현철해는 박재경·리용무(1회), 김정각(3회) 등과 직장경력이 중복된다.

다른 인물 2명과 직장경력 중복이 있는 인물로는 문경덕(2회), 리영호(2회), 리병삼(4회), 김창섭(2회), 김국태(5회), 곽범기(4회),

우동측(2회), 장성택(3회), 전병호(6회), 주상성(3회), 최부일(2회) 등이 있다. 문경덕은 최룡해·장성택(1회) 등과, 리영호(71, 7.15 해임)는 최부일·김명국(1회)등과, 리병삼은 리명수·주상성(2회) 등과, 김창섭은 김원홍·우동측(1회) 등과, 김국태는 리용무(1회), 김기남(4회) 등과, 곽범기는 로두철·박봉주(2회) 등과, 우동측은 김원홍·김창섭(1회) 등과, 장성택은 문경덕(1회), 리영수(2회) 등과, 전병호는 주규창(1회), 최영림(5회) 등과, 주상성은 오일정(1회), 리병삼(2회) 등과, 최부일은 김명국·리영호(1회) 등과 연고가 있다.

1명의 다른 인물과 직장경력 중복이 있는 인물로는 김경옥이 김경희(1회)와, 김기남이 김국태(4회)와, 김철만이 김영춘(1회)과, 리철이 김영남(2회)과, 리태남이 최영림(1회)과, 오극렬이 김영춘(1회)과, 주규창이 전병호(1회)와, 그리고 오일정이 주상성(1회)과 재직기간이 겹친다. 주요 직연이 확인되지 않는 인물로는 김영철, 김평해, 리병철, 박도춘, 백세봉, 윤정린, 정명도, 최경성, 최상려, 태종수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김평해와 태종수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군부 내지 군 관련 인물들로, 이들 경력의 대부분이 파악되지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은 직장경력 중복 횟수를 통해 본 상위 권력엘리트 52명의 중심성(centrality)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표 III-13> 참조).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sup>188</sup>이 가장 높은 인물은 <그림 III-3>에서 가장 큰 노드인 김영남·최영림(0.2)이며, 다음으로는 김경희·김양건·김영춘(0.12), 로두철·박재경·변영림·양형섭(0.1), 강석주·김명국·김원홍·리용무·최태복(0.08), 김락희·김영일·김정각·리명수·리

<sup>188</sup> 한 노드가 얼마나 많은 다른 노드들과 연결되는지로 측정한다. 강영은, “북한 김정일정권의 권력엘리트 구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 36.

I
II
III
IV
V
VI

영수·박봉주·최룡해·현철해(0.06), 광범기·김국태·김창섭·리병삼·리영호·문경덕·우동측·장성택·전병호·주상성·최부일(0.04), 김경옥·김기남·김철만·리철·리태남·오극렬·오일정·주규창(0.02) 등의 순이다.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sup>189</sup>은 김영남(0.647)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최영림(0.568), 김양건(0.504), 변영립·양형섭(0.453), 최태복(0.367), 김경희(0.336), 강석주(0.318), 로두철(0.283), 김영일(0.232), 김락희(0.177), 박봉주(0.123), 리용무(0.143), 전병호(0.105) 등의 순이다. 위세중심성과 관련해 특기할 만한 사례는 김영남과 최영림이다. 이들은 각기 10명의 인물들과 직장경력이 중복되어 있어 연결중심성은 같은 수치이지만 위세중심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김영남이 연고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일부가 북한 권력구도 내 위상이 보다 높기 때문이라 하겠다. 서로 연고를 공유하고 있는 인물들(김양건·로두철·양형섭·강석주·변영립)을 제외하고 김영남은 김경희, 리철, 최태복, 김영일 등 비교적 위상이 높고 비중 있는 인물들과의 직연이 있으나, 최영림은 김락희, 리태남, 리용무, 전병호 등 보다 위상이 낮고 영향력이 덜한 인물들과 연고가 있다. 김경희·김양건·김영춘도 이와 같은 사례이다. 연결중심성(0.12)이 같은 이들 가운데 위세중심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김양건(0.504)이며 가장 낮은 인물은 김영춘(0.002)인바, 이도 역시 김양건은 보다 위상이 높은 김영남, 양형섭, 최영림, 변영립, 최태복, 김경희 등과 직연이 있으며 특히 김경희(3회)와 직장경력이 많이 겹치기 때문이라 하겠다. 김영춘은 김철만, 리영수, 박재경, 오극렬, 김명국, 리명수 등과 연고가 있다. 위세중심성과 관련해 또 다른 특

---

<sup>189</sup>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의 위신 혹은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심성을 측정한다. 위의 글, p. 37.

징적인 것은 연결중심성이 같은 다른 인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  
 세중심성이 낮은 김명국(0), 김원홍(0.003), 리명수(0), 리병삼(0), 리  
 영호(0), 우동측(0.001), 주상성(0), 최부일(0), 김철만(0), 오극렬(0),  
 오일정(0) 등이 모두 군 출신 인물들이며, 이들과 직연이 있는 인물  
 들은 거의 모두가 군부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사이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sup>190</sup>이 가장 높은 인물은 리  
 용무(0.356)이다. 다음으로는 박재경(0.331), 현철해(0.326), 최영림  
 (0.319), 김영춘(0.258), 리명수(0.091), 김영남(0.08), 김명국·김원홍  
 (0.062), 최룡해(0.054) 등의 순이다. 연결중심성(0.2)이 같고 위세

● 표 III-13 중심성: 직연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사이중심성	
김영남·최영림	0.2	김영남	0.647	리용무	0.356
김경희·김양건·김영춘	0.12	최영림	0.568	박재경	0.331
로두철·박재경·변영립·양형섭	0.1	김양건	0.504	현철해	0.326
강석주·김명국·김원홍· 리용무·최태복	0.08	변영립· 양형섭	0.453	최영림	0.319
김락희·김영일·김정각·리명수· 리영수·박봉주·최룡해·현철해	0.06	최태복	0.367	김영춘	0.258
곽범기·김국태·김창섭·리병삼· 리영호·문경덕·우동측·장성택· 전병호·주상성·최부일	0.04	김경희	0.336	리명수	0.091
김경옥·김기남·김철만·리철· 리태남·오극렬·오일정·주규창	0.02	강석주	0.318	김명국· 김원홍· 리병삼	0.062

<sup>190</sup> 한 노드가 연결망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위의  
 글, p. 37.

중심성(0.647)이 높은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이중심성(0.08)은 최영림(0.319, 내각 총리)보다 낮은바, 이는 직책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보다는 내각 총리가 권력엘리트 상호 간 연결 경로로서의 의의가 더 크기 때문이라 하겠다.<sup>191</sup>

## 다. 소결: 특징

### (1) 중첩성

#### (가) 연고

상위 권력엘리트 52명의 지연, 학연, 직연 등 3개 연고의 중첩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 III-4>에서 연고의 중첩성이 높아 연결망 상에서 가운데에 비교적 큰 노드로 자리하고 있는 인물은 최영림, 장성택, 김국태, 김영남, 최룡해, 김경희, 최태복, 김기남, 현철해, 오극렬, 김양건, 오일정, 전병호, 양형섭, 변영립, 리철, 우동춘 등이다. 그 주위로는 리영수, 문경덕, 김영철, 리영호, 김영춘, 김평해, 태중수, 리용무, 김정각, 강석주 등이 있다(<그림 III-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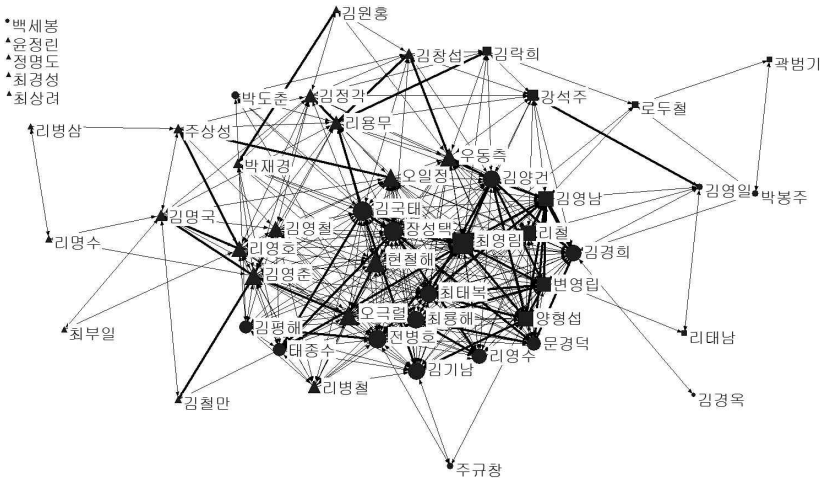
리병철, 김락희, 김창섭, 박도춘, 주상성, 박재경, 김명국 등은 보다 작은 노드로 주변에 자리하고 있으며 김원홍, 리병삼, 리명수, 최부일, 김철만, 주규창, 김경옥, 리태남, 김영일, 박봉주, 곽범기, 로두철 등은 맨 끝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노드로 자리하고 있다.

---

<sup>191</sup>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의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선, 즉 최단경로(geodesic) 위에 위치하면 할수록 그 노드의 사이중심성은 높아진다. 위의 글, p. 37; 김영남도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1983.12~1998.9)을 역임한 바 있으나, 1998년 9월 이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최영림은 정무원 제1부총리(1984.2~1985.10),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금속공업부장(1990.5~1998.8) 등을 역임하고 2010년 6월 이래 내각 총리로 재임하고 있다.



### 그림 III-4 3개 연고



백세봉, 윤정린, 정명도, 최경성, 최상려 등 5명은 지연·학연·직연이 파악되지 않는 인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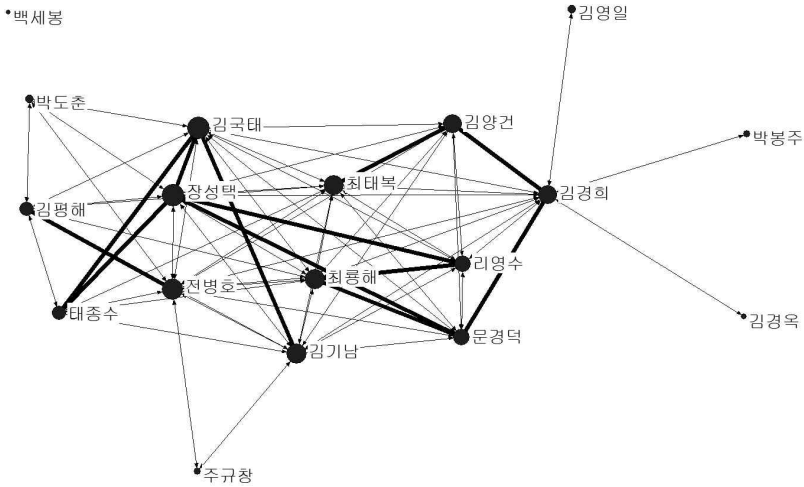
연고의 중첩성은 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인물들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위의 그림에서 가운데에 자리한 큰 노드의 인물들 가운데 절반가량인 장성택·김국태·최룡해·김경희·최태복·김기남·김양건·전병호 등이 그러하다(<그림 III-4-1> 참조).

주로 국가기구에서 요직을 맡아 해온 인물들 가운데는 최영림·김영남·양형섭·변영립·리철 등이 비교적 연고의 중첩성이 높으며 이들은 굵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그림 III-4-2> 참조).

군에서는 리용무·오일정·현철해·김영철·오극렬·김영춘·리영호·우동측 등이 연고의 중첩성이 높으며, 특히 현철해와 오극렬, 오극렬과 김영춘, 김영춘과 김영철 등이 굵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학연이 많으며, 김영철과 김영춘은 지연도 있다(<그림 III-4-3> 참조).

I  
II  
III  
IV  
V  
VI

그림 III-4-1 3개 연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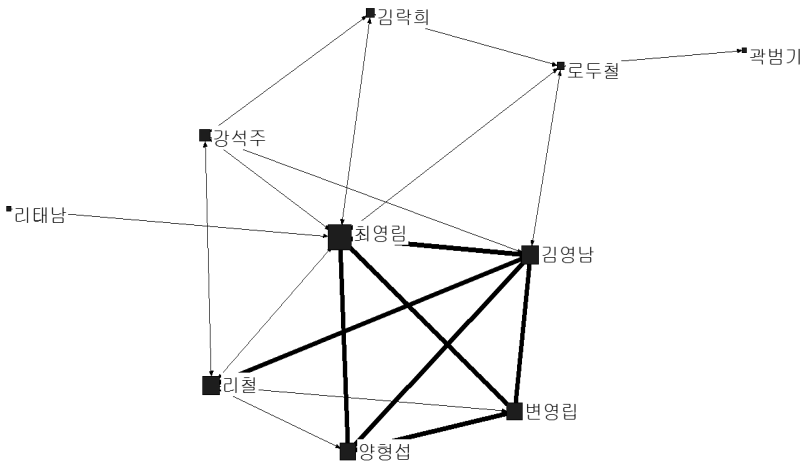


연고의 중첩성이 높은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학연이 많은 편이다. 이들 가운데 김국태, 김기남, 김영일, 김영춘, 리용무, 오극렬, 장성택, 전병호, 최영림, 최태복, 현철해 등은 출신학교가 3곳 이상이며, 따라서 다른 인물들에 비해 학연이 보다 더 많은 편이다.<sup>192</sup> 특히 연결망 상에서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김국태·장성택(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김일성고급당학교·모스크바대학), 최영림(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모스크바대학) 등 3명은 출신지역도 모두 함경북도이다(<그림 III-4> 참조).

앞에서 서술했듯이 생전에 김정일 위원장은 간부들 사이에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로 파벌을 형성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 권력엘리트들에게 있어서는 학연이 별다

<sup>192</sup> 예를 들면, 김국태와 장성택은 직연 2명, 지연 4명 등이나 학연은 28명이며, 현철해도 직연 3명, 출신지역 미상 등이나 학연은 25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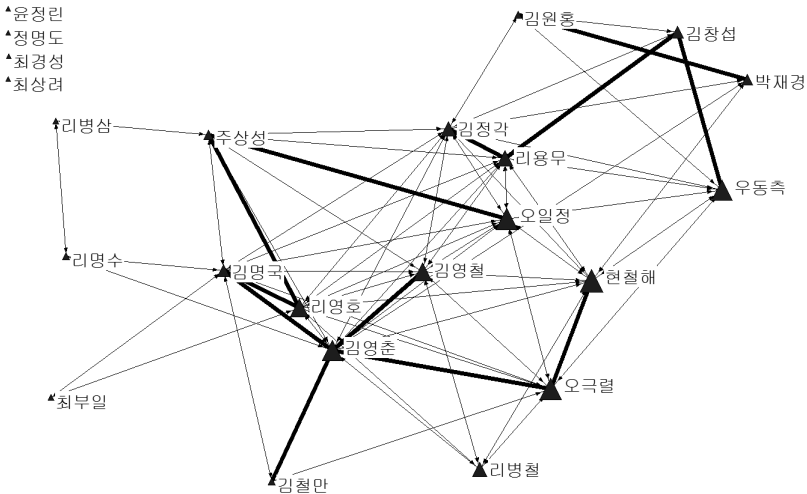
그림 III-4-2 3개 연고-국가기구



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북한 이탈주민들  
 에 따르면 동기동창 관계는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하는바, 이에  
 상위 권력엘리트 52명의 각기 동문들 가운데 동년배, 또는 비슷한  
 나이의 연배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만경대혁명학원은 80대  
 후반의 김국태(89)와 전병호(87), 80대 초·중반의 오극렬(82), 김기  
 남(84), 최영림(83), 최태복(83), 70대 후반의 김영춘(77), 태중수  
 (77), 현철해(79), 70대 초반의 리영호(71)와 김평해(72), 60대 후반  
 의 장성택(67)과 김영철(67) 등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80대 후  
 반의 김국태(89), 전병호(87), 양형섭(88), 80대 초·중반의 오극렬  
 (82), 김기남(84), 김영남(85), 변영립(84), 최영림(83), 최태복(83),  
 70대 후반의 리철(78)과 현철해(79), 70대 초반의 김양건(71)과 우  
 동측(71), 60대 후반의 장성택(67), 김경희(67), 리영수(67), 오일정  
 (69) 등이 있다. 김일성고급당학교는 80대 후반의 김국태(89)와 리  
 용무(88), 60대 후반의 장성택(67)과 김창섭(67), 박도춘(69) 등이

I
II
III
IV
V
VI

그림 III-4-3 3개 연고-군



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70대 초반의 리영호(71), 김정각(72), 김명국(73), 60대 후반의 김영철(67), 오일정(69) 등이 있다. 모스크바대학은 80대 후반의 김국태(89), 전병호(87), 양형섭(88), 80대 초·중반의 김영남(85), 최영림(83), 60대 후반의 장성택(67), 김경희(67)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김정은은 후계체제에서 최고 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장성택(67, 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김일성고급당학교·모스크바대학)과 김경희(67, 김일성종합대학·모스크바대학)의 동년배, 또는 비슷한 연배의 동문들로는 김영철(67, 만경대혁명학원), 리영수(67, 김일성종합대학), 김창섭(67, 김일성고급당학교), 오일정(69, 김일성종합대학), 박도춘(69, 김일성고급당학교) 등이 있다. 또한 연령대가 다르기는 하나 만경대혁명학원 동문인 김평해(72)·리영호(71)와 김일성종합대학 동문인 김양건(71), 우동측(71) 등도

장성택·김경희의 학연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다.

지연·학연·직연 등 3개 연고를 통해보 상위 권력엘리트 52명의 중심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표 III-14> 참조).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연고의 중첩성이 가장 높은 최영림(0.6)이다. 3개 학교에 연고가 있는 최영림은 학연도 많지만 김영남과 함께 직연도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학연이 가장 많은 김국태·장성택(0.56), 그리고 현철해(0.54), 오극렬·전병호(0.52), 김기남·오일정·최룡해(0.5), 우

● 표 III-14 중심성: 연고(지연·학연·직연)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사이중심성	
최영림	0.6	최영림	0.332	최영림	0.093
김국태·장성택	0.56	김국태·장성택	0.329	김경희	0.082
현철해	0.54	현철해	0.328	김영춘	0.056
오극렬·전병호	0.52	오극렬·전병호· 최룡해	0.315	리영호	0.037
김기남·오일정· 최룡해	0.5	김기남	0.312	오일정	0.036
우동측·최태복	0.48	최태복	0.31	오극렬	0.034
김양건·김영춘	0.46	오일정	0.303	우동측·주상성· 로두철	0.031
김경희	0.44	우동측	0.278	전병호	0.027
김영남	0.42	김양건	0.277	김국태·장성택· 김영남·김정각	0.025
리영호·리철	0.4	리영수	0.263	리용무	0.022
김영철·리영수· 양형섭	0.38	김영남	0.261	김명국	0.018
문경덕·변영림	0.36	김경희	0.26	현철해	0.016

I  
II  
III  
IV  
V  
VI

동측·최태복(0.48), 김양건·김영춘(0.46), 김경희(0.44), 김영남(0.42), 리영호·리철(0.4) 등의 순이다. 위세중심성이 가장 높은 인물도 최영림(0.332)이며, 다음으로는 김국태·장성택(0.329), 현철해(0.328), 오극렬·전병호·최룡해(0.315), 김기남(0.312), 최태복(0.31), 오일정(0.303), 우동측(0.278), 김양건(0.277), 리영수(0.263), 김영남(0.261), 김경희(0.26), 리철(0.259) 등의 순이다. 사이중심성이 가장 높은 인물도 역시 최영림(0.093)이며 다음으로는 김경희(0.082), 김영춘(0.056), 리영호(0.037), 오일정(0.036), 오극렬(0.034), 우동측·주상성·로두철(0.031), 전병호(0.027), 김국태·장성택·김영남·김정각(0.025), 리용무(0.022), 김명국(0.018) 등의 순이다.

#### (나) 주요 직책

상위 권력엘리트 52명 가운데 2012년 4월 현재, 당, 국가기구(국방위·최고인민회의·내각), 군대 등 3개 권력기관에 걸쳐 2개 이상의 직책<sup>193</sup>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는 김정은, 최룡해, 김국태, 김영춘, 최태복, 현철해,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원홍, 리명수, 리용무,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우동측, 주규창, 김명국, 리병철, 김경옥, 김명국, 김영철, 리병철, 백세봉, 윤정린, 정명도, 최부일 등이 있다. 또한 최영림, 김기남, 변영림, 전병호, 양형섭, 태종수, 문경덕, 광범기, 로두철 등은 주로 같은 기관에서 2개의 직책을 맡고 있다.

김영남, 김경희, 최태복, 김락희, 김창섭, 리영수, 박봉주, 박재경, 오극렬, 오일정 등은 주요 직책 겸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sup>193</sup> 개인별 직책에 있어 당 정치국 상무위원·정치국원·후보위원직은 제외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은 포함하였다.

또한 김철만, 리철, 리태남, 주상성 등 4명은 당·국가기구·군에 주요 직책이 없고 당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의 직함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김정은 제1비서를 제외한 상위 권력엘리트 51명 가운데 44명<sup>194</sup>의 인물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직함도 가지고 있다.

한편 김정은 제1비서를 제외한 상위 권력엘리트 51인의 권력기 관별 경력(겸직)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당을 비롯해 국가 기구와 군에서 겸직을 했거나, 겸직해 오고 있는 인물로는 김명국(73), 김영철(67), 김영춘(77), 김원홍(68), 김철만(95), 리병철(미상), 리영호(71), 오극렬(82), 윤정린(미상), 정명도(미상) 등이 있으며, 모두 군 출신 인물들이다. 주로 당과 국가기구에서 겸직을 해온 인물로는 곽범기(74), 김경옥(미상), 김경희(67), 김국태(89), 김기남(84), 김락희(80), 김양건(71), 김영남(85), 김영일(66), 김창섭(67), 김평해(72), 로두철(69), 리영수(67), 리철(78), 리태남(75), 문경덕(56), 박도춘(69), 박봉주(73), 백세봉(75), 변영립(84), 양형섭(88), 우동측(71), 장성택(67), 전병호(87), 주규창(85), 최룡해(63), 최영립(83), 최태복(83), 태종수(77) 등이 있다. 또한 주로 국가기구와 군에서 겸직을 해온 인물로는 김정각(72), 리명수(76), 리병삼(미상), 리용무(88), 박재경(80), 주상성(80), 현철해(79) 등이 있으며, 주로 당과 군에서 겸직해 온 인물로는 오일정(69), 최경성(미상), 최부일(미상), 최상려(미상) 등이 있다. 강석주(74)는 주로 국가기구에서 직책을 맡아 해오고 있다.

<sup>194</sup> 지난 7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 리영호가 당 중앙위 위원 및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리병삼·리영수·리태남·문경덕·오일정·태종수·최부일 등 7명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I
II
III
IV
V
VI

## (2) 권력의 지속성

권력의 지속성은 연고 및 권력(주요 직책)의 중첩성과 함께 권력의 집중성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 속성이다. 말하자면 주요 직책을 중첩적·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직위가 오르고 직책의 비중이 높아졌다면 권력의 집중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95</sup>

김정은 제1비서를 제외한 상위 권력엘리트 51명 가운데 2012년 4월 현재 주요 직책을 중첩적·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같은 직위 및 직책을 유지하거나, 직위 및 직책이 높아진 인물 15명을 선정하면 <표 III-15>와 같다.

위의 개인별 경력에서 나타나듯이 고령의 권력엘리트일수록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해 왔으며 대체적으로 이들의 직위 및 직책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영림(83), 김국태(89), 전병호(87), 김기남(84), 최태복(83), 김영남(85), 현철해(79), 김영춘(77) 등은 3개 연고(지연·학연·직연)를 통해본 중심성에 있어서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표 III-14> 참조). 이는 권력의 지속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지속성이 높으며, 지속성이 높은만큼 영향력도 크다는 것을 뜻한다.<sup>196</sup>

---

<sup>195</sup> 박영자, “북한의 권력엘리트와 Post 김정일시대,”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통일연구원, 2009), p. 51 참조.

<sup>196</sup> 위의 글, p. 47 참조.



▶ 표 III-15 주요 인물 경력

이름	주요 경력
김국태 (89, 당 검열위원장)	중앙당학교 지도부 부부장(1962.10),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장, 교육부장, 간부부장, 당 비서국 비서, 당 중앙위 간부부장, 당 검열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4기(1967.11)~제5기·제7기~제12기 대의원, 총정치국 부국장(1963.8)
전병호 (87, 내각 정치국장·당 책임비서)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지도원(1956)·책임지도원·부부장, 당 중앙위 경공업 및 상업부장, 제2경제위원장, 당 비서국 군수 비서, 최고인민회의 제7기(1982.2)~제12기 대의원, 국방위원(1990.5)
주규창 (85, 당 기계공업부장·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원)	당 중앙위 기계공업부 부부장(1983.8),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당 중앙위 기계공업부장, 당 중앙군사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0기(1998.7)~제12기 대의원, 국방위원(2009.4)
김영남 (8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당 중앙위 국제부 과장(1956)·부부장·제1부부장, 당 중앙위 국제부장, 당 비서국 비서, 외무성 부상(1962.11),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 최고인민회의 제5기(1972.12)·제6기 대의원·상설회의 의원, 최고인민회의 제7기~제9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제10기(1998.9)~제12기 대의원·상임위원장
김기남 (84, 당 선전비서·당 선전선동부장)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1966),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장, 당 비서국 비서, 당 역사연구소장,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장, 당 비서국 비서, 최고인민회의 제7기(1982.2)~제12기 대의원
최영림 (83, 내각 총리·국가비상방역위원장)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1956)·부부장, 김일성주석 책임서기, 당 중앙위 부장, 평양시 당 책임비서, 중앙인민위원(1983.4), 정무원 제1부총리,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정무원 부총리 겸 금속공업부장, 중앙검찰소장, 내각 총리, 최고인민회의 제5기(1972.12)·제7기~제12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최태복 (83, 당 과학교육비서·최고인민회의 의장)	당 중앙위 교육부 지도원(1959)·과장·부부장, 당 비서국 교육비서, 당 중앙위 과학교육부장, 당 비서국 국제비서, 당 중앙위 국제부장, 당 중앙위 과학교육부장, 당 비서국 비서, 정무원 고등교육부장 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1978), 정무원 교육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7기(1982.2)~제12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의장(1998.7)

I  
II  
III  
IV  
V  
VI

이름	주요 경력
현철해 (79, 당 중앙군사위원·인민무력부 제1부부장·후방총국장)	당 중앙군사위원(2012.4), 최고인민회의 제10기(1998.7)~제12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자격심사위원, 총정치국 부국장(1968), 4군단 정치부장, 후방군관학교 교장, 총정치국 부국장,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1986), 국방위국장(2010.5),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2012.4),
김영춘 (77, 당 부장·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 부위원장)	평안남도 당 비서(1960), 당 중앙위 부부장(1983.8), 당 중앙군사위원(2010.9), 당 중앙위 부장(2012.4), 최고인민회의 제7기(1982.2)~제12기 대의원, 국방위원(1998.7), 국방위 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군 작전국장(1986), 군수동원 총국장, 6군단장, 총참모장
리명수 (76, 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원·인민보안부장·도시·군인민회의대의원선거중앙선거지도위원)	당 중앙군사위원(2012.4), 최고인민회의 제10기(1998.9)~제12기 대의원, 국방위 행정국장(2007.10), 인민보안부장(2011.4), 도시·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중앙선거지도위원(2011.6), 국방위원, 3군단 참모장(1993.12),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정각 (72, 중앙군사위원·국방위원·인민무력부장)	당 중앙군사위원(2010.9), 최고인민회의 제10기(1998.7)~제12기 대의원, 인민무력부 부부장(1992.12), 인민무력성 부상, 인민무력부 부부장, 국방위원(2009.4), 총정치국 제1부국장,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68, 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원·국가안전보위부장)	당 중앙군사위원(2010.9), 최고인민회의 제10(1998.7)~제12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격심사위원(2009.4), 국가안전보위부장·국방위원(2012.4), 평양방어사령부 정치위원(1995), 7군단 정치위원, 보위사령관, 총정치국 부국장
김경희 (67, 당 비서)	당 중앙위 국제부 1과 과장(1975), 부부장, 당 중앙위 경공업부장, 경제정책검열부장, 경공업부장, 당 비서국 비서, 최고인민회의 제9기(1990.4)~제12기 대의원
장성택 (67, 당 행정부장·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 부위원장)	당 중앙위 청소년사업부 부부장(1982.10)·제1부부장·부장, 당 중앙위 청년 및 3대혁명소조부장,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당 중앙위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 제1부부장, 당 중앙위 행정부장, 당 중앙군사위원, 최고인민회의 제8기(1986.11)~제12기 대의원, 국방위원(2009.4), 국방위 부위원장(2010.6),
최룡해 (63,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국방위원·총정치국장)	당 중앙위 총무부 부부장(2003.8),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당 비서국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8기(1986.11)·제9기·제11기·제12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1986.12), 국방위원(2012.4), 군 총정치국장(2012.4)

### (3) 권력의 집중성

연고 및 권력(주요 직책)의 중첩성, 권력의 지속성 등으로 미루어 보면 권력의 집중성이 높은 인물은 김국태(89, 당 검열위원장), 양형섭(8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도·시·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중앙선거지도위원장), 리용무(88, 국방위 부위원장), 전병호(87, 내각 정치국장·당 책임비서), 김영남(8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령의 당·국가기구·군 원로들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위상이 낮은 직함은 아니지만 다른 직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의 내지 비중이 낮은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90에 가까운 고령인바, 이들에게 있어 권력의 집중성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물론 주규창(85, 당 기계공업부장·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원), 김기남(84, 당 선전비서·당 선전선동부장), 최영림(83, 내각 총리·국가비상방역위원장), 최태복(83, 당 과학교육비서·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은 80대 초·중반의 나이에도 주요 당직을 맡고 있으며, 특히 내각 총리 최영림은 연고 및 권력의 중첩성·지속성 등으로 볼 때 권력의 집중성이 높다. 70대 후반의 현철해(79, 당 중앙군사위원·인민무력부 제1부부장·후방총국장), 김영춘(77, 당 부장·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 부위원장), 리명수(76, 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원·인민보안부장·도·시·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중앙선거지도위원) 등도 그러한 편이다.

60대의 권력엘리트들 가운데 권력의 집중성이 높은 인물은 장성택(67, 당 행정부장·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67, 당 비서), 그리고 최룡해(63,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국방위원·총정치국장)이다. 장성택은 주로 당과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중첩적·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해 왔으며 연고의 중첩성도 높다. 장성택은 3개 연고(지연·학연·직연)를 통해본 중심성에서 연결중심성(0.56)

I

II

III

IV

V

VI

과 위세중심성(0.329)이 높으며 사이중심성(0.025)도 낮지 않다. 또한 장성택은 무엇보다도 김정은 제1비서의 고모부라는 혈연(인척관계)으로 고모인 김경희와 함께 김정은 제1비서의 으뜸가는 후견인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경희 역시 무엇보다도 김일성 주석의 딸이며 김정일 위원장의 동생이고, 김정은 제1비서의 고모라는 혈연으로 지난 30년 이상을 실세로 군림해 온 인물이다. 김경희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직을 빼면 당 경력밖에는 없다. 그러나 직장경력 중복 횟수를 통해본 중심성에서 김경희는 연결중심성(0.12)과 위세중심성(0.336)이 높으며, 이는 김경희의 북한 권력구도 내 위상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최룡해는 김정은 후계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급부상한 인물로 현재 당, 국가기구, 군 등 3개 권력기관에 걸쳐 최상위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최룡해는 항일빨치산 2세라는 세대연뿐만 아니라 장성택과 권력의 부침(浮沈)도 함께 했던 직연이 있다. 그러나 최룡해는 당 중앙위 총무부 부부장(2003.8),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2006.4) 등을 거쳐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위 비서국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에 선임되었는바, 직장경력 중복 횟수를 통해 본 중심성은 낮은 편이다. 최룡해는 연결중심성이 0.06, 위세중심성이 0.001, 그리고 사이중심성은 0.054이다.

요약하건대, 장성택, 김경희, 최룡해 등 세 인물은 연고(지연·학연·직연) 및 권력(주요 직책)의 중첩성·지속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백두혈통’, ‘항일빨치산 혈통’ 등의 연고로 권력의 집중성이 더 높아진 인물들이라 하겠다.

## IV. 상호접촉으로 본 엘리트 네트워크



제Ⅳ장에서는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김정은 현지도 수행인물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일시대와 김정은 시대 엘리트들의 권력 위계와 상호관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요소 또는 일정한 사람들 사이의 특정한 연계 전체의 특성으로 연계에 포함된 구성요소나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개별적 속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존의 계량연구와는 달리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특정한 측면에서 연계된 사람들 간의 관계적 속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에 포함된 개별행위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동시에 개별행위자 간의 사회적 연결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전체의 거시적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Uci-Net 등 연결망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네트워크 전체 모형, 중심부 및 주변부의 연결 상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 간의 연결 구조를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질문지 또는 개별면접을 통해 행위자들 간의 상호접촉 빈도와 친밀도를 측정하여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sup>197</sup> 그러나 북한 연구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행위자들 간의 상호접촉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엘리트들 간의 상호접촉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도도를 수행하는 것을 최고통

<sup>197</sup> 사회 연결망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엘리트 네트워크를 분석한 외국 논문으로는 T. Kostiuhenko, "Central Actors and Groups in Political Elite: Advantages of Network Approach," *Political Sociological Review*, Vol. 2 (174), 2011; I. Ruostetsaari, "The Anatomy of the Finnish Power Elit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Bind 16 (New Series), Vol. 4, 1993 등이 있다.

I
II
III
IV
V
VI

치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엘리트 상호 간의 사회적 상호접촉의 지표로 가정하고, 이를 통해 구축되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지도 동행여부를 상호접촉의 지표로 본 이유는 일반적으로 최고지도자가 지방 기관이나 산업시설, 군부대 등을 현지도할 경우 하루 이상, 때로는 장기간을 한 지역에 머물거나 지역을 이동하면서 현지지도를 하기 때문에 수행자 간에 활발한 상호접촉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지도자와 동행하는 행사 중에서 군중대회나 단순 사진촬영과 같은 대규모 인원이 동행하는 일회성 행사는 상호접촉의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아 제외하였다.

현지도 수행 여부는 직책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행 횟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측근이라고 할 수 없으며, 현지지도를 수행하지 않고서도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인물도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법은 제한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통치자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 현지지도를 수행하는 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과 현지도 수행을 통해 최고통치자를 자주 대면하면 측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현지도 수행 빈도수를 엘리트 선정의 기준으로 보았다.

시기적으로는 김정은 후계체제가 구축되는 기간과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등장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주요 사건을 기준으로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최고인민회의 11기 기간인 2003년 9월부터 김정일 건강 악화 시기인 2008년 8월까지이다. 이 시기는 김정은 후계체제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이전 시기로, 이후 김정은이 등장하는 시기와 구분되는 김정일시대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다소 장기간에 해당하는 시기를 하나의 시



기로 잡았다. 두 번째 시기는 김정일 와병기간인 2008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로 김정은이 대중 앞에 공식 등장하기 이전의 과도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김정은 후계체제 천명 후 김정은이 김정일의 현지도에 동행하는 모습이 공개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기까지의 시기이며, 네 번째 시기는 김정일 사후부터 2012년 7월까지 김정은체제가 틀을 갖추어가는 시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네 시기에 현지도라는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엘리트 상호 간 접촉으로 형성되는 엘리트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김정일시대와 과도기, 김정은시대에 현지도를 수행했던 주요 엘리트들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추출함으로써 가장 폭넓은 관계망을 가진 인물,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인물, 다른 집단과의 연결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을 파악하고, 시기별 변화 및 지속성을 분석하였다. 김정은 집권 시기의 네트워크에 새로 등장하거나 사라진 인물이 누구인지와 그 이유를 살펴 보았다. 또한 당, 군, 국가기구 인사는 각각 중심성 순위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시기별로 부문 간 권력 이동의 징후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개별 엘리트 특성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당, 군, 국가기구 네트워크가 어떠한 규모로, 어떤 구조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김정일시대와 과도기, 김정은시대에 전체 엘리트 네트워크의 밀도와 집중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김정은시대 엘리트 네트워크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 분석 소프트웨어인 Uci-Net 6를 활용하여 현지도 엘리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데이터 처리와 도표화를 하였다.

# 1. 김정일시대 엘리트 네트워크

## 가. 1시기(2003.9~2008.8)

1시기는 최고인민회의의 11기 기간인 2003년 9월부터 김정일 건강 악화가 표면화되기 이전인 2008년 8월까지의 시기이다. 김정일 집권기의 경우에도 각 시기마다 네트워크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고인민회의의 11기 시작 시점부터 김정일의 건강 악화가 가시화되는 시점까지의 5년간을 1시기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현지도 자료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현지도 수행 엘리트 간 상호접촉 횟수, 주요 인물의 중심성, 당·군·국가기구 소속별 네트워크 구성의 특징을 살펴본다.

### (1) 현지도 횟수

1시기에 현지지도를 수행한 사람은 전체 88명이다. 이중 수행 횟수 상위 24명의 현지도 수행을 통한 상호접촉 횟수는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에서 현철해(188회), 리명수(176회), 박재경(131회), 김기남(124회) 등의 현지도 동행 횟수가 매우 많았으며, 리용철(90회), 황병서(62회), 김영춘(61회), 김일철(58회), 박봉주(56회), 리재일(52회) 등도 비교적 많았다. 현지도 동행 횟수가 가장 많은 세 사람이 모두 군 관계 인사이며, 그 이외에도 군 관계 인사들의 현지도 동행 횟수가 많았다. 이는 선군정치를 표방함으로 인해 군부대 등 군 관련 현지지도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표 IV-1 1시기 현지도도를 통한 상호접촉 횟수  
(김정일과 접촉 횟수 15회 이하 생략)

	김정일	강석주	김국태	김기남	김양건	김영남	김영춘	김일철	김종린	로두철	리명수	리용무	리용철
김정일		51	50	124	22	24	61	58	20	18	176	17	90
강석주	51		5	20	11	6	12	14	1	12	3	0	2
김국태	50	5		46	1	14	25	26	17	7	8	13	8
김기남	124	20	46		4	17	32	36	18	6	17	12	13
김양건	22	11	1	4		3	1	10	1	3	8	0	3
김영남	24	6	14	17	3		15	24	14	7	0	16	0
김영춘	61	12	25	32	1	15		32	14	7	13	14	6
김일철	58	14	26	36	10	24	32		17	9	8	16	6
김종린	20	1	17	18	1	14	14	17		7	0	13	1
로두철	18	12	7	6	3	7	7	9	7		0	5	2
리명수	176	3	8	17	8	0	13	8	0	0		1	56
리용무	17	0	13	12	0	16	14	16	13	5	1		1
리용철	90	2	8	13	3	0	6	6	1	2	56	1	
리재일	52	2	12	20	2	0	6	5	1	2	27	0	19
박남기	43	11	7	24	2	1	2	4	0	10	8	0	3
박봉주	56	23	22	27	8	16	25	30	12	15	9	11	6
박재경	131	1	9	11	6	0	18	10	0	0	117	1	45
양형섭	23	6	15	19	2	20	16	23	15	8	0	14	1
연형묵	28	8	11	13	3	10	19	16	8	2	7	9	3
장성택	17	4	1	13	4	0	1	4	1	2	10	0	9
전병호	21	0	14	13	0	15	15	15	13	5	1	15	3
최태복	47	15	26	35	8	20	22	33	18	9	8	14	3
현철해	188	2	10	19	7	0	17	10	0	0	173	1	62
홍석형	22	0	6	15	0	6	6	7	6	0	0	6	0
황병서	62	0	0	2	0	0	4	2	0	0	32	0	13

I  
II  
III  
IV  
V  
VI

	리재일	박남기	박봉주	박재경	양형섭	연형목	장성택	전병호	최태복	현철해	홍석형	황병서
김정일	52	43	56	131	23	28	17	21	47	188	22	62
강석주	2	11	23	1	6	8	4	0	15	2	0	0
김국태	12	7	22	9	15	11	1	14	26	10	6	0
김기남	20	24	27	11	19	13	13	13	35	19	15	2
김양건	2	2	8	6	2	3	4	0	8	7	0	0
김영남	0	1	16	0	20	10	0	15	20	0	6	0
김영춘	6	2	25	18	16	19	1	15	22	17	6	4
김일철	5	4	30	10	23	16	4	15	33	10	7	2
김중린	1	0	12	0	15	8	1	13	18	0	6	0
로두철	2	10	15	0	8	2	2	5	9	0	0	0
리명수	27	8	9	117	0	7	10	1	8	173	0	32
리용무	0	0	11	1	14	9	0	15	14	1	6	0
리용철	19	3	6	45	1	3	9	3	3	62	0	13
리재일		7	10	23	1	1	4	1	6	29	0	16
박남기	7		18	6	1	1	4	0	2	9	5	0
박봉주	10	18		11	14	19	2	12	24	11	6	1
박재경	23	6	11		0	7	2	1	6	127	0	31
양형섭	1	1	14	0		10	1	13	20	0	6	0
연형목	1	1	19	7	10		0	9	13	7	6	0
장성택	4	4	2	2	1	0		0	4	9	0	2
전병호	1	0	12	1	13	9	0		16	1	6	1
최태복	6	2	24	6	20	13	4	16		8	6	1
현철해	29	9	11	127	0	7	9	1	8		0	31
홍석형	0	5	6	0	6	6	0	6	6	0		0
황병서	16	0	1	31	0	0	2	1	1	31	0	

엘리트 상호 간의 접촉에 있어서도 현철해-리명수 173회, 현철해-박재경 127회, 박재경-리명수 117회 등 군 인사들 간의 상호접촉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철해는 이 시기에 총정치국 행정부국장직을, 리명수는 총참모부 작전국장(2007.10 이전)과 국방위원회 행정국장(2007.10 이후)직을, 박재경은 2007년부터 인민무력부 부부장직을 수행하면서 직무 특성상 군부대 시찰을 비롯한 군 관련 현지지도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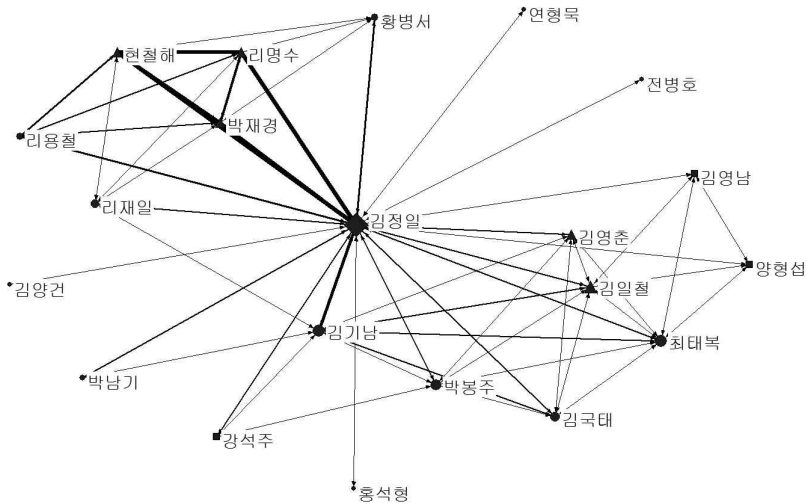
당 관계 인사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었던 리용철은 현철해, 리명수, 박재경과 40~60회 정도 접촉하였는데, 리용철이 군 관계 인사와 높은 접촉빈도를 보인 것은 당 조직지도부 내 군사담당 제1부부장으로 군 관련 현지지도에 많이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선전 담당 비서였던 김기남은 김국태, 김일철, 김영춘, 최태복, 박봉주, 박남기, 강석주, 리재일 등 폭넓은 당·군·정 관계 인사와 20~40회 정도 접촉하였는데, 이는 김기남이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선전 담당 비서의 직책을 맡아 다양한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황병서도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주로 군부대 시찰 시 수행하였기 때문에, 리명수, 박재경, 현철해 등과 31~32회의 많은 접촉 횟수를 기록하였다.

위의 <표 IV-1> 중 상호 20회 이상의 공동수행 횟수를 기록한 주요 인물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IV-1>과 같다.

총 20명의 주요 인물을 소속별로 구분하여 보면 군 5명, 당 12명, 국가기구 3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특정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연결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들이 현지지도를 동행한 횟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이들의 소속과 직위에 따라 특정한 목적의 현지지도에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림에

I
II
III
IV
V
VI

그림 IV-1 1시기 주요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20회 이상 표시)



- \* ◆ 김정일, ● 당, ▲ 군, ■ 국가기구, ▼ 기타
- \* 각 노드의 크기는 연결중심성의 크기를 반영
- \* 각 노드 간 연결선의 굵기는 인물 간 접촉 횟수(현지도 동시수행 횟수)를 반영

서 김정일을 중심으로 현철해, 박재경, 리명수가 굵은 선으로 연결되어 중심부를 형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군 관련 인사들은 비교적 군 관련 그룹 내에서는 강한 연결을 보이지만, 당 또는 국가기구 소속 인사들과의 연결선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군 인사들 중 김영춘(인민군 총참모장)과 김일철(인민무력부장)은 당·정 인사들과도 몇 개의 연결선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소속(당·군·정)별 네트워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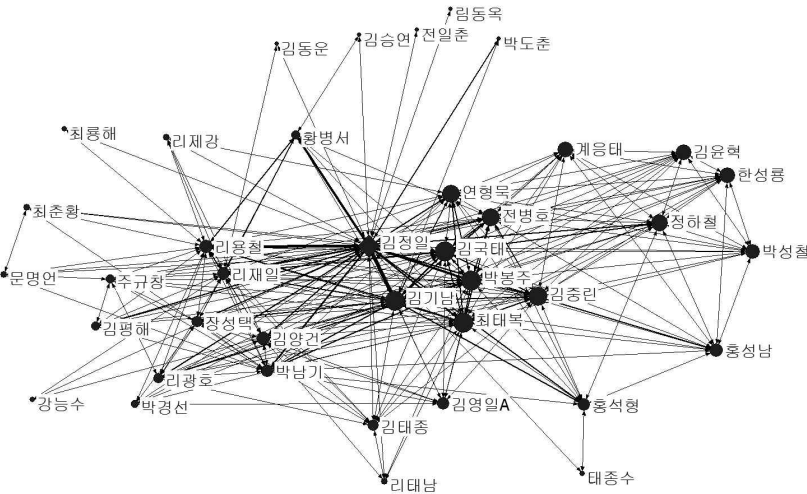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결속집단(clique: 양방향으로 직접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최대 하위집단) 등 다양한 형태의 하위집단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여 결속집단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각 시기별로 40~150개의 하위집단이 나타났는데, 집단 간의 중복성이 매우 높아 하위 집단 분석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하위집단을 통계적 방법으로 확인하는 대신, 현지도도 수행 인물들의 소속별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당, 군, 국가기구에서 각각 직위를 맡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서는 현지도도 수행이 주로 어떤 직위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소속을 구분하였다. 1시기에 현지도도를 수행한 인물 중 당 소속 인물들의 네트워크 구성도는 다음의 <그림 IV-2>과 같다.

1시기 당 인물 네트워크는 전체 3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속별로 볼 때 가장 다수를 차지한다. 김정일을 중심으로 김기남, 리용철, 황병서, 박봉주, 리재일, 김국태 등이 별모양으로 비교적

◉그림 IV-2 1시기 당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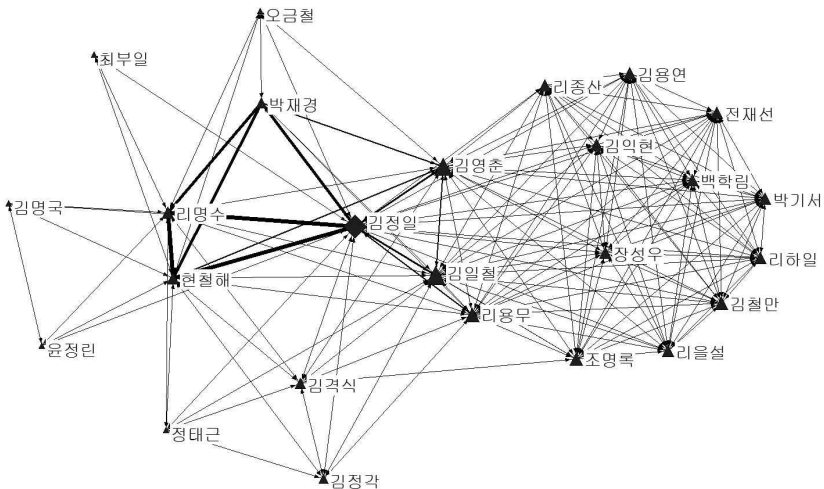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 VI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이외의 인물들은 다른 사람들과 많은 연결선을 갖는 중심부 그룹과 비교적 적은 연결선을 갖는 주변부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김기남, 리용철, 황병서, 박봉주, 리재일, 김국태, 최태복, 전병호, 연형목, 김양건 등 중심부 그룹에 속하는 인물들은 김정일의 현지도도를 자주 수행하면서 다른 당 소속 인물들과 활발한 접촉을 한 사람들이다.

1시기에 현지도도를 수행한 인물 중 군 소속 인물들의 네트워크 구성도는 다음의 <그림 IV-3>과 같다.

1시기 군 인물 네트워크는 전체 2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일, 현철해, 리명수, 박재경이 아주 굵은 선으로 연결되어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철해, 리명수, 박재경 세 사람 중 한 사람만 김정일을 수행한 경우는 드물고, 세 사람이 동시에 김정일을 수행한 횟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 그림 IV-3 1시기 군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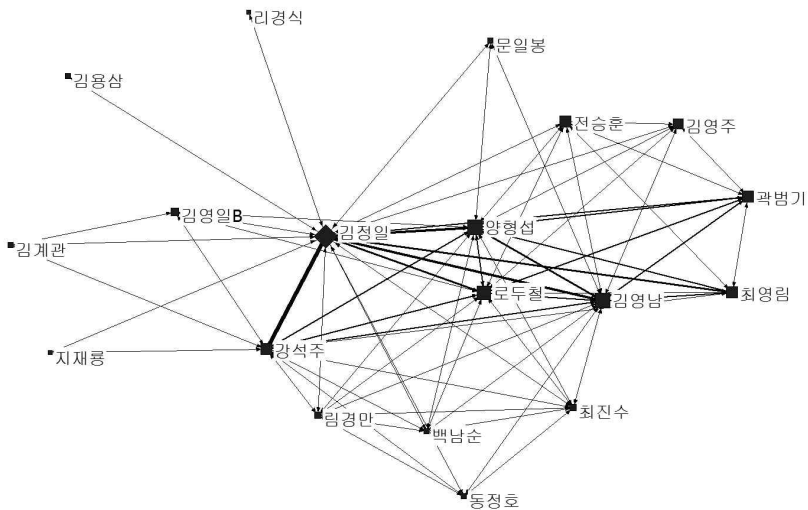


세 사람과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주변부의 인물들은 주로 김정일의 부대 시찰 시 동행하였다. 그림의 우측에는 김일철, 김영춘, 리용무 등 비교적 중심부에 가까운 그룹과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원로 군인 그룹이 표시되어 있다. 이들 원로 군인 그룹에 속하는 인물들은 동시수행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상호 간에 많은 연결선을 가지는데, 이는 주로 군 시찰보다는 음악공연과 같이 다수의 엘리트들이 참가하는 행사에 같이 참가하였기 때문이다.

1시기에 현지지도를 수행한 인물 중 국가기구 소속 인물들의 네트워크 구성도는 다음의 <그림 IV-4>와 같다.

1시기 국가기구 인물 네트워크는 전체 1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일을 중심으로 강석주, 양형섭, 김영남, 로두철 등이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다. 김정일과는 강석주가 가장 강한 연결선을 가지고 있으며, 양형섭, 김영남, 로두철은 다른 인물들과 비교적

●그림 IV-4 1시기 국가기구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I
II
III
IV
V
VI

많이 연결되어 있다. 국가기구 소속 인물들은 주로 내각의 성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 해당 부문의 현지도도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강석주는 김영일, 김계관, 지재룡 등 외교통의 엘리트와 연결되어 있어, 이들이 외교 관련 현지도도 시 동시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국가기구 소속 인물들은 중심부의 몇 사람을 제외하면 수행 횟수나 다른 인물들과의 연결선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는 내각 소속 인물들이 내각의 다른 성 소관의 현지도도를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 (3) 주요 인물 중심성

이 연구에서는 현지도도 수행 인물의 중심성을 측정하여, 각 시기별로 엘리트 네트워크에서 주요 인물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에 중심성은 노드(구성요소 또는 개별 행위자)가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사이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으로 구분된다. 연결중심성은 한 노드가 얼마나 많은 다른 노드와 연결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엘리트 네트워크에서 한 노드의 연결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행위자가 주변의 엘리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접촉을 활발히 수행함을 의미한다. 위세중심성은 자신의 연결중심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과 자신과 연결된 타 행위자의 영향력을 더하여 결정되는 지표이다. 엘리트 네트워크에서 한 노드의 위세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큰 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중심성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 즉 다른 행위자가 제3의 행위자

에게 도달하기 위해 해당 행위자를 거쳐야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이다. 엘리트 네트워크에서 한 노드의 사이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여러 하위집단 간의 연결통로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지도 수행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사이중심성을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인물은 가장 많은 엘리트들과 접촉하는 사람, 즉 가장 넓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을 의미한다. 위세중심성이 높은 인물은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깝게 긴밀한 상호접촉을 하며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을 의미한다. 사이중심성이 높은 인물은 각 하위집단 또는 다른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주요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을 의미한다.

1시기 현지도 수행자 네트워크에서 높은 중심성을 갖는 주요 인물들과 이들의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사이중심성 순위 및 중심성 수치는 다음의 <표 IV-2>와 같다. 네트워크 방법론에서 중심성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양자 간의 연결 강도는 중요하지 않으며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현지도 수행 횟수는 많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과 동행한 인물의 경우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1시기 연결중심성 순위 25위까지 김정일을 제외한 34명의 엘리트 중 군 소속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 15명으로 가장 많아 선군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 당 소속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은 12명이며, 국가기구 소속이 5명으로 적고, 기타 2명 등이다. 개인별로 보면 김일철, 김기남, 최태복, 김영춘, 박봉주 등이 모든 중심성에서 고르게 높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최상위 중심성을 나타낸 엘리트 중

I
II
III
IV
V
VI

표Ⅳ-2 1시기 인물별 중심성

이름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사이중심성	
	순위	중심성 수치	순위	중심성 수치	순위	중심성 수치
김정일	1	1	1	0.27	1	0.258
김일철	2	0.770	2	0.259	3	0.041
김기남	3	0.759	5	0.249	2	0.056
최태복	4	0.724	3	0.254	6	0.028
김영춘	5	0.713	4	0.251	4	0.033
박봉주	5	0.713	5	0.249	5	0.032
김국태	7	0.678	7	0.247	7	0.025
양형섭	8	0.632	8	0.241	12	0.013
김영남	9	0.598	10	0.231	12	0.013
로두철	10	0.586	10	0.231	16	0.010
김중린	11	0.575	9	0.232	20	0.007
전병호	11	0.575	12	0.228	17	0.009
연형묵	13	0.552	14	0.220	15	0.011
리용무	14	0.540	13	0.223	22	0.006
김영대	15	0.506	15	0.216	25	0.003
조명록	16	0.483	16	0.210	29	0.002
류미영	17	0.460	17	0.204	31	0.001
김철만	18	0.448	18	0.203	31	0.001
정하철	18	0.448	18	0.203	31	0.001
곽범기	18	0.448	20	0.202	31	0.001
리용철	18	0.448	42	0.123	10	0.017
리을설	22	0.437	21	0.200	42	0
김양건	22	0.437	41	0.124	11	0.014
현철해	24	0.437	48	0.105	8	0.020
김용연, 김익현, 리종산, 리하일, 박기서, 장성우, 전승훈, 전재선, 계응태, 백학림, 한성룡	25	0.425	22	0.196	42	0

에도 군 관련 인사들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연결중심성 순위와 위세중심성 순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마당밭의 경우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권력 정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이한 점은 김양건(당 중앙위 부장, 2007년부터 당 통일전선부 부장), 현철해(인민군 총정치국 행정부국장), 리용철(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에 비해 사이중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리용철의 경우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이 각각 18위, 42위인데 비해 사이중심성은 10위, 김양건은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이 각각 22위, 41위인데 비해 사이중심성은 11위, 현철해는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이 각각 24위, 48위인데 비해 사이중심성은 8위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세 인물의 경우 아직까지는 네트워크에서 권력의 주변부에 있지만, 네트워크 내의 여러 소집단과의 연결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인물과 집단들이 이들을 거쳐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집단과 인물들의 소통을 매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큰 중심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현철해와 김양건은 2시기 이후 중심성 순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김정은 시대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인물로 부상하였다. 반면 리용무, 김영대, 조명록, 류미영 등은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에 비해 사이중심성이 낮다. 이들은 주로 80세 이상의 원로들로 조직 내 실세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김정은시대로의 이행기에 엘리트 네트워크의 구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성택, 김경희 등은 아직 이 시기 네트워크에서 주변부

에 위치하고 있거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장성택이 1시기 네트워크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은 그가 2004년 ‘종파행위’ 죄목으로 직무정지되어 활동을 못하였기 때문이다.

## 나. 2시기(2008.9~2010.9)

2시기는 김정일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부터金正은이 김정일의 현지도에 동행함으로써 대중 앞에 공식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과도기이다. 2008년 10월, 공개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김정일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후계체제 구축 작업이 본격화된다. 2009년 2월에는 군 상층부의 개편이 단행되면서 김정은으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한 군 내 기반을 다지게 된다. 구군부의 퇴각과 신군부세력의 권력 강화는 이 시기 현지도에도 반영되었다.

### (1) 현지도 횡수

2시기에 현지도를 수행한 사람은 74명이다. 이중 수행 횟수 상위 24명의 현지도 수행을 통한 상호접촉 횟수는 <표 IV-3>과 같다.

<표 IV-3>에서 김기남과 장성택의 현지도 수행 횟수가 각각 170회, 161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철해, 김경희, 리명수, 박남기도 각각 99회, 88회, 85회, 80회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2009년 말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2010년에 처형된 박남기를 제외한 장성택, 김경희, 현철해, 김기남, 리명수가 이후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전 시기에는 현지도 네트워크 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김경희와 수행 횟수가 적었던 장성택의 현지도 수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김정일의 와병 상황에서 진행된 후계체제 구축과정이 김정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인적인 김경희와 장성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김기남, 현철해, 리명수는 1시기에도 높은 수행빈도를 보였던 인물들로 김정일시대와 김정은시대를 잇는 과도기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상호접촉 횟수에 있어서도 장성택, 김경희, 현철해, 김기남, 리명수, 박남기 간의 상호접촉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성택-김기남 간의 상호접촉 횟수가 120회로 매우 많았고, 장성택-김경희, 장성택-박남기, 김경희-김기남, 박남기-김기남, 리명수-현철해 간의 상호접촉 횟수도 60회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현철해-장성택, 현철해-김기남, 장성택-리명수, 김기남-최태복, 김기남-리명수, 김기남-김정각, 김기남-김영춘, 김정각-김영춘도 현지지도 40회 이상 함께 수행하면서 강한 연결선을 구축하였다. 2시기에서 장성택과 김기남의 연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김정일의 와병 이후 후계체제 구축 준비 및 비상통치체제 확립에서 두 사람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의미한다. 장성택은 공안, 조직, 외교를 관장하고 김기남은 김정일의 건재와 관련된 대내외 선전사업을 관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남기 당 재정계획부장과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의 연결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화폐개혁 단행을 비롯한 일련의 경제적 조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시기에 현지지도 네트워크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김정각의 진출 또한 눈여겨볼만한 점이다.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었던 김정각은 이 시기에 조명록의 와병으로 인해 사실상 총정치국장직을 대행하였다. 그는 2010년 9월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다.

I
II
III
IV
V
VI

● 표 IV-3 2시기 현지도도를 통한 상호접촉 횟수  
(김정일과 접촉 횟수 10회 이하 생략)

	김정일	강석주	김경희	김기남	김명국	김양건	김영일	김영춘	김원홍	김정각	김평해	박남기
김정일		31	88	170	22	38	28	55	17	58	25	80
강석주	31		7	21	3	15	14	16	2	9	3	0
김경희	88	7		60	1	18	16	16	3	18	6	16
김기남	170	21	60		9	27	24	42	14	43	13	64
김명국	22	3	1	9		4	0	10	7	10	0	2
김양건	38	15	18	27	4		18	17	4	17	3	5
김영일	28	14	16	24	0	18		20	0	17	3	0
김영춘	55	16	16	42	10	17	20		8	45	3	4
김원홍	17	2	3	14	7	4	0	8		11	0	5
김정각	58	9	18	43	10	17	17	45	11		0	6
김평해	25	3	6	13	0	3	3	3	0	0		10
박남기	80	0	16	64	2	5	0	4	5	6	10	
박도춘	20	1	10	9	0	1	1	2	0	0	1	7
리명수	85	8	18	48	12	12	2	13	11	12	5	16
리영호	39	7	11	30	5	9	11	34	7	37	0	4
리제일	45	2	21	11	5	3	0	2	1	3	5	10
리제강	45	3	22	21	5	4	0	0	1	3	1	10
장성택	161	15	70	120	6	28	19	25	8	26	17	65
주규창	46	2	27	20	1	2	2	4	1	3	5	9
최익규	11	1	2	11	1	6	0	1	2	2	0	4
최태복	59	17	23	56	4	16	21	32	7	32	4	4
태종수	33	4	22	20	1	5	5	6	1	3	7	3
현철해	99	8	22	53	17	14	2	16	17	20	5	21
홍석형	26	1	15	21	0	1	2	2	0	1	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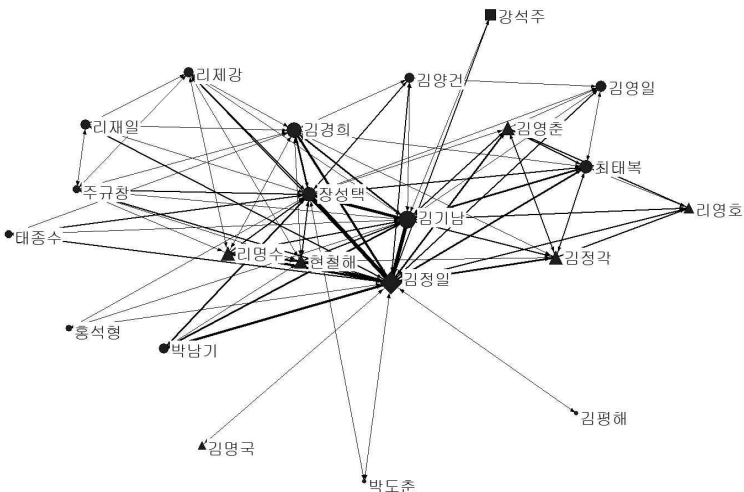
	박도춘	리명수	리영호	리재일	리제강	장성택	주규창	주상성	최익규	최태복	태종수	현철해	홍석형
김정일	20	85	39	45	45	161	46	10	11	59	33	99	26
강석주	1	8	7	2	3	15	2	2	1	17	4	8	1
김경희	10	18	11	21	22	70	27	3	2	23	22	22	15
김기남	9	48	30	11	21	120	20	10	11	56	20	53	21
김명국	0	12	5	5	5	6	1	0	1	4	1	17	0
김양건	1	12	9	3	4	28	2	1	6	16	5	14	1
김영일	1	2	11	0	0	19	2	1	0	21	5	2	2
김영춘	2	13	34	2	0	25	4	3	1	32	6	16	2
김원홍	0	11	7	1	1	8	1	0	2	7	1	17	0
김정각	0	12	37	3	3	26	3	3	2	32	3	20	1
김평해	1	5	0	5	1	17	5	0	0	4	7	5	1
박남기	7	16	4	10	10	65	9	1	4	4	3	21	9
박도춘		6	0	5	6	19	9	0	0	0	6	6	6
리명수	6		7	12	23	47	19	1	8	12	7	77	2
리영호	0	7		0	0	16	1	2	0	25	2	10	0
리재일	5	12	0		25	27	20	0	1	1	9	13	6
리제강	6	23	0	25		35	27	0	1	2	3	24	5
장성택	19	47	16	27	35		35	7	10	30	28	52	22
주규창	9	19	1	20	27	35		0	0	4	11	19	8
최익규	0	8	0	1	1	10	0	0		0	0	8	0
최태복	0	12	25	1	2	30	4	6	0		3	16	1
태종수	6	7	2	9	3	28	11	1	0	3		8	12
현철해	6	77	10	13	24	52	19	1	8	16	8		2
홍석형	6	2	0	6	5	22	8	1	0	1	12	2	

I  
II  
III  
IV  
V  
VI

<표 IV-3> 중 상호 15회 이상의 공동수행 횟수를 기록한 주요 인물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IV-5>와 같다.

총 21명의 주요 인물을 소속별로 구분하여 보면 군 6명, 당 14명, 국가기구 1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정일을 중심으로 김경희, 장성택, 김기남, 현철해, 리명수가 별모양의 강한 연결을 보이면서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다. 1시기와 비교해보면 주요 인물의 면면이 상당히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시기에서 중심부를 구성했던 박재경을 비롯하여 김일철, 전병호, 김국태, 리용철, 양형섭,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연형묵, 양형섭, 김영남의 현지수행 횟수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주요 인물 네트워크에서 사라졌다. 이는 연형묵(2005 사망), 리용철(2010 사망)과 같이 사망했거나, 김일철, 전병호, 김국태, 리용철, 양형섭, 김영남 등과 같이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활동성이 약화되거나, 박봉주와 같이 좌천(2007.4 내각 총리 해

그림 IV-5 2시기 주요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15회 이상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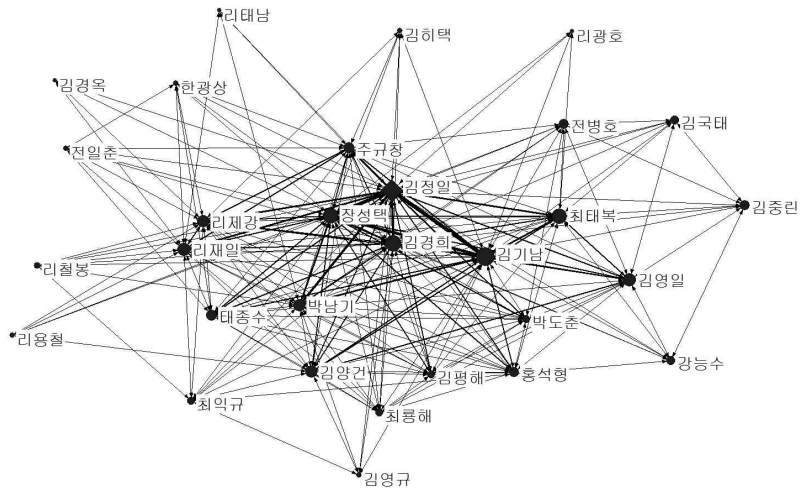
임,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김경희와 장성택이 네트워크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잡았고, 리제강, 리영호, 리명수, 김정각, 태종수, 주규창, 김영일<sup>198</sup>이 주요 엘리트들과의 연결선을 가지면서 새로 등장했으며, 박도춘, 김평해, 김명국, 주규창, 홍석형도 주변부에 등장하였다.

## (2) 소속(당·군·정)별 네트워크 구성도

2시기에 현지지도를 수행한 인물 중 당 소속 인물들의 네트워크 구성도는 다음의 <그림 IV-6>과 같다.

그림 IV-6 2시기 당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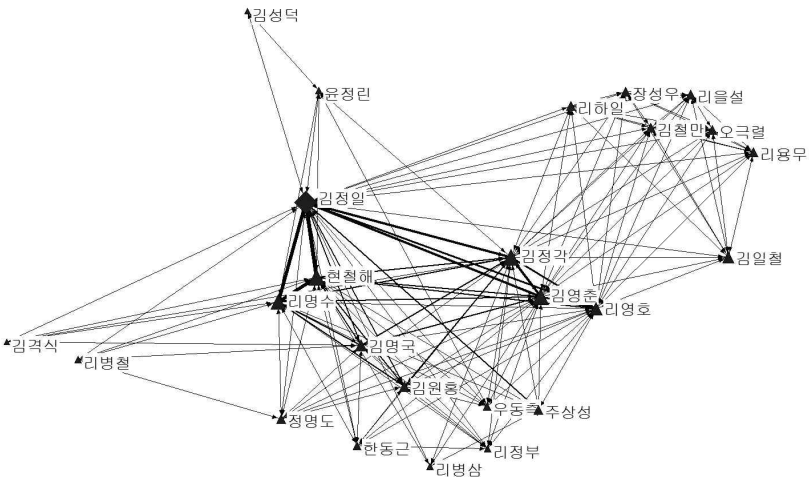
<sup>198</sup> 2시기 이후 등장하는 김영일은 1시기에 김영일 B로 표기된 인물로서, 외무성 부상으로 활동하다가 2010년 1월 당 국제부부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음. 2시기 초·중반에는 국가기구 소속, 후반에는 당 소속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소속별 구성도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당 소속에 포함시켜 표기하였음.

2시기 당 인물 네트워크는 전체 2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1시기보다 전체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1시기보다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김정일을 중심으로 김경희, 장성택, 김기남, 박남기가 근 거리에 연결되어 있다. 이들 이외에도 대부분의 인물들이 상호 간에 많은 연결선을 가지면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1시기와 비교할 때 김경희, 장성택의 부상과 김기남의 위치 유지라는 특성이 나타난다. 새로 출현한 인물로는 김경희 이외에도 김경옥, 김히택, 최익규, 리철봉, 강능수, 리태남 등이 있다.

2시기에 현지지도를 수행한 인물 중 군 소속 인물들의 네트워크 구성도는 다음의 <그림 IV-7>과 같다.

2시기 군 인물 네트워크는 1시기보다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1시기와 동일한 인원수인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시기에 중심부를 구성했던 인물 중 박재경을 제외한 현철해, 리명수가 가장 중

●그림 IV-7 2시기 군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심부를 형성하고 있다. 박재경은 2007년까지 총정치국 선전부국장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1시기에는 직무 특성상 김정일의 현지지도 를 자주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인민무력부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2시기에는 더 이상 현지지도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속별 네트워크 중 1시기에서 2시기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군 인물 네트워크이다. 1시기에 중심부를 차지했던 김일철이 주변부로 밀려났으며, 그림의 우측 상단의 원로 군인 그룹도 1시기에 비해 축소되었다. 대신 리영호, 김원홍, 우동측, 주상성이 새로 등장하여 중심부에 가까운 위치에 자리잡았고, 김명국은 2007년 4월 인민군 작전국장으로 복귀하여 활동함으로써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하였으며, 리병철, 리병삼, 리정부, 김성덕, 정명도, 한동근 등이 주변부에 새로 출현하였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의 변화는 이 시기에 구군부세력이 대거 정리되고 이들보다 젊은 신군부세력 중심으로 군 상층부가 개편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2009년 2월 11일에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강등한다. 김일철은 2010년 5월에는 고령을 이유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다. 또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결정으로 리영호 평양방어사령관을 군 총참모장에 임명하는 군 상층부의 중대개편을 단행하는데, 리영호의 조기발탁은 군대에 대한 김정은의 명령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sup>199</sup>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우동측은 2009년 4월 인민군 상장으로 임명된 지 1년 만인 2010년 4월 인민군 대장으로 초고속

<sup>199</sup> 박명규 외,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p. 81.

I
II
III
IV
V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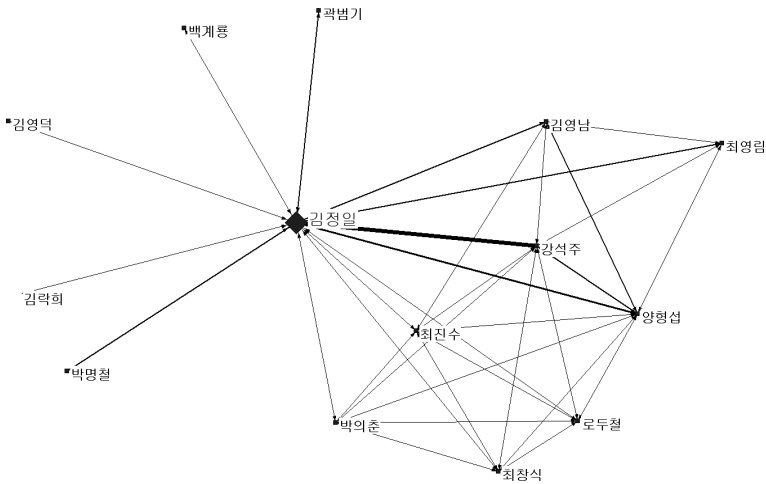
승진하였다. 2003년 보위사령관직을 수행했던 김원홍은 2009년 4월 인민군 대장으로 승진하고,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에서는 당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직에 임명된다. 이후 2011년에는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으로 임명되면서 김정일시대의 군부 핵심 세력이 된다. 일각에서는 2009년 2월 리영호가 군 총참모장으로 승진할 때 김정은의 군부 장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군부에서 막강한 자리인 군 총정치국 조직 담당 부국장에 김원홍을 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외에 군 인물 네트워크에 새로 나타난 인물들 중에는 리병삼(2009.9 인민보안성 정치국장, 2010.4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리병철(2008.4 공군사령부 사령관)과 같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상장급 정도의 비교적 젊은 야전군인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

2시기에 현지도도를 수행한 인물 중 국가기구 소속 인물들의 네트워크 구성도는 다음의 <그림 IV-8>과 같다.

2시기 국가기구 인물 네트워크는 1시기보다 적은 인원인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일과 강석주의 강한 연결이 특징적이다. 이는 이 시기에 일어난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외교사절 접견에 강석주가 동석하였기 때문이다. 국가기구 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1시기에 비해 축소된 편이다. 네트워크의 우측에는 최영림, 양형섭, 김영남 등 몇 개의 상호연결선을 가진 그룹이 있고, 좌측에는 김정일 과만 연결된 인물들이 있다. 당과 군에 비해 국가기구 소속 인물들의 네트워크가 빈약한 것은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인해 후계체제 확립이 급박한 비상 상황에서 국가기구보다는 당과 군 소속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현지도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IV-8 2시기 국가기구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 (3) 주요 인물 중심성

2시기 현지도 수행자 네트워크에서 높은 중심성을 갖는 주요 인물들과 이들의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사이중심성 순위 및 중심성 수치는 다음의 <표 IV-4>와 같다.

2시기 연결중심성 순위 30위까지 김정일을 제외한 29명의 엘리트 중 당 소속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군 소속은 9명, 국가기구 소속 4명, 기타 1명으로, 1시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당 소속 인물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후계체제 구축을 준비하는 김정은체제로의 이행기에 당 엘리트들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개인별로 보면 김기남, 김경희의 중심성이 세 가지 중심성 모두에서 가장 높고, 장성택은 김기남, 김경희와 비교할 때 위세중심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김정은정권으로의 이행과

I
II
III
IV
V
VI

도기에 현지지도 네트워크는 김기남, 김경희, 장성택을 중심으로 연결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김기남과 김경희가 전체 엘리트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군 인사 중에서는 김영춘, 김정각, 현철해, 리명수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김정각과 리명수는 1시기에는 상위 25명 내에 들지 못하였으나, 2시기에 중심성이 급상승하였고, 현철해도 1시기 24위에서 순위가 급등하였다. 현철해는 총정치국 행정국장으로 다양한 성격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그룹의 인물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사이중심성이 5위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김정각의 부상에 대해서는 김정각이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서 2009년 상반기에 김정은의 북한군 간부 장악을 보좌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이 시기에 김정일의 군 관련 현지지도는 김정은이 사전에 조직하였다는 것이다.<sup>200</sup> 1시기에 중심성 순위가 가장 높았던 김일철은 2시기에는 중심성이 크게 떨어져 21위를 기록하였으며, 조명록은 2시기에는 현지지도를 수행하지 않았고 2010년 11월 사망하였다.

국가기구 소속 인물로는 강석주가 부상하였다. 1시기에 김정일 수행 횡수에 비해 다른 엘리트들과의 상호접촉 횡수가 작아 중심성이 낮게 나타났던 강석주는 2시기에는 다른 인물들과 공동으로 현지지도를 수행하는 횡수가 증가하면서 중심성이 증가하였다.

2시기에는 사이중심성이 다른 중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현철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인물에서 각각의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사이중심성 순위가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났다.

---

<sup>200</sup>- 위의 책, p. 87.



표Ⅳ-4 2시기 인물별 중심성

이름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사이중심성	
	순위	중심성 수치	순위	중심성 수치	순위	중심성 수치
김정일	1	1.000	1	0.336	1	0.181
김기남	2	0.865	2	0.321	2	0.084
김경희	3	0.743	3	0.294	4	0.056
장성택	4	0.716	7	0.261	3	0.057
김영춘	5	0.676	4	0.287	9	0.026
김정각	5	0.676	5	0.285	6	0.030
최태복	5	0.676	6	0.284	6	0.030
현철해	8	0.662	8	0.255	5	0.033
리명수	9	0.635	9	0.248	6	0.030
강석주	10	0.541	12	0.235	13	0.018
김영일	10	0.541	10	0.242	14	0.013
리재일	12	0.527	17	0.195	9	0.026
리영호	13	0.514	11	0.239	16	0.010
박남기	14	0.500	16	0.204	11	0.021
리제강	14	0.500	24	0.187	12	0.019
김양건	16	0.486	14	0.209	15	0.011
양형섭	17	0.446	15	0.206	19	0.006
최영림	17	0.446	13	0.215	19	0.006
김명국	19	0.419	17	0.195	19	0.006
주규창	19	0.419	19	0.190	16	0.010
김일철	21	0.405	25	0.186	22	0.004
태종수	21	0.405	22	0.188	18	0.007
김원홍	23	0.378	20	0.189	24	0.003
김중린	23	0.378	22	0.188	26	0.002
홍석형	23	0.378	20	0.189	22	0.004
전병호	26	0.351	26	0.173	26	0.002
김영남	27	0.338	27	0.165	28	0.001
강능수	28	0.324	29	0.160	24	0.003
김국태	28	0.324	28	0.161	28	0.001
김영대	30	0.311	30	0.154	34	0

I  
II  
III  
IV  
V  
VI

## 다. 3시기(2010.10~2011.12)

3시기는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 즈음하여 김정은에게 공식 직책을 부여하고 로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후계자 김정은을 공개하면서부터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이다.

2010년 9월 2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 제0051호”를 통해 김정은, 김경희, 최룡해는 대장 군사칭호를 받았다. 다음날 개최된 당 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당 대표자회에서는 또한 김경희, 장성택 등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버팀목이 될 김경희를 당 정치국 위원으로, 장성택을 당 정치국 후보위원과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본격적인 후계구도 확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후 김정은은 2010년 10월 5일 김정일의 인민군 제851군부대 합동훈련 참관에 동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현지도도 수행 행보를 이어간다.<sup>201</sup>

### (1) 현지도도 횡수

3시기에 현지도도를 수행한 사람은 89명이다. 이중 수행 횡수 상위 22명의 현지도도 수행을 통한 상호접촉 횡수는 다음 <표 IV-5>와 같다.

---

<sup>201</sup> 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실시된 군부대 합동훈련 참관 사실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때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 김정은의 공식 활동 수행 사진은 권력 이행기 당과 군의 핵심 엘리트가 누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사진에서 제일 앞 줄에는 김정일 우측으로 리영호(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군 총참모장), 김영춘(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김정은, 김정각(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순으로 섰고, 좌측에는 최영림(정치국 상무위원 겸 내각 총리), 김기남, 최태복, 김경희, 박도춘 순으로 도열했다.

● 표Ⅳ-5 3시기 현지도도를 통한 상호접촉 횟수  
(김정일과 접촉 횟수 30회 이하 생략)

	김정일	김정은	강석주	김경옥	김경희	김기남	김양건	김영일	김영춘	김원홍	김정각	김평해
김정일		127	49	41	122	105	64	43	49	48	65	56
김정은	127		32	39	76	64	50	35	41	46	63	45
강석주	49	32		9	29	33	45	35	30	9	27	26
김경옥	41	39	9		19	22	19	14	13	35	25	19
김경희	122	76	29	19		80	39	26	28	25	39	44
김기남	105	64	33	22	80		46	32	31	27	47	45
김양건	64	50	45	19	39	46		40	37	23	43	40
김영일	43	35	35	14	26	32	40		26	14	29	30
김영춘	49	41	30	13	28	31	37	26		18	39	25
김원홍	48	46	9	35	25	27	23	14	18		35	21
김정각	65	63	27	25	39	47	43	29	39	35		35
김평해	56	45	26	19	44	45	40	30	25	21	35	
리명수	62	43	9	21	45	42	23	12	16	30	31	27
리영호	84	80	32	36	46	50	48	36	40	44	63	38
문경덕	71	60	31	21	52	55	46	32	30	22	43	43
박도춘	106	75	37	25	76	66	53	36	41	30	48	45
우동측	44	40	18	22	29	37	33	22	23	24	39	31
장성택	167	110	47	38	105	91	62	42	47	44	62	46
주규창	78	55	30	21	55	54	43	30	32	22	39	38
최룡해	70	57	31	21	53	58	46	31	29	24	42	50
최태복	71	60	34	20	52	62	48	34	33	26	45	45
태종수	108	65	39	18	79	77	52	33	37	23	43	44
현철해	75	55	9	32	47	41	23	11	17	43	34	25
홍석형	48	27	20	5	47	41	23	18	15	7	17	23

I  
II  
III  
IV  
V  
VI

	리명수	리영호	문경덕	박도춘	우동측	장성택	주규창	최룡해	최태복	태종수	현철해	홍석형
김정일	62	84	71	106	44	167	78	70	71	108	75	48
김정은	43	80	60	75	40	110	55	57	60	65	55	27
강석주	9	32	31	37	18	47	30	31	34	39	9	20
김경옥	21	36	21	25	22	38	21	21	20	18	32	5
김경희	45	46	52	76	29	105	55	53	52	79	47	47
김기남	42	50	55	66	37	91	54	58	62	77	41	41
김양건	23	48	46	53	33	62	43	46	48	52	23	23
김영일	12	36	32	36	22	42	30	31	34	33	11	18
김영춘	16	40	30	41	23	47	32	29	33	37	17	15
김원홍	30	44	22	30	24	44	22	24	26	23	43	7
김정각	31	63	43	48	39	62	39	42	45	43	34	17
김평해	27	38	43	45	31	46	38	50	45	44	25	23
리명수	0	32	29	38	24	55	30	34	30	41	56	15
리영호	32	0	44	55	40	79	42	44	49	44	42	19
문경덕	29	44	0	52	34	63	45	53	56	57	26	22
박도춘	38	55	52	0	33	100	66	53	51	76	41	35
우동측	24	40	34	33	0	42	29	36	35	31	22	12
장성택	55	79	63	100	42	0	68	62	63	97	65	43
주규창	30	42	45	66	29	68	0	40	43	63	30	24
최룡해	34	44	53	53	36	62	40	0	55	53	32	28
최태복	30	49	56	51	35	63	43	55	0	55	29	29
태종수	41	44	57	76	31	97	63	53	55	0	40	43
현철해	56	42	26	41	22	65	30	32	29	40	0	15
홍석형	15	19	22	35	12	43	24	28	29	43	15	0

김정일 수행 횟수는 장성택(167회)-김정은(127회)-김경희(122회)-태종수(108회)-박도춘(106회)-김기남(105회)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1년 김정은이 동행한 거의 모든 현지도에 장성택이나 김경희가 동행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혈연으로 연결된 김경희, 장성택은 물론이고, 당 선전선동부 부장 김기남과 중앙당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태종수, 군수공업 담당 비서로 알려져 있는 박도춘 등이 김정일뿐 아니라 김정은과 잦은 접촉 관계를 형성하였다. 김정은 수행 횟수는 장성택(110회)-리영호(80회)-김경희(76회)-박도춘(75회)-김기남(64회)-김정각(63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종수, 김기남, 문경덕, 최태복도 김정은과 동행한 횟수가 많았다. 리영호는 김정일 수행빈도에 비해 김정은 수행빈도가 높고, 두 사람을 수행한 횟수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아,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특히 군 관련 김정은의 입지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장성택과의 공동수행 횟수는 김경희가 105회로 가장 많아 비상정국 시 두 사람의 협력적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었음을 보여준다. 박도춘, 태종수, 김기남이 장성택과 90회 이상 동행하였으며, 리영호, 최룡해, 주규창, 현철해, 최태복, 문경덕, 김양건, 김정각도 장성택과 60회 이상 동행하였다. 김경희와의 접촉 횟수는 장성택이 가장 많고, 김기남, 태종수, 박도춘이 70회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규창, 최룡해, 문경덕, 최태복도 김경희와 50회 이상 동행하였다.

김기남은 장성택, 김경희, 태종수와 70회 이상의 많은 접촉 횟수를 기록하였으며, 박도춘, 김정은과 60회 이상, 최룡해, 문경덕, 주규창, 리영호와 50회 이상의 비교적 많은 접촉 횟수를 보였다.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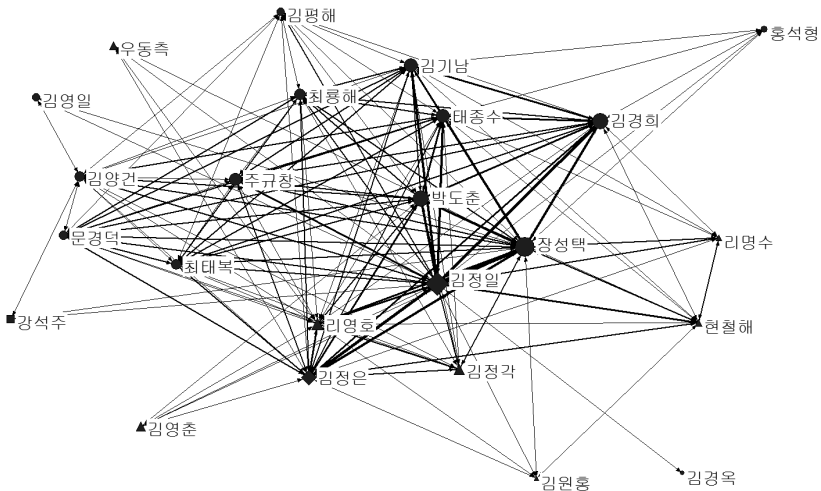
I
II
III
IV
V
VI

중수는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 박도춘과 70회 이상 많이 접촉했으며, 김정은, 주규창과 60회 이상, 문경덕, 최태복, 최룡해, 김양건과 50회 이상의 비교적 많은 접촉 횟수를 기록하였다. 박도춘은 장성택, 김경희, 김정은, 태종수와 70회 이상으로 공동수행을 많이 했으며, 김기남, 주규창과 60회 이상, 리영호, 김양건, 최룡해, 문경덕, 최태복과 50회 이상의 비교적 많이 동행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을 종합하면 장성택과 김경희는 물론 김기남, 리영호, 태종수, 박도춘, 최룡해, 주규창, 김정각, 최태복, 문경덕, 현철해 등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터운 핵심엘리트층이 동시에 김정일과 김정은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표 IV-5> 중 상호 40회 이상의 공동수행 횟수를 기록한 주요 인물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IV-9>와 같다.

총 21명의 주요 인물을 소속별로 구분하여 보면 당 12명, 군 7명,

● **그림 IV-9** 3시기 주요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40회 이상 표시)



국가기구 2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시기와 비교해볼 때 김정일을 가장 많이 수행한 인물 중 군 소속 엘리트의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네트워크의 중심부를 이루는 핵심인물들은 주로 당 소속의 엘리트임을 확인할 수 있다.

3시기의 주요 인물 네트워크는 김정일, 김정은, 김경희, 장성택, 김기남, 태종수, 박도춘, 리영호 간에 강하게 연결된 핵심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약간 확대하면 김양건, 문경덕, 김정각, 현철해까지도 이 두터운 중심부에 포함시킬 수 있다. 3시기에는 김정일의 현지도도를 김정은이 동행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핵심엘리트 층은 김정은정권의 새도우캐비닛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시기의 주요 인물 네트워크 구성원은 대체적으로는 2시기와 연속성을 띠지만, 일부 세력이 제거되고, 일부 신진세력이 대두되었다. 주요 인물 네트워크에서 사라진 인물로는 리제강, 박남기, 리재일, 김명국 등이 있다. 리제강은 2008년부터 김정은의 후계자 지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2009년 1월 후계자 결정 이후 장성택 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과 함께 김정은의 엘리트 인사 결정을 보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리제강은 리용철 제1부부장과 함께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의 최측근으로서, 2004년 장성택을 ‘중파행위’로 직무 정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리제강은 2010년 6월 2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sup>202</sup>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은 2시기에 경제부문의 현지도도를 빈번히 수행하였지만, 2010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총살당했다. 리재일은 이 시기에 잠

202. 박명규 외,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 pp. 104~105.





3시기 당 인물 네트워크는 전체 31명으로 구성되어 2시기와 비교할 때 보다 짧은 기간에 보다 많은 인원이 현지지도에 참가하였고, 소속별로 볼 때도 가장 많은 인원수가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핵심부가 2시기보다 약간 더 넓고 서로 간의 연결 강도도 강하게 나타나, 핵심 엘리트들 간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장성택의 중심적 위치가 강고해졌으며, 장성택을 견제할만한 당내 세력인 리제강, 리용철 등이 사망하고 김경옥처럼 장성택과 가까운 인물이 그 자리를 메운 것을 볼 수 있다.

3시기 당 인물 네트워크에서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에서 당 비서 또는 부장으로 보임된 인물들이다. 당 대표자회에서 기존 4명의 비서관 비서 중 김기남과 최태복이 재임명되고, 최룡해, 문경덕, 박도춘,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태종수, 홍석형 등 8명의 비서가 새로 임명되었다. 또한 당 부장으로는 장성택, 리영수, 홍석형, 김경희, 오일정, 김양건, 김정임, 채희정, 태종수 등이 건재한 가운데 김기남, 김평해, 주규창, 최희정 등 네 명이 새로 선임되었다. 이들 중 장성택, 김경희, 박도춘, 주규창, 문경덕,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태종수, 김평해, 김양건, 김영일, 홍석형 등이 3시기 현지지도 당 인물 네트워크의 핵심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시기 당 인물 네트워크에는 박봉주, 한광상, 황병서, 강양모, 리영철, 홍인범, 오수룡, 권혁봉(당 부부장), 리영수, 리만건(평안북도당 책임비서), 박태덕, 리용하(당 제1부부장), 박정순, 백세봉 등 많은 인물이 새롭게 나타났다. 반면 리제강, 리용철, 리철봉, 전일춘, 리광호, 강능수, 리철봉, 최익규, 김영규, 김종린 등은 2시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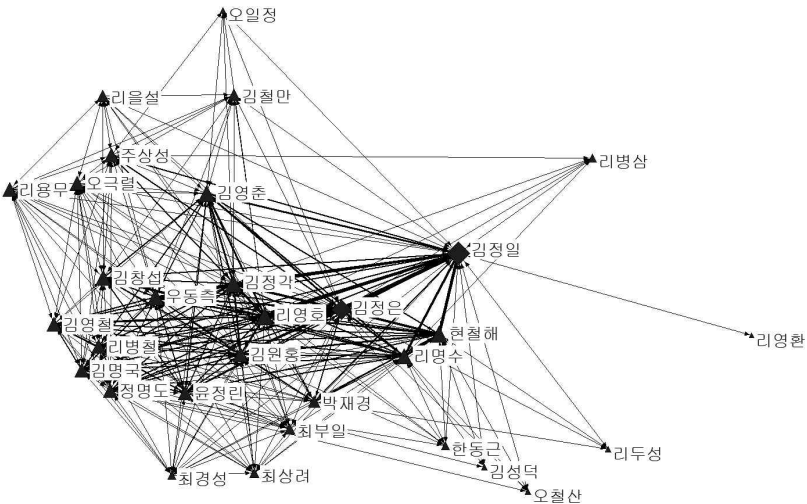
I
II
III
IV
V
VI

현지도도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리태남은 2010년 6월 내각 부총리로 자리를 옮겨 2011년 4월 해임되기까지 현지도도를 수행하였다.

3시기에 현지도도를 수행한 인물 중 군 소속 인물들의 네트워크 구성도는 다음의 <그림 IV-11>과 같다.

3시기 군 인물 네트워크는 전체 29명으로 구성되어 2시기와 비교할 때 보다 짧은 기간에 보다 많은 인원이 현지도도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의 군 인물 네트워크는 김정은정권의 군 관련 인사의 기본 틀이 이 시기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리영호, 김정각, 현철해 등이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김영춘을 중심으로 하는 리용무, 오극렬, 리을설 등의 구군부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리영호는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위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당 중앙위 위원 등 여러 개의 요직을 차지했고, 국방위원회 결정을 통해 차수로 승진하면

그림 IV-11 3시기 군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서 군부의 실세로 급부상하였다.

당 인물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3시기의 군 인물 네트워크도 2시기와 대비해볼 때 상호 강하게 연결된 두터운 핵심그룹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이 핵심그룹의 구성원들은 김정일뿐만 아니라 김정은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김일철로 대표되는 원로그룹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었다. 김일철, 장성우(2009.8 사망), 리하일, 김격식 등이 3시기 현지도 네트워크에서 사라졌다. 대신 박재경, 김창섭 등이 중심부에 등장하였으며, 김영철(대장), 최부일, 최상려, 최경성, 리두성(중장), 리영환 등도 현지도 네트워크상에 나타났다. 박재경이 중심부로 진입한 것은 인민무력부 부부장 직을 수행하다가 2011년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보다 활발히 현지도를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창섭은 2009년 8월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으로 승진되었고, 2010년 9월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3시기 들어서서 현지도 수행 횟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2시기에 네트워크의 외곽에 위치해있던 김원홍, 우동축이 중심부로 진입했다. 한마디로 3시기 군 인물 네트워크는 구군부의 세력 축소와 신군부의 전면 부상이라는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3시기에 현지도를 수행한 인물 중 국가기구 소속 인물들의 네트워크 구성도는 다음의 <그림 IV-12>와 같다.

3시기에 현지도를 수행한 국가기구 소속 인물은 총 20명으로, 국가기구 소속 인물의 수행 횟수는 많지 않았으나, 인원수 면에서는 2시기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했다. 후계자 지위를 구축하고 차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 전반에 걸친 이해와 엘리트들과의 상호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기구 소속 각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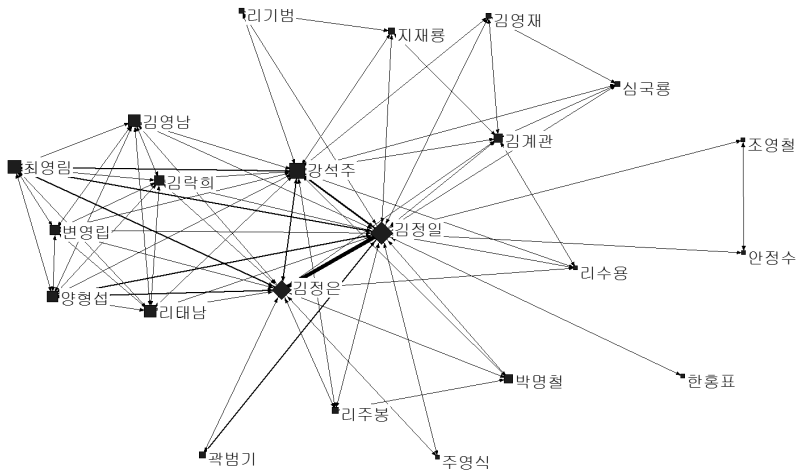
III

IV

V

VI

그림 IV-12 3시기 국가기구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계 엘리트들이 동행한 현지도에 김정은도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 네트워크 우측 상단의 실무자 그룹과의 접촉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2010년 9월 내각 부총리로 승진한 강석주가 내각 총리 최영림과 함께 국가기구 인물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을 포함하여 양형섭, 김영남 등이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다. 국가기구 인물 네트워크에도 변영립,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 리철(일명 리수용,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지재룡(중국 주재 대사), 리주봉, 리기범, 김영재, 심국룡, 안정수, 조영철, 한홍표, 주영식 등 새로운 인물들이 다수 출현하였다. 반면, 로두철, 최진수, 박의춘, 최창식, 백계룡, 김영덕 등은 3시기에는 현지도를 수행하지 않았다. 2시기에 김정일과만 연결되었던 곽범기, 김락희, 박명철은 다른 국가기구 인물들과 상호 연결선을 형성하였다.

### (3) 주요 인물 중심성

3시기 현지도 수행자 네트워크에서 높은 중심성을 갖는 주요 인물들과 이들의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사이중심성 순위 및 중심성 수치는 다음의 <표 IV-6>과 같다.

3시기 연결중심성 순위 30위까지 김정일, 김정은을 제외한 28명의 엘리트 중 당 소속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군 소속은 11명, 국가기구 소속 2명으로, 1시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군 소속 인물의 수가 약간 증가하고, 국가기구 소속 인물의 수가 감소하였다.

개인별로 보면, 장성택이 상당히 높은 중심성 수치를 기록하며 김경희와 김기남을 제치고 김정일의 뒤를 이어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로 부상하였다. 박도춘, 김경희, 태종수가 장성택과 함께 높은 중심성 수치를 기록한 그룹을 형성하였다. 김경희는 4위로 여전히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박도춘은 2시기에는 30위권 내에 들지 못했으나 3시기에 중심성이 급상승하였다. 박도춘은 2010년 9월 군수경제를 담당해왔던 당 비서 전병호 후임으로 당 비서직을 맡게 되었는데, 그의 부상은 그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박도춘 이외에도 태종수, 주규창, 최룡해, 리영호 등이 부상하였다. 반면, 김영춘, 현철해, 리명수, 최영림, 김명국 등은 순위가 크게 밀려났다. 문경덕, 우동측, 김평해, 김창섭, 김경옥, 김원홍, 윤정린, 주상성 등이 순위 30위권 내로 진입하였다. 이중 주상성은 2011년 3월에 인민보안부장직에서 해임되어 이후 시기에는 현지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

I  
II  
III  
IV  
V  
VI

표Ⅳ-6 3시기 인물별 중심성

이름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사이중심성	
	순위	중심성 수치	순위	중심성 수치	순위	중심성 수치
김정일	1	1	1	0.242	1	0.108
장성택	2	0.940	2	0.239	2	0.065
박도춘	3	0.869	3	0.234	4	0.040
김경희	4	0.857	4	0.231	3	0.042
태종수	5	0.810	6	0.226	6	0.032
김정은	6	0.798	5	0.227	7	0.029
김기남	6	0.798	8	0.225	8	0.028
주규창	8	0.786	6	0.226	9	0.024
최룡해	9	0.762	10	0.223	5	0.033
리영호	10	0.738	9	0.224	12	0.014
김양건	11	0.726	12	0.221	14	0.013
김정각	11	0.726	10	0.223	16	0.012
최태복	11	0.726	12	0.221	12	0.014
문경덕	14	0.702	14	0.218	14	0.013
김영춘	15	0.690	16	0.214	16	0.012
강석주	16	0.679	19	0.207	11	0.015
우동측	16	0.679	14	0.218	22	0.006
김영일	18	0.655	18	0.210	20	0.008
김평해	18	0.655	17	0.212	21	0.007
현철해	20	0.643	29	0.183	10	0.018
홍석형	21	0.631	21	0.199	19	0.010
리명수	22	0.607	35	0.180	16	0.012
김창섭	23	0.595	20	0.202	25	0.003
김경옥	24	0.583	22	0.194	25	0.003
김원홍	24	0.583	23	0.193	24	0.004
윤정린	26	0.560	26	0.188	25	0.003
최영림	27	0.548	24	0.191	29	0.002
김국태	28	0.536	25	0.190	35	0.001
주상성	28	0.536	28	0.185	29	0.002
김명국	30	0.524	35	0.180	29	0.002

최룡해, 현철해, 리명수, 강석주는 다른 중심성에 비해 사이중심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최룡해는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 정치국,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책을 모두 맡게 되었기 때문에 중심성 순위가 상승함과 동시에 다양한 현지지도에 참여함으로 인해 특히 엘리트들을 매개하는 사이중심성이 강화되었으며, 강석주는 부총리로서 다양한 분야의 현지지도 수행하면서 연결중심성이나 위세중심성보다 사이중심성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김정은시대(2012.1~2012.7) 엘리트 네트워크

4시기는 김정일 사망부터 2012년 7월 말까지의 시기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장례식과 추도기간의 수습기와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를 거치면서 김정은 권력체제가 자리잡게 된다.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3시기 엘리트 네트워크의 특징이 유지되는 한편, 하반기 들어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가. 현지지도 횡수

4시기에 현지지도를 수행한 사람은 70명이다. 이중 수행 횡수 상위 24명의 현지지도 수행을 통한 상호접촉 횡수는 <표 IV-7>과 같다.

4시기 김정은 현지지도 수행 횡수는 현재의 권력지도를 반영하고 있다. 장성택이 40회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행 횡수를 기록했고, 최룡해와 리영호가 22회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상반기까지 활발한 현지지도 수행 활동을 했던 리영호는 7월 15일

총참모총장 등 모든 직위에서 해임됨으로써 김정은시대 엘리트 네트워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김경희는 총 14회로 수행빈도가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김경희가 담당하던 경공업부문의 현지지도 횡수가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이는 또한 김정은체제로의 재편이 일정 정도 마무리되면서 과도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던 혈족 김경희의 역할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장성택과의 접촉 횡수는 최룡해가 21회로 가장 많았고, 리영호, 김기남, 박도춘, 김영춘, 김양건도 15회 이상으로 많았다. 장성택과 최룡해의 접촉 횡수가 많은 것은 인척세력을 대표하는 장성택과 공신세력을 대표하는 최룡해 간의 협력 구조를 보여준다. 김경희와의 접촉 횡수는 장성택과 김기남이 각각 14회, 13회로 가장 많았고, 최룡해, 김양건, 김영춘, 문경덕이 10회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장성택-현철해, 최룡해-김기남, 김기남-김양건도 비교적 많은 상호접촉 횡수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김정은 수행 횡수 및 다른 엘리트들과의 상호접촉 횡수가 가장 많은 그룹 중에는 당 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표Ⅳ-7 4시기 현지도도를 통한 상호접촉 횟수  
(김정은과 접촉 횟수 6회 이하 생략)

	김정인	강석주	김경희	김기남	김명국	김양건	김영남	김영일	김영철	김영춘	김원홍	김정각	김평해
김정은		9	14	18	16	16	7	7	8	19	17	13	13
강석주	9		5	9	2	8	4	4	3	7	5	6	7
김경희	14	5		13	3	10	5	4	4	10	6	8	8
김기남	18	9	13		4	14	6	6	4	13	7	9	11
김명국	16	2	3	4		4	0	3	4	6	9	5	4
김양건	16	8	10	14	4		6	7	4	11	7	7	11
김영남	7	4	5	6	0	6		1	0	6	5	4	4
김영일	7	4	4	6	3	7	1		3	5	3	4	7
김영철	8	3	4	4	4	4	0	3		5	3	4	3
김영춘	19	7	10	13	6	11	6	5	5		8	11	8
김원홍	17	5	6	7	9	7	5	3	3	8		5	5
김정각	13	6	8	9	5	7	4	4	4	11	5		6
김평해	13	7	8	11	4	11	4	7	3	8	5	6	
리두성	8	0	0	0	5	0	0	0	0	1	6	0	0
리영호	22	7	9	12	8	9	6	3	5	15	8	12	6
리재일	13	1	1	1	3	3	0	2	3	4	2	2	3
문경덕	13	7	10	12	2	12	6	6	3	10	7	6	10
박도춘	18	8	7	11	8	10	3	4	4	9	8	6	10
박재경	18	3	2	4	10	3	0	2	4	7	8	5	2
장성택	40	9	14	18	12	16	6	7	8	17	12	13	13
최룡해	22	8	10	14	7	12	6	5	7	12	7	9	11
최영림	9	4	7	8	5	6	7	2	0	7	6	6	4
최태복	12	7	8	11	1	10	6	4	1	9	6	6	8
현철해	17	3	7	8	6	7	4	2	4	9	7	7	6
황병서	12	1	0	1	3	2	0	0	3	2	2	1	1

I  
II  
III  
IV  
V  
VI

	리두성	리영호	리재일	문경덕	박도춘	박재경	장성택	최룡해	최영림	최태복	현철해	황병서
김정은	8	22	13	13	18	18	40	22	9	12	17	12
강석주	0	7	1	7	8	3	9	8	4	7	3	1
김경희	0	9	1	10	7	2	14	10	7	8	7	0
김기남	0	12	1	12	11	4	18	14	8	11	8	1
김명국	5	8	3	2	8	10	12	7	5	1	6	3
김양건	0	9	3	12	10	3	16	12	6	10	7	2
김영남	0	6	0	6	3	0	6	6	7	6	4	0
김영일	0	3	2	6	4	2	7	5	2	4	2	0
김영철	0	5	3	3	4	4	8	7	0	1	4	3
김영춘	1	15	4	10	9	7	17	12	7	9	9	2
김원홍	6	8	2	7	8	8	12	7	6	6	7	2
김정각	0	12	2	6	6	5	13	9	6	6	7	1
김평해	0	6	3	10	10	2	13	11	4	8	6	1
리두성		2	0	0	1	4	2	0	0	0	2	0
리영호	2		5	7	10	10	18	12	8	9	10	4
리재일	0	5		2	4	5	9	5	0	1	5	6
문경덕	0	7	2		9	3	13	11	6	9	6	0
박도춘	1	10	4	9		8	18	12	3	8	7	4
박재경	4	10	5	3	8		12	6	0	1	6	8
장성택	2	18	9	13	18	12		21	8	12	14	9
최룡해	0	12	5	11	12	6	21		6	9	13	6
최영림	0	8	0	6	3	0	8	6		7	4	0
최태복	0	9	1	9	8	1	12	9	7		4	0
현철해	2	10	5	6	7	6	14	13	4	4		5
황병서	0	4	6	0	4	8	9	6	0	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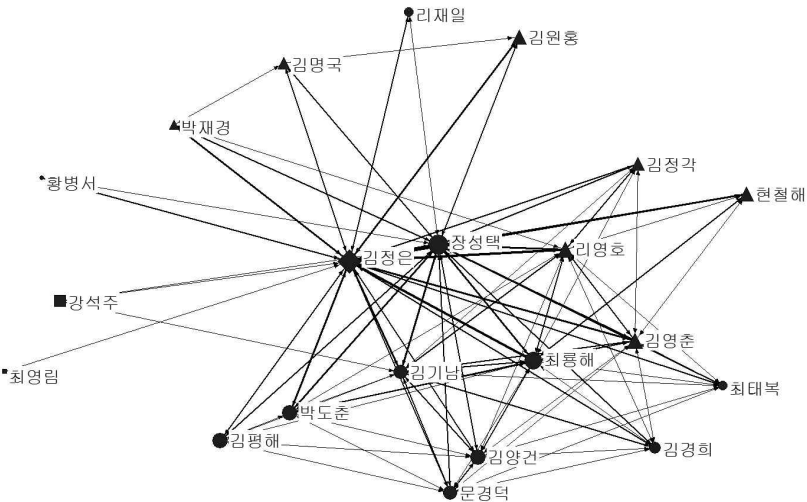
## 나. 주요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위의 <표 IV-7> 중 상호 9회 이상의 공동수행 횟수를 기록한 주요 인물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IV-13>과 같다.

총 20명의 주요 인물을 소속별로 구분하여 보면, 당 11명, 군 7명, 국가기구 2명으로 3시기와 비슷한 구성비를 나타는데, 3시기와 마찬가지로 당 소속 엘리트들이 군이나 국가기구 소속 엘리트들에 비해 네트워크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4시기 주요 인물 네트워크에 김정은과 장성택이라는 두 중심이 형성되어 있는 모양을 보여준다. 장성택은 김정일과 연결된 거의 모든 인물과 연결선을 가지면서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해있다. 최룡해 또한 일부 국가기구 소속 엘리트를 제외한 당 및 군 소속의 거의 모든 엘리트들과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데,

● 그림 IV-13 4시기 주요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9회 이상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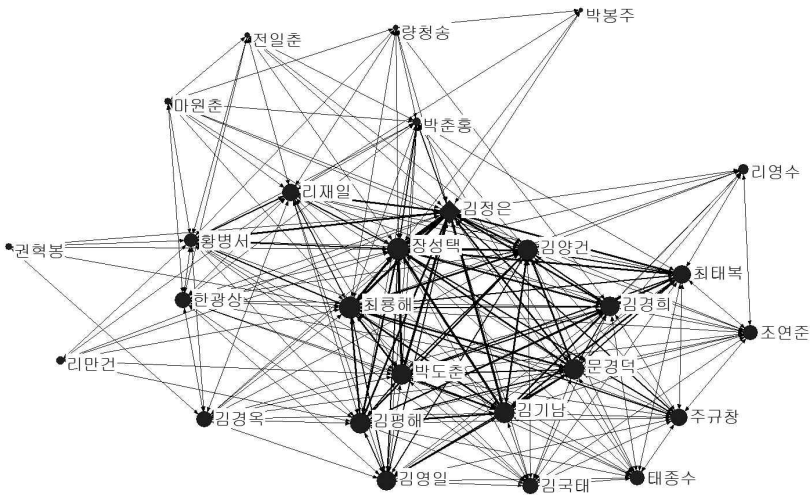
이는 그가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 의 직책을 갖고, 민간당료 출신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성택이나 최룡해가 현지 지도 네트워크상에서 김정은에 버금가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김정은이 독자적으로 권력 네트워크에서 확고한 중심을 차지하기보다는 핵심 혈족 및 충신세력에게 의존하면서 일정 정도 이들과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상태임을 시사한다.

개별 인물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3시기에 두각을 나타내거나 새로 네트워크에 진입한 엘리트들이 4시기에도 대부분 유지되거나 입지가 강화되었다. 3시기에 중심부를 형성했던 장성택, 최룡해, 김경희, 김기남, 박도춘, 리영호, 문경덕, 김정각, 현철해, 김평해 등이 4시기 네트워크에서도 여전히 중심부를 이루고 있다. 3시기 주요 인물 네트워크에 있었으나 4시기 네트워크에는 나타나지 않은 인물은 리명수, 우동측, 주규창, 태중수, 홍석형, 김경옥, 김영일 등이다. 이 중 중앙당 계획재정부장을 맡고 있었던 홍석형은 2011년 6월 해임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북·중 경협 부진에 대한 책임설과 중국 간첩행위설이 있다. 4시기에 새롭게 주요 인물 네트워크에 등장한 엘리트로는 김명국, 김평해, 리재일, 박재경, 최영림, 황병서가 있다. 박재경은 2011년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직무 특성상 현지지도 수행이 활발해졌고, 최영림은 2010년 6월 내각 총리로 임명된 후 4시기 들어서 현지지도 수행이 빈번해졌다.<sup>203</sup>

---

<sup>203</sup> 현지지도 수행과 별도로 최영림과 최룡해는 각 산업부문 실태 및 건설 사업 등의 진행 실태 파악, 현지지도 지시에 대한 후속점검 등을 위해 ‘현지료해’ 또는 ‘현지시찰’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최영림은 총 33회, 최룡해는 총 8회의 ‘현지료해’를 수행하였다.

●그림 IV-14 4시기 당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4시기에 현지도도를 수행한 인물 중 당 소속 인물들의 네트워크 구성도는 위의 <그림 IV-14>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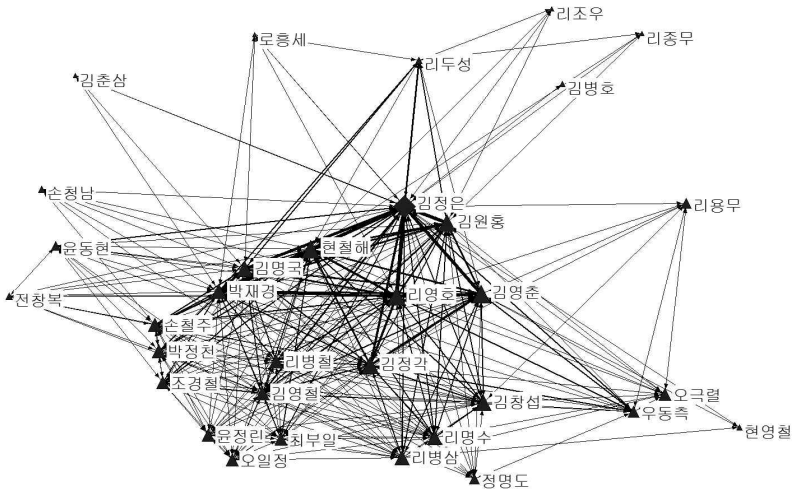
4시기 당 인물 네트워크는 전체 27명으로 구성되어, 인원수 면에서 3시기보다 약간 축소되었다. 3시기와 마찬가지로 십여 명의 엘리트가 두터운 중심부를 형성하며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장성택은 김정과 함께 당 네트워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며 네트워크에 표시된 모든 엘리트들과 연결되어 있다.

3시기에는 현지도도를 수행했으나, 4시기에는 참여하지 않은 인물은 리영철, 전병호, 홍석형, 강양모, 리용하, 박정순(2011.1 사망), 백세봉, 박태덕, 오수룡, 홍인범 등이다. 새로 나타난 인물은 조연준(2012.1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전일춘, 박춘홍(당 부부장), 마원춘, 량청송, 김병호 등이다.

4시기에 현지도도를 수행한 인물 중 군 소속 인물들의 네트워크

I
II
III
<b>IV</b>
V
VI

● 그림 IV-15 4시기 군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구성도는 위의 <그림 IV-15>와 같다.

4시기 군 인물 네트워크는 전체 31명으로 구성되어 3시기보다 약간 늘어났고, 당 인물 네트워크 인원수보다도 약간 많다. 리영호, 김영춘, 현철해, 김원홍, 박재경, 김정각 등이 김정일과 가깝게 연결되어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다. 3시기에 중심부를 구성했던 우동측은 4시기에는 약간 외곽으로 위치 이동을 하였다. 김원홍은 2012년 4월에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국가보위부장 직책은 1987년 이후 김정일이 직접 맡아왔고, 2009년 1월 이후에는 김정은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자신이 직접 관장하던 핵심 권력기구를 김원홍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를 자신의 핵심 측근이라고 인정한 것이다.<sup>204</sup> 3시기에 다소 외곽으로 위치이동을 하

204. 박형중, “김정은 통치연합의 출범과 특징.”

있던 김영춘이 다시 중심부로 진출한 것도 눈여겨볼만 한다. 김영춘은 2012년 4월에 당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여기서는 김영춘의 군 내 영향력을 고려해서 군 인물 소속 네트워크에 표시하였다. 3시기에 다소 축소되었던 김영춘의 영향력이 4시기에 다시 확대된 것은 그가 당 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좌천이나 경질로 해석하기보다는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중심부 구성은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 결정에 나타난 경향과도 일치한다.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민간당료 출신인 최룡해를 군부 정치기관인 총정치국 국장으로 임명하고 인민군 차수,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국방위원으로 선출함으로써 리영호 중심의 야전군인들을 견제하였고, 군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담당하는 총정치국 출신들을 인민무력부장(김정각), 국가안전보위부장(김원홍),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현철해)에 임명하여 군에 대한 당의 장악력을 강화하였다.<sup>205</sup>

4시기 군 인물 네트워크의 특징은 핵심 그룹 주위에 많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2012년 7월에 해임된 리영호 후임으로 군총참모장으로 임명된 현영철이다. 그는 7월 말부터 현지지도에 동행하였기 때문에 위의 그림상에서는 아직까지 주변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군 네트워크의 중심부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영철 이외에도 정명도(대장), 김춘삼(상장), 조경철(보위사령관, 상장), 윤동현(상장), 로홍세(중장), 리조우(중장), 리종무(중장), 손청남(중장), 박정천, 손철주, 전창복 등 다수의 새

<sup>205</sup> 김갑식, “북한 군부의 세대교체와 향후 전망,” 『이슈와 논점』, 496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p. 2.

I
II
III
IV
V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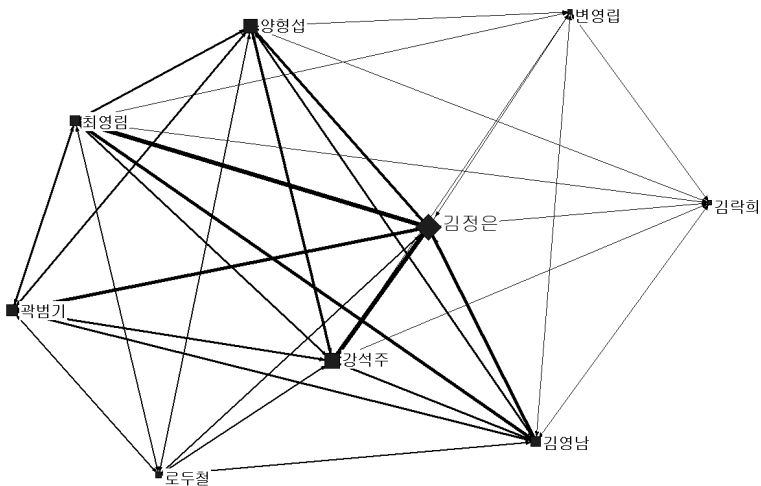
로운 인물들이 김정은의 현지도에 동행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상장 또는 중장급의 비교적 젊은 야전군인들이다. 군 소속 현지도 참가 인물이 확대된 것은 김정은이 2시기와 3시기에 구군부세력을 대신하여 신군부세력 출신으로 군 권력의 상층부를 교체한 데 이어, 4시기에는 군내 중간급 간부들에 대한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3시기에는 현지도에 참가했으나, 4시기에는 현지도에 동행하지 않은 인물은 주상성, 김철만, 리영환, 리을설, 오철산, 최경성, 최상려, 한동근, 김성덕 등이다. 주상성은 2011년 3월 인민보안부장직에서 해임됨으로써 4시기 네트워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4시기에 현지도를 수행한 인물 중 국가기구 소속 인물들의 네트워크 구성도는 다음의 <그림 IV-16>과 같다.

4시기 국가기구 인물 네트워크는 전체 8명으로 3시기에 비해 크

● **그림 IV-16** 4시기 국가기구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





게 감소하였다. 최영립, 강석주, 곽범기와 김정은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들의 현지도도 수행 횟수가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최영립, 강석주, 곽범기, 김영남, 양형섭, 로두철이 상호 간에 서로 연결되어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변영립과 김락희가 외곽에 자리잡고 있다. 4시기에는 로두철이 새롭게 현지도도를 수행했으며, 리주봉, 박명철, 리태남(2011.4 내각 부총리 해임), 리기범, 지재룡, 김영재, 김계관, 리철, 심국룡, 안정수, 조영철, 한홍표, 주영식 등 3시기에 현지도도를 수행하였던 국가기구 인물들이 제외되었다.

#### 다. 주요 인물 중심성

4시기 현지도도 수행자 네트워크에서 높은 중심성을 갖는 주요 인물들과 이들의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사이중심성 순위 및 중심성 수치는 다음의 <표 IV-8>과 같다.

4시기 연결중심성 순위 30위까지 김정일을 제외한 29명의 엘리트 중 군 소속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당 소속 12명, 국가기구 소속 4명으로, 3시기에 비해 당 소속 인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신 군 소속 인물 비중이 증가하였다. 10위 이내의 높은 중심성 순위를 기록한 최상위 엘리트들의 구성에서는 당 소속 인물들의 수가 군 소속 인물들의 수보다 많기는 하지만, 3시기와 비교해볼 때는 역시 군 소속 인물들의 중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사망 이전의 이행기에 당 소속 인물들의 중심성이 크게 강화된 데 비해 김정은이 정권을 계승한 후에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군 소속 인물들이 약진한 것은 김정은이 정권을 계승한 후 최고사령관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군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필요성에서 군부대 시찰 횟수를 크게

표Ⅳ-8 4시기 인물별 중심성

이름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사이중심성	
	순위	중심성 수치	순위	중심성 수치	순위	중심성 수치
김정은	1	1.000	1	0.253	1	0.102
장성택	2	0.943	2	0.251	2	0.059
최룡해	3	0.857	3	0.245	3	0.031
김영춘	4	0.814	4	0.241	6	0.022
리영호	4	0.814	4	0.241	6	0.022
박도춘	4	0.814	6	0.240	6	0.022
김양건	7	0.800	7	0.238	10	0.021
김평해	8	0.786	8	0.237	11	0.017
현철해	9	0.771	15	0.224	3	0.031
문경덕	10	0.757	10	0.233	15	0.012
김원홍	10	0.757	12	0.228	5	0.028
김기남	12	0.743	9	0.234	17	0.009
김정각	13	0.729	11	0.232	19	0.008
강석주	14	0.700	12	0.228	22	0.005
김경희	14	0.700	16	0.222	16	0.010
김영일	14	0.700	16	0.222	17	0.009
김창섭	17	0.686	14	0.225	22	0.005
김명국	17	0.686	19	0.208	11	0.017
양형섭	19	0.657	18	0.217	25	0.004
박재경	19	0.657	23	0.198	13	0.016
리재일	21	0.643	28	0.184	6	0.022
최태복	22	0.629	22	0.199	20	0.007
리병삼	23	0.614	20	0.207	27	0.003
리명수	23	0.614	21	0.205	27	0.003
김영철	25	0.586	26	0.194	25	0.004
곽범기	26	0.571	24	0.197	31	0.002
리병철	26	0.571	25	0.195	31	0.002
주규창	26	0.571	27	0.191	31	0.002
손철주	26	0.571	29	0.183	21	0.006
박정천	30	0.543	30	0.180	27	0.003

증가시켰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개인별로 보면 장성택, 최룡해는 세 가지 중심성 모두 각각 2, 3위로 나타났고, 중심성 수치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성택은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사이중심성 수치가 각각 0.943, 0.251, 0.059로, 1.0, 0.253, 0.102을 기록한 김정은과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김정은시대 장성택의 중심성이 김정은에 버금갈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은 김정은의 최대 후견자로서 그의 위상을 입증하는 것이다.

중심성이 높은 엘리트들의 구성은 3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약간의 변동이 있다. 김영춘, 박도춘, 리영호, 김양건은 세 가지 중심성 모두 고르게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4시기 중심성 순위에서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김경희의 중심성이 3시기 4위에서 4시기에는 14위로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표 IV-7> 현지도도 수행 횟수와 <그림 IV-13> 주요 인물 네트워크 구성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김정은체제가 안정화됨에 따라 과도기에 김정은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혈족 김경희가 전면에서 나서야 할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기남, 주규창, 최태복 등의 중심성 순위가 낮아진 반면, 김영춘은 15위에서 4위, 김평해는 18위에서 8위, 김원홍은 24위에서 10위, 현철해는 20위에서 9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김영일, 강석주, 김정각, 박도춘, 김양건 등은 3시기와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태종수, 우동측, 윤정린, 최영립, 김국태, 주상성, 홍석형, 김창섭, 김경옥 등이 연결중심성 순위 3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양형섭, 박재경, 리재일, 리병삼, 김영철, 곽범기, 리병철, 주규창, 손철주,

I

II

III

IV

V

VI

박정천 등이 진입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인물들의 연결중심성 순위는 대체적으로 위세 중심성 순위와 유사하나, 현철해와 리재일은 다른 중심성에 비해 위세중심성이 낮고 사이중심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며, 김원홍, 박재경, 김명국 등도 다른 중심성에 비해 높은 사이중심성을 나타내고 있다. 강석주는 반대로 다른 중심성에 비해 사이중심성이 크게 떨어진다.

김정은이 없는 네트워크에서 권력 위계를 파악하기 위해, 김정은을 제외한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산출해 보았는데, 대체로 김정은이 있는 네트워크와 순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총 30위까지의 연결중심성은 김정은이 있는 네트워크와 없는 네트워크의 순위가 같으며, 사이중심성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지도도 네트워크상에 나타난 권력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 김정은이라는 최고지도자가 있는 경우와 부재 시 권력의 위계서열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3. 엘리트 네트워크의 변화와 지속성

이 절에서는 북한 엘리트 네트워크의 변화와 지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각 시기별 네트워크 모양, 밀도, 집중도를 비교함으로써 엘리트들의 응집력 변화를 판단한다. 둘째, 시기별 주요 엘리트의 변화와 이들의 위세중심성 수치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엘리트 권력지형과 특성의 변화를 파악한다.

## 가. 네트워크 구성 및 응집력

각 시기별 현지도 전체 수행자 네트워크 구성도는 다음 <그림 IV-17>부터 <그림 IV-20>까지와 같다. 그림 모양과 구성원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3시기와 4시기에는 진한 선으로 연결된 중앙의 핵심 그룹이 1, 2시기에 비해 넓게 퍼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시기에는 중앙의 핵심 그룹 우측으로 주로 당과 군의 원로들로 구성된 그룹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2시기에는 김경희, 장성택, 김기남 등이 핵심부에 자리잡았고, 현철해, 리명수 등의 군·공안 인사가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 3, 4시기에는 20여 명의 핵심엘리트 그룹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간의 연결이 매우 조밀하게 나타난다. 특히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현지도 수행에 나서기 시작하면 서부터 김정일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인 3시기에 핵심엘리트 그룹이 서로 간에 강하게 연결되어 가장 폭넓게 포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네트워크 구성도에 나타난 특성을 정리하자면, 1기와 2기에는 엘리트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을 특징으로 한 김정일 직할통치가 이루어진 반면, 3기와 4기에는 김정은과 일정 정도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다수의 엘리트집단이 존재하는 현재의 권력지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네트워크는 현지도 수행자의 네트워크이므로 실제로 막후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들의 영향력이 네트워크 상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엘리트들의 직위에 따라 실제 권력 정도를 과잉 반영, 또는 과소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I  
II  
III  
IV  
V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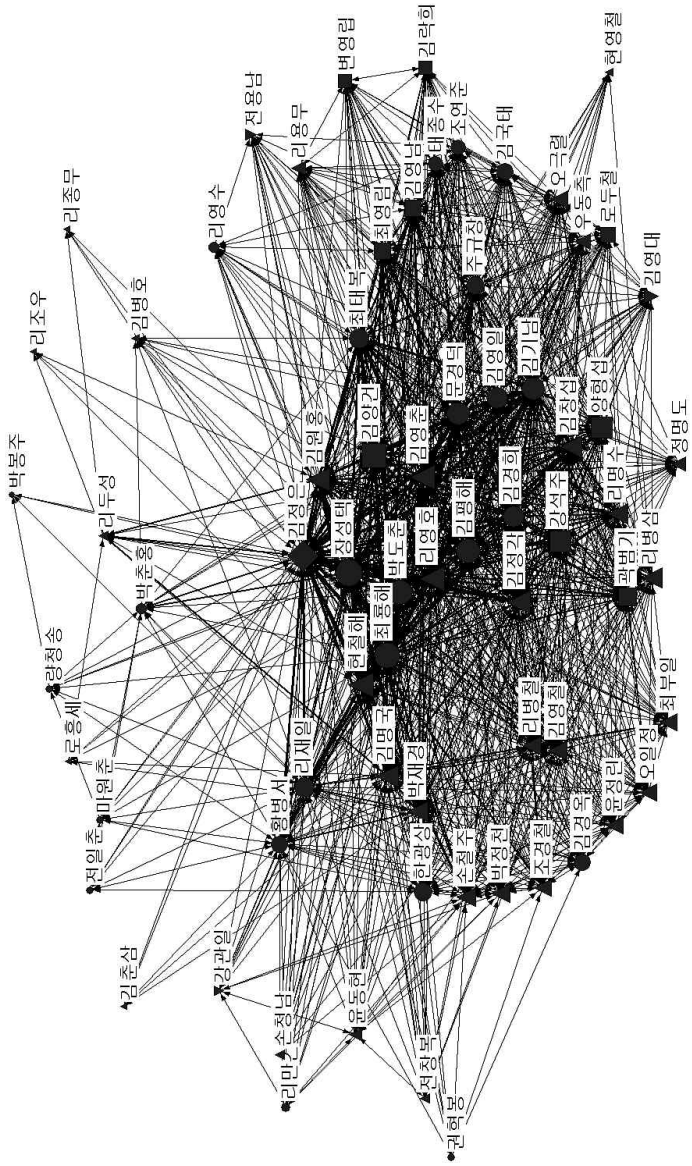








그림 IV-20 4시기(2012.2~2012.7) 전체 현지도 수행자 네트워크 구성도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에서는 북한 엘리트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밀도(density)와 네트워크 집중도(network centralization)를 산출하여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는 집단의 응집력과 관련이 있는 지표인데, 엘리트의 응집력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동 및 외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권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산출함으로써 북한 엘리트의 응집력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네트워크 밀도는 개별 노드 간에 연결가능한 관계의 총 수 중 실제로 맺어진 관계의 비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지니고 그들 간의 정보교류가 빈번하고, 정보의 확산정도가 강하며, 구조적 틈새가 발생할 여지가 적음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집중도는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의 연결이 어느 정도 중앙에 집중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네트워크의 중앙집중성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응집력이 높은 집단은 연결의 상호성, 하위그룹 구성원들의 폐쇄성과 높은 근접성, 구성원 간 높은 연결 빈도, 타 하위집단 대비 동일 하위집단 구성원과의 높은 연결 빈도 등의 특성을 지니므로, 네트워크 형태와 밀도를 측정함으로써 엘리트 네트워크의 응집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sup>206</sup>

북한 엘리트 현지도도 수행 네트워크에서 시기별 네트워크 밀도 및 집중도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 IV-9>와 같다.

<표 IV-9>에서 네트워크 밀도와 집중도는 크게 1, 2시기와 3, 4시기가 구분된다. 즉, 밀도는 1, 2시기가 낮고 3, 4시기가 높는데

---

<sup>206</sup>-S. Wasserman and K.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251~252.

● 표 IV-9 시기별 네트워크 밀도 및 집중도

항목	김정일시대			김정은시대
	1시기 (2003.9~2008.8)	2시기 (2008.9~2010.9)	3시기 (2010.10~2011.12)	4시기 (2012.1~2012.7)
밀도	0.3271	0.3121	0.4151	0.4732
네트워크 집중도	0.6886	0.7068	0.5990	0.5433

비해, 네트워크 집중도는 1, 2시기가 높고, 3, 4시기가 낮다.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시대를 비교했을 때는 김정은시대의 현지도도 네트워크가 김정일시대에 비해 밀도는 높고 네트워크 집중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07</sup>

현지도도 네트워크에서 밀도가 높다는 것은 현지도도를 수행하는 엘리트들 간에 상호접촉 빈도가 높아 연결이 보다 조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를 보면 1시기와 2시기 간에는 밀도의 변화가 별로 없지만, 3시기가 되면서 밀도가 30% 이상 증가했고, 김정은이 정권을 계승한 4시기에는 더욱 높아졌다. 3시기와 4시기에 밀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최고지도자가 개별적인 엘리트 몇 명과 현지도도에 나서기보다는, 본격적인 정권 인수인계와 권력 장악 차원에서 여러 분야의 주요 엘리트들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7. <표 IV-9>에 나타난 네트워크 집중도의 변화 추이가 1, 2시기가 3, 4시기에 비해 자료 수집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1시기에 해당하는 2007년도 한 해의 현지도도 네트워크의 밀도와 집중도를 계산해보았는데, 밀도 0.3266, 집중도 0.7040으로 여전히 밀도는 낮고 집중도는 낮은 경향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1, 2시기의 낮은 밀도와 높은 집중도는 자료 수집 기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시기 네트워크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I  
II  
III  
IV  
V  
VI

현지도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한 사람, 즉 최고지도자에게 연결이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집중도는 2시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시기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김정은시대 들어 더욱 감소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쓰러졌다가 활동을 재개한 이후부터 김정은의 현지도 수행이 공개되기 전까지의 위기 상황에서는 엘리트들이 김정일 1인을 중심으로 강하게 응집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후계자가 대중적으로 공개되고 본격적인 권력이양이 이루어진 시기에는 김정은 이외에 장성택을 비롯하여 최룡해, 김경희, 박도춘, 김영춘 등과 같이 네트워크의 또 다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 부각되었고, 이들과 여타 엘리트들 간의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집중도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의 변화 추이를 종합하면, 김정은시대에 엘리트 간의 응집력이 보다 커졌으며, 그 구심점에는 최고지도자 1인뿐만이 아니라 장성택, 최룡해와 같은 특정 엘리트들의 연합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일시대 네트워크 집중도가 김정일 1인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유일지도체계가 제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김정은시대 들어 네트워크 내의 권력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고 김정은을 보좌하는 엘리트들 간의 상호접촉이 보다 밀접해졌다는 것은 김정은시대 지배연합의 구조가 기존의 수령중심 유일영도체계에서 수령과 소수의 권력엘리트가 권력을 분점하는 새로운 권력구조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아니면 김정은 지배 권력이 안정화되면서 김정일시대의 네트워크 속성을 회복할지는 그 변화 추이를 좀 더 살

펴본 후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 자체가 현지도 동행여부를 인물들 간의 상호접촉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로 보았다는 점에서 방법론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도 네트워크에 나타난 특성이 권력의 경향성을 설명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이를 권력 전반의 속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밝혀둔다.

### 나. 주요 인물 시기별 위세중심성 변화

네트워크 상에서 권력 정도를 나타내는 위세중심성 수치를 통해서도 각 시기별 엘리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위세중심성은 자신의 연결중심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과 자신과 연결된 타 행위자의 영향력을 더하여 결정되는 지표로, 엘리트 네트워크에서 한 인물의 위세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그가 큰 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시기에 높은 위세중심성을 나타낸 인물을 기준으로 주요 엘리트들의 시기별 위세중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10>과 같다.

원칙적으로 모든 중심성 지수는 그 수치들을 산술적으로 비교하지는 않는다. 즉, x의 위세중심성 수치가 y의 두배라는 것이 곧 네트워크에서 x의 권력정도가 y의 두배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치의 크고 작음과 수치의 상대적 차이 정도를 파악하여 네트워크 상에서의 권력이 크거나 작다, 차이가 상대적으로 현저하거나 미세하다 등의 해석을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VI

표 IV-10 주요 인물 시기별 위세중심성

인물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순위	중심성 수치	순위	중심성 수치	순위	중심성 수치	순위	중심성 수치
김정일	1	0.270	1	0.336	1	0.242	-	-
김정은	-	-	-	-	5	0.227	1	0.253
장성택	50	0.101	7	0.261	2	0.239	2	0.251
최룡해	82	0.015	42	0.132	10	0.223	3	0.245
김영춘	4	0.251	4	0.287	16	0.214	4	0.241
리영호	-	-	11	0.239	9	0.224	4	0.241
박도춘	84	0.013	41	0.137	3	0.234	6	0.240
김양건	41	0.124	14	0.209	12	0.221	7	0.238
김평해	62	0.059	40	0.141	17	0.212	8	0.237
김기남	5	0.249	2	0.321	8	0.225	9	0.234
문경덕	-	-	-	-	14	0.218	10	0.233
김정각	53	0.089	5	0.285	10	0.223	11	0.232
김원홍	-	-	20	0.189	23	0.193	12	0.228
강석주	40	0.130	12	0.235	19	0.207	12	0.228
김창섭	-	-	-	-	20	0.202	14	0.225
현철해	48	0.105	8	0.255	29	0.183	15	0.224
김경희	-	-	3	0.294	4	0.231	16	0.222
김영일	53	0.089	10	0.242	18	0.210	16	0.222
양형섭	8	0.241	15	0.206	39	0.157	18	0.217
김명국	76	0.024	17	0.195	35	0.180	19	0.208
리병삼	-	-	46	0.103	60	0.075	20	0.207
리명수	49	0.103	9	0.248	35	0.180	21	0.205
최태복	3	0.254	6	0.284	12	0.221	22	0.199
박재경	51	0.099	-	-	48	0.136	23	0.198
곽범기	20	0.202	59	0.067	63	0.065	24	0.197

인물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순위	중심성 수치	순위	중심성 수치	순위	중심성 수치	순위	중심성 수치
리병철	-	-	54	0.089	35	0.180	25	0.195
김영철	-	-	-	-	30	0.182	26	0.194
주규창	57	0.071	19	0.190	6	0.226	27	0.191
리재일	46	0.115	17	0.195	53	0.116	28	0.184
손철주	-	-	-	-	-	-	29	0.183
박정천	-	-	-	-	-	-	30	0.180
한광상	-	-	58	0.071	52	0.123	31	0.177
조경철	-	-	-	-	-	-	32	0.176
김경옥	-	-	71	0.037	22	0.194	33	0.175
최영림	36	0.178	13	0.215	24	0.191	34	0.172
김영남	10	0.231	27	0.165	30	0.182	35	0.170
오일정	-	-	-	-	74	0.038	35	0.170
윤정린	77	0.022	49	0.098	26	0.188	35	0.170
최부일	82	0.015	-	-	49	0.129	35	0.170
김국태	7	0.247	28	0.161	25	0.190	39	0.169
오극렬	-	-	32	0.148	30	0.182	40	0.166
로두철	10	0.231	51	0.091	-	-	41	0.149
박봉주	5	0.249	-	-	47	0.139	42	0.017
김일철	2	0.259	25	0.186	-	-	-	-
김중린	9	0.232	22	0.188	-	-	-	-
전병호	12	0.228	26	0.173	40	0.152	-	-

시기별 현지도 네트워크를 보면, 전체 네트워크에서 최고지도자의 위세중심성 수치는 1시기 0.270, 2시기 0.336, 3시기 0.242, 4시기 0.253으로, 4시기 현지도 네트워크 상에서 김정은의 권력 정

I  
II  
III  
IV  
V  
VI

도가 대체적으로 이전 시기 김정일의 권력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인자, 3인자와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1시기에는 2인자 김일철과 3인자 최태복의 위세중심성이 김정일의 위세중심성 대비 95.9%, 94.1% 수준이었고, 2시기에는 2인자 김기남과 김경희의 위세중심성이 김정일의 위세중심성의 95.5%, 87.5%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3시기에는 2인자 장성택과 3인자 박도춘의 위세중심성이 김정일의 98.8%, 96.7%로 증가하였고, 4시기에는 2인자 장성택과 3인자 최룡해의 위세중심성이 김정일의 99.2%, 96.8%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sup>208</sup> 이는 네트워크 집중도 수치를 통해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위세중심성 수치로 판단할 때도 김정일시대, 특히 2시기에 비해 김정은시대에 최고지도자가 권력을 핵심 엘리트들과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시기별로 개별 엘리트가 네트워크에서 부상하거나 하강, 또는 사라진 것은 세대교체의 결과 부상하거나 고령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도태된 경우, 세력교체 또는 권력투쟁의 결과로 권력이 강화되거나 숙청된 경우, 선전선동 담당 부서나 군 총정치국 등 현지 지도 수행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직위로 이동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시기별 주요 엘리트들의 등장과 쇠퇴 경향을 보면, 김정일의 건강 이상이 표면화된 2시기 들어 새롭게 등장하거나 급격히 부상한 인물들은 김경희, 장성택, 리영호, 김정각, 현철해, 리명수, 김양건, 김원홍, 김명국, 주규창, 리재일, 김영일 등이며, 최룡해, 김평해, 박도춘, 윤정린 등도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위세중심성 순위가 급등하였다. 이중 리명수, 현철해, 김명국, 김영

---

<sup>208</sup> 여기서 위세중심성 수치의 비율 자체가 권력의 분점 비율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 등만 3시기 들어 위세중심성이 하락하고 나머지 엘리트들은 순위가 약간 올라가거나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였다.

3시기에는 장성택과 김경희 등 혈족세력이 확고한 위치를 잡았고, 최룡해, 박도춘, 주규창, 김경옥 등이 약진하였으며, 김창섭과 문경덕도 새롭게 나타나면서 위세중심성 순위 20위권 내에 들었다. 김일철 등의 구군부세력을 대신하여 리영호, 윤정린, 김영철 등의 신군부세력이 세를 얻었으며, 오일정, 최부일과 같은 소장파 군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정은정권 초기의 핵심엘리트들은 대부분 3시기 네트워크 상에서 이미 상당한 세력을 형성한 것이다.

4시기는 대체로 3시기에 주요하게 등장한 엘리트들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룡해, 김원홍, 현철해 등이 특히 부상하였고, 김경희는 위세중심성이 떨어졌으며, 김영춘은 3시기 다소 뒤로 밀려났다가 4시기에 다시 순위가 상승하였다. 또한 리병삼, 리병철을 비롯하여 손철주, 박정천, 조경철, 오일정 등이 부상하였다.

높은 위세중심성을 나타낸 주요 엘리트들의 시기별 특징을 요약하자면, 1시기에는 김정일시대의 지배엘리트가 유지되고 있으며, 2시기는 과도기로서, 로열패밀리 등 최측근 세력의 권력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신·구세대 엘리트가 공존하고 있다. 3시기에는 김경희, 장성택 등 로열패밀리가 중심이 된 가운데 리영호 등 신군부세력이 득세하였으며, 4시기는 역시 로열패밀리의 중심성이 유지된 가운데 민간당료 중심의 정치군인과 공안세력이 신군부 중앙전세력을 제압하였다.

높은 위세중심성을 기록한 엘리트들의 시기별 변화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이들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것이다. 김정일과 김정은을 제외한 엘리트 중 위세중심성 순위 30위 정도까지의

I
II
III
IV
V
VI

● 표 IV-11 시기별 위세중심성 상위 인물 평균 연령

시기	평균 연령	비고
1시기	77.1세	총 31명, 2006년 기준
2시기	74.1세	총 30명, 2009년 기준
3시기	73.0세	총 32명 중 연령 미상인 김경옥, 윤정린을 제외한 30명, 2011년 기준
4시기	72.1세	총 30명 중 연령 미상인 리병삼, 리병철, 손철주, 박정천, 한광상을 제외한 25명, 2012년 기준

평균 연령을 각 시기별로 계산해보면 <표 IV-11>과 같다.

<표 IV-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시기별로 높은 위세중심성을 가진 인물 30여 명의 평균 연령은 1시기 77.1세, 2시기 74.1세, 3시기 73.0세, 4시기 72.1세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sup>209</sup> 연령 미상인 인물 중 4시기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인물임을 감안하면, 4시기에 현지지도를 수행한 주요 엘리트 30명의 평균 연령은 실제로는 70세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김정일시대와 비교해볼 때 5세 이상 낮아진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김정은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특히 군부를 중심으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높은 위세중심성을 기록한 엘리트들의 시기별 변화에 나타난 또한 가지 특징은 당, 군, 국가기구 소속별 엘리트의 평균 위세중심성 정도가 시기별로 약간씩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소속별로 위세중심성 상위 10위까지 엘리트들의 위세중심성 평균은 다음 <표 IV-12>

<sup>209</sup> 위세중심성 순위 30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동점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 시기별 전체 인원수가 다르다.

● 표Ⅳ-12 소속별 위세중심성 상위 10위 인물의 평균 위세중심성

소속 시기	당	군		국가기구	
	위세중심성	위세중심성	당소속 위세중심성 대비 비율 (%)	위세중심성	당소속 위세중심성 대비 비율 (%)
1시기	0.2272	0.2130	93.75	0.1755	77.25
2시기	0.2389	0.2183	91.38	0.1330	55.67
3시기	0.2264	0.2012	88.87	0.1413	62.41
4시기	0.2321	0.2209	95.17	0.1610	69.37

와 같다.

전반적으로는 모든 시기에 당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군이나 국가기구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국가기구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기별로 소속별 위세중심성 비율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당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상대적으로 큰 시기는 2시기와 3시기이며, 군이나 국가기구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시기는 1시기와 4시기이다. 이는 김정일의 건강 이상이 가시화된 직후인 2시기와 김정은체제 구축을 위한 과도기인 3시기에 당 소속 인물들의 역할이 다른 시기에 비해 중요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2시기에는 당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 대비 국가기구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시기에는 당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 대비 군 소속 위세중심성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시기에는 당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 대비 군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각 시기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현지지

I  
II  
III  
IV  
V  
VI

도에 참가한 군 소속 인물의 수도 가장 많아, 김정은체제 초기에 군 관련 현지도 활성화를 통한 군 계통의 장악이 중요한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 V. 신진 권력엘리트



세습한 김정은정권이 김정일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정당화하여 굳건하게 안착하려면 크게 두 가지, 즉 ‘승계의 정당화’와 ‘권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승계의 정당화’는 김정은이 단순히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뛰어난 영도자임을 인민이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권력의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에게 충성심을 가진 새로운 권력엘리트들을 요직에 배치시켜 이들로 하여금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김정은은 자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요 권력기관을 장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김정은정권이 공식 출범한 뒤 새롭게 떠오르는 신진 권력엘리트들이 있는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김정일정권 말기의 권력엘리트들을 살펴보았다.

## 1. 김정일정권의 권력엘리트

2011년 12월 28일, 갑자기 사망한 김정일의 영결식이 열렸고 이를 뒤에는 당 정치국이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다고 발표했다. 선군정치에서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김정일정권의 종언과 김정은정권의 개막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2012년 이전은 김정일정권, 이후는 김정은정권이 되는 셈이다.

후계자 김정은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로부터 1년 남짓 거슬러 올라가는 2010년 9월 28일에 개최된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였다. 제3차 당 대표자회는 김정은이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권력 상층부에서만 알고 추진해 오던 후계체제 구축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이었다.

I

II

III

IV

V

VI

이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단행된 인사와 조직정비는 앞으로 진행될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었는데 인사포석은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2008년 8월에 쓰러진 김정일이 다시 집무를 시작한 것은 10월경부터이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한 것은 2009년 1월이라고 한다. 그 이후부터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인사조치가 있었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국방위원회의 개편이었다.

2009년 4월 9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는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인원을 보강했다. 그 이전의 국방위원회는 김정일과 조명록 제1부위원장, 김영춘, 리용무, 오극렬 부위원장, 전병호, 김일철, 백세봉 위원의 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장성택, 주상성, 우동측, 주규창, 김정각이 추가되어 13명으로 늘어났다. 김정일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가의 최고권력기구로 강화되고 국방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국방위원회의 위원이 된 것은 최고위 권력엘리트가 된 것을 의미하지만 이 인사 가운데 의외의 인물은 보이지 않았다.

체제보위와 사회 내 기강확립의 제일선을 담당하는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인 장성택과 주상성, 우동측이 국방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인 주규창과 군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의 진입은 노환으로 시달리는 군수공업 담당 비서 전병호와 외병중인 총정치국장 조명록의 사망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다만 17년만에 상장으로 승진하여 국방위원이 되고 1년만인 2010년 4월 다시 대장으로 진급한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우동측이 급부상하는 인물로 주목을 끌었을 뿐이었다.<sup>210</sup>

---

<sup>210</sup> 이 무렵 김정일이 자신은 군을 중심으로 한 선군정치를 해 왔지만 아들 김정은은 보위부를 중심으로 정보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연합』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개되는 2010년에는 보다 많은 인사조치가 있었다. 당에서는 계획재정부, 재정경리부, 39호실장이 교체되었고 그동안 비워있던 국제부장에 김영일이 임명되었으며 무역상 출신인 리광근이 통일전선부 부부장으로 발탁되었다. 또한 6월에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시켰다. 내각 쪽에서도 대폭 인사가 있었는데 우선 총리 김영일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최영림 평양시 당 책임비서를 앉혔다. 또한 부총리였던 곽범기, 오수룡, 박명선을 물러나게 하고 대신 당의 영화부장 강능수와 황해남도 당 책임비서 김락희,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 리태남,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전하철을 새로 부총리에 임명했다. 동시에 조병주 기계공업상과 한광복 전자공업상도 부총리에 임명하고 로두철, 박수길 2명을 유임시킴으로써 부총리가 5명에서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이외에 경공업상에 리주오 대신 안정수, 식료일용공업상에 정연과 대신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성 국장, 체육상에 박학선 대신 박명철 국방위원회 참사가 임명되었다.

김일성의 책임서기 출신인 최영림, 전하철을 총리와 부총리에 임명한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았던 김일성시대에 대한 기대를 자아내고 후에 공개하는 김정은이 김일성의 재림을 연상하게 하도록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김일성 생일을 하루 앞둔 4월 14일에는 모두 100명의 장성을 승진시켰는데, 이는 1997년의 129명 승진 이래 최대 규모의 승진이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가 개최되었다. 그 결과 1993년 이후 유명무실했던 당 중앙위원회가 정

---

뉴스』, 2010년 4월 20일. 또한 김정은이 2009년 3월경부터 보위부의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자유아시아방송』, 2009년 12월 31일.

I
II
III
IV
V
VI

상화되고 그동안 결원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자리에 인원이 보충되었다. 후계체제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그 체제의 일익을 담당할 지도부가 구성된 것이다. 제3차 당 대표자회라는 형식을 거쳐 인선된 결과는 권력엘리트의 부침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목할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당 중앙위 위원 구성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당 중앙위 위원으로 124명이 선출되었는데 당연직 성격이 강했다. 당 부부장 이상, 내각의 상·부상, 최고인민회의 주요 간부, 상장 이상의 군 지휘관 등 일정한 직위 이상의 인물 가운데 당 중앙위 위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의에서도 그 성격이 유지되었다. 세대교체가 요구된다고 해서 당 중앙위원회에 2, 30대가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차 당 대표자회의 인사에서도 김정일이 1997년 총비서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중용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중앙위 위원이 되었다.

둘째,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의 부상이다. 김경희는 당 대표자회가 열리기 하루 전 김정은, 김경옥, 최룡해와 함께 대장으로 임명되었고 당 대표자회에서 당 정치국원으로 발탁되었다. 김경희는 병약해진 김정일이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해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그의 의도를 충실히 따를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피붙이였다. 김정은은 김경희를 당 정치국원에 임명하여 당에서의 일정한 영향력을, 인민군 대장에 임명함으로써 군대 내에 일정한 발언권을 가지도록 조치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에도 남편 장성택을 배치하여 군에 대한 친족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견제를 하도록 했다.

셋째, 비서로서 지방근무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최룡해, 문경덕,

박도춘, 김평해, 태종수, 홍석형 등이 임명된 것이다. 비서국이 중요한 정책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국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결원이 충원되지 않았는데 제3차 당 대표자회 결과, 이전의 비서진에 비해 비교적 젊은 11명으로 채워졌다. 특히 문경덕, 박도춘, 김평해, 태종수는 중앙 정치무대로 복귀했다.

넷째, 대체로 군부 인사의 약진이 없었다는 점이다. 리영호 총참모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이든 최상층 군 인사들이 예우차원에서 현직을 유지하는 선에 그쳤다. 오히려 김경희, 최룡해, 김경옥이 대장으로 임명되고 중앙군사위원회에도 일부 민간인이 진입했다. 선군정치 아래 많은 이권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오던 군부를 당 기능회복을 통해 견제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군부 내에서는 오극렬, 김영춘으로 대표되던 구군부에 비해 리영호, 김영철 총정찰국장으로 대표되는 신군부가 부상했다. 중앙군사위원회도 신군부에 속하는 인물들이 배치되었다. 오극렬은 장기간 작전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외화벌이 사업을 확장해 왔으나, 리영호와 김영철은 상업활동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야전군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성장해온 사람들이었다.<sup>211</sup>

다섯째, 공안기관 책임자 가운데 우동측의 부상이다. 공안기관을 담당하는 당의 행정부장은 장성택이나 그는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렀다. 반면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인 우동측은 2009년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보위부 인사로서는 최초로 국방위원이 된 이후 2010년 4월에 대장으로 승진했고,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

<sup>211</sup> 박형중, “당대표자회와 과도적 권력체계의 출범,”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010-38, 2010.10.11).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중앙군사위원회에 선출되었다. 이후 김정일이 보위부의 실세로 불리던 류경을 숙청한 후 체제보위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공안통치의 중책을 그에게 맡기고자 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구축된 권력엘리트 구조의 핵심은 원로들을 예우하면서도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후견그룹의 구성이었다. 김정일은 자신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권력엘리트를 구성하여 후계체제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다. 또한 당의 정치국원, 중앙군사위원, 비서국 비서와 부장, 국방위원회 위원 등을 겸직하게 하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는 동시에 당·군·정의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배치했다. 특히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국방위원회 위원 가운데 6명이 동일 인물이었다.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정권에서 주요 권력엘리트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당 대표자회 이후 김정일이 중국군의 6.25참전 60주년 기념일 다음날인 10월 26일, 김정은과 함께 중국군 열사묘에 참배했을 때 동행한 인물의 면면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날 참배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영호 군총참모장을 비롯, 정치국 위원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당 비서 김기남·최태복·홍석형, 당 부장 김경희,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김정각·김영일·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주규창·우동측이 동행했다. 또 당 중앙군사위 위원인 김명국·김경옥·김원홍·정명도·리병철·김영철·윤정린도 수행했다. 후계체제 착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중국을 의식하여 김정일은 주요 직책에 새롭게 임명된 권력엘리트를 모두 대동한 것이다.

● 표 V-1 제3차 당 대표자회 전후 당의 고위직 변화

	당 대표자회 직전	당 대표자회 결정	비고
상무위원	(1명) 김정일	(5명) 김정일, 김영남, 최영림, 조명록, 리영호	-
중앙위 비서	(5명) 총비서: 김정일 비 서: 김기남, 전병호, 최태복, 김국태	(11명) 총비서: 김정일 비 서: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문경덕, 박도춘,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태종수, 홍석형	*전병호, 김국태 탈락
정치국 위원	(4명) 김정일, 김영주, 김영남, 전병호	(17명) 김정일, 김영남, 최영림, 조명록, 리영호,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변영림, 리용무, 주상성, 홍석형, 김경희	*김영주 탈락
중앙군사 위원회	(6명) 위원장: 김정일 위 원: 리을설, 리하일, 조명록, 김영춘, 김명국	(19명) 위 원 장: 김정일 부위원장: 김정은, 리영호 위 원: 김영춘, 김정각, 김명국, 김경옥, 김원홍, 정명도,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주규창, 최상려, 최경성, 우동춘, 최룡해, 장성택	*부위원장 신설 *리을설, 리하일, 조명록 탈락
정치국 후보위원	(5명)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홍석형	(15명)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장성택, 주규창, 리태남, 김락희, 태종수, 김평해, 우동춘, 김정각, 박정순, 김창섭, 문경덕	*최영림 후보 위원에서 상무 위원으로 승격 *최태복, 양형섭, 홍석형 위원 승격 *김철만 탈락
중앙위 부장	(11명) 최익규, 김국태, 김영일, 김양건, 전병호, 최희정, 리영수, 채희정, 김정임, 장성택, 김경희	(14명) 김기남, 장성택, 김영일, 김평해, 리영수, 주규창, 홍석형, 김경희, 최희정, 오일정, 김양건, 김정임, 채희정, 태종수	*최익규, 김국태, 전병호 탈락

I  
II  
III  
IV  
V  
VI

● 표 V-2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성명	직책	성명	직책
김정일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부위원장	-	-
-	-	조명록	제1부위원장
리영호	부위원장	-	-
김영춘	위원	김영춘	부위원장
-	-	리용무	부위원장
-	-	오극렬	부위원장
장성택	위원	장성택	부위원장
김정각	위원	김정각	위원
김명국	위원	-	-
김경옥	위원	-	-
김원홍	위원	-	-
장영도	위원	-	-
리병철	위원	-	-
최부일	위원	-	-
김영철	위원	-	-
윤정린	위원	-	-
주규창	위원	주규창	위원
최상려	위원	-	-
최경성	위원	-	-
우동측	위원	우동측	위원
최룡해	위원	-	-

## 2. 김정은정권의 권력엘리트

선대의 김정일정권에서와는 달리 김정은정권에 들어와 새롭게 부상하는 인물이 과연 있을까? 이 점에서 김정일이 사망한 후 2012년 4월 11일에 열린 제4차 당 대표자회와 4월 13일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의 결과로 발표될 인사가 주목을 끌었다. 이전의 인사가 김정일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면 제4차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인사에는 김정은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제4차 당 대표자회 결과 나타난 인물들의 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젊은 최룡해가 직책상 제2인자로 해도 좋을만큼 급부상했다. 그는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 군 총정치국장에 선임되어 당·정·군에 걸쳐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도 그는 4월 15일에 열린 태양절 기념 열병식의 주석단에서 리영호 군총참모장을 제치고 김정은의 맨 오른쪽에 섰다. 또한 7월 18일에 열린 김정은 원수 칭호 수여 축하 군 장병 결의대회에서도 현영철 신임 군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에 앞서 보고자로 나섰다. 김정은정권의 착근이라는 중책을 맡게된 것으로 보이는 최룡해는 주위 사람들의 신망이 두텁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한다.<sup>212</sup> 그가 장성택의 측근이며 그의 부상에는 장성택이 일조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많으나 그와 장성택의 사이가 좋지 않아 그를 장성택의 측근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sup>213</sup>

<sup>212</sup>. 탈북 고위관리 000의 증언, 2012년 3월 16일.

<sup>213</sup>. 탈북 고위관리 000의 증언, 2012년 7월 12일.

● 표 V-3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 결정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 결정
김정일	김정은(신임)
김영남	김영남
최영림	최영림
조명록(2010.11.6 사망)	최룡해(신임)
리영호	리영호(2012.7.15 해임)

둘째, 군 보위사령관 출신이자 그동안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으로 일했던 김원홍이 국가안전보위부장, 당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되었다. 국방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성격이 강하나 정치국에는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위원으로 진입했다. 체제보위의 제일선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 김원홍을 발탁한 것은 군부 인사가 아닌 최룡해를 군 총정치국장에 임명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군에 대한 통제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와병중이었던 조명록을 대신하여 그동안 총정치국장 업무를 대행해오던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2012년 4월 7일 차수로 승진하여 인민무력부장에 취임했다. 군대의 당 정치사업에 밝은 김정각이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된 것도 군 통제 업무에 종사하던 인사들이 약진한 것이지만 인민무력부장이 군대 내 행정사업을 총괄하고 상징성이 클 뿐, 실질적 권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우적 성격이 짙은 인사이다. 그는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위원으로 승진했는데, 이것도 인민무력부장이라는 직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장성택 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장과 박도춘 당



군수담당 비서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위원으로 승진했다. 장성택이 정치국 위원이 된 것은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며 박도춘의 승진은 노환에 시달려 사실상 업무를 볼 수 없는 전병호 정치국 위원을 대신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 표 V-4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 결정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 결정
1	김정일	김정은(신임)
2	김영남	김영남
3	최영림	최영림
4	조명록(2010.11.6 사망)	최룡해(신임)
5	리영호	리영호(2012.7.15 해임)
6	김영춘	김영춘
7	전병호	전병호
8	김국태	김국태
9	김기남	김기남
10	최태복	최태복
11	양형섭	양형섭
12	강석주	강석주
13	변영립	변영립
14	리용무	리용무
15	주상성	김경희
16	홍석형	김정각(신임)
17	김경희	장성택(신임)
18	-	박도춘(신임)
19	-	현철해(신임)
20	-	김원홍(신임)
21	-	리명수(신임)

I  
II  
III  
IV  
V  
VI

다섯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당 비서로 이동하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 현철해와 인민보안부장 리명수가 새로 정치국 위원에 선임되었으며 리명수는 국방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출되었다. 또한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예상밖으로 정치국에 진입하지 못했던 오극렬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구군부’의 대표적 인물인 이 네 사람의 인사는 예우 차원의 것으로 짐작되고 김영춘의 당 비서 발탁은 당 군사부의 부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내각 부총리 광범기,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로두철,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후보위원으로서 정치국에 진입했다. 이는 경험을 고려하여 여러 분야의 인사들을 고루 발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광범기와 로두철의 경우는 경제부문의 중요성을 의식한 것으로, 리병삼과 조연준의 경우는 세대교체 흐름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조연준은 2011년 1월 22일 사망한 조직지도부 전당부문의 박정순 제1부부장의 후속인사인 듯하다.

일곱째, 경제전문가 광범기가 정치국 후보위원이 됨과 동시에 당 비서국 비서와 당 부장에도 임명되었고, 당 경공업부장 김경희가 비서로, 박봉주 전 총리가 당 부장으로 선임되었다. 광범기는 홍석형 당 비서 겸 계획재정부장의 해임으로 공석이었던 자리를 맡게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의지가 비서국의 비서와 당 부장 선임에 강하게 반영된 때문으로 생각된다.<sup>214</sup> 인민 경제부문은 내각의 최영림 총리와 당의 김경희 지휘 아래 광범기,

---

<sup>214</sup> 김경희는 경제부문 담당 비서로 선임된 것 같으나 조카를 보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직담당 비서를 맡았을 가능성도 있다.

로두철, 박봉주 트로이카체제가 구축된 것이다.<sup>215</sup>

● 표 V-5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 결정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 결정
1	김양건	김양건
2	김영일	김영일
3	박도춘	주규창
4	최룡해	김락희
5	장성택	태종수
6	주규창	김평해
7	리태남	우동측
8	김락희	김창섭
9	태종수	문경덕
10	김평해	리태남
11	우동측	곽범기(신임)
12	김정각	오극렬(신임)
13	박정순(2011.1.22 사망)	로두철(신임)
14	김창섭	리병삼(신임)
15	문경덕	조연준(신임)

● 표 V-6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 결정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 결정
1	김정일(총비서)	김정은(제1비서)
2	김기남(선전)	김기남(선전)
3	최태복(과학교육)	최태복(과학교육)

<sup>215</sup> 유영구, “과거계승성-미래지향성과 지도부의 ‘부분 연경화,’” 『민족 21』, 2012년 5월호.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 결정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 결정
4	최룡해(근로단체)	최룡해(군조직?)
5	문경덕(평양개발?)	문경덕(평양개발?)
6	박도춘(군수)	박도춘(군수)
7	김영일(국제)	김영일(국제)
8	김양건(대남)	김양건(대남)
9	김평해(간부)	김평해(간부)
10	태종수(총무)	태종수(총무)
11	홍석형(경제)	김경희(신임, 경제)
12	-	곽범기(신임, 경제)

● 표 V-7 당 중앙위원회 부장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 결정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 결정
1	김기남(선전선동부장)	김기남(선전선동부장)
2	장성택(행정부장)	장성택(행정부장)
3	김영일(국제부장)	김영일(국제부장)
4	김평해(간부부장)	김평해(간부부장)
5	리영수(근로단체부장)	리영수(근로단체부장)
6	주규창(기계공업부장)	주규창(기계공업부장)
7	홍석형(계획재정부장)	곽범기(신임, 계획재정부장)
8	김경희(경공업부장)	박봉주(신임, 경공업부장)
9	최희정(과학교육부장)	최희정(과학교육부장)
10	오일정(민방위부장)	오일정(민방위부장)
11	김양건(통일선선부장)	김양건(통일선선부장)
12	김정임(력사연구소장)	김정임(력사연구소장)
13	채희정(문서정리실장)	채희정(문서정리실장)
14	태종수(총무부장)	태종수(총무부장)
15	-	김영춘(신임, 군사부장?)
비고	*조직지도부, 38호실, 39호실, 신소실, 영화부의 부장 미발표	-

여덟째,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핵심적 기관으로 부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의 보선에서는 당연직 인사의 성격이

표 V-8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 결정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 결정
1	김정일(위원장)	김정은(신임, 위원장)
2	김정은(부위원장)	최룡해(신임, 부위원장, 총정치국장)
3	리영호(부위원장, 총참모장)	리영호(부위원장, 총참모장, 2012.7.15 해임)
4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영춘(당 군사부장?)
5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인민무력부장)
6	김명국(총참모부 작전국장)	김명국(총참모부 작전국장)
7	김경옥(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8	김원홍(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9	정명도(해군사령관)	정명도(해군사령관)
10	리병철(공군사령관)	리병철(공군사령관)
11	최부일(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최부일(총참모부 부총참모장)
12	김영철(정찰총국장)	김영철(정찰총국장)
13	윤정린(호위사령관)	윤정린(호위사령관)
14	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	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
15	최상려(미사일지도국장?)	최상려(미사일지도국장?)
16	최경성(11군단장?)	최경성(11군단장?)
17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18	최룡해(당 비서, 대장)	장성택(당 행정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19	장성택(당 행정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현철해(신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
20	-	리명수(신임, 인민보안부장)
21	-	김락겸(신임, 보직 불분명)
비고	-	*탈락자 없이 현철해, 리명수, 김락겸의 3명만 추가 *현영철 신임 총참모장이 부위원장에 임명

I  
II  
III  
IV  
V  
VI

강하다. 당 제1비서 김정은이 위원장에 추대되고,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 현철해와 인민보안부장 리명수가 새로 당 중앙군사위원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자신의 업무 활동에 따른 것이다.

아홉째, 권력지도에서 사라진 인물은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으로 재직하던 우동측이다. 그는 2011년 말에 거행된 김정일의 영구차 호위를 맡은 8인중의 한 사람으로서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김정일 사망 100일째인 2012년 3월 25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마지막으로 각종 정치행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4월 13일 국방위원회 위원에서도 탈락한 것이

● 표 V-9 국방위원회 구성원 변화

직위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5차회의 직전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5차회의 결정
위원장	김정일	김정일(영원한 위원장)
제1위원장	-	김정은(신임)
부위원장	리용무 차수 김영춘 차수 오극렬 대장 장성택 대장(당 행정부장)	김영춘 차수(당 군사부장?) 리용무 차수 장성택 대장(당 행정부장) 오극렬 차수
위원	김정각 차수(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대장(국가안전보위부 1부부장) 박도춘 당 비서(군수) 백세봉 상장(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주규창 상장(당 기계공업부장)	박도춘 당 비서(군수) 김정각 차수(인민무력부장) 주규창 상장(당 기계공업부장) 백세봉 상장(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차수(신임, 총정치국장) 김원홍 대장(신임,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대장(신임, 인민보안부장)
비고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해임 이후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임명 (2011.4)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1부부장 탈락

북한의 보도로 밝혀졌다. 그가 사라진 데 대해 속칭설도 있으나 연합뉴스는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보도했다.<sup>216</sup>

한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 결과 발표된 인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사항은 국방위원회 보선이었다.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최룡해, 김원홍, 리명수가 선출되었는데, 4월 14일의 조선중앙통신은 이것이 “김정은 동지의 제의에 의한 것”이라고 특별히 밝히기도 했다. 최룡해가 군 총정치국장, 김원홍이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가 인민보안부장임을 감안하면 이 인사는 직능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존 위원들 가운데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우동측만이 국방위원에서 ‘소환’되었는데, 이는 김원홍 부장의 보선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외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인사에서는 태형철이 변영립을 대신해 서기장에 선출되었다. 변영립은 교육·과학분야의 전문기술관료로서 2009년 7월에 취임했으나 80대 중반의 고령 때문에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신임 서기장 태형철(1953년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사회과학계·이론계의 리더(사회과학원 원장)이다. 그는 선군경제노선의 이론적 체계화에 관여한 인물로 추정되고 내각과 제2경제위원회의 경제개선조치들과 관련해 입법부 차원에서 실무적 지원체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의 서기장 임명은 지도부의 전반적인 연경화(年輕化)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sup>217</sup>

한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 부총리도 새로 임명했다. 리승호, 리철만, 김인식 3명이 임명되었는데 모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

216. 『연합뉴스』, 2012년 4월 29일.

217. 유영구, “과거계승성-미래지향성과 지도부의 ‘부분 연경화.’”

I
II
III
IV
V
VI

● 표 V-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원 변화

직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 직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 결정
위원장	김영남	김영남
부위원장	양형섭 김영대(사회민주당 위원장)	양형섭 김영대(사회민주당 위원장)
명예 부위원장	김영주	김영주
서기장	변영립	태형철(신임)
위원	류미영(조선천도교청우당 위원장) 강영섭(조선그리스도연맹 위원장) 심상진(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홍석형* 김양건(당 비서, 통일전선부장) 리용철(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 현상주(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 리명길(조선농업근로자동맹 위원장) 로성실(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 태형철(사회과학원 원장)	류미영(조선천도교청우당 위원장) 강영섭(조선그리스도연맹 위원장) 심상진(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김양건(당 비서, 통일전선부 부장) 전용남(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 현상주(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 리명길(조선농업근로자동맹 위원장) 로성실(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
비고	*홍석형 전 당 비서 겸 계획재정 부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탈락한 것으로 추정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는 리용철에서 전용남으로 교체 (2012.3.22)

이다. 리승호는 김정일이 2009년 10월 평양의 만수대거리에 새로 완성된 주택들을 시찰할 때, 그리고 2010년 11월 평양시 해방산 기슭에 새로 건설된 주택들과 개건된 평양무용대학 현지시찰 시 영접했던 것으로 보아<sup>218</sup> 수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해 왔던 인물로 보인다. 리철만은 2010년 6월 김정일이 평안북도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했을 때 영접한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출신이

218. 『조선중앙통신』, 2009년 10월 20일, 2010년 11월 25일.



다.<sup>219</sup> 이 두 사람에 비해 김인식의 경력은 잘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그는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고, 2010년 11월 조명록 장의위원회 위원, 2011년 12월 김정일 장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부총리로 임명되면서 수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리승호의 후임인 듯하다.

내각 인사와 관련하여 2012년 들어 내각의 위원장, 상들이 여러 명 교체되었다. 내각 교육위원장은 김용진에서 김승두 전 리과대

● 표 V-11 내각 구성원 변화

직위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5차회의 직전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5차회의 결정
총리	최영림	최영림
부총리	로두철(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겸직) 박수길(재정상 겸직) 강능수 김락희 리태남 전하철 조병주(기계공업상 겸직) 한광복(전자공업상 겸직) 강석주 김용진(전 교육위원회 위원장)	로두철(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겸직) 박수길(?) 강능수 김락희 리태남 전하철 조병주(?) 한광복(전자공업상 겸직) 강석주 김용진(전 교육위원회 위원장) 리승호(신임, 전 수도건설위원회 위원장?) 리철만(신임, 전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김인식(신임, 수도건설위원장 겸직)
비고	*내각 재정상의 교체에 따른 박수길의 부총리 유지여부 미확인 *내각 기계공업상의 교체에 따른 조병주의 부총리 유지여부 미확인 *김용진의 부총리 승진	-

219. 『조선중앙통신』, 2010년 6월 20일.

학 학장으로 교체되었고, 재정상은 박수길에서 최광진 전 재정성 부상으로 바뀌었다. 조선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은 리수용에서 리광근 전 무역상으로 교체되었으며 내각 기계공업상에도 조병주 대신 리종국 전 금속기계공업성 전기기계공업관리국장이 임명되었다. 또한 금속공업상은 김태봉에서 전승훈 전 부총리로 교체되었다. 내각 장관급 인사들의 교체가 활발한 것은 젊은 전문기술관료의 부상을 뜻하며 경제관리개선의 필요성에 따른 전문성과 능력이 고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령관’으로 일컬어지는 최영림 내각 총리가 고령이기 때문에 그 밑에 부총리와 위원장, 상들의 연경화가 더욱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sup>220</sup>

결론적으로 제4차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의 결과로 발표된 당 중앙지도기관의 보선은 2010년 9월 28일의 제3차 당 대표자회 때의 인선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는 김정은이 아버지가 해 놓은 권력엘리트 구성을 당분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김정은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과거계승성을 반증한 것이다.<sup>221</sup>

<sup>220</sup> 유영구,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 결산,” <<http://blog.daum.net/chamjisa/3075>> (검색일: 2012.4.14).

<sup>221</sup> 제4차 당 대표자회에는 1,649명의 대표 전원이 참가했다고 한다. 제3차 대표자회에는 대표 1,657명 중 1,653명이 참가했다. 제4차 대표자회 대표자 구성은 당 일군 대표가 643명으로서 39%, 군인 대표가 471명으로서 28.5%, 국가행정경제 일군 대표가 353명으로서 21.4%, 과학·교육·보건·문화예술·출판보도부문 일군 대표가 67명으로서 4.1%,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 대표가 115명으로서 7%였고, 여성대표는 150명으로서 9%였다고 한다. 제3차 당 대표자회의 경우는 당 일군 대표가 672명으로 40.6%, 군인대표가 451명으로 27.2%, 국가행정경제 일군 대표가 343명으로 20.7%, 과학·교육·보건·문화예술·출판보도부문 일군 대표가 75명으로 4.5%, 현장 일군이 116명으로 7%였고, 여성대표도 149명이었다고 한다. 『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 이를 보면 제3차, 4차의 대표자 구성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3. 세대교체와 신진 권력엘리트의 주류

북한은 2006년 10월 15일자 로동신문 정론 “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에서 김일성이 혁명 개척세대인 1, 2세대의 대표자라면 김정일은 혁명의 계승 세대인 3, 4세의 대표자라고 했다. 3, 4세대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전화의 불길속에서 그리고 전후의 잿더미속에서 태어났거나 그때 책보를 끼고 다니던 세대들”로서 40~50년 대생이며 이들이 ‘혁명의 주력’이라고 선전했다.<sup>222</sup>

따라서 김정은정권의 확립과정은 혁명 5세대와 6세대인 ‘새세대’의 등장과 더불어 진행될 것이고 김정일 세대 혁명 3, 4세 엘리트들이 후견인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각 분야별로 세대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대교체는 2009년부터 중앙당 조직지도부 내부에서 먼저 시작되어 2011년 10월경에 일단 마무리되었다. 중앙당 검열을 통해 부서에 따라 많게는 70~80%까지 교체되었으므로 전면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223</sup> 중앙당 간부의 말을 인용하면 검열을 통한 세대교체의 목적은 “당과 령도자에 충성하는 순결한 대오로 만들겠다”는 것이다.<sup>224</sup>

222. 주종경, “정론: 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 『로동신문』, 2006년 10월 15일. 이 정론에서 북한은 통상 김정일을 혁명 2세대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를 3, 4세의 대표자로 새로 자리매김했다. 6개월 전에 게재(『로동신문』, 2006.2.28)된 전성호의 “정론: 혁명의 3세, 4세,”에서는 3, 4세가 미래의 주역으로 표현되었는데 그것이 바뀐 것이다. 혁명 3, 4세가 새로운 젊은 세대가 아니라 지금의 선군혁명의 중책을 짊어진 세대라는 주장은 『로동신문』, 2007년 3월 19일자에 실린 박영민의 “정론: 혁명은 대를 이어”에서도 계속된다. 그러나 혁명세대 구분에 관해 북한 스스로의 구분과 우리 연구자들의 구분에 차이가 있고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앞의 북한문헌에 따라 혁명세대를 구분하며 이 점에서 본 연구서 III장에서의 세대구분과도 다르다.

223. 『좋은 벗들』, 422호 (2011.9.28), 434호 (2011.12.22).

당 중앙위원회는 2010년 5월 18일 각급 당 조직들이 젊고 능력 있는 간부들을 대거 천거하고 등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시, 도, 군 지방 당 조직부 간부인사에 2, 30대 간부들이 대거 추천되어 지방 조직들의 수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특히 당 간부에는 군관출신들이 중용되었다. 예를 들면 2009년 김정일이 두 차례나 현지 시찰한 특급기업소인 남흥연합기업소의 경우 조직 비서로 30대의 젊은 군관 출신 간부가 중용되었고 기사장도 40대 초반이라고 한다.<sup>225</sup> 시·군 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서에도 젊은층 간부들이 대거 배치되었다. 평안도의 경우 “보위부의 한 부서에 20대 후반~30대 초반이 2~3명 정도, 보안서에서는 10명 중 5~6명이 30대”라고 하며 양강도의 보위부와 검찰소, 보안서의 경우도 “30대 초반 아니면 중반 사람들로 거의 배치”되어 “30대 초·중반이 시·군 보위부 부부장까지 하고 있는 곳도 늘고 있다”고 한다.<sup>226</sup>

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체제유지의 핵심세력인 군부 엘리트들에 대한 장악이 김정은정권의 착근과 안착에서 사활적인 요인임을 감안하면 정권을 보위하고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신진 군부 인사들을 대거 발탁, 권력 핵심부에 배치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정일은 2010년 4월 대장 4명을 포함한 군 장성 100명을 대거 승진시킨 데 이어 당 대표자회 전날에도 김정은, 김경희 등 6명에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했고, 상장 1명, 중장 6명, 소장 27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2011년 4월 김일성 탄생일을 이틀 앞두고서도 상장 2명, 중장 5명, 소장 38명을 승진시켰다. 상장으로

224. 『좋은 벗들』, 421호 (2011.9.21).

225. 『열린북한방송』, 2010년 7월 12일.

226. 『데일리NK』, 2011년 6월 20일.

진급한 오일정과 황병서는 중장으로 진급한지 6개월 만에 별 하나를 더 달았다. 1년 사이에 185명이 계급장에 별을 추가한 것인데 신진 군부 그룹들을 부상시켜 김정은의 군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 자신도 2012년 2월 14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장성급 23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김정각에게 ‘차수’ 칭호를 부여했고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박도춘 당 비서를 대장으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과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 김송철 중장을 상장으로, 김명식 동해함대사령관 등 18명을 중장으로 승진시켰다.

데일리NK는 북한 당국이 “2008년 말부터 후계 구축을 위해 군부 고위 간부들의 2세대 중 충성심이 높은 신진 엘리트들을 조직적으로 선발해 왔다”며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성택, 리영호 등이 신진 군부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으며, 중용된 이들은 향후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sup>227</sup> 이와 관련하여 자유아시아방송도 “요즘 기본 전투단위의 군관들이 젊은 사람들로 교체되고 있다”면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30대 중반에 벌써 대대장으로 진급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sup>228</sup>

한편 세대교체로 새로 임명되고 부상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2세대이고 또 한 부류는 이른바 ‘아미산줄기’라는 보안계통 인사들이다.<sup>229</sup>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개된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새로 선임된

227. 『데일리NK』, 2011년 5월 10일.

228.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5월 10일.

229. 『좋은 벗들』, 422호 (2011.9.28);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2011년 2월 1일, 10월 2일.

당 비서·부장 중에는 전직 고위간부 아들이나 사위 등이 많다. 급 부상한 최룡해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동료이자 전 인민무력부장 최현의 아들이고 당 국제비서 김영일과 총무비서 태종수는 각각 전 국가검열위원장 전문섭과 전 부수상 정일룡의 사위이며, 50대의 젊은 나이에 당 부장으로 승진한 오일정은 전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의 아들이다. 또한 내각을 보면 전 외무상 백남순의 아들 백룡천이 중앙은행 총재, 인민보안부장 리명수의 조카인 리용남이 무역상으로서 당 중앙위원이 되었다.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도 전 부수상 정일룡의 사위이며 부상 리용호는 전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리명제의 아들로서 부상급으로는 드물게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기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항일빨치산 출신으로 국방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오백룡의 아들인 오금철 부총참모장과 오철산 해군사령부 정치위원이 각각 위원과 후보위원으로서 당 중앙위원회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당 중앙위원회의 19개 전문부서의 부부장과 내각의 부상 등 각 분야의 실무 책임자 층에도 전·현직 고위층 자녀들이 대거 등용되고 있다. 당의 최고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의 부부장 최취는 전 건설상 최재하의 아들로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청년동맹 비서를 거쳐 현재 조직지도부 당 생활지도담당 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당 국제부에는 빨치산 출신인 김책의 아들로서 당 중앙검열위원장으로 재직중인 김국태의 딸 김문경과 군 차수 리하일의 사위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대사 출신인 박근광이 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문경의 남편 이흥식은 외무성 국장이다. 통일전선부에도 전 김정일 주치의 리영구의 아들로 무역상을 역임한 리광근이 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리철 합영투자위원회 위

원장의 후임으로 외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각의 경우도 고위층 2세 여러 명이 부상으로 재직 중이다. 무역성 부상 오룡철의 아버지는 전 만경대혁명학원장 오재원이고, 부상 리명산의 장인은 김일성의 동생인 전 부주석 김영주이며, 부상 최연의 아버지는 전 건설상 최재하이다. 최재하의 두 아들이 모두 당과 내각에서 핵심 실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상업성 부상인 리성호의 장인은 전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이고, 체신성 부상 심철호는 전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심창완의 아들이다. 허담 전 당 비서의 아들인 허철은 최근 외무성 당 비서에 발탁되었다. 내각 총리 최영림의 딸 최선희는 외무성 부국장이고 당 재정경리부 부부장 김효의 아들인 김균은 김일성종합대학 1부총장이다. 전 제2경제위원장 김철만의 아들 김태히는 김일성종합대학 당 책임비서이다. 리화영 전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장남인 리용철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1비서로 재직하다 최근 교체되었다.<sup>230</sup> 장성택의 조카 장용철도 말레이시아주재 대사로 재직하고 있다. 군 수뇌부들인 총참모장 리영호의 아들 리선일, 전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의 사위 차동섭, 국방위 부위원장 리용무의 아들 리철호,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의 아들 김철,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의 아들 오세현 등도 무역회사 책임자로서 외화벌이와 투자유치 같은 대외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오극렬의 사위인 서호원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1947년에 설립되어 북한의 대외보험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외보험총국장 서동명은 항일빨치산 원로로

230. 『조선중앙통신』은 3월 22일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47차 전원회의가 열려 “1비서 리용철을 연령상 관계로 해임소환하고 전용남을 새 1비서로 선거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연령을 해임 사유로 밝힌 점에 미루어 40대의 리용철을 교체해 청년동맹의 전반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I
II
III
IV
V
VI

● 표 V-12 전·현직 고위간부의 2세 현황

구분	전·현직 고위간부	직책	관계	2세	2세의 직책
당	전문섭	중앙검열위원장	사위	김영일	당 국제비서
	리명재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아들	리용호	외무성 부상
	김국태	중앙검열위원장	딸	김문경	당 국제부 부부장
	"	"	사위	이흥식	외무성 국장
	허 담	대남 비서	아들	허 철	외무성 당 비서
	김 호	재정경리부장	아들	김 균	김일성대학 제1부총장
	리화영	조직지도부 부부장	아들	리용철	전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제1비서
	장성택	행정부장	조카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
	서 철	중앙검열위원장	아들	서동명	대외보훈총국장
군	최 현	인민무력부장	아들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아들	오일정	당 민방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조카	리용남	무역상
	오백룡	국방위 부위원장	아들	오금철	군 부총참모장
	"	"	"	오철산	해군사령부 정치위원
	리하일	국방위 위원	사위	박근광	당 국제부 부부장
	김철만	국방위 위원	아들	김태히	김일성대학 당 책임비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사위	리성호	무역성 부상
	"	"	"	차동섭	무역회사 책임자
	리영호	전 군총참모장	아들	리선일	무역회사 책임자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아들	리철호	무역회사 책임자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아들	김 철	무역회사 책임자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아들	오세현	무역회사 책임자
	"	"	사위	서호원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구분	전·현직 고위간부	직책	관계	2세	2세의 직책
최고 인민 회의	김영주	상임위 명예부위원장	사위	리명산	무역성 부상
	김영남	상임위 위원장	아들	김동호	외무성 과장
	”	”	딸	김호정	대외문화연락위 책임부원
내각	정일룡	부수상	사위	태종수	당 총무비서
	”	”	”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백남순	외무상	아들	백룡천	중앙은행 총재
	최재하	건설상	아들	최 휘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	”	”	최 연	무역성 부상
	심창완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아들	심철호	체신성 부상
	최영림	총리	딸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기타	리영구	김정일 주치의	아들	리광근	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오재원	만경대혁명학원장	아들	오룡철	무역성 부상

당 비서와 검열위원장을 지낸 서철의 장남이다.<sup>231</sup>

이 밖에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아들인 김동호와 딸 김호정도 외무성 과장과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책임부원으로 근무중이고 강석주 부총리와 김영일 당 국제비서의 자녀 등도 해외 공관에서 일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최측근 인사의 자녀 중 핵심 요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숫자만 42명에 이른다.<sup>232</sup>

북한에서 전·현직 고위간부의 자녀들을 대물림하여 권력엘리트로 편입하고 특혜를 주는 현상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것이기는

231. 『연합뉴스』, 2011년 4월 13일.

232. 『중앙일보』, 2012년 1월 11일.

하지만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다.<sup>233</sup>

김정은은 2012년 1월 24일 혁명유공자 등 핵심 권력층 자녀들이 다니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았다. 이 곳을 찾은 것은 권력엘리트들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대를 이은’ 충성심을 강조해 체제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실제 김정은은 이 곳에서 “학생들은 한생토록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갈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면서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당과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하는 신념의 강자들로 역세계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sup>234</sup>

전·현직 고위관리의 자녀들에 대한 특혜는 김정은정권의 안착을 위해 권력층을 운명공동체로 묶어 충성심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나, 이것이 특권층을 형성함으로써 대다수 전문 관료층은 물론, 일반 주민들의 불만을 사게 되고 결국 체제응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부류인 이른바 ‘아미산줄기’는 40~50대의 핵심 보안기관 간부들이다. ‘아미산’은 평양시내 서성구역과 용성구역, 대성구역 사이에 있는 해발 156m의 산으로 이 곳에는 김정일의 55호 관저를 중심으로 권력핵심기관인 호위사령부 1 및 2호위부와 2국이 남쪽에, 서남쪽에 국가안전보위부, 서북쪽에 인민보안부 그리고 동쪽에 군 보위총국이 있다. 이처럼 아미산 주위에는 호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군 보위총국 등 체제 안정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단속하는 핵심 보안기관들이 모두 집결되어 있는데, 김정은에 의해 장악된 이 곳의 간부들을 ‘아미산줄기’라고 부른다.

---

233. 『데일리NK』, 2012년 1월 10일.

234. 『로동신문』, 2012년 1월 25일.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보안계통의 기관을 권력기반으로 삼고자 했고 2009년 3월경부터 국가안전보위부장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sup>235</sup> 김정일도 자신은 “군을 중심으로 한 선군정치를 해 왔지만” 김정은은 “보위부를 중심으로 정보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침을 주었다고 한다.<sup>236</sup> 이 무렵 보안계통의 기관을 강화하는 징후가 뚜렷했다. 2009년 4월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인 우동측은 17년 만에 상장으로 승진하여 국방위원이 되었고, 또 1년 만인 2010년 4월 다시 대장으로 진급했다. 김정일은 보위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2009년 4월, 2010년 2월과 4월, 세 차례 관람했고 2009년 11월 9일에는 인민보안성 예술선전대의 공연도 관람했다. 그리고 화폐개혁 직전인 11월 22일 인민보안성을 최초로 방문했고 2010년 2월에는 인민보안성 협주단의 공연도 관람했다. 2010년 4월에는 인민보안성이 인민보안부로 승격되어 국방위원회의 직속기관이 되었다.<sup>237</sup> 이 외에도 김정은은 2009년 2월 인민무력부 정찰국과 당 작전부, 35호실을 통합하여 정찰총국으로 개편한 뒤 모든 권한을 틀어쥐었다.<sup>238</sup> 이 과정에서 그를 둘러싼 보안기관의 간부들이 김정은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sup>239</sup> 뇌출혈로

235. 『자유아시아방송』, 2009년 12월 31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이 “우리의 보위부장은 김정은 대장동지,” “김정은 동지는 우리의 영원한 보위부장”이라며 전 보위원에게 김정은을 ‘우리 부장동지’로 부르도록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보위부장을 맡았다는 설이 돌았다는 주장도 있다. 장용훈, “북한을 움직이는 핵심인물은?”

236. 『연합뉴스』, 2010년 4월 20일.

237. 『연합뉴스』, 2010년 4월 6일.

238. 『동아일보』, 2010년 4월 22일.

239. 김정일도 후계자 신분으로 권력기반을 구축할 때 재학 시 친분을 맺은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사람들을 다수 등용했다. 이들은 이른바 ‘룡남산 줄기’라 불렸다. 김정일이 대학 민청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관계를 가졌던 당시 각 학부, 학과의 당 세포비서 및 민청 위원장들과 위원들이다.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I
II
III
IV
V
VI

쓰러졌다고 하는 우동측 제1부부장 외에 김창섭 정치국장 등이 핵심 인물이다.

또한 김정은의 현지도 및 시찰을 수행하는 간부의 면면을 볼 때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중장 리두성이다. 그는 2011년 10월 김정일의 군 관련 활동을 2차례 수행했을 뿐인데 김정은의 현지도는 자주 수행하는 새로운 인물이다. 김정은의 선전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는 2010년 9월 김정은이 대장에 임명될 때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이로 미루어 김정은을 보위하기 위해 발탁했을 개연성이 있고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군 총정치국을 통해 군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측근으로 부상했을 가능성이 있다. 리두성 외에도 상장 조경철, 윤동현, 손철주, 박정천 등이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이다. 조경철은 보위사령부 사령관이라는 보도가 있고 손철주는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으로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원홍의 후임으로 보인다. 조직부국장과 양대 산맥인 선전부국장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이동했다. 이들 밑에 리두성, 로홍세 중장이 각각 조직부장과 선전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소장 군인들인 이들이 부상한 것은 김정은이 현지도 수행자를 선정할 때 상대적으로 젊은층을 선호한 때문으로 관측된다. 총참모부 작전국장 역시 김명국에서 최부일 부총참모장으로, 김정은이 관심을 쏟는 전략로켓사령관에는 최상려에서 김낙겸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240</sup>

---

2011년 2월 1일.

<sup>240</sup>. 『중앙일보』, 2012년 7월 3일.

## 4. 신세대의 경향과 지향

현재 북한 권력엘리트의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김정일 세대의 3, 4세대와 다음 세대의 엘리트로 성장할 김정은의 5, 6세대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선 3, 4세대들은 70년대 초반 3대혁명의 주축세력으로서 유일사상체계의 기초 축성에 기여했고 북한체제의 최고 전성기를 품미했으므로 체제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즉, 이 세대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에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시혜를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투철한 혁명성을 보일 수 있다.<sup>241</sup> 하지만 5, 6세대는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하고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는 등 개방적 경향을 띠는 반면 경제적으로 점차 쇠락해가던 시기에 성장했으므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3, 4세대에 비해 다소 약할 가능성이 있다.

2011년 현재 통계청이 추계한 북한 총인구는 약 2천 4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30~40대 초반의 인구는 총인구의 약 25%인 578만 명 정도이다. ‘고난의 행군’과 배급단절 시기에 중학교 또는 대학교를 다닌 이 세대를 ‘식량난 세대’로 명명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 세대는 북한경제의 불안정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국가와 집단에 대한 헌신보다는 가족과 개인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생적인 시장화의 결과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가 주도하고 과거 부모세대가 순응했던 ‘정치적’ 성격의 삶보다는 물질과 개인 중심의 사고에 기반한 삶을 추구한다. 부모세대가 ‘사회정치적

<sup>241</sup>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29~31.

생명'을 중시하고 입당을 선호하였다면 이들은 '오늘을 위한 오늘 의 삶'을 풍요롭게 할 물질을 중시하고 실리에 밝다. 비사회주의 검열과 사회적 감시·통제를 의식하지만 부모세대와 달리 '일상화된 뇌물'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을 통해 국가강압기구의 통제를 벗어난다.<sup>242</sup> 북한당국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가치에 철저하지 못한 이 세대의 이탈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들에 대한 사상교육에 힘써 왔지만 사회적 조류를 거슬리지는 못하는 형국이다.<sup>243</sup>

2012년 5월 초 미국 방송평가회사인 인터미디어(Inter Media)는 미 국무부의 의뢰를 받아 94쪽 분량의 『조용한 개방: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의 북한인』이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10~2011년 탈북자와 북한 난민 650여 명을 인터뷰해 작성된 것인데, 골자는 “북한 주민이 더 많은 유형의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정보 원으로부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변화로 북한 주민과 지도층 간, 북한 정권의 묘사와 현지 사실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기술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외부 매체를 접하면 아직도 아무 근거 없이 엄한 처벌을 받지만, 북한 주민은 대체로 적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불시 단속에 주민은 뇌물로 종종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줄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정권은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속에서 있다.

<sup>242</sup>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sup>243</sup> 필자가 면접한 24세의 한 탈북군인은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해서 자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부모들이 피나게 벌어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지금 우리 밑의 세대는 그런 경향이 더 농후해요”라고 대답했다. 탈북군인 000의 증언, 2011년 5월 23일.

물론 30~40대의 일반주민과 김정은정권의 버팀목으로 성장할 신진 권력엘리트의 체제에 대한 일체감은 매우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3, 4세대보다 더 실리적이고 대외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sup>244</sup> 전례없이 북한이 로동신문에 국방위원이나 정치국원 등 주요인사의 이력을 소개하고 주요 정치행사에 서방 언론들을 초청하여 취재를 허용하는 것 등은 폐쇄성의 고수가 실익이 없다고 느끼는 이들 세대의 작품일 개연성이 있다. 김정은 자신도 공개행사에 거리낌 없이 부인 리설주를 대동하고 있다.

북한의 새세대 권력엘리트의 일상 의식을 조사한 또 다른 연구는 현재의 40~50대 세대 역시 그 이전 시대와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세대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통일, 중국의 개혁·개방 등을 역사적 사실로 체험한 세대”이자 “북한의 경제난을 북한체제의 본질로 체험한 세대”로서 이 세대가 정권을 이양받으면 권력이 더 이상 낡은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세대는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후계체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김정일이 존재하는 한 경제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후계자가 누가 되든지 더 이상 신격화를 못하며 신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고 부담이 덜한 후계자가 나서야 개혁·개방할 수 있다고 본다.<sup>245</sup>

앞으로 북한을 이끌어나가고 김정은체제의 주축이 될 집단은 3, 40대의 혁명 5, 6세대이다. 2010년 9월의 당 대표자회를 통해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

<sup>244</sup> 정영태 외,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80.

<sup>245</sup>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p. 192~194.

I
II
III
IV
V
VI

다. 이는 당의 전위대인 청년동맹을 통해 신진엘리트를 양성·배출하고 향후 이들이 김정은정권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2011년 2월 26일 평양에서 ‘선군청년총동원대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대회에 전달한 당 중앙위 축하문을 통해 “청년들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선군청년총동원대회라는 명칭의 행사를 연 것은 처음으로, 김정은정권의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국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우리의 청년대오를 영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룬 정의의 대오로 철통같이 다지자”고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3, 4세대 후견그룹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권력기반을 굳건히 구축해야 하는 김정은은 앞으로 이들 후견그룹과 김정은식 사회주의 건설을 담당할 5, 6세대 신진 엘리트들의 성향 차이에 따른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 VI. 결론



북한에서 김정은은 당의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최고사령관으로서 당·정·군의 최고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북한 관영언론들의 선전처럼 ‘유일적 령도체계’ 아래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로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갖는 의문은 김정은이 국정 of 모든 분야를 확고히 장악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현실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권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유력한 정치인들이 뒤를 돌보아주면서 일정한 분야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이다. 하지만 전자이든 후자이든 권력엘리트들의 이합집산과 그 동향은 김정은의 권력행사와 체제의 안정성에 있어서 핵심 변수이다.

김정일로부터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사명을 받은 리영호 군총참모장이 지난 7월 갑자기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북한 권력엘리트 간 권력투쟁설이 봇물을 이루었는데, 권력투쟁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엘리트 간 갈등이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제II장에서 기술한 바대로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정책갈등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책경향모델(policy tendency model)은 최고지도자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권력엘리트 집단 간 정책경쟁의 산물로 본다. 관료정치모델(bureaucratic politics model)은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정책갈등을 제도화된 조직이나 기구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경쟁으로 설명한다. 반면 파벌주의-권력모델(factionalism-power model)은 파벌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정책갈등을 파벌 간의 권력투쟁으로 설명한다. 후원자-추종자관계모델(patron-client model)은 인간관계

I
II
III
IV
V
VI

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후원자-추종자 간의 ‘보호와 충성의 상호교환’ 관계를 통해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갈등을 설명한다.

이러한 모델을 염두에 두면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구조와 네트워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

우선 2010년 9월 28일에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선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를 보면 남성이 절대 다수이며, 연령대로는 70대, 출신지역으로는 평안도, 출신학교로는 김일성종합대학이 가장 많다. 인구사회학적 분포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권력엘리트의 고령화와 권력의 지속성, 절대 다수 남성 중심의 권력구도 등으로 집약된다.

또한 세대 연고, 지역 연고, 학교 연고, 혈통 연고, 직업·장 연고, 측근 연고 등을 통해 본 중앙위 위원·후보위원의 네트워크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항일빨치산 1세를 비롯한 혁명 1세대의 퇴조와 3·4세대의 부상, 특정지역 출신의 상대적 우위, 권력엘리트의 분야별 전문성, 권력의 응집성 등이다. 노동당과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각 기관별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로는 정치국의 노령화, 출신지역(평안도·함경도) 및 출신학교(김일성종합대학·만경대혁명학원)의 편중, 항일빨치산 2세를 비롯한 혁명 2세대·3세대의 약진, 주요 직책의 겸직과 권력의 중첩성 등이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제3차·제4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국가기구·군 등의 권력기관에서 요직을 맡아 했거나, 또는 맡고 있는 인물 52명을 대상으로 상위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절대 다수가 남성(50명)

이며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연령대는 70대가 가장 많고 총 52명 가운데 70대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써 상위 권력엘리트의 고령화를 나타낸다. 출신지역으로는 평안도와 함경도가 가장 많으며 출신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이 가장 많다.

또한 연고 및 권력(주요 직책)의 중첩성, 권력의 지속성 등을 통해 보면, 특히 60대의 권력엘리트들 가운데 권력의 집중성이 높은 인물은 장성택, 김경희, 그리고 최룡해이다. 장성택, 김경희, 최룡해 등 세 인물은 연고(지연·학연·직연) 및 권력(주요 직책)의 중첩성·지속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백두혈통’, ‘항일빨치산 혈통’ 등의 연고로 권력의 집중성이 더 높아진 인물들이라 하겠다.

이상이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추출한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의 특징이라면 권력엘리트 간 상호접촉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에서는 또 다른 몇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 최고인민회의 11기 기간인 2003년 9월부터 김정일 건강 악화 시기인 2008년 8월까지를 1시기, 김정일 와병기간인 2008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김정은이 대중 앞에 공식 등장하기 이전의 과도기를 2시기,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개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기까지를 3시기, 김정일 사후부터 2012년 7월까지를 4시기로 구분하면 네트워크 밀도는 3시기와 4시기에 증가된 반면, 네트워크 집중도는 2시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시기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김정은시대 들어 더욱 감소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쓰러졌다가 활동을 재개한 이후부터 김정은의 현지도도 수행이 공개되기 전까지의 위기 상황에서는 엘리트들이 김정일 1인을 중심으로 강하게 응집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후계자가 대중적으로 공개되고 본격적

I
II
III
IV
V
VI

인 권력이양이 이루어진 시기에는 김정은 이외에 장성택을 비롯하여 최룡해, 김경희, 박도춘, 김영춘 등과 같이 네트워크의 또 다른 중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 부각되었고, 이들과 여타 엘리트들 간의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집중도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 것이다.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의 변화 추이를 종합하면, 김정은시대에 엘리트 간의 응집력이 보다 커졌으며, 그 중심점에는 최고지도자 1인뿐만이 아니라 장성택, 최룡해와 같은 특정 엘리트들의 연합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 시기별로 높은 중심성 수치를 기록한 엘리트들을 살펴보면, 2시기 들어 새롭게 등장하거나 급격히 부상한 인물들은 김경희, 장성택, 리영호, 김정각, 현철해, 리명수, 김양건, 김원홍, 김명국, 주규창, 리재일, 김영일 등이다. 3시기에는 장성택과 김경희 등 혈족 세력이 확고한 위치를 잡았고, 최룡해, 박도춘, 주규창, 김경옥 등이 약진하였으며, 김창섭과 문경덕도 상위 순위로 진입하였다. 김일철 등의 구군부세력을 대신하여 리영호, 윤정린, 김영철 등의 신군부세력이 세를 얻었으며, 오일정, 최부일과 같은 소장파 군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정은정권의 핵심엘리트들은 대부분 3시기 네트워크 상에서 이미 상당한 세력을 형성한 것이다. 4시기는 대체로 3시기에 주요하게 등장한 엘리트들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룡해, 김원홍, 현철해 등이 특히 부상하였고, 김경희는 위세중심성이 떨어졌으며, 김영춘은 다시 순위가 상승하였다. 또한 리병삼, 리병철을 비롯하여 손철주, 박정천, 조경철, 오일정 등 군부 내의 비교적 젊은 엘리트들이 부상하였다.

높은 위세중심성을 기록한 엘리트들의 시기별 변화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엘리트들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것이다. 4시

기에 현지지도를 수행한 주요 엘리트 30명의 평균 연령은 실제로는 70세 미만으로, 김정일시대와 비교해볼 때 5세 이상 낮아진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특히 군부를 중심으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 군, 국가기관 소속별 엘리트의 위세중심성 정도도 시기별로 달라졌는데, 전반적으로는 모든 시기에 당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군이나 국가기관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특히 2시기와 3시기에 당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김정일의 건강 이상이 가시화된 직후인 2시기와 김정은체제 구축을 위한 과도기인 3시기에 당 소속 인물들의 역할이 다른 시기에 비해 중요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4시기에는 당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 대비 군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각 시기 중 가장 높게 나타나, 김정은체제 초기에 군 관련 현지도 활성화를 통한 군 계통의 장악이 중요한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김정은정권이 공식 출범한 뒤 새롭게 떠오르는 신진 권력엘리트들은 별로 없다. 물론 장성택, 최룡해, 김원홍, 리명수, 현영철, 조연준 등 권력무대에서 더욱 존재감을 과시하는 인물이 있는 반면, 리영호, 우동측 등 무대에서 사라진 인물들이 있는 등 인물에 따라 부침은 있으나 김정은정권에서의 새로운 권력엘리트 지형으로 지적할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해놓은 권력엘리트 구성을 당분간 무너뜨릴 수 없는 김정은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과거계승성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인사를 하기에는 권력승계 기간이 아직 짧은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정은정권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세대교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세대교체로 새로 임명되고 부상하

I
II
III
IV
V
VI

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2세들이고 또 한 부류는 보안계통 인사들이다. 북한에서 전·현직 고위간부의 자녀들을 대물림하여 권력엘리트로 편입하고 특혜를 주는 현상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다. 새롭게 부상하는 또 하나의 부류는 40~50대의 핵심 보안기관 간부들이다.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보안계통의 기관을 권력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그를 둘러싼 보안기관의 간부들이 김정은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Ⅲ, Ⅳ, Ⅴ장에서 이끌어낸 이러한 결론은 북한 권력엘리트 간 갈등을 분석할 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컨대 ‘6.28 방침’과 같은 조치를 정책경향모델에서는 적어도 두 그룹 이상, 즉 장성택을 위주로 한 개혁파와 리영호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 간 경쟁의 결과로 해석한다. 두 집단 간의 대립은 북한이 처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專)’의 그룹과 선군노선 같은 이데올로기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홍(紅)’의 그룹 간 경쟁의 결과라는 것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과대성장한 군부의 막대한 경제적 기득권을 내각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군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리영호의 해임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은 그 전형이다. 반면 파벌주의-권력모델은 북한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이나 영향력을 위해 경쟁하고 반대세력의 형성·강화를 방지·제거하며, 같은 세력 내 구성원들의 결속·충성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한다. 북한처럼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을 생활규범화하고 있는 곳에서도 반규범적인 사적 연줄망이 개인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치체계의 공유를 통해 협력하는 비공식적인 파벌들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최룡해를 비롯해 장성택과 비공식적인 사적 관계로 결속되어 있는 인물들의 일정한 파벌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이 모델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Ⅲ장에서는 직업상 경력이나 측근 연고를 통해, 제Ⅳ장에서는 상호 접촉의 빈도와 그 성격을 통해 권력엘리트 간 사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 초기 나타났던 권력엘리트 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면 권력엘리트 집단의 폭넓은 세대교체, 테크노크라트와 전문관료의 등용 확대, 권력엘리트 집단의 문민화 경향, 권력엘리트 집단 내부의 파벌정치 확대, 권력엘리트 내부의 지방주의 및 지역주의 강화 등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과 소련 그리고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 모두가 안고 있었던 문제 중 하나는 권력엘리트 집단의 노령화 문제였다. 권력엘리트들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당 정치국과 서기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중국에서는 권력엘리트들의 퇴직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덩샤오핑시대에 60%가 넘는 당 중앙위 위원을 교체했다. 베트남 역시 제6차 당대회 이후 젊고 새로운 기술간부들이 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세대교체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현재 북한에서도 고위 엘리트층의 노령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김정은 등장 이후 세대교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 초기 세대교체의 핵심은 권력엘리트들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기술간부, 테크노크라트들의 비율이 증

I
II
III
IV
V
VI

가한 것이다.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등용된 핵심 권력엘리트들 중 다수는 대학을 졸업한 테크노크라트들이거나 당·정 간부를 역임한 전문관료 출신이었다. 중국의 경우 덩샤오핑시대에 등용된 당 중앙위 위원과 정치국원들은 마오쩌둥시대에 비해 괄목할 만한 교육수준을 가진 전문관료였다. 베트남에서도 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도이머이 정책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에 1991년 7차 당대회 이후에는 많은 기술관료들과 고급지식인층이 기용되었다. 제Ⅲ장에서 지적한 바대로 현재 북한에서 적어도 내각의 경우는 전문성이 존중받고 있고 당 기능의 복원과 더불어 당 내에서도 전문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 시기 권력엘리트 집단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기술관료와 지식인 그리고 당·정 간부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군 출신의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어 권력엘리트 집단의 문민화 현상이 강해진 것이다. 국내정치에서 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국내정치의 정상화 및 제도화가 진행되고 군의 전문화가 확대되면서 군의 영향력은 축소·조정되었다.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나 최룡해의 군 총정치국장 기용 등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소련·베트남은 개혁·개방 초기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정치에서 그리고 권력엘리트 집단 내부에서 파벌정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파벌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지연·학연 그리고 기타 공통적인 조직 경험을 매개로 형성된 사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개혁노선의 채택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도 ‘보호와 충성의 상호교환’을

바탕으로 한 사적 네트워크의 존재 가능성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개혁·개방으로의 정책변화 사례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권력엘리트의 지역적 구성과 지역주의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권력엘리트들의 지역적 분포가 불균등했는데, 이는 혁명의 지도자를 배출하거나 불균등 발전전략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에서는 지방정치 배경을 가진 특정 인사의 부침과 지역의 상징성에 따라 시기별로 특정 지역이 과다 대표된 사례가 있고, 베트남에서도 도이머이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남부베트남 출신들의 중앙 정계 진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북한에서도 제3차 당 대표자회 이후 지방당 책임비서들이 중앙당으로 대거 진출했는데, 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 권력엘리트의 신상이나 경력에 관한 정보가 예상 이상으로 불충분한 데 있었다. 이는 어떤 주제를 선택하든 북한연구에서 매번 겪는 어려움이지만 유독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고 연구결과를 검증할 수 없었던 점은 연구자들에게 많은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에서 제시한 몇 가지의 발견과 사회연결망분석의 적용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 변수에 따른 북한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해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북한 권력엘리트 자료로 국한하는 한 최대의 실증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I

II

III

IV

V

VI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고르바초프, 미하일 세르게비치. 고평식 옮김. 『페레스트로이카』. 서울: 시사영어사, 1988.
-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김용학.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2003.
- 김정계. 『중국의 권력투쟁사 (1949~1978)』. 서울: 평민사, 2002.
- \_\_\_\_\_. 『중국의 권력투쟁사 2: 개혁개방 이후부터 후진타오 정권까지』. 서울: 평민사, 2009.
- 라자놉스키, 니콜라스 V. 마크 D. 스타인버그. 조호연 옮김. 『러시아의 역사 (하)』. 서울: 까치글방, 2011.
- 밀스, C. Wrigh. 陳德奎 옮김. 『파워 엘리트』. 서울: 한길사, 1979.
- 박명규 외.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2.
-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_\_\_\_\_. 『북한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산케이신문 특별취재반, 임홍빈 옮김. 『모택동비록 (上)』. 서울: 문화과사상사, 2001.
- 서동만저작집간행위원회 엮음. 『북조선 연구』. 서울: 창비, 2010.
-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서울: 폴리테이아, 2009.

- 손동원. 『사회 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2002.
- 梁性喆. 『北韓政治研究』. 서울: 博英社, 1995.
- 吳明鎬. 『現代政治學理論』. 서울: 博英社, 1990.
-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_\_\_\_\_.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이무열. 『러시아역사 다이제스트 100』. 서울: 도서출판 가람기획, 2011.
- 이영종. 『후계자 김정은』. 서울: 늘품, 2010.
-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 전현준.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8-03. 서울: 통일연구원, 2008.4.
- 정승욱. 『김정일 그후』. 서울: 지상사, 2011.
- 정영태 외.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통일부 정세분석국. 『김정은 체제의 당·정 주요인물 분석·평가』. 서울: 통일부, 2012.7.16.
- \_\_\_\_\_.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서울: 통일부, 2012.
- 통일연구원 편. 『북한개요, 2009』.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_\_\_\_\_. 『2010 북한기관별 주요 인물정보』.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_\_\_\_\_. 『어둠의 편이 된 햇별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히라이 히사시, 백계문·이용빈 옮김.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김정 은체제』. 서울: 한울, 2012.

Bottomore, T. B. *Elites and Society*. Ham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64.

Communist Party of Vietnam. *6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Documents*.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7.

Dahl, Robert A. *Who Governs?: Democracy and Power in an American City*.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1.

Domhoff, William. *Who Really Ruler?: New Haven and Community Power Reexamined*. New Brunswick, N. J.: Transaction Books, 1978.

Etzioni-Halevy, E. *The Elite Connection: Problems and Potential in Western Democracy*. Boston: Basil Blackwell, 1993.

Field, G. L. and J. *Elitism Higley*. London: Routledge, 1980.

Hunter, Floyd. *Community Power Structure: A Study of Decision Makers*. Chapel Hill: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53.

Keller, Suzanne. *Beyond the Ruling Class: Strategic Elites in Modern Society*. New Brunswick, N. J.: Transaction Pub, 1991.

Laumann, E. O. and D. Knoke. *Organizational State: Social Choice in National Policy Domain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7.

- Michels, Robert.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New York: Collier Books, 1962.
- Mills, C. Wright. *The Power Eli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 Mosca, Gaetano. *The Ruling Clas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39.
- Moyser, G. and M. Wagstaffe (eds.). *Research Methods for Elite Studies (Contemporary Social Research Vol. 14)*. London: Allen & Unwin, 1987.
- Pareto, Vilfredo. *The Mind and Society III*. London: Jonathan Cape, 1935.
- Putnam, R. D.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Elite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6.
- Tin, Bui. *Following Ho Chi Minh: The Memories of a North Vietnamese Colonel*.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 Wasserman, S and K.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Zwick, Peter. *Soviet Foreign Relation: Process and Polic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90.
- 吳翰飛. 『中國公開選拔領導幹部制度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 謝慶奎. 『當代中國政府』.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996.
-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6』.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_\_\_\_\_.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2. 논문

강영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구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권속도.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1976~1990년대.” 『대한정치학회보』. 17집 1호 (대한정치학회), 2009.

권영경.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실태: 현황과 쟁점.”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평가와 전망』.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서울경제신문 공동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2012.

琴喜淵. “中國 엘리트의 갈등분석과 後援者-追從者關係.” 『中蘇研究』. 통권 56호 1992-3 겨울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992.

김갑식. “김정은 체제의 특징과 향후 전망.” 『6.15정신계승과 평화통일, 그리고 남북관계 전망』. 6.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 기념 특별학술회의 자료집, 2012.

\_\_\_\_\_. “북한 군부의 세대교체와 향후 전망.” 『이슈와 논점』. 496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김성주.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정치체제와 정책.” 『사회과학』. 37권 2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김종욱. “베트남 경제 발전의 정치동학 (1976~1997).” 『동남아시아 연구』. 제13권 2호 (한국동남아학회), 2003.

- 박영자. “북한의 권력엘리트와 Post 김정일시대.”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통일연구원), 2009.
- 박종철. “베트남의 체제개혁: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5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 박형중.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와 통치노선.” 『김정은 정권의 권력·통치구조와 정책』. 서울: 경향신문사, 2012.
- 서석민. “김정일 시대의 핵심엘리트 연구: 충원과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安秉萬. “고르바초프體制와 權力엘리트.” 『슬라브연구』. Vol. 4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988.
- 유영구. “과거계승성-미래지향성과 지도부의 ‘부분 연경화’.” 『민족 21』. 2012년 5월호, 2012.
- 이기동.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유일지배체제’ 균열 가능성 검토: 권력엘리트 간의 수평적 균열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2012.
- \_\_\_\_\_. “리영호 해임과 북한의 권력구조.” 극동연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12-2, 2012.
- 이상숙.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와 경제 개혁·개방정책 추진 가능성.” 외교통상부 주요국제문제분석 2012-17, 2012.
- 이윤범. “베트남의 정치·경제체제 변화: 도이머이 정책과 공산당 역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인정. “1980년대 이후 북한 ‘새세대’의 가치 변화 연구-‘청년전위’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한우. “‘도이머이’ 정책 이후 베트남 정치제도와 지도부의 변화.” 『베트남연구』. 제1호 (한국베트남학회), 2000.
- \_\_\_\_\_. “베트남의 선거제도와 국회 구성의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 제16권 1호 (한국동남아학회), 2006.
- 장용훈.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분석.” 『KNSI』. 제40-1호, 2012.
- \_\_\_\_\_. “북한을 움직이는 핵심인물은?” 『민족화해』. 통권55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2.
- 정창현.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당, 국가기구, 군대』. 서울: 한울, 2011.
- 정한구. “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과 북한의 장래.” 『세종정책연구』. 제5권 2호 (세종연구소), 2009.
- 周長煥·朴正鎬. “체제전환기, 중·러 정치 엘리트 비교 연구: 특성과 형성 배경을 중심으로.” 『中蘇研究』. 제34권 제1호 2010 봄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0.
- 최지영. “중국 간부제도 개혁과 정치안정.” 『국방연구』. 제55권 제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2.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_\_\_\_\_.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와 개혁·개방 전망.” 극동연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12-2, 2012.
- 현성일. “리영호 해임 이후 김정은 권력구조.” 극동연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12-2, 2012.
- Chanda, Nayan. “Changing the Guard.” *FEER*. Vol. 13, November 1986.
- Hoffman-Lange, U. “Surveying National Elite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 Moysen and M. Wagstaffe (eds.). *Research Methods for Elite Studies (Contemporary Social*

- Research 14*). London: Allen & Unwin, 1987.
- Kostiuchenko, T. “Central Actors and Groups in Political Elite: Advantages of Network Approach.” *Political Sociological Review*. Vol. 2 (174), 2011.
- McWilliams, Edmund. “Vietnam in 1982: Onward into the Quagmire.” *Asian Survey*. Vol. 23, No. 1, 1983.
- Pike, Douglas. “Vietnam.” *1988 Yearbook on International Communist Affair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8.
- \_\_\_\_\_. “Vietnam in 1991: The Turning Poin.” *Asian Survey*. Vol. 32, No. 1, 1992.
- Ruostetsaari, I. “The Anatomy of the Finnish Power Elit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Bind 16 (New Series). Vol. 4, 1993.
- Sam, Dao Xuan. “New Steps in the Change to the Market Economy (1979~2007).” Dao Xuan Sam and Vu Quoc Tuan (eds.). *Renovation in Vietnam: Recollection and Con-templation*. Hanoi: Knowledge Publishing House, 2008.
- Zuckerman, A. “The Concept ‘Political Elite’: Lessons form Mosca and Pareto.” *The Journal of Politics*. Vol. 39, No. 2, May 1977.
- 日本國際問題研究所. “彭德懷國防部長の毛澤東主席あての意見書.” 『中國大躍進政策の展開: 資料と解説 (下卷)』.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74.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 참된 당일군을

키워내자 (창립45돛을 맞는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6월1일).”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_\_\_\_\_.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창립 45돛을 맞는 인민경제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7월 1일).”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_\_\_\_\_.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1995년 12월 25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_\_\_\_\_. “만경대혁명학원은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갈 핵심골간양성 기지이다 (만경대혁명학원창립 50돛에 즈음하여 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86 (1997)년 1월 12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3. 기타자료

김인태. “북한 고위간부의 동향.” 김정은체제의 신진 권력 엘리트 연구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2.3.16.

박형중. “당대표자회와 과도적 권력체계의 출범.”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010-38, 2010.10.11.

\_\_\_\_\_. “김정은 통치연합의 출범과 특징.”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18, 2012.4.23.

유영구.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 결산.” <<http://blog.daum.net/chamjisa/3075>>, 검색일: 2012.4.14.

OOO (북한이탈주민). 2012년 3월 16일 면접.  
OOO (북한이탈주민). 2012년 7월 12일 면접.  
탈북 고위관리 OOO의 증언. 2012년 3월 16일.  
탈북 고위관리 OOO의 증언. 2012년 7월 12일.  
탈북 군인 OOO의 증언. 2011년 5월 23일.

『경향신문』. 2012년 8월 23일.  
『국민일보』. 2011년 12월 20일.  
『노컷뉴스』. 2012년 4월 13일.  
『데일리안』. 2012년 8월 9일.  
『데일리NK』. 2011년 5월 10일.  
\_\_\_\_\_. 2011년 6월 20일.  
\_\_\_\_\_. 2012년 1월 10일.  
『동아일보』. 2010년 4월 22일.  
\_\_\_\_\_. 2012년 8월 25일.  
『매일경제』. 2012년 2월 23일.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2011년 2월 1일.  
\_\_\_\_\_. 2011년 10월 2일.  
『연합뉴스』. 2010년 4월 6일.  
\_\_\_\_\_. 2010년 4월 20일.  
\_\_\_\_\_. 2011년 4월 13일.  
\_\_\_\_\_. 2012년 4월 29일.  
『열린북한방송』. 2010년 7월 12일  
『자유아시아방송』. 2009년 12월 31일.

\_\_\_\_\_. 2011년 5월 10일.

『좋은 벗들』. 421호 (2011.9.21).

\_\_\_\_\_. 422호 (2011.9.28).

\_\_\_\_\_. 434호 (2011.12.22).

『중앙일보』. 2012년 1월 11일.

\_\_\_\_\_. 2012년 4월 17일.

\_\_\_\_\_. 2012년 7월 3일.

『SBS뉴스』. 2012년 8월 6일.

『로동신문』. 2006년 2월 28일.

\_\_\_\_\_. 2006년 10월 15일.

\_\_\_\_\_. 2007년 3월 19일.

\_\_\_\_\_. 2011년 12월 22일.

\_\_\_\_\_. 2012년 1월 25일.

\_\_\_\_\_. 2012년 4월 12일.

『조선문학 7』.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조선중앙통신』. 2009년 10월 20일.

\_\_\_\_\_. 2010년 6월 20일.

\_\_\_\_\_. 2010년 11월 25일.

\_\_\_\_\_. 2012년 3월 22일.

\_\_\_\_\_. 2012년 4월 14일.





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중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외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 I )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 II )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중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 I )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 II )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 III )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무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9,000원

###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 논총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d. 19, No. 1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d. 19, No. 2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d. 20, No. 1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d. 20, No. 2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d. 21, No. 1 (2012)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 기타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 통일정세분석

## 비매품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양: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철,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 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 KINU 정책연구시리즈

## 비매품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예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그리고 한국의 정책적 고려	이영형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 Studies Series

비매품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 기타

비매품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성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무처				
	직위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연락처	전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시십시오.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2-05

www.kinu.or.kr

#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 임순희 · 조정아 · 송정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